

저자의 한마디

나는 '화요일의 룩상 램파'입니다. 그게 내 유일한 이름이고 이제는 법적인 이름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답신하지 않습니다. 많은 편 지들이 희한한 이름들을 붙인 채로 내게 오지만 그것들은 공장 쓰레기통 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 유일한 이름은 '화요일의 룩상 램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쓴 모든 책은 진실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모든 것은 진실입니다.

몇 년 전에 영국과 독일의 신문들은 내가 나 자신을 변호할 수 없었을 때에 나를 비방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당시 관상동맥혈전증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던 나는 무자비하고 광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몇몇 사람들은 나를 시기해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증거'의 수집자가 한 번도 나를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 합니다. '피소된 사람'에게 그 자신의 이야기를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지요. 누구든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 입니다. 그러나 나는 '유죄'가 입증된 일도 없고, 나 자신이 진실하다는 걸 입증 할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의 신문들은 그들 지면의 어느 부분도 내게 허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백하고 진실했지만, 누구에게도 내 이야기 를 알릴 수 없는 불행한 처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큰 텔레비전 방송 국 한 곳이 내게 인터뷰를 제의하긴 했지만 그들조차도 내가 자신들 입맛 대로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쉽게 말해 , 거짓말을 지껄이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기에 그들의 방송에 출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쓴 모든 것은 진실입니다. 내 주장은 모두 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강조하는 특별한 이유는, 가까운 장래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또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이 악의와 증오로 인해 내가 겪은 바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절대적으로 근거가 확실한 문세를 보았습니다. 내가 티베트 라사의 고승이었고 중국에서 훈련을 이수하 31 자격을 얻은 의학박사임을 증명하고 있는 문서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문세를 보았음에도 신문이 꼬치꼬치 캐고 들었을 때 어쩐지 그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부디 당신은 이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는 내 호소에 마음을 열고 이 책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이 책을 읽다 보면 당신은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T. 톱상 탐파

서문

이 책은 미지의 것들을 알아가는 데 진지한 관심을 둔 사람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교육과정이다.

처음엔 통신강좌의 형태로 공개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러려면 적잖은 절차와 함께 수강자들에게 강좌당 약 35 파운드의 요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출판사의 협조를 얻어 이 과정을 책의 형태로 제작하기로 했다.

보통 통신강좌를 수강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거리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나는 이 책의 독자들이 가질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 가난하고 불우한 저자는 책을 썼다고 해도 큰돈을 벌지 못한다. 실은 겨우 입에 풀칠하는 처지일 뿐이다. 그럼에도 그는 세계 곳곳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는데, 그 발송자들은 반송우표를 동봉하는 일을 종종 '잊어버린다'. 그럴 때마다 그는 그 편지를 무시할 것인지 제 돈을 들여 답장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게 된다.

내 경우엔 몹시 미련하게도 스스로 그 비용을 부담해왔다. 하지만 편지를 사고, 답장을 타이핑하고, 우표를 붙일 때마다 결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런 점을 배려해주지 않는 사람들의 질문이나 편지에는 일절 답신을 해줄 처지가 못 된다.

당신도 독 X)로서 공감할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다. 내게 편지를 보내서, 내 책이 너무 비싸니 복사본을 공짜로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중에 어떤 사람은 내 책들 전부를 복사하고

자필 서명까지 해서 보내달라고, 게다가 다른 저자들의 책 두 권까지 추가로 구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했다. 그렇다, 나는 그런 편지에도 답신을 해^^다!

나는 당신에게 단호하게 말한다. 이 책을 읽는다면 많은 유익함이 있을 거라고 이 책을 깊숙이 파고든다면 더 많은 유익함이 있을 거라고 나는 당신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신강좌라면 필요 없었을<교육지침>도 따로 마련했다.

나는 이 책의 뒤를 이어서, 갖가지 신비와 일상의 주제에 관한 전문적인 해설서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책(아주 특별한사전)을 선보일 계획이다. 나는 그런 책을 구하려고 세계의 온 나라를 뒤지다가 직접 쓰기로 했다. 그 책*은 앞서 나온 이 책을 온전히, 그리고 가장 유익하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도우미가 될 것이다.

T. 톱상 ^과

교육지침

우리 —당신을포함한우리 모두—는당신의 영적 능력이 순조롭게 계발되도록 함께 협력해야 한다. 이 과제들 중 어떤 것은 좀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까다로울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제들은 괜히 부풀려진 게 아니다. 이것들은 장식적인 들러리는 배제하고 진짜 '알짜배기'만을 모은 것이다.

이 과제들을 공부하기 위해 매주 일정한 밤 시간을 선택하라.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마다정해진 장소에서 공부하는 습관을들이라. 이 공부는 그저 문자를읽는 것 이상의 무엇이다. 당신은 아주 낮은 사상들을 흡수해야하므로, 이 정신훈련에서 규칙적 습관은지대한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장소나 방을 따로 정하라. 당신이 편안할수록 배움은 더 용이해진다. 원한다면 누워도 좋다. 어떤 경우에도 근육에서 아무런 긴장이 느껴지지 않게 하겠다는 태도여야 한다. 충분한 이완 속에서 당신의 모든 주의가 인쇄된 문자와 그배경의 사상을 향하도록 하라. 당신이 긴장해 있으면, 의식의 대부분이 그 긴장된 느낌을 지각하는 데 소비된다.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그 과제를 읽는 데 얼마나 오래 걸리든 간에 아무것도 당신의 의식을 침범하여 사고의 흐름을 끊을 수 없도록 확실하게 준비해두라.

당신만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되도록 문은 잠그고, 창문 밖의 일렁임이 주의를 흐뜨리지 않도록 블라인드도 치라. 방에는 단지 등 하나만을 켜놓으라. 독서등 하나를 당신 뒤편에 켜놓는 정도가 좋겠다. 그러

면 책을 읽기에도 적당하고 , 방의 나머지 공간도 알맞게 어두워진다.

당신에게 아주 편안하고 휴식을 주는 자세를 취하라. 눕는 것도 좋다. 그리고 잠시 긴장을 풀고 심호흡하라. 아주 깊은 호흡을 세 번에 걸쳐 반복하라. 숨을 3~4초간 들이쉬고 다시 3~4초간 내쉬면 된다. 그리고 몇 초간 고요하게 휴식을 더 취하라.

이제 책을 집어 들고 오늘의 교과를 읽으라. 처음엔 한가롭게 읽으라. 마치 신문을 읽는 것처럼 구냥 훑어보라. 그런 후에는 잠시 내려놓고, 당 신이 가볍게 읽은 내용이 잠재의식 속으로 가라앉도록 두라.

그리고 읽기를 다시 시작하라. 이번엔 교과 내용을 구절마다 세심하게 되짚어보라. 만일 이해가 안 가거나 당혹스러운 데가 있으면 그걸 메모해서 손에 잡히는 노트에다 적어두라. 어떤 것도 기억하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 인쇄된 문자에 얽매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강좌의 목 적은 오직 그것들을 당신의 잠재의식 속으로 가라앉게 하는 데 있다. 의 식적으로 기억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그 내용의 완전한 의미를 알지 못하게 한다. 당신은 특정한 구절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도록 시키는 시험을 보 려는 것이 아니다. 당신 자신을 삶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인간 육체의 본질을 깨우쳐주고, 지상에서의 삶의 목적을 재설정하게 해줄 지 식을 쌓으려 하는 것이다.

교과를 다 되짚어본 다음에는 , 메모해둔 내용을 중심으로 당신을 당혹게 하는 논점과 당신에게 분명하지 않은 논점들에 대해 숙고하라. 그제 나에게 편지를 보내 해답을 구하는 식의 단일한 태도로는 그것들을 당신 의 잠재의식 속으로 가라앉힐 수 없다. 당신 스스로 그 해답을 생각해내는 것이 당신 자신에게 가장 유익하고 또 친절한 일이 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거저 주어진 것은 그것이 그만큼 가치 없는 것 이라는 뜻이다. 당신은 마음을 열어야 한다. 당신은 기꺼이 새로운 지식을 흡수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 지식이 당신에게 흘러서온다고 '상상 해야' 한다.

기억하라. 인간은 생각하는 그대로 된다는 것을.

제 1 과

초자아(Q_đ)의 특성을 이해하거나 '비밀리에 전승되는 술법' (occult, 이하 비술秘術로 약칭)을 다루기에 앞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부터 확실히 파악해두어야한다.

이 강좌에서 우리는 '인간<_>'이란용어를 '남성과 여성'을모두포괄하는 뜻으로 쓰려고 한다. 미리 명백히 밝혀둘 사실은, 여성들 또한 비 술과 초감각적 인지의 모든 측면에서 최소한 남성들과 동등한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오히려 형이상학적 차원들에 다가가는 데에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밝은 오라와 더 큰 수용력을 보이곤 한다.

삶이란 무엇인가?

단언컨대 , 존재하는 것은 그 모두가 '생명'이다. 우리가 소위 '죽었다'고 하는 존재조차도 실은 살아 있다. 그 삶의 전형적인 형태가 끝나버렸다고 해도 —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것인데 — 그 '삶'의 마감과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삶이 뒤이어 자리 잡기 때문이다. 소멸의 과정은 그 스스로 삶을다시 창조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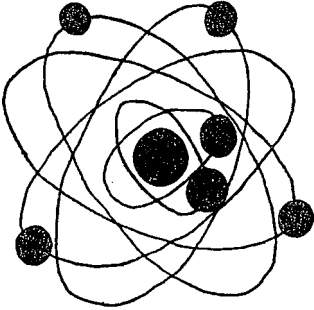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진동한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분자로 *

*이 책에서 초자아는 심리학 용어 **super-ego** 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쓰인다(《선인들의 지혜》53 쪽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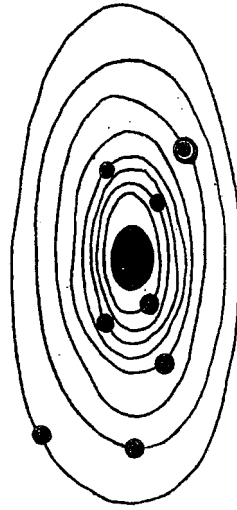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우리는 원자, 중성자, 양자 같은 용어를 모두 '분자'로 총칭해서 쓸 것인데, 그것은 본 강좌가 형이상학의 한 과정이지 화학 또는 물리학의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리려는' 것이지 불필요한 세부사항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자는 게 아니다.

그래도 분자와 원자에 대해 몇 마디는 해둬야 할 듯싶다. 그러지 않으면 순진한 친구들이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지식을 편지로 써보내며 시비를 걸 테니까. 분자는 아주작지만전자 현미경을사용하면 볼수 있다. 형이 상학적 기예(초감각적 인지능력, 역주)에 익숙한 사람들 또한 분자들을 볼 수 있다. 사전에 의하면, 분자는 독립적인 존립을 가능케 하는 최소단위의 물질로서 그 물질만의 고유한 특성을 갖는다. 그리고 분자는 그보다도 더 작은 입자, 즉 '원자'들로구성되어 있다.

원자는 태양계의 축소판과도 같다. 원자의 핵은 태양계에서는 해에 해당한다. 태양계에서 해의 주위를 행성들이 선회하듯, 원자 속에서는 핵 주위를 전자들이 선회하고 있다. 그리고 태양계와 마찬가지로 원자라는 단위체 역시 그 대부분이 텅 비어 있다. 여기<그림 1>은우리 우주의 '벽돌'이라 할수 있는 탄소 원자를 크게 확대했을 때의 모양을 보여준다. 우리 태양계의 모습인<그림 2>와 한 번 비교해보라.



〈그림 1〉 탄소 원자



〈그림 2〉 태양계

물질마다 핵 주위를 도는 전자의 숫자는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우라늄은 92개의 전자를 갖고 있다. 탄소의 전자는 불과 여섯 개고, 그중 둘은 핵 가까이서 그리고 넷은 좀더 먼 거리에서 궤도를 돈다. 그렇지만 우리는 편의를 위해 물질의 기본요소를 모두 '분자'로 총칭하여 이야기하 고자^ㅅ다.

사람은 빠르게 회전하는 분자 덩어리다. 사람은 분명 단단한 고체로 보인다. 왜냐하면 살과 뼈의 틈 속으로 손가락을 밀어 넣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고체성은 우리 또한 인간이므로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환상일 따름이다.

무한히 작은 생물이 한 인간의 육체와 거리를 두고 서서 그를 쳐다본다고 하자. 그 미물은 빙빙 도는 태양들과 나선형의 성운, 그리고 은하수와 같은 흐름을 보게 될 것이다. 육체의 부드러운 부분인 살에서 분자들

은 더욱 넓게 분산되어 있으리라. 반대로 딱딱한 부분인 뼈에서는 분자들도 한층 밀집되어 다발을 이루고 커다란 별무리(성단)와 같은 모습을 보여 줄 것이다.

구름 한 점 없는 어느 날 밤, 당신이 산꼭대기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지금 어떤 도시의 불빛도 미치지 않는 외딴곳에 홀로 떨어져 있다. 도시의 불빛은 밤하늘에 떠도는 수증기 방울에 반사되면서 굴절을 일으켜 창공을 뿌옇게 만드는 법이다. (이것이 천문관측소들이 늘 외딴곳에 지어지는 이유이다)

당신은 홀로 산정상에 있다. 그리고 당신 머리 위에서 별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당신은 그 별들이 끝없이 열을 지어 선회하는 광경을 경이롭게 응시한다. 광대한 우주가 당신 앞에 펼쳐져 있다. 엄청난 별무리가 어두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다. 창공을 가로질러 은하수로 알려진 띠가 광막하고 거무튀튀한 꼬리를 길게 끌며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분자들의 모습과 같다.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미생물들은 당신의 육체를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볼 것이다.

창공의 별들은 그들 사이의 믿을 수 없는 거리 때문에 그저 한 점의 불빛처럼 보인다. 별들의 개수는 수십억에서 수조에 이르지만, 광막한 우주공간의 크기에 비한다면 별들의 존재감은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다. 우주선이 있다면 당신은 그 어느 별에도 부딪히지 않고 우주를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당신이 별들 사이의 공간을 왕창 줄일 수 있다면, 그때 이 우주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게 될까? 혹시 당신의 몸을 현미경 수준에서 대면하고 있는 미생물들도 때로 이런 상상을 해보고 있진 않을까? 우리는 미생물들이 보는 분자들의 총체적 모습이 곧 우리 육체임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창공에 있는 별무리의 총체적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처럼 사람들 개개인은 곧 하나의 우주와 같다. 그리고 그 안의 행성들(분자들)은 각자 자신의 중심 (핵)을 맴돌고 있다. 암석, 나뭇가지, 물방울들도 전부 이처럼 일정한 패턴으로 끝없이 움직이는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도 움직이는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분자의 운동은 모종의 전기를 발생시키고, 그것이 초자아가 전달_하는 전기와 결합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각을갖고—tiem) 살아가게 한다.

지구의 극 주위에서는 자기폭풍이 너울거리고 타오르며形形色색의 극광을 만들어낸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분자들이 방사하는 자기장도 다른 분자들, 또는 주변 세계의 자기장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을 한다. 그누구도홀로는 존재할수 없다. 어떤 세계, 어떤 분자도다른세계, 다른 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모든 세계, 생물, 분자는 자기 존재를 지속하기 위해 다른 세계, 생물, 분자의 존재에 의지해야만 한다.

또 하나 유념해야 할 사실은, 분자 집단들은 그 밀도가 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그것들은 실제로 우주 속을 선회하는 별무리와 같다. 우주의 어떤 부분에는 별이나 행성 또는 세계가 — 어떤 명칭으로 부르든 — 거의 없는지역이 있다. 그러나또다른지역, 예컨대 은하계와같은곳은별들이 상대적으로 촘촘히 밀집되어 있다.그와 같이 암석은 아주 밀집한 성운 또는 은하계에 해당하고, 분자가 훨씬 희박하게 분산된 대기는 그 반대에 해당한다. 실제로 공기는 허파의 모세관을 지나 혈류 속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우리 몸에 침투할 수 있다.

대기권 밖의 우주 공간에는 수소 분자 덩어리가 넓게 분산되어 있다. 우주 공간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순전한 허공이 아니라 사납게 진동하는

수소 분자들이 흩어져 있는 곳이며, 별과 행성과 세계는 바로 이 수소 분자들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분자 집단이 충분히 집적되면 다른 존재가 그것을 통과하기는 꽤나 어려운 일이지만, 분자가 넓게 분산된 이른바 '유령' $g^0 O^*$ 은 벽돌담조차도 쉽게 통과할 수가 있다. 벽돌담의 본질을 생각해 보라. 그것은 공중에 걸려 있는 흙구름 같은 분자 집단이다. 낯설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벽들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처럼 분자들 사이에도 공간이 있다. 그리고 아주 작거나 분자 구조가 충분히 분산되어 있는 존재라면, 그것은 어떤 충돌도 없이 벽돌의 분자들 틈을 통과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유령'이 어떻게 해서 문이 닫힌 방 안에 나타나고 또 단단해 보이는 벽을 통과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당신에게는 벽이 단단하겠지만 유령이나 영적인 존재에게는 전혀 단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쯤에서 자세한 얘기는 다음번으로 미루고자 한다.

제 2 과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육체는 기본적으로 분자들의 집합체다. 그리고 바이러스와 같은 아주 미세한 생물은 우리를 분자의 집합체로만 보겠지만, 우리는 한발 더 나아가 인간을 화학물질의 집합체로서도 고찰 해보아야 한다.

인간은 많은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인간 육체의 상당 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 지난 교과의 내용과 모순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물도 결국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길 바란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바이러스에게 '말을 가르칠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이러스는 물 분자들이 해변의 자갈처럼 서로 부딪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 할 것이다. 그보다 더 작은 미생물이라면 공기 분자들을 일러 바닷가의 모래 같다고 말하리라. 어쨌든, 지금은 육체의 화학적 성질에 대해 전념 할 시간이다.

만일 당신이 상점에 가서 랜턴을 켤 배터리를 산다고 하면, 주인은 아연통 안에 연필 굵기의 탄소막대가 들어 있는 물건을 내줄 것이다. 그리고 아연통과 탄소막대 사이에는 여러 화학물질이 채워져 있을 것이다. 그 내부는 아주 축축하지만 외부는 건조하다.

그 배터리를 랜턴에 넣고 스위치를 작동하면 램프에 불이 들어온다. 왜 그런지 누가? 금속과 탄소와 화학물질은 특정 조건하에서 상호반응 하여 우리가 전기라고 부르는 뭔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화학물질과 탄소막대와 아연통은 전기를 일으키지만, 그렇다고 배터리 자체에 전기

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배터리는 그저 특정조건하에서 작용할 채비가 되어 있는 화학물질의 집적체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보트와 배들은 그저 소금물 위에 있는 것만으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특정 조건하에서는 바다에 한가롭게 떠 있는 보트나 배조차도 인접한 다른 금속판 사이에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 불운하게도 바닥은 구리로, 상판은 철 구조물로 만들어진 배가 있다면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이 두 금속의 접합 부위는 '전해' (전기분해)가 일어나 곧 부식될 것이다.

물론 보통은 이른바 '부식방지용 금속판'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같은 금속조각은 구리나 동 같은 다른 금속에 비해 양극(+)을 띤다. 동은 알다시피 배의 프로펠러(추진기)를 만드는 데 흔히 사용된다. 이럴 때 '부식방지용 금속판'이 수면 아래 배나 보트의 어딘가에 부착되어 수중의 다른 금속 부분과 연결된다면, 배의 선체나 추진기 대신 이 금속판이 부식하게 된다. 그리고 부식된 이 금속판은 쉽게 새것으로 교체할 수가 있다. 이것은 배를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 상식인데, 굳이 여기서 언급하는 이유는 전기가 아주 이례적인 방식으로 생성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다.

두뇌는 스스로 전기를 발생시킨다. 육체 내에는 미량의 금속들이 있고, 아연 같은 금속도 그에 포함된다. 탄소 분자는 육체의 기본질료와도 같으며, 육체에는 그 외에도 많은 수분과 마그네슘, 포타슘 등의 화학물질이 있다. 이것들이 결합하여 미약하나마전기를 만들고, 우리는 그것을 탐지하고 계측하고 도표화할 수 있다.

정신병을 앓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 그의 뇌파를 도표화할 수 있다. 갓가지 전극들이 그의 머리에 부착되면 작은 펜들

이 기다란 종이 위에서 일을 시작한다. 환자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펜들 은 네 개의 꿈틀거리는 선을 그리는데, 그걸 해석하면 환자가 앓고 있는 병의 유형을 알아낼 수 있다. 이 같은 도구가 모든 정신병원에서 공통적 으로 이용되고 있다.

인간의 두뇌는 초자아가 보내는 메시지를 받는 일종의 수신소인 동시에, 새로 배운 교훈이나 경험 등의 메시지를 초자아에게 보내는 송신소이기도 하다. 이런 메시지들은 '은빛 줄'을 통해 전달된다. 이 은줄은 극도로 확장된 주파수 범위에서 진동하고 회전하는 고속의 분자 덩어리며, 인간의 육체와 초자아를 연결하고 있다.

이 지상의 육체는 리모컨(원격조종)에 의해 움직이는 수레와도 같다. 초자아는 그 운전자이다. 당신은 길고 탄력적인 전선에 의해 어린아이가 가진 조종장치에 연결된 장난감 차를 본 일이 있을 것이다. 아이는 버튼을 눌러 장난감 차를 전진/후진/정지케 할 수 있고, 전선을 김까지 자신 쪽으로 끌어올 수도 있다. 인간의 육체는 그 장난감 차와 닮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초자아는 직접 지상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 그 대신 육체(우리)를 지상에 내려보내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 행동하고, 생각하고, 보고 듣는 — 모든 것은 위로 전달돼 초자아의 기억 속에 저장되기 때문이다.

'영감'이 뛰어난, 아주 고도로 지성적인 사람들은 은줄을 통해 초자아로부터 메시지를 자주, 직접, 또한 의식적으로 받곤 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의 초자사와 끊임없이 접촉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천재 소리를 들었다. 위대한 미술가나 음악가들은 그들의 초자아와 아마도 하나 또는 두 개의 특별한 '통로들'을 통해 접촉을 유지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 '영감으로써'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

을 짓는데, 그 결과물의 상당 부분은 결국 우리 모두를 제어하고 있는 바로 그 '큰 힘(허까, 역주)으로부터 전달되어온것이다.

은줄은 텃줄이 아기와 어머니를 연결하듯 우리를 초자아와 연결시키고 있다. 텃줄은 아주 미묘하고 복잡한 장치지만, 은줄의 난해함에 비하면 그저 한 가닥 끈에 불과하다. 은줄은 극도로 확장된 주파수 대역에서 회전하는 분자들의 덩어리이다. 그러나 지상의 육체로서는 도저히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불가해한 것이다. 그 분자들이 너무 넓게 흩어져 있어서 평균적인 인간의 시력으로 볼 수가 없다.

하지만 많은 동물들은 그걸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동물들은 인간과는 다른 범주의 주파수에서 보고 또 다른 범주의 주파수에서 듣기 때문이다. 개들은 알다시피 '조용한 개 호각' (whistle)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조용하다고 한 것은 그 주파수를 인간은 듣지 못하지만 개는 쉽사리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많은 동물들이 은줄과 오라츠를 볼 수 있다. 그것이 동물의 시력이 감지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주파수로 진동하기 때문이다.

연습을 하면 인간도 시력의 감지 범위를 늘리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것은 마치 허약한 사람이 연습과 훈련을 통해 이전까지의 신체능력을 훨씬 넘는 중량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원리와 같다.

은줄은 진동하는 분자들의 덩어리이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달에 반사시키는 일직선의 전파에 비유될 수 있다. 과학자들은 달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달 표면을 향해 아주 집중된 빔(광선)과 같은 형태의 전파

를 쓴다. 그 전파는 인간 육체와 초자아 사이의 은줄과 아주 흡사하다. 은 줄은 초자아가지상의 육체와 교신하는 방법인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초자아에게 알려진다. 소위 '바른길(■)에 들 어선 사람들은 정신적, 영적으로 고양되고자 노력하기 마련이다. 기본적으로 영성의 고양이란, 지상에서 자신의 진동수를 높임으로써 은줄을 통해 초자아의 진동수도 함께 높이려는 노력인 것이다. 초자아는 자신의 일 부를 인간 육체 속으로 내려보내 교훈과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위는 우리의 세속적인 진동수(육체)와 영적인 진동수(초자아)를 동시에 높인다. 그러나 우리가 남에게 악한 행위를 할 때는 진동수가 낮아지고 줄어들게 된다. 남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진화의 사다리에서 적어도 한 계단 아래로 내려놓는 일이며, 모든 선한 행위는 자신의 인격적 진동을 그만큼 높이는 일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불교도들의 오래된 계율은 우리에게 지극히 필수적인 일이다. — “오직 악을 선으로 돌리라.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도 두려워하지 말라. 악을 선으로 돌리고 늘 선을 행한다면, 우리는 위로 진보할 뿐 결코 아래로 퇴보하는 일은 없으리라”

누구나 주변에서 '질 낮은 인간'을 접해본 일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 에 대해 '어둡다(black)' 또는 '우울하다(blue)'는 식으로 표현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형이상학적 지식 중 일부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느낌은 진동으로부터 비롯된다. 그의 육체가 은줄을 통해 초자아에게 무엇을 전달하며 초자아는 다시 은줄을 통해 육체에게 무엇을 반송하는지를 우리가 직감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왜 의식적으로 초자아에 접촉할 수 없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초자아와의 의식적 접촉은 오랜 훈련이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문제다. 당신이 남아메리카에 있고 러시아의 시베리아에 있는 누군가와 전화를 한다고 하자. 먼저 당신은 가용전화선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두 나라 사이의 시차를 고려해야 한다. 그다음 상대방에게 시간이 있고, 그가 당신의 언어를 할 줄 아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 당국이 그런 전화 메시지를 허용할 것인가도 살펴야 한다.

지금의 진화단계에서는 자신의 초자아에 의식적으로 접근하려고 너무 고심하지 않는 편이 낫다. 왜냐하면 제아무리 좋은 훈련법이라도, 10 년을 해야 이를까 말까 한 무엇을 당신에게 몇 페이지 글로 전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잉기대를 한다. 그들은 하나의 지침만 읽고 나면 지체없이 나아가 대가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대가들은 평생을, 아니 그전의 여러 생을 그 공부에 바쳤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 과정을 읽고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대해 숙고하라. 마음을 연다면 당신은 결국 깨달음(영적 통찰)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은 사람들이 — 주로 여성들이 많다 — 곧 에테르, 오라 또는 은줄을 볼 수 있게 된 많은 사례를 알고 있다. 우리가 축적한 많은 경험들은 당신 또한 충분히 그럴 수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물론,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말이다!

제 3 과

우리는 이미 인간의 두뇌를 구성하는 화학물질, 수분, 그리고 미량의 금속이 어떻게 작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지 알아보았다. 우리의 두뇌가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 또한 전기를 발생시킨다. 왜냐하면 혈액이 동맥과 정맥을 통해 흐르면서 똑같은 화학물질, 미량의 금속, 수분을 온몸에 나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혈액의 주성분은 (전기가잘흐르는) 물이다.

우리의 몸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다. 물론 그것은 당신의 집을 밝히거나 요리용 스토브를 달구는 그런 유형의 전기는 아니다. 우리는 그걸 자성(자기력)의 출발점으로 본다.

막대자석을 가져다 탁자에 눕혀놓고, 그 위에 보통의 종이 한 장을 깎아 다음 쇳가루를 수북이 뿌리면 가루들이 특별한 형태로 정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한 번쯤 해볼 가치가 있는 실험이고 돈도 얼마 들지 않는다. 대략 30 센티미터 높이에서 소금이나 후춧가루 뿌리듯이 종이 위에 쇳가루를 뿌리면 독특한 형태로 정렬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석에서 나오는 자력선의 모양이다. 당신은 가운데 막대자석을 밑그림으로 해서 곡선들이 자석의 양 끝에서 뻗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가장 최선의 길은 무엇이든 직접 해보는 것이다. 그래야 다음의 공부에 도움이 된다. 자기력은 육체의 에테르와 같고 육체의 오라와도 같다.

전류를 운반하는 전선이 주위에 자기장을 형성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만일 전류가 바뀌면, 즉 '직류'가 아닌 '교류'라면 자기장은 양극

성의 변화에 따라 맥동하고 파동을 친다. 다시 말해 자기장은 전류의 변화와함께 맥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육체 또한 전기의 공급원으로서 그 주변에 자기장을 펼쳐낸다. 그것은 고속으로 파동치는 장이다. 이른바 '에테르'는 상당히 빠르게 파동치고 진동하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식별하기가 어렵다. 전기 램프의 불빛은 초당 50~60 회로 깜빡이지만 그것을 육안으로 인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어떤 교외지역 또는 배 위에서는 그 깜빡임이 느려져서 육안에도 보이는 때가 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바짝 다가설 때 우리는 소름 돋는 느낌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접근을 쉽게 알아차린다. 친구에게 시험해보라. 그의 뒤에 서서 손가락 한 개를 그의 목덜미 가까이 가져가보라. 가볍게 건드려도 보라. 아마 그는 밀접한 '접근' 과 실제의 '접촉'을 종종 혼동할 것이다. 우리의 에테르가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이다.

에테르는 육체를 둘러싼 자기장이다.(그림 3) 에테르는 오라의 중심, 또는 가장 안쪽의 오라라고 할 수 있다. 신체의 모든 부분을 둘러싼—머리 카락 한 올까지—에테르의 두께는 때로는 1 센티미터에 못 미치기도 한다. 보통은 몇 센티미터 두께가 되고, 최대로 확장되면 15 센티미터 정도 까지 늘어났다.

에테르는 사람의 활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데, 건강 상태에 따라 그 강도가 크게 변하기 때문이다. 종일 힘든 일을 하면 에테르가 피부 가까이 줄어들지만 충분히 쉬고 나면 몇 센티 늘어난다. 에테르는 정확히 육체와 같은 형태를 띠며, 심지어 사마귀나 여드름의 상태까지 반영 한다. 에테르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실은, 만일 체내 전류량이 미미하던

사람이 센 전류에 감전이 되면 갑자기 그의 에테르가 연분홍빛 또는 푸른 빛으로 확 불타오르는 모습을 띠는 점 이다.

에테르의 가시성을 증가시키는 데는 기상조건도 한몫한다. '성 엘모의 불' (폭풍 부는 밤에 갑판의 기둥 또는 비행기 날개 등에서 나타나는 방전현상)이란 것

이 있다. 어떤 특정한 기상조건하에서는 배 위의 돛대나 쇠사슬 등이 시퍼런 불길에 둘러싸인 듯 보인다. 그렇다고 무슨 위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로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배의 에테르라고 할 수 있겠다.

시골사람들은 어둡거나 안개 낀 밤에 고압선 주변에서 발광 현상을 보기도 한다. 조건이 갖춰졌다면 그들은 안개에 젖은 '희고 푸른 타오름'을 목격했을 것인데, 순박한 그들로서는 그 섬뜩한 모습에 혼이 빠질 만큼 경



<그림 3> 에테르

전기기사들은 이를 고압선의 코로나(방전광)로 이해하는데, 그들에겐 이 현상이 상당한 골칫거리다. 왜냐하면 방전광이 애자(절연체)를 무력화시켜 주변 대기를 이온화하면, 누전으로 발전소의 계전기가 망가져 그 일대는 암흑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좀더 근대화된 현대의 전기기사들은 코로나를 최소화 또는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고비용의 예방책을 쓴다. 육체의 경우에는 에테르가 바로 그 코로나에 해당하며, 이는 고압선의 방전광과 똑같은 양"상인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얼마간 끈기 있게 연습만 하면 에테르를 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불행히도 사람들은 달인들조차 얻는 데 수년이 걸리는 지식과 능력을 빠르고 싸게 획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연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를 수가 없다. 위대한 음악가들은 매일 수 시간을 연습한다. 그들은 결코 연습을 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에테르와 오라를 볼 수 있길 원한다면 당신 또한 연습을 해야 한다.

그중 한 방법은 도우미를 구해 그로 하여금 맨 팔을 뻗도록 하는 것이다. 회색 또는 검은색 배경 가까이에서 손가락을 쪽 편 채로 있게 하라. 그리고 그의 팔과 손가락을 바라보라. 그의 팔과 손을 바라보되,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는 말라.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위치에 초점을 맞추는 데는 약간의 요령이 필요하다. 바라보다 보면 문득 맨살 가까이에서 푸른 갯빛 연기 같은 것이 보일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그것은 몸 밖으로 1 센티미터부터 15 센티미터까지 뻗어나온다.

처음에는 아무리 팔을 보아도 팔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가 많다. 그것은 너무 '애를 쓰고, 있거나 '나무를 보느라 숲은 보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힘을 빼라. 연습을 하다 보면 당신은 거기에 정말뭔가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다른 방법은 자기 자신을 상대로 연습하는 것이다. 아주 편안한 자세로 앉으라. 이때 다른 물체로부터, 그것이 의자든 탁자든 벽이든 적어도 2미터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 침착하게, 깊게, 천천히 호흡하라. 그리고 양팔을 앞으로 쪽 뻗고, (양 손바닥이 내 몸쪽을 향하도록 하여) 양손의 손가락 끝이 서로 맞닿도록 하라. 이제 아주 약간만 양손 끝을 떼어보면, 그 사이에서 당신은 '무엇인가'를 감지하게 된다. 그건 회색 안개처럼 보일 수도 있고 빛을 자아내는 듯이 보일 수도 있다. 뭔가가 보인다면 아주 천

천히 양손 끝을 좀더 벌려보라. 한 번에 1 센티 이내로 움직이라. 당신은 곧 거기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뭔가가 바로 에테르 이다. 만일 그 접촉, 즉 어렵듯한 '무엇이 사라졌다면 처음으로 되돌아 가서 다시 양손 끝을 맞닿게 하라.

에테르를 보는 것은 그저 연습의 문제일 뿐이다. 다시 반복하지만 이 세상의 위대한 음악가들은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한다. 그들은 연습을 거듭한 후에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낸다. 당신 또한 형이상학(심령과학)의 분야에서 연습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자, 손가락을 다시 보라. 어렵듯한 안개가 이 손끝에서 저 손끝으로 흐르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라. 연습을 하면 당신은 그 안개가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또는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흐르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 그 방향은 당신의 성별, 건강상태, 생각 등에 따라 달라진다.

당신을 도와줄 친구가 있다면 손바닥으로도 연습을 할 수 있다. 그를 — 가능하면 이성친구가 좋겠다—당신과 마주 보도록 하여 의자에 앉힌다. 그리고 서로 양손과 양팔을 앞으로 쪽 편다. 친구의 손바닥은 위를 향하게 하고, 당신의 손바닥은 아래를 향하게 하여 가까이 겹쳐보라. 대략 5센티미터쯤 떨어져 있을 때 서늘한 또는 따스한 기운이 한 손바닥에서 다른 손바닥으로 흐르는 게 느껴질 것이다. 그 느낌은 손바닥 중앙에서 시작된다. 서늘한 기운인가 따스한 기운인가, 어느 손에서 어느 손으로 흐르는가는 당신의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따스한 기운이 흐르며 당신의 손을 오므리게 유도한다면 그대로 따르라. 그러면 열감이 더 증가할 것이다. 연습할수록 열감은 반드시 증가한다. 당신이 이 단계에 이르러 마주 본 손바닥 사이를 주의 깊게 살핀다면 아주 분명하게 에테르가 보일 것이다. 그것은 빨아들이지 않은 담배

연기와 같다. 다시 말해 흡입한 담배연기의 칙칙한 회색이 아니라 신선한 푸른빛의 색조 같은 것이다.

우리는 에테르가 육체적 자기력의 외부발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해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걸 '유령'離》이라 불러왔다. 누군가가 건강한 상태에서 죽는다면 그 육체에서 분리된 에테르는 한동안 방황하게 되는데, 이것은 '영적인 실체'빠와는 전적으로 별개인 현상이다.

당신은 시골의 오래된 공동묘지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가로등도 없는 캄캄한~" 하고 시작하는 이야기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어두운 밤에는 그날 낮에 조성된 무덤 위로 어렴풋한 푸른 불빛 따위가 올라 온다고 한다. 그것은 실제로 막 죽은 육체에서 떨어져 나온 에테르이다. 마치 한참 끓이다가 불을 꺼버린 주전자에서 나오는 열기와도 흡사하다. 주전자가 식을수록 그 열기는 점차 사그라진다. 마찬가지로 '육체가 죽으면 — 죽음에는 여러 단계가 있음을 기억해두라 — 에테르가 갈수록 줄어들는다. 당신은 사망선고를 받은 신체(시체) 주위를 떠도는 에테르를 여러 날 동안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건 다른 교과에서 다룰 주제이다.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 당신의 손을 관찰해보고, 몸을 관찰해보라. 마음 맞는 친구와 함께 이 교과를 연습하라. 오직 연습을 통해서만 당신은 에테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먼저 에테르를 볼 수 있어야만 훨씬 더 미세한 오라도 볼 수 있게 된다.

제4과

우리가 이전 교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육체는 에테르에 빈틈없이 둘러 싸여 있다. 그러나 에테르 밖에는 다시 오라가 존재한다. 오라는 전자기 적 바탕을 갖는다는 점에서 에테르와 비슷하다. 그러나 에테르와의 유사 성은 오직 그것뿐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오라는 초자아의 색깔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오라는 그 사람이 영적인가 육적인가, 건강이 좋은가 나쁜가, 그리고 실제로 병이 있는가 없는가등의 여부를 보여준다. 그 모든 것이 오라에 반영 된다. 그것은 초자아 또는 영혼 — 당신이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 의 지 표이다. 초자아와 영혼은 물론 같은 말이다.

오라를 통해 우리는 질병과 건강, 실의와 성공, 사랑과 증오의 정보를 읽어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사람들 대부분이 오라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다행스럽다. 왜냐하면 지금의 세상에선 남을 이용하고 지배하려 드는 게 일상이 되었는데, 오라는 그런 이기적인 의도를 지닌 사람들 앞에서도 한결같이 초자아의 색깔과 진동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사람이 중병에 걸렸을 때 오라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엔 사람이 죽기도 전에 오라가 사실상 자취를 감추는 때도 있다. 병을 앓는 동안 오라가 서서히 사그라지다가 결국 에테르만 남는 것이다. 반면 에 건강한 상태에서 뜻밖의 죽음을 당한 사람은 육체적 사망선고 이후로 도 얼마간은 오라를 유지한다.

이쯤에서 죽음에 대해 몇 마디 첨언하는 것이 좋겠다. 죽음이란 스위치를 돌려 전류를 끊거나 양동이를 비우는 것 같은 '순간적' 사건이 아니다. 죽음은 오히려 길고 지루한 과정에 가깝다. 어떻게 죽든, 예컨대 목을 단칼에 잘렸더라도, 죽음은 한동안 자리를 잡지 못한다.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두뇌는 전류를 발생시키는 세포집단이다. 그리고 죽더라도 그 직전까지 혈액을 통해 전달된 화학물질과 수분과 미량의 금속은 다소 남카 있으므로, 두뇌는 사후 3~5분 동안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형태의 처형(사형집행)이 순간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건 웃기는 얘기다. 앞서 말한 대로 머리를 싹둑 잘라 몸에서 떼어놓았다 해도 두뇌는 3~5분간 더 기능할 수가 있다.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조심스레 기록된 실제 목격담이 있다. — 이른바 '반역자'의 머리가 잘리고 처형관이 그 머리통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것이 반역자의 머리다!" 그때 사자 ㅅ의 입술이 움직여 소리 없는 말을 내뱉었다. "민지 마시오." 이에 군중은 경악했다. — 이런 기록이 실제로 프랑스 정부의 문헌 속에 남아 있다.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혈액공급이 중단되면 두뇌는 3분 후에 손상을 입게 된다. 그것이 바로 심장이 멈췄을 때 최대한 빨리 그것을 되살리기 위해 의사들이 그토록 난리를 피우는 이유이다. 얘기가 잠깐 옆길로 빗나 갔는데, 어쨌든 죽음이 순간적인 사건이 아닌 것처럼 오라의 소멸도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육체가 여러 단계를 거쳐 죽는다는 것은 검시관 들이나 병리학자들에게 잘 알려진 의학상식이다. 두뇌와 그 외의 신체조직들은 차례로 하나씩 기능을 멈춰가고, 아마도 가장 나중에 죽는 부위가 머리털과 손발톱일 것이다.

육체는 일순간에 죽지 않으므로 오라의 흔적은 한동안 그대로 머물

수 있다. 그러므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죽은 이의 오라를 보고 그 가슴을 거둔 원인을 알아낼 수 있다. 에테르는 마치 '분리된 유령'처럼 떠돌기도 한다는 점에서 오라와 사뭇 다르다. 예컨대 사고로 갑작스레 타 계했다면, 즉 건강한 사람이 변을 당했다면 그의 배터리는 완전충전 상태 이므로 에테르가 무척 강하다. 그런 에테르는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나와 서도 형체를 유지하고, 자성(자기적 흡인력)에 끌려 예전의 익숙했던 장소를 배회하기도 한다. 만일 통찰력 있는 사람 또는 흥분이 고조된(진동수가 높아 진) 사람이라면 그의 에테르를 보고 소리를 지를 것이다. "아무개의 유령 이 여기 있다!"

오라는 상대적으로 조약한 에테르에 비해 훨씬 더 섬세한 물질이다. 에테르도 신체보다는 섬세하지만 오라와는 비교가 되질 않는다. 에테르는 신체를 그 형상 그대로 빈틈없이 감싸며 흐르고 있다. 하지만 오라는 달걀 모양으로 신체를 넓게 감싸고 있다(그림 4) 보통 그 높이는 210 센티 미터 남짓하고 너비는 가장 넓은 곳이 120 센티미터 정도 된다. 그리고 위 로부터 아래로 갈수록 훌쭉해지는데, 달걀의 뾰족한 끝이 바닥, 즉 발이 있는 곳이 된다.

오라는 육체의 여러 중추들이 서로를 향해 뻗어나오며 빛어내는 현란한 색조의 빛들로 되어 있다. 중국에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백 마디 말 대신에 서 있는 사람의 옆모습을 스케치해서 넣기로 했다. 이 스케치엔 여러 중추를 오가는 오라의 에너지 선들과 달걀모양의 전체적 윤곽이 표현되어 있다.

◁ 그림 4-5 오라 개념도

당신이 아직은 오라를 볼 수 없다 해도, 그것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당신은 자신이 호흡하는 공기도 볼 수 없다. 물고기가 자신이 헤엄치는 물을 볼 수 있을까? 오라는 실재하는 생생한 에너지다.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보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확실히

별도의 장비를 사용하여 오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컨대 눈 위에 걸치는 갖가지 유형의 보안경들이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입수해온 정보에 따르면, 그런 보안경들은 눈에 지극히 유해하다. 그것들은 눈을 혹사시킨다. 눈을 부자연한 상태로 움직이게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잠깐만 써보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보안경 사용엔 절대 찬성 할 수가 없다. 겹쳐진 두 장의 유리 틈으로 아주 특별한, 그리고 값비싼 염료를 채운 여광렌즈 제품들도 해롭기는 마찬가지다.

우리가 당신에게 제의하는 것은 연습 또 연습뿐이다. 거기에는 약간의 믿음과 도움만 있다면 오라를 볼 수 있다. 오라를 보는 데 있어 최대의 장애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그걸 볼 수 있다고 믿지 않는 데 있다.

오라는 앞서 말했듯이 여러 가지 색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짙고 넘어가야 할 점은, 색깔이란 그저 주파수 스펙트럼 상의 특별한 대역을 가리키는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인식하는 '색깔'의 실체는, 따지고 보면 '빨강'이나 '파랑' 등으로 통용되는 특정 주파수의 진동인 것이다.

어쨌든 빨강은 보기 쉬운 색깔 중의 하나이다. 파랑은 그보다는 눈에 덜 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푸른색을 보지 못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붉은색을 보지 못한다.

만약 당신이 오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의 면전에 있다면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거짓을 눈치채고 당신을 신뢰하지 않을 테니까. 사람들에게겐 보통 파랑 또는 노랑의 '후광'이 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노랑의 후광에 녹색이 감돌게 된다. 그것은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한 번 보면 절대 잊혀지지 않는 색조이다. 그러나 녹색이 감도는 노랑 후광은 그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곧 배신을 할 것이라는 신호인 것이다.(원칙적으로는 눈높이 정도까지의 빛만을 오라라고 하고, 그 위의 파랑거나 노란 빛은 '후광' 또는 '원광圓光'이라고 따로 구분하여 말할 수도 있다)

오라의 최상부(정수리)에는 동양에서 '만개한 연꽃'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빛의 분수'가 있다. 그것은 실제로 연꽃 또는 분수의 모습처럼 보인다. 그것은 색채의 교차점이며,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일곱 개의 꽃잎이 활짝 피어난 연꽃을 떠올리게끔 한다.

영성이 높을수록 원광 또는 후광은 더 셋노래진다. 반면 수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의 오라는 한 부분이 칙칙한 갈색으로 바뀌며 가장자리에서는 위선의 조짐으로서 '우중충하고 누런 녹색이 나타난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중에 오라를 보고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오라를 보거나 느끼지만 그런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들이 특정한 색의 옷을 고집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인데, 그 이유는 그녀가 본능적으로 어떤 색이 자신의 오라와 맞는지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 역시 '어색하기 짝이 없는' 색의 옷차림을 한 여성을 본 적이 있으리라. 오라를 직접 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신은 그녀의 옷차림과 그녀의 오라가 전혀 어울리지 않음을 직감한 것이다. 이처럼 많은사람들이 오라를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그런 능력은 불가능하다'는 자기최면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정 색깔의 옷을 입으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또한 사실이다. 오라와 조화되지 않는 색의 옷을 입으면 틀림없이 몸은 불편하거나 과민상태가 된다. 당신은 그 맞지 않는 복장을 벗어버릴 때까지 계속 피로를 느낄 것이다. 방 안에 있는 물건의 색깔들도 당신을 흥분시키거나 반대로 진정시킬 수 있다.

색깔이란사실 진동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빨강이 한 진동이라면, 초록은 다른 진동이고, 검정은 또 다른 진동이다. 우리가 '소리'라고 부르는 진동들이 부딪쳐 불협화음을 낼 수 있듯이, 우리가 색채라고 부르는 '소리 없는' 진동들도부딪쳐 영적인 부조화를가져올수 있다.

제 5 과

의 색채

모든 악보는 이웃한 음정들끼리 어우러진 조화로운 진동을 조합한 것이다. 화음이 없다면 그것은 음정이 틀린 악보, 즉 듣기에 유쾌하지 않은 악보가* 된다. 음악가들은 즐거움을 주는 악보만을 창작하려고 애를 쓴다.

색채도 음악과 같다. 비록 인간의 '인지 범위'에서 다소 다른 영역에 있긴 해도 색채 또한 진동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순수한 색채, 마음을 즐겁게 하고 고양시키는 색채를 지닐 수도 있고 신경에 거슬리고 불쾌한 색채를 지닐 수도 있다. 인간의 오라 속에는 수많은 색채와 색조가 있다. 그리고 그것들 중 일부는 훈련이 잘된 관찰자에게만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런 (숨겨진) 색채들에 대해서 널리 통용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알다시피 '조용한' 개 호각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귀는 들을 수 없으나 개는 들을 수 있는 높은 주파수 대역의 울림을 낸다. 반면 인간은 개보다 더 '깊숙한(낮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만약 인간의 가청파¹¹ 주파수 대역을 통째로 높인다면 우리도 개처럼 높은 음조의 개 호각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같은 이치로, 가시¹² 벨 주파수 대역을 넓힐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의 오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작업을 주의 깊게 하지 않는다면 (낮은 대역의) 검정이나 짙은 자주색은 영영 볼 수 없게 돼버릴지도 모른다.

여기서 수도 없이 많은 색채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이고 강렬한 색채들만을 다루기로 하자. 오라의

기본적인 색채는 그사람의 영적 성장에 따라 변화한다. 영성이 고양되면 색채도 호전된다. 만일 그가 진보의 사다리에서 불운하게도 뒤로 미끄러진다면, 기본 색채 또한 완전히 바뀌거나 어두워진다.

이번 과에서 설명할 기본 색채들은 말 그대로 '단순화된' 것이다. 실제로 오라에는 영적 수준, 생각, 의도 등을 나타내는 무수한 파스텔 색조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라는 소용돌이치는 무지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선형으로 몸 주위를 돌면서 머리로부터 발치로 쏟아져 내려오는 온갖 색채들이 무지개보다 훨씬 더 얽히고설켜 있다. 무지개는 물방울들이 일으키는 굴절 현상에 불과하지만 오라는 우리의 인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몇몇 기본 색채들에 대한 약간의 주석이다. '몇몇'이라고 말한 이유는, 당신이 이 기본 색채들을 볼 수 있기 전까지는 다른 색채들을 다루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빨강_1 형태가 좋다면 빨강은 건전한 추진력을 보여준다. 유능한 장성과 지도자들은 오라에서 산뜻한 빨강을 확연히 드러낸다. 만약 산뜻한 빨강에 노란색의 테두리까지 있다면 그것은 그가 '십자군 전사'임을 나타낸다. 그는 늘 다른 사람을 돕고자 애쓰는 사람일 것이다. 그를 공연히 참견하고 간섭하려 드는 사람들과 혼동하지 말라. 오지랖 넓은 사람들의 오라는 '빨강'이 아니라 '다갈색'을 띠고 있을테니까.

육체의 장기에서 나오는 산뜻한 붉은 띠나 섬광은 그 부위가 아주 건강함을 말해준다. 세계적인 지도자들 중에는 순수한 빨강으로써 그들의 성향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경우엔 그 빨강이 품격을 떨어뜨리는 음영(어두운 그림자)으로 오염되어 있다.

빨강이 불쾌한 느낌일 때, 즉 우중충하거나 어두울 때는 사악한 기질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신뢰가 가지 않고, 잘 다투고, 배신을 일삼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기주의자이다. 흐릿한 빨강은 신경과 민의 징표이기도 하다. 가끔은 '불쾌한' 빨강을 지닌 사람도 신체적으로는 건강할 수 있는데, 불행히도 그럴 경우 그의 악행은 보통 수준이 아닐 것이다. 빨강이 흐릿할수록 — 흐릿한 것은 산뜻한 것과 다르다 — 그는 신경질적이고 불안정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과민하여 몹시 튀는데, 단 몇 초도 조용히 있질 못한다. 물론 그런 사람은 역시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다.

장기 주변의 빨강은 그것의 건강상태를 가리킨다. 특정 장기 위에서 천천히 뛰는 흐릿한 빨강 또는 갈색 빨강은 암을 나타낸다. 우리는 그것이 암인지 암의 전조인지까지도 가려낼 수 있다. 이처럼 오라는 치료가 취해지지 않으면 어떤 질병이 육체를 괴롭힐지를 미리 말해준다. 이것은 훗날 '오라치료법'의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이다.

턱에서 나오는 얼룩진, 번드이는 빨강은 치통을 가리킨다. 후광으로부터 때맞춰 고동치는 흐린 갈색은 그가 치과 의사를 방문할 생각에 지레 겁을 먹은 것을 나타낸다.

주홍(Scarlet)은 과대망상인 사람들이 흔히 '달고 다니는' 색깔이다. 그는 자신을 맹신하고 있다. 주홍은 그릇된 자만, 근거 없는 자만의 상징이다.

주홍은 또한 돈을 받고 '사랑'을 파는 여성들의 엉덩이 부근에서도 보인다. 그들은 정말로 '주홍빛 여자들'이다. 그런 여자! 은 보통 성행위 자체에는 전혀 흥미가 없다. 그들에게 성행위는 그저 생계의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허풍쟁이와 매춘부는 오라에서 같은 색채를 공유한다.

'주홍빛 여자'(Scarlet woman) * **■?울한: 기분**(blue moody) **'새빨간 분노'**(red)

rage), '험 악한'(black with temper)' 질투하는 4green with envy' 등등의 옛말이 참으

로 정확하게 사람의 기분과 오라를 연결짓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해볼 만한 일이다.

빨강 계열의 오라에 대해 더 이야기해보자. 분홍(산호빛보다 질다)은 미 성숙을 나타낸다. 10 대들에게는 빨강보다도 분홍이 자주 보인다. 어른에게서 나타나는 분홍은 유치함과 불안감을 대변한다.

생간과도 같은 적갈색은 아주 지저분한 인간의 징표다. 그는 골칫거리를 가져올, 반드시 피해야 할 대상이다. 장기에서 적갈색이 보이면 심하게 병들어 있는 것이고, 중요 장기가 그러하면 그는 곧 죽게 된다.

홍골 끝에서 빨강이 보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경계통에 이상을 갖고 있다.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려면 그들은 행동을 자제하고 좀더 침착해지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주황 | 주황抑 ange)은 빨강의 일종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따로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코자 하는데, 그 이유는 먼 동방의 어떤 종교들은 주황을해의 색깔로 중시하며 경의를 표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동쪽 지방에서 그토록 주황색을 흔하게 쓰는 이유이다. 반면에 동전의 양면처럼, 파랑이야말로 해의 색깔이라고 믿는 나라들도 있다.

당신이 어느 의견에 찬동하느냐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주황은 기본적으로 좋은 색깔이다. 오라에서 적절한 색조의 주황을 보이는 사람들은 타인을 많이 배려한다. 그들은 인도주의지•로서, 타고난 것이 별로 없는 타인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그중에서도 노란색이 감도는 주황이 바람직한데, 그런 색조는 자제력과 큰 덕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갈색을 띠는 주황은 '아무래도 좋아' 하는 식의 소극적이고 게으른

사람을 나타낸다. 또한 그것은 신장병의 신호일 수도 있다. 만일 신장 부위에서 갈색이 짙고, 그 위에 회색이 얼룩덜룩 보인다면 결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녹색을 얇게 띠는 주황이 보인다면 그는 말다툼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다. 당신이 색깔 너머 그 색조의 차이, 숨겨진 기미까지 볼 정도로 섬세한 안목을 갖고 있다면 녹색을 띤 주황 오라를 지닌 사람과는 논쟁을 피하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흑과 백'만을 볼 수 있을 뿐, 상상력과 통찰력이 부족하여 지식과 생각과 색깔에는 중간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녹색을 띤 주황 오라를 지닌 사람은 끝 없이 '논쟁을 위한 논쟁'을 계속하지만 정작 자신의 논점이 바른지 그른 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그저 논쟁만을 갈구한다.

노랑 | 금빛 노랑(황금색)은 그의 높은 영적 수준을 가리킨다. 모든 위대한 성인들은 머리 주위에 금빛 후광을 지녔다. 영성이 크면 클수록 황금색은 더 밝게 타올랐다. 여담이지만, 아주 높은 영성의 사람들은 또한 쪽빛(남색)도 지닌다는 말을 해두고 싶다. 그러나 지금은 노랑을 이야기하는 중이다.

오라에 선명한 노랑을 지닌 사람들은 항상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건강하다. 그들은 정도편ⁱ를 걸으며, 노랑의 밝은 느낌에서 알 수 있듯 두려워 워하는 것이 거의 없다. 오라가 밝은 노랑인 사람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우중충한 노랑 — 상한 체다치즈 색깔 — 은 비겁한 성격을 나타낸다. 사람들이 '그 사람은 겁쟁이야<^{he is} yei_'라고 말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여러 언어들 속으로 침투했을 것이다. 어쨌든 불쾌한 노랑은 덜떨어진 사람, 무서운 것이 너무 많은 박약한 사람에게서 보인다.

빨간색을 띤 노랑은 전혀 달갑지 않은 색이다. 그것은 정신적, 도덕적, 그리고 신체적 유약함의 증표이다. 그들에게서는 영적인 주관이나 믿음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빨간색을 띤 노랑 오라의 사람들은 5분 안에 뭔가 얻기를 기대하며 늘 이 종교 저 종교를 기웃거린다. 그들은 구심점이 없어 잠깐일망정 그 어느 것에도 안주하질 못한다.

빨강, 노랑, 갈색이 뒤섞인 오라를 지닌 사람은 늘 이성을 쫓아다닌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서도 말이다. 만일 머리카락이 붉거나 적갈색인데다 오라에서 빨간색을 띤 노랑까지 보인다면 그는 매우 호전적이고 공격적이고 남의 말을 뼈뿔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이 말은 특별히 머리카락이 붉거나 피부에 붉은 주근깨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해^^다.

불그레한 노랑은 깊은 열등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노랑 속의 붉은기가 진하면 진할수록 열등감의 정도도 크다. 적갈색의 노랑은 불순하기 짝이 없는 사고와 미미한 영적 수준을 보여준다.

아마도 누구나 미국의 '우범지대'에 대해 들었을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술주정뱅이들, 게으름뱅이들 그리고 낙오자들이 떼다 종내 들어가는 골짜기 말이다. 이런 환경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적갈색을 띤 노랑 오라를 지니고 있다. 그중에서도 오라 안에 불쾌한 녹색 반점을 지닌 사람들은 최악 중의 최악이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당최 구원의 여지가 없다.

갈색을 띤 노랑은 불순한 생각, 즉 그가 항상 정도를 걷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건강 문제에 있어서, 녹색을 띤 노랑은 간장질환을

질환이 전염될 위험이 커졌음을 나타낸다. 전염되는 병을 앓는 사람은 반드시 엉덩이 부근에서 어두운 갈색 또는 노란색의 띠가 보이고 그것은 종종 붉은 먼지 같은 것으로 얼룩진다.

노랑 오라 속에서 갈색이 좀더 뚜렷해지고 얼룩덜룩한 띠를 이룬다면 그것은 정신병의 징후이다. 이중인격 인 사람은 반쪽은 파란색을 띤 노랑, 나머지 반쪽은 갈색 (또는 녹색)을 띤 노랑의 오라를 보인다. 그것은 몹시 불 쾌한^합이다.

우리는 항상 노랑 항목의 서두에서 언급한 '순수한 황금색'만을 배양해야 한다. 황금색 오라는 우리의 사고와 의도를 순수하게 지킬 때 달성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밝은 노랑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것은 먼 진화의 길을 가게 할 정도려이기도 하다.

초록 | 초록은 치유의 색깔, 가르침의 색깔, 그리고 신체적 성장의 색깔이다. 탁월한 내외과 의사들의 오라에서는 초록이 많이 보인다. 그들에게 또한 빨강도 많이 보이는데, 기묘하게도 그 두 색깔은 어떤 불일치도 없이 아주 조화롭게 어울린다. 빨강과 초록은 물질 형태로서 함께 있을 때는 자주 부딪치고 반발하지만, 오라의 형태에서는 오히려 호감을 준다.

빨간색이 적절히 감도는 초록 오라는 그의 탁월한 치유력 또는 유능함을 나타낸다. 빨간색이 없는 순수한 초록은 그가 성실한 의사 또는 헌신적인 간호사임을 나타낸다. 또한 파란색이 감도는 초록은 정신적 성취를 나타낸다. 고명한 교사들은 오라에 녹색과 더불어 소용돌이치는 강렬한 파란 띠 또는 줄무늬를 지닌다. 그리고 파랑과 초록 사이에 좁다란 황금색 띠가 보이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 교사가 제자들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있으며 최상의 과제를 가르치는 데 필요한 높은 영적 통찰력이 있음을

말해준다.

사람과 동물의 건강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은 오라에서 초록을 많이 보여준다. 꼭 그들이 높은 서열의 외과의사나내과의가 아닐 수도 있다. 직 업이 무엇이든 간에, 동물이나 인간 또는 식물의 건강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어느 정도의 초록을 오라에 지니기 마련이다. 마치 공식 화장처럼 초록이 달려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초록은 오라의 중심을 차지 하기보다는 다른 색에 종속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초록은 도움의 색깔이다. 오라에 초록이 많은 사람은 친절하고 동정 적이고 사려가 깊다. 그러나 노란색이 감도는 초록을 지닌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다. 그 노란색과 초록이 칙칙할수록 그것은 그가 전혀 의지해서는 안 될 사람임을 드러내준다. 그럴듯한 말로 흘려서 돈을 갈취하는 사기꾼 들이 이처럼 노란색이 감도는 초록-라임 열매 같은 색깔-의 오라를 보인다. 반면 초록이 파랑으로 바뀌었다면 — 특히 맑은 하늘 색깔 또는 강청색銅靑色^(electric blue)이라면 — 그를 더욱 신뢰해도 좋다

파랑이 이 색은 자주 영적 세계의 색깔로 언급된다. 그것은 또한 영 성과는 별개로 지적 능력을 나타내기도 한다. 물론 산뜻한 색조일 때의 이야기이며 , 그렇기만 하다면 참으로 바람직한 색깔이 파랑이다.

에테르는 옅은 파랑으로 보이는데 , 빨아들이지 않은 담배연기나 나무가 타는 불빛과도 흡사하다. 파랑이 밝을수록 그는 건강하고 원기 왕성다.

옅은 파랑은 우유부단한 사람, 스스로 뜻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남이 밀어 붙여주길 기다리는 사람이다.

짙은 파랑은 진보를 이루고 노력하는 사람의 것이다. 파랑이 짙다면

그는 인생의 과업에 대해 남다르게 열심이고 그렇게 해서 만족을 찾은 사람이다. 짙은 파랑은 내면에서 직접 '소명'을 받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가 된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견된다. 하지만 그 전 세계를 부담 없이 여행하기에 좋은 일거리로서 선교사가 된 사람들에게선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노랑의 밝기와 파랑의 농도를 살펴 상대를 판단해야 한다.

남색 | 우리는 남색과 보라—베를 같은 표제 아래 두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 두 색깔은 마치 한 몸처럼 뒤엉킨 채, 서로 주도권을 쥐었다 내주는 식으로 부지불식간에 변하기 때문이다.

오라에서 남색을 두드러지게 보이는 사람들은 깊은 종교적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저 입으로만 종교를 떠드는 사람들이 아니다. 거기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종교적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종교적이라고 믿지만, 오라를 정확히 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확실하게 신뢰할 수 없다. 남색 오라:말로 바로 그 진실의 결정적인 증거가된다.

만일 남색 오라가 핑크빛을 띠고 있다면 그는 성미가 까다롭고 심술궂은 사람이다. 특히 자기의 아랫사람들에겐 더욱 그렇다. 남색을 침범한 핑크빛은 타락의 기운으로서 오라의 순수성을 빼앗아간다.

덧붙여 오라가 남색이나 보라 또는 자주색인 사람들은 심장, 위장질환을 앓기 쉽다. 그들은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을 멀리해야 한다.

회색 | 회색은 오라의 색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당사자가 미개인이 아닌 한, 회색 오라 자체는 아무런 뜻이 없다. 미개인에게는 커다란

회색 띠와 반점들이 보이지만 , 실제로 미개인의 나체를 볼 기회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보조색으로서의 회색은 성격의 유약함과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건강 상태를 나타낸다. 특정 장기 부위에 회색 띠가 있다면 그 장기가 망가질 위험에 있음을 뜻한다. 이미 망가지는 과정 중에 있으니 의학적 조치가 지체없이 취해져야 한다.

무디게 꾸시는 두통이 있는 사람은 회색의 연기가 후광 속으로 들어가는 듯 보인다. 후광이 무슨 색깔이든, 그리로 향하는 회색의 띠는 두통 증상에 따라 맥동할 것이다.

제 6 과

이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진동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 존재를 망라해서 이를테면 '존재 가능한 모든 진동이 포함 된 거대한 건반'을 상정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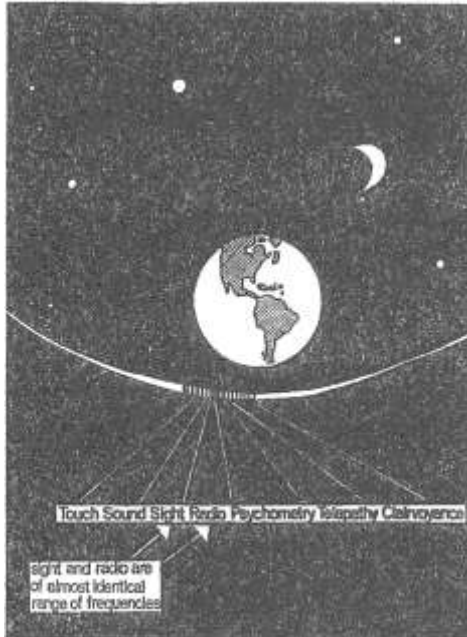
무한한 길이로 뻗쳐 있는 거대한 피아노 건반을 상상해보자. 우리는 개미처럼 작은 존재들이라서 그 건반(음정)들 중의 극소수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진동은 각각 특정한 옥타브 내의 특정 건반에 해당되어 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촉각'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모든 진동을 망라하는 옥타브가 있다. 그 범위 안의 진동들은 아주 느려서 '견고한' 형태를 띠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만질 수 있지만 듣거나 보지는 못한다.

다음 옥타브는 청각의 차원이다. 이 옥타브 내의 진동들은 우리의 귀를 통해 인지된다. 손가락으로는 이 진동들을 인식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귀는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알려준다. 물체를 들을 수는 없다. 소리를 만질 수는 없다.'(서로 옥타브가 다르기 때문이다, 역주)

그다음 옥타브는 시각의 차원이다. 이 옥타브 내의 진동들은 훨씬 빠르므로 촉각이나 청각으로는 인식되지 않는다. 대신 그것들은 우리의 눈에 자극을 주고, 우리는 그것을 시각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들 세 옥타브 중 한 범주로 딱히 한정시킬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소위 '전파_때'라고 부르는 진동들이 있다. 전파상의 옥타브를 높이면 텔레파시, 원거리 투시, 그리고 그 밖의 심령적 능력을 발휘할



〈그림 5〉가시광선과 전파는 주파수의 범위가 거의 같다.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요점은, 우리가 참으로 광대한 진동들의 세계 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그중에서도 지극히 제한된 범위만을 지각할 수 있을 뿐이다.

시각과 청각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나의 색깔은 하나의 음정을 갖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어떤 색깔 위에 스캐너를 갖다 대면 그에 해당하는 음정을 들려주는 전자장치가 있다. 잘 상상이 안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보기 바란다. 전파는 늘 우리 주변에 있다. 우리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무관하다. 그리고 우리는 보조수단 없이는 그것을 직접 들을 수 없다. 하지만 라디오 수신기 또는 텔레비전이라는 장비가 있다면 그것을 소리 또는 영상으로 변환하여 방송국에서 보낸 내용을 듣거나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의 소리를 취해서 거기에 맞는 색깔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반대로 하나의 색깔을 택해 그 색깔이 어떤 음정에 해당한 다고 말할 수 있다. 동양에서는 이미 상식과도 같은 이런 관점은 실제로 예술에 대한 감식력을 높여준다. 예컨대 어떤 그림을 볼 때 그것을 음악 으로 바꾼다면 어떤 화음이 들러질까를 상상해볼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화성이 붉은 행성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 화성은 빨강의 행성이며, 이런 전형적인 빨강 색조는 '도'에 해당하는 음정을 갖는다.

빨강의 일종이기도 한 주황. (range)은 '레'라는 음정에 해당한다. 몇몇 종교에서는 주황을 해의 색깔이라고 설한다. 반면 파랑을 태양의 색깔이라고 설하는 종교들도 있다. 우리로 말하자면, 주황이 해의 색깔에 더 가깝다는 입장이다.

노랑은 '미'라는 음정에 해당한다. 수성은 노랑의 '지배자'이다. 이 모든 이야기는 고대의 동양신화로부터 전해진 것이다. 그리스인들에게 불타는 전차를 타고 하늘을 질주하는 남신과 여신들이 있었던 것처럼, 동양인들에게도 신화와 전설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그들은 행성을 색채와 상응시켰고, 그 결과 이리저리한 색은 이리저리한 행성이 지배한다고 믿게끔 됐다.

초록은 '파'라는 음정에 해당한다. 초록은 성장의 색깔이다. 몇몇 사람들은 소리에 의해 식물의 생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상당히 믿을 만한 정보임을 확인한 바 있다. 녹색을 주관하는 행성은 토성이다.

흥미로운 점은, 고대인들이 특정한 행성을 명상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떠오르는 느낌을 통해서 이런 색채들을 각각 할당했다는 것이다.

서 명상을 했다. 그리고 해발 4천 미터가 넘는 곳에서는 대기 농도가 희박하여 행성들이 훨씬 선명하게 보이고 지각력도 더욱 예리해진다. 그렇게 해서 고대의 현인들이 각 행성과 색채에 관한 법칙을 수립했던 것이다.

파랑은 '솔'이라는 음정에 해당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어떤 종교들은 파랑을 태양의 색깔로 여긴다. 그러나 우리는 동양의 전통을 따르고자 하므로, 파랑을 주관하는 행성은 목성이라는 가설을 취할 것이다.

남색은 '라'라는 음정에 해당한다. 동양에서는 셋별(금성)이 남색을 주관한다고 말한다. 금성은 우호적으로 그려질 때, 즉 인간에게 혜택을 줄 때는 예술적인 능력과 순수한 생각을 상징한다. 금성은 더 고상한 인격을 선사한다. 그러나 낮은 진동의 사람들과 연계되면 그들을 방종하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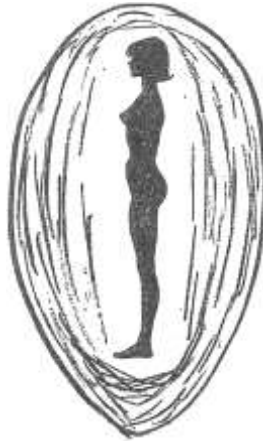
보라는 '시'라는 음정에 해당한다. 보라를 주관하는 것은 달이다. 좋은 경우에, 달 또는 보라는 명쾌한 사고, 영성, 적절한 상상력과 상응한다. 그러나 나쁜 경우에는 정신장애, 정신이상과 상응하게 된다.

오라의 밖에는 육체, 에테르, 오라를 빈틈없이 둘러싼 막이 있다. 마치 육체-에테르-오라의 순으로 확장되어 있는 인간 존재의 총합이 하나의 자루 속에 넣어져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상상해보자. 여기 평범한 달걀이 하나 있다. 그 내부엔 육체에 해당하는 노른자, 즉 육체가 있다. 그 노른자는 흰자에 둘러싸여 있는데, 흰자가 바로 에테르와 오라에 해당한다. 그리고 흰자와 달걀껍데기 사이에는 주 얇으면서도 나름 질긴 막이 존재한다. 삶은 달걀의 껍데기를 벗길 때 보게 되는 그 얇은 막 말이다.

인간 존재의 모습도 바로 그와 같다. 우리를 둘러싼 이 막은 흠 없이 투명하며, 오라의 소용돌이나 떨림에 따라 다소 일렁인다. 그러나 늘 달

갈 형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 풍선이 늘 제 모습을 유지하려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막을 기준으로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보다 크므로, 육체와 에테르와 오라가 아주 얇은 달걀형의 투명 비닐 백에 들어 있다고 상상한다면 더욱 생생한 그림이 되리라.(그림 6)



<그림 6>오라의 외피

우리의 생각은 두뇌에서 생성되어 에테르와 오라를 거쳐 이 외피에 이른다. 그리고 우리는 이 외피를 관찰함으로써 그 사람의 생각을 그림처럼 읽어들 수 있다.

다시 한 번 텔레비전을 예로 들어보겠다. 텔레비전의 수상관 안쪽에는 '전자총'이란 게 있는데, 그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전자를 형광판(당신이 보는 화면)으로 쏘아보낸다. 그 전자는 특수도장된 형광판에 충돌하며 빛을 발한다. 그리고 그런 광점들이 우리 뇌 속에서 '잔여기억'으로 잠시 보관되는 원리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움직이는 영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 화면은 결국 전자를 쏘아 보내는

송신장치로부터 나온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송신기, 즉 두뇌로부터 나와서 오라를 둘러싼 외피에까지 이른다. 그리고 그 외피에 충돌하면서 어떤 그림을 그려내고, 투시 능력자는 그것을 볼 수 있다. 게다가 그 그림에는 현재의 생각뿐만 아니라 과거의 생각까지도 나타난다.

정통한 능력자라면 오라의 외피를 봄으로써 그가 전생, 전전생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도 읽어낼 수 있다. 경험이 없는 이들에겐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이것은 절대 헛된 끼야기가 아니다.

물질의 질료 또는 본질은 파괴되지 않는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구히 지속된다. 만일 당신이 소리를 낸다면 그 소리의 진동, 그것이 야기한 에너지는 영원히 지속된다. 예컨대 만일 당신이 이 지구로부터 멀고 먼 행성까지 단숨에 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행성에서 엄청난 배율의 망원경으로 지구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당신의 눈에는 수천 년 전의 지구가 보일 것이다. 빛은 속도가 일정하며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구로부터 엄청 먼 곳으로, 즉각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지구의 창조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가설은 우리를 논의 중인 주제에서 멀어지게 한다. 어쨌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잠재의식은 — 의식의 지배를 받지 않으므로 — 내면 깊숙이 저장된 영상들까지 투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투시력이 좋은 사람은 오라를 보고 상대방의 자질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가 있다. 이것은 심리측정의 진일보한 방식으로서 '시각적 심리측정'이라고 불릴 만하다. 심리측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다룰 것이다.

조금이라도 지각이나 감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라를 느낄 수 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해도 말이다. 당신은 대화조차 해본

이 없음에도 상대방에게 즉시 끌리거나 반대로 혐오감을 느낀 경험이 없는가? 그의 오라로부터 부지불식간에 받은 느낌이 바로 그러한 호불호를 결정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과거엔 오라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갖가지 남용으로 해서 그 능력을 상실했다. 그리고 앞으로 수세기 이내에 사람들은 다시 텔레파시, 투시 등의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호불호의 문제를 좀더 살펴보기로 하자. 모든 오라는 많은 색채와 줄무늬로 구성되어 있다. 두 사람이 사이좋게 어울리려면 색채와 줄무늬가 서로 맞아야 한다. 자주 보는 경우인데, 남편과 아내가 한두 방면에선 잘 어울리나 다른 방면에선 전혀 맞지 않는 수가 있다. 그것은 한 오라의 특별한 파장 형태가 배우자 오라의 파장 형태와 특정 부분에서만 접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전적인 합의와 조화가 이루어진다.

우리는 흔히 “두 사람이 상극이다”라는 말을 한다. 이것은 서로 명백히 어울리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간편할 것이다. 어울리는 사람들은 오라의 색채가 융화해 조화를 이루는 반면, 안 어울리는 사람들은 서로 끔찍하게 부딪치는 색채를 지녔다고.

사람들은 유형별로 끼리끼리 모인다. 그들은 같은 주파수대에 속해 있다. 유형이 같은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돌아다닌다. 당신은 처녀들이 때를 지어 몰려다니거나 청년들이 패거리로 길모퉁이에서 빈둥대며 일탈 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그것은 이들이 공통의 주파수 또는 공통의 오라를 갖고 있어 서로 의지하며 자석처럼 끌리기 때문인데, 그중 가장 강한 자가 전체 무리를 지배하며 좋은 나쁜 것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젊은 세대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진보를 위해) 자신들의 유치한 충동을 억누를 수 있는 자기절제 훈련을

이미 기술했듯이 인간은 달걀과 같은 모양을 이루는 오라 속에 중심을 잡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평균적인, 건강한 인간 존재의 정상적인 위치다. 하지만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 사람들은 종종 “나는 오늘 제정신이 아니야(Feel out of myself today)”라고 말한다.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오라의 중심이 어딘가 비스듬하게 잡혀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중인격적인 사람들의 오라는 보통 사람들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전혀 다른 두 색깔이 오라의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인격 상태가 심할 때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달걀 모양 오라가 비스듬히 겹쳐 있기도 하다.

정신병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전기충격 요법은 아주 위험한데, 왜냐하면 순식간에 유체 $M_{\text{éstral}}$ 뒤에 다룬다와 육체를 분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알고 있던 그렇지 않은 간에, 본래 전기충격 요법은 두 개의 오라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러나 두뇌의 신경조직을 ‘태워버리기’ 쉽다는 부작용도 있다.

우리는 오라의 색채, 주파수, 그리고 기타 요소들에 어느 정도의 변화 가능성과 일관성을 함께 지니고 태어난다. 그런고로 의도가 순수한 확고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오라를 좋은 쪽으로 바꿀 수가 있다. 유감스러운 사실은, 그것을 나쁜 쪽으로 바꾸기가 훨씬 쉽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영락없이 살인자가 될 운명임을 알았지만 그 운명의 광풍에 꺾이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조치를 취했다. 그리하여 살인자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현자가 되었던 것이다.

우리 모두는, 맘만 먹는다면 사고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오라를 성숙시킬 수 있다. 갈색을 띠는 우중충한 색조의 빨강 오라(과잉성욕

을나타냄)를 지녔더라도 성욕을 승화시킨다면 빨강의 진동수를 높일 수 있고, 그러면 그는 훨씬 건설적인 에너지로써 자신의 길을 개척해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오라에서 낮은 진동은 흐리고 우중충한 색조를 만드는데, 그것은 눈길을 끌기보다는 혐오스런 느낌을 준다. 반대로 진동수가 높을수록 오라의 색채는 더 선명하고 현란해진다. 야단스럽게 화려하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 순수함이 드러난다는 말이다. 쉽게 말해 깨끗한 색조는 유쾌하게 느껴지고, 우중충한 색조는 불쾌하게 느껴진다. 선행은 오라를 밝게 하여 우리의 용모에도 보탬이 되지만 악행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거나 '실의'에 빠지게 한다. 남을 돕는 선한 행위는 세상을 '살 만하고 긍정적인 곳으로' 바라보도록해준다.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오라의 색채는 그의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라는 점이다. 물론 기분에 따라 변하는 측면도 있지만, 오라의 기본색채는 그의 성격이 개선되거나 개악되지 않는 그대로 유지된다.

기본적인 색채는 늘 같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일시적인 색채는 기분에 따라 오르내리며 바뀐다. 따라서 당신이 누군가의 오라를 볼 때는 아래와 같이 자문해봐야 한다.

1. 무슨색깔인^ㅅ?
2. 그 색은 산뜻한가, 우중충한가? 얼마나 뚜렷하게 보이는가?
3. 그것은 특정 부위에 걸쳐 소용돌이치는가? 아니면 거의 변하지 않고 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가?
4. 그것은 모양과 형태를 갖춘 연속적인 색의 띠인가? 아니면 넘실대어 날카로운 봉우리와 깊은 골짜기를 만드는가?

5. 내가 지금선입견을갖고상대방을보고있지는않은가?왜냐하 면 어떤 오리를 보고서, 그것이 실제론 전혀 우중충하지 않은 데도 우중충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느낌은 우리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 남의 오리를 보기 전에 자신의 오리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자.

음악의 리듬과정신의 리듬은서로 관련이 있다. 인간의 두뇌는 그 자신의 전기자극과 진동을 가감 없이 외부로 송출하고 있다. 인간은 그 자신의 진동수(뒹뒹이)에 따라서 저마다 일종의 소리를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벌집 근처에 가면 벌떼가 응응거리는 소리가 들리듯이, 다른 생물들도 이런 인간의 소리를 듣고 있지 않을까 싶다.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소리가 있다.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전선이 웅웅 소리를 내듯 인간도 자신의 소리를 계속 내보낸다. 그래서 많은 노래들 중에서도, 우리의 이런 소리와 잘 공명하는 곡이 소위 '유행가'가 되는 것이다. 당신 역시 어떤 사람들과도 함께 흥얼거리고 휘파람 불 수 있는 애청곡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 노래의 곡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유행가가 지닌 기본 에너지가 — 그것이 소멸되기 전까지에 한해서 — 우리의 뇌파와 공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전음악은 좀더 영속적인 특징이 있다. 고전음악은 우리의 청각적 파동 형태와 기분 좋게 어울리는 음악이다. 국민들을 분발케 하려는 지도자는 필히 '애국가'라 불리는 특별한 형식의음악을 만드는 법이다.애국가를 들으면 갖가지 정서가 느껴지는데 , 그때 우리는 별떡 일어나 조국을 옹호하기도 하고 타국을 향해 적대적인 생각을 품기도 한다. 사실

소리라 불리는 진동이 우리의 정신으로 하여금 일정하게 반응토록 유도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특정한 유형의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사람들에게서 특정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생각이 깊은 사람, 즉 뇌파의 진폭이 큰 사람은 음악도 그와 같은 유형 — 산이 높고 골이 깊은 — 을 좋아한다. 그러나 정신이 산만한 사람은 음악도 산만한 류의, 즉 악보만 봐도 음정들이 까불고 와글와글한 곡들을 좋아한다.

위대한 음악가들 중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유체여행을 할 수 있고, 죽음 저편의 영역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우주의 음악을 듣는다. 이 천상의 음악은 그들에게 심대한 인상을 남기고, 그들은 지구로 돌아오자마자 그 기억의 파편 속에서 '영감'에 젖어 작곡에 돌입한다. 그들은 악기 또는 오선지로 달려가서 영적 차원에서 들었던 음표들을 기억이 닿는 한 지체없이 써내려간다. "작곡을 끝냈다"는 그들의 말은, 기억의 한계가 거기까지였다는 뜻과 같다.

잠재의식을 건드리는 악마적인 광고시스템이 실재하고 있다. 어떤 메 시지를 텔레비전 화면에 언뜻 스쳐 지나가게 하면, 우리의 의식은 자각하지 못하지만 잠재의식은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그 메시지가 돌연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잠재의식이 힘으 로써 표면의식을 밀어내고 광고에 나온 상품을 사도록 만드는 것이다. 표 면의식은 그런 물건이 필요하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말이다.

파렴치한 집단의 사람들, 예컨대 국민의 복지를 마음에 두지 않는 지도자들은 실제로 이런 형태의 광고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

제 7 과

이번 교과는 짧지만 매우 중요하다. 이 특별한 교과를 특히 주의 깊게 읽어주길 바란다.

오라를 보려는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글 로 적인 지침을 읽은 후, 책에서 눈을 떼었을 때 놀랍게도 오라가 짠 하고 보이기를 기대한다. 그건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다. 위대한 달인들도 오라를 볼 수 있기까지 거의 평생을 노력한다. 우리는 성실하고 앙심적으로 연습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라를 식별할 수 있다고 믿는다. 거의 모든 사람이 최면에 걸릴 수 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사람은 연습을 통해, 정확히는 '인내'를 통해 오라를 볼 수 있다.

몇 번이고 강조할 것은, 오라를 가장 잘 보려면 알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오라는 의복에 많은 간섭을 받기 때문이다. 이 에 대해 누군가는 "세탁소에서 막 받은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내 오라엔 영향이 없겠지"라고 말할 테지만, 십중팔구 새 옷의 일부분 역시 세탁소의 누군가가 만졌을 것이다.

세탁 일은 단조로운 편이므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개 '딴생 각'을 하며 일을 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얼마간 '넋을 놓고 (themselves) 있는 셈이다. 기계적으로 옷을 접고 만지고 하는 동안 그들의 생각은 각자의 사적인 일에 쏠려 있다는 말이다. 그들의 오라에서 나온 인상이 옷에 스며들면 나중에 당신은 그 옷을 입고 거울에 비춰볼 때 거기서 다른 사람의 인상이 느껴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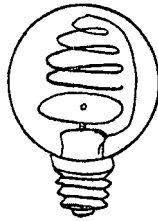
믿기 어렵다고? 이런 식으로 살펴보자. 주머니칼을자석에 갖다 대보라. 그러면 칼은 곧 자성을 띠 것이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향을 받아 띠 수 있다. 공연장에서 어떤 낯선 사람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던 여성은 끝나자마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아, 목욕부터 해야겠어. 그 사람 가까이 있었더니 마치 오염된 것 같은 느낌이 야.”

오라의 색채를 진정 빠짐없이 보고 싶다면 그 대상은 알몸이어야 한다. 여성의 몸을 살필 수 있다면 색채가 남성보다 훨씬 뚜렷함을 알게 될 것이다.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염려되긴 하지만, 실제로 여성의 오라는 그 색채가 강렬하고 원초적이다. 그래서 남성의 오라보다 훨씬 보기가 쉽다. 하지만 아무런 거부감 없이 흔쾌히 옷을 벗겠다는 여성을 찾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그 대안으로서, 당신은 자신의 몸을 직접 살피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때 당신은 혼자여야 한다. 예컨대 욕실 같은 개인적 공간에 홀로 있어야 한다. 욕실의 빛이 은은한지 확인하라. 너무 환하다면 수건으로 램프를 좀 가려서 어스름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조도가 아주 낮은 상태가 된다. 여기서 경고 한마디. —수건을 램프에 너무가까이 대서 연기가 나고 불이 붙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집을 태우자는 게 아니고 빛을 줄이자는 거니까.

만약 전력 소모량이 거의 없다시피한 오스그림 램프(네온램프의 상표)를 구할 수 있다면 안성맞춤일 것이다. 오스그림 램프는 투명한 유리구로 되어 있고, 그 내부는 아래에 짧은 막대가 꽂혀 있고 그 위로 등근 원형 금 속판이 부착된 형태이다. 그리고 또 다른 막대가 아래부터 꼭대기까지 뻗어 있는데, 거기에 조잡한 나선형의 다소 무거운 철선이 매달려 있다. 이

램프를 소켓에 꽂고 스위치를 켜면 철선이 달아오르며 붉은색의 네온광을 낸다. 여기에 이런 유형의 램프 그림을 첨부해두었다.(그림 7) 왜냐하면 '오스그림'은 상표라서 다른 지역에선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림 7〉 오스그림 류의 네온램프

오스그림 램프를 켜던가 아니면 당신 나름대로 흐릿하게 조절한 조명을 켜 후, 옷을 전부 벗고 자신을 전신대 거울에 비춰보라. 잠시 동안은 아무것도 보려 하지 말고 그저 편히 있으라. 등 뒤로는 거무스름한 커튼이 놓이게 하라. 검정이면 좋고 어두운 회색도 괜찮다. 소위 '중립적인' 배경, 그러니까 오라 그 자체에 영향을 줄 색이 없는 배경을 갖추라는 말이다.

무심하게 거울 속의 자신을 응시하면서 잠시 기다리라. 그런 후에 머리를 바라보라. 관자놀이 부근에 푸른빛의 옅은 색조가 보이는가? 이번엔 몸을 살펴보라. 예컨대 팔에서 시작해서 엉덩이까지, 거의 알코올 불꽃 같은 푸른빛의 색조가 보이는가? 보석 세공인들이 사용하는 메틸알코올과 같은 알코올성 액체를 태우는 램프를 아마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불꽃은 전체적으로 푸르스름하고, 끝에서만 노란 불꽃이 튼다. 에테르도 그와 같다. 그것이 보인다면 진보를 이룬 것이다.

당신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도에서도 보지 못할 수 있다. 음악가들도 한두 번의 연습만으로 어려운 곡을 연주할 수는 없다. 당신은 오로지 연습만을 통해 에테르를 볼 수 있게 되고, 더 연습하여 오라까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또다시 반복해 강조하는 것은 알몸 상태라야 그 과정이 더 쉽고 분명하다는 사실이다.

알몸 상태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사람들은 “인간은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그러니 ‘신의 형상’을 가리지 않은 채로 보는 게 무슨 잘못인가? 순수한 사람에게는 모든 게 순수하다. 당신은 자신이든 남이든, 다만 순수한 동기로 보는 것이다. 만일 불순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에테르도 오라도 보지 못한다. 사람은 보고자 하는 것만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계속 자신의 몸을 보면서 에테르를 찾아보라. 때가 되면 그것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오라를 찾던 사람이 때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대신에 손바닥이나 다리 혹은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 가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독특한 느낌의 가려움인데,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는’ 길에는 제대로 들어서 있으나, 긴장으로 인해 스스로 자신을 방해 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럴 때는 긴장을 풀고 마음을 가라앉혀야 한다. 충분히 긴장을 풀면 가려움이나 경련 대신 에테르나 오라, 또는 그 둘을 다 보게 될 것이다.

가려움이란 실제로 손바닥의 — 또는 그 부위가 어디든 간에 — 오라가 한곳으로 집중되며 느껴지는 현상이다. 많은 사람들은 놀라거나 긴장했을 때 손바닥이나 겨드랑이, 등줄기에서 땀을 흘린다. 심령실험에서는 땀 대신 가려움이 나타난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아주

또한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지금 너무 애를 쓰고 있으니 긴장만 풀다면 에테르와 오라가 곧 당신의 휘둥그레진 눈앞에 나타나리라는 뜻이기도 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오라를 아주 정확하게 보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거울을 통해서 보기 때문이다. 거울은 색채를 다소 왜곡시켜 반사한다. 그러므로 영문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실제보다 더 우중충한 색채를 지녔다고 생각하기 쉽다.

연못 속의 물고기가 수면 위에 피어 있는 꽃을 본다고 생각해보자. 물고기는 당신과 똑같이 꽃의 색채를 감지하진 못할 것이다. 물고기는 연못의 잔물결과 투명도에 따라 일그러진 꽃의 모습을 볼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오라를 직시하지 못하고 반사된 영상을 통해 본다는 것은 다소 오도의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남을 응시하는 연습이 효과가 있다.

그럴 때 당신의 실험대상자는 자발적이고 협조적이어야만 한다. 누군가에게 나체를 보이는 상황에서 그는 당연히 불안해하거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에테르는 거의 피부에 달라붙을 만큼 힘을 잃고, 오라 자체도 꽤나 수축되면서 색채가 왜곡된다.

오라를 훌륭하게 판별하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첫 단계는 그게 무슨 색이 되었던 일단 '눈을 뜨는' 것이다. 그 색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상관이 없다.

최선의 방법은 상대방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부담 없는 대화, 한가로운 잡담을 하며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아무 일도 없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하라. 그가 긴장을 풀면 에테르가 정상적인 크기로 돌아올 테고, 오라 자체도 외막까지 충분히 뻗어 나올 것이다.

이 과정은 여러 측면에서 최면술과도 흡사하다. 최면술사는 당장 환자를 붙잡아 앉혀서 최면을 걸려고 하지 않는다. 통상 여러 번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는 먼저 환자를 만나보고, 차차 일종의 신뢰 또는 공감대를 형성해간다. 그리고 환자가 초보적인 최면에 반응을 보이면 한두 가지 최면기법을 쓰기도 한다. 그렇게 두세 번의 만남 후에야 환자를 완전히 몽환상태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처음엔 실험대상자의 나체에 그다지 눈길을 주지 말고 그가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그러면 아마도 두 번째 만남에선 상대방이 확신과 신뢰를 갖고 좀더 긴장을 풀게 되리라. 세 번째 만남쯤에야 당신은 그의 신체를 또는 신체의 윤곽을 살피기 시작할 수 있다. 그에게서 어렴풋한 푸른 색조의 아지랑이가 보이는가? 신체 주변을 소용돌이치는 줄무늬들과 노란 후광이 보이는가? 머리의 정수리에서 나오는 빛이, 흡사 펼쳐진 연꽃처럼 또는 불꽃놀이꽃처럼 화려한 색조로 벌어지는 모습이 보이는가?

이 교과는 짧지만 매우 중요하다. 자신이 편안하고, 마음에 아무런 걱정이 없으며, 배가 고프지도 과식하지도 않은 상태라면, 이제 욕실로 가서 몸을 씻어 옷가지에서 묻혀들인 요소들을 지우고 자신의 오라를 보는 연습을 시작하라. 오라를 보고 못 보고는 결국 연습의

이전 교과에서 우리는 에테르와 오라의 중심인 육체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육체의 밖에 있는 에테르를 논했고, 이어서 그 밖의 오라를 색 색의 줄무늬로 묘사했으며, 더 나아가 가장 바깥의 오라 외피까지 설명했다. 이 내용들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먼저 앞서 교과들을 다시 한 번 읽기를 권한다. 왜냐하면 이번 교과와 다음 교과에서 우리는 유체여행에 관한 토대를 마련코자 하기 때문이다. 에테르와 오라, 그리고 육체의 분자구조 특성에 대해 분명히 알지 않으면 당신은 어려움에 빠질지도 모른다.

우리가 살펴본바, 인간의 육체는 원형질 덩어리로 되어 있다. 그것은 일정한 공간에 걸쳐 밖으로 퍼진 분자의 덩어리로서 우주가 일정한 공간을 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이제 우리는 안으로 향하고자 한다. 즉 오라로부터, 그리고 에테르로부터 다시 육체 속으로 들어가보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살로 된 육체가 다만 하나의 운반수단 또는 '한 벌의 옷' —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제 역할을 하는 배우의 복장일 뿐임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두 개의 물체가 같은 공간을 점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건 벽돌이나 목재 또는 금속 덩어리를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맞는 얘기다. 그러나 만일 두 물체가 진동이 다르거나 원자, 중성자, 양성자 간의 거리와 공간이 충분히 넓다면 그 둘은 같은 공간을 점할 수도 있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다른 식으로 표현해보도록 하자. 유리잔 두 개를

잔에 넣으면 물이 넘쳐 밖으로 흘러내리게 된다. 이 경우 물과 모래는 함께 같은 공간을 점할 수가 없어 어느 하나는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좀더 무거운 모래가 유리잔 바닥까지 가라앉으면서 수면을 밀어올려 그만큼의 물을 흘러넘치게 한다.

이번에는 물이 언저리까지 채워진 두 번째 유리잔에 설탕을 천천히 넣어보자. 당신은 물이 유리잔 밖으로 넘치기까지 무려 여섯 손갈의 설탕을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작업을 천천히 하면 설탕이 사라지는 모습, 즉 용해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설탕이 녹으면서 설탕 분자들은 물 분자들 사이의 공간을 점유할 뿐, 그 이상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다만 물 분자들 사이의 모든 공간이 설탕 분자들로 다 채워진 이후에 여분의 설탕이 유리잔 바닥에 쌓이면 비로소 물이 흘러넘치는 것이다. 이 두 번째 잔의 경우가 바로 두 물체가 같은 공간을 점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내부에 빈 공간을 갖고 있는 육체 역시 또 다른 성근 몸들, 즉 영체 (spirit body) 또는 유체 (*al body) 등을 거느리고 있다. 그것들은 정확히 육체와 똑같은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흙이나 납 또는 나무처럼 조밀한 분자 구조가 아니라 훨씬 덜성밀한 분자 구조를 이룬다. 그러므로 영체가 육체에 아주 가깝게 달라붙는 일이 가능하며 이때 어느 쪽도 다른 쪽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다.

유체와 육체는 은빛 줄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은빛 줄은 엄청난 속도로 진동하는 분자들의 덩어리이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엄마와 아기를 연결하는 탯줄과 비슷하다. 탯줄을 통해서 어떤 충동이나 인상 그리고 영양분이 엄마로부터 아기에게로 흘러간다. 아기가 태어나고 탯줄이 끊어지면 아기는 태중의 삶을 끝내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 또 다른 삶을 시작

한다. 이제 아기는 더 이상 엄마의 일부분이 아니다. 그런고로 엄마의 부분은 '사멸'하고 아기는 스스로 제 존재를 떠맡게 된다.

은줄은 초자아와 육체를 연결하고 있고, 육체가 존재하는 동안은 그것을 통해 정보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빠르게 전해진다. 인상, 명령, 교훈 그리고 때때로 영적 자양분이 초자아에게서 육체로 내려온다. 죽음이 와서 은줄이 끊어지면, 육체는 버려진 옷처럼 남겨지나 영혼은 계속 움직인다.

아직 그 문제에 들어갈 처지가 아니지만 미리 말해둘 것은, 하나가 아니라 많은 '영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중에서 지금 우리는 육체와 유체만을 다루고 있다. 현 진화 단계에서 우리는 모두 아홉 가지 유형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 하나 하나는 서로 은줄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유체여행과 유체 상태에 긴밀히 관련된 문제들만을 살펴볼 것이다.

인간은 살과 뼈로 된 육체로 잠시 둘러싸여 있는 영^{®sp}이다. 영은 지상을 경험하고 교훈을 얻기 위해 육체를 이용한다. 인간의 육체는 초자아가 부리는 또는 조종하는 하나의 운반수단이다. 어떤 사람들은 '혼평 (soul)' 이란 말을 사용하길 좋아하나 우리는 그것을 '초자아 (Overself)' 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더 편리할뿐더러, 엄밀히 말해 혼(魂)은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초자아는 육체의 조종자이자 운전자이다. 인간의 두뇌는 중계소이자 전화교환국이며, 완전 자동화된 공장이다. 두뇌는 초자아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초자아의 명령을 화학적인 또는 물리적인 활동으로 바꾸는데, 그 활동이 소위 운반수단을 살아 있게 한다. 즉 근육을 움직이고 감정이 생겨나게 한다. 두뇌는 또한 역으로 초자아에게 경험의 인상과 메시지를 중

계4

육체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마치 운전자가 잠시 자동차를 떠나듯 이 인간은 더 큰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육체에 싸여 있는 동안에 배운 교훈들을 평가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육체와 유체 단계의 일과 간단한 초자아 관련 사항만을 논의할 것이다.

우리가 특히 유체를 언급하는 것은, 그 상태로 인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먼 곳으로 여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체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으며 옛 친구나 친척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다. 남자든 여자든, 전 세계의 모든 도시를 방문할 수 있으며 세계의 이름난 도서관 들을 섭렵할 수가 있다. 연습만 하면 어느 도서관이든 방문해서 무슨 책 이든 또는 그 책의 어느 페이지든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육신을 떠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데,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쉽게 느끼거나 분석할 수 없는 일들은 믿지 말고 무시하도록 사람들을 조건화시켰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요정 이야기를 믿는다. 실제로 요정은 존재한다. 우리는 그 들을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을 자연의 영_때 sp_이라 고 부른다. 아주 많은 수의 어린아이들이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소꿉동무를 가지고 있다. 어른들에겐 그 아이들이 가상의 세계에서 사는 것처럼 보인다. 냉소적인 어른들에겐 도무지 보이지 않는 친구들과 정답게 대화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이 친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아이들이 커가는 동안 부모들은 그것을 웃어넘기거나 얼토당토않은 상상이라며 화를 낸다. 자신의 유년시절을 잊어버린 부모들은 과거 자신의 부모가 했던 것과 똑같이 거짓말 마 또는 '정신 좀 차려' 하면서 제 아이를 심지어 때리기조차 한다. 결국 그 아이는 자연의 영(또는요정) 같은

건 없다고 믿게 하는 최면에 걸리고, 다음엔 이 아이들이 다시 성인이 되어 제 아이들이 자연의 영을 보거나 함께 노는 것을 휘방한다.

요정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동양인 또는 아일랜드인들에게 물어보라. 어쨌든 자연의 영들은 존재한다. 요정이라 불리든 정령이라 불리든 혹은 다른 무엇이라 불리든, 그들은 실재하며 또한 좋은 일을 한다. 인간은 무지와 자만으로 이들의 존재를 부인함으로써 불가사의한 경험과 놀라운 지식의 보고를 놓치고 있다. 왜냐하면 자연의 영은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 그들을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초차아의 지식에는 한계가 없다. 그러나 육체, 곧 물리적 몸의 능력에는 매우 실제적인 한계가 있다. 지상의 거의 모든 사람은 잠자는 동안 육체를 떠난다. 그리고 깨어날 때 '꿈'을 꿰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오직 지상에서의 생활만이 전부라고 믿게끔 배웠고, 자는 동안 내 몸은 한자리에 가만히 머문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경이로운 경험들은 '꿈'이란 말로 합리화되고만다.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의지로써 육체를 떠날 수 있다. 그리고 멀리까지 빠르게 여행했다가 수 시간 뒤에 그들이 행하고 보고 경험한 모든 기억을 빠짐없이 지닌 채 육체로 돌아올 수 있다. 누구나 육체를 이탈해서 유체여행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불신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실로 무익하기만 할 뿐이다.

실제로 두려움이라는 첫 번째 장애만 넘으면 유체여행은 너무나도 쉽다. 두려움은 막강한 제동장치이다. 사람들은 '육체를 벗어나는 것은 곧 죽는 것'이라는 본능적 두려움을 다스려야 한다. 몇몇 사람들은 육체를 벗어났다가 돌아올 수가 없게 되거나 다른 존재가 내 육체로 들어올지도 모른다면 극도로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당사자가 스스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절대 불가능하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든 해를 입지 않는대 은줄은 유체여행 중에 결코 끊어지지 않으며, 당사자가 겁에 질려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그의 육체를 침입할수는 없다.

당신은 언제나 육체로 돌아올 수 있다. 당신은 늘 하룻밤을 자고 나서 깨어나지 않는가.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두려움이야말로 위험을 초래하는 유일한 요소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두려움 다음의 장애물은 생각이다. 왜냐하면 생각 또는 이성은 정말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생각과 이성은 우리로 하여금 높은 산을 오르지 못하게 한다. 이성은 우리가 만일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지면 산산조각이 나리라고 위협한다. 생각과 이성은 제어되어야만 한다.

불행히도 그것들은 오명을 지니고 있다. 생각이라! 당신은 생각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생각이란대체 무엇인가?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머리꼭대기에서? 아니면 머리 뒤쪽에서? 눈썹 안쪽에서? 귀 안쪽에서? 눈을 감으면 생각이 중단되는가?

아니다. 생각은 당신이 집중하는 곳에 가 있다. 생각은 당신이 집중하는 곳에서 일어난다.

이 간단하고 초보적인 사실은 당신이 몸을 빠져나와 유체상태가 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사실은 당신의 육체를 미풍처럼 자유롭게 날아오르게 한다. 이에 관해 생각해보고 이 교과를 다시 읽어보라. 생각에 관해 살펴 보고, 생각이 어떻게 당신을 (이름 모를 두려움과 최악의 상상을 통해서) 뒷걸음질 하게 만들곤 하는지를 살펴보라.

예컨대 한밤중에 홀로 집안에 있을 때, 당신은 바깥의 울부짖는 바람

소리를 듣고 밤도둑을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커튼 뒤에 숨어서 당신에게 덤벼들려 한다고 상상하면서 말이다. 바로 이 경우에 생각은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

생각에 대해 좀더 생각해보자. 당신은 치통으로 괴로워 망설이다 치과 의사를 보러 간다. 그는 당신에게 이 하나를 빼야 한다고 말한다. 당신은 아프지 않을까 걱정한다. 당신은 두려워하며 의자에 앉는다. 치과 의사가 주사를 놓으려고 피하주사기를 집어들자마자 당신은 자동적으로 움츠 러들고 어찌면 얼굴까지 창백해질지도 모른다. 당신은 아픔을 예감하면서 바늘이 들어가는 것을 생생히 느끼고, 곧 매섭게 잡아뽀힌 이가 피를 문힌 채 나올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쇼크로 어지럼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렇게 당신은 두려움을 키우고, 자신의 사고력을 거기에 집중하여 스스로를 더욱 아프게 한다.

당신의 모든 에너지가 자신을 더 아프게 하는 데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그 쓸모없는 생각은 대체 어디에 존재하는가? 당신의 머릿속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느낄 수 있는가? 생각은 당신이 집중하는 곳에 있다. 생각이 당신 안에 있을 때는,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이거나 생각이 자신 안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을 때뿐이다. 생각은 당신이 그것을 두고자 하는 데 있다. 생각은 당신이 가리킨 바로 그곳에 있다.

“생각은 집중하는 곳에 있다”는 말을 다시 살펴보자. 전투가 한창일 때는 사람들이 총상이나 자상을 입어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한 동안 그들은 자신이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 그들이 부상에 관해 생각할 여유가 있을 때라야 그들은 고통을 느끼고 그 충격으로 무너진다. 하지만 생각, 이성, 두려움은 우리의 영적인 진화를 더디게 하

는 제동장치이다. 그것들은 덜컥거리게 하면서 기계의 속도를 줄이듯이, 초자아의 명령을 왜곡시킨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두려움과 구속으로 흐트러지지 않을 때 비로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크게 고양된 힘을 지닌 초인간이 될 수 있다. 한 예를 들어보자. 아주 형편없는 근육을 가진 허약하고 소심한 남자가 인도를 벗어나 교통이 번잡한 차도로 들어선다. 그의 생각은 멀리 딴 데 로 가 있다. 아마도 사업 일 또는 밤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부인의 기분이 어떨지에 쏠려 있다. 혹은 밀린 청구서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때 마주쳐오는 차의 갑작스런 경적소리에 그는 - 생각 없이 - 인도로 튕기듯 물러나는데, 잘 훈련된 운동선수조차 전혀 할 수 없는 놀라운 뒹뒹기를 해낸다. 만일 사고과정이 이 남자를 방해했다면, 즉 머리로 따지느라 지척거렸다면, 그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에 치여버렸을 것이다. '생각 없는 상태'가 늘 그를 감시하고 있는 초자카로 하여금 (아드레날린 같은) 화학물질을 쏘아 근육을 활성화시키게 한 것인데, 그렇게 그 당사 자는 자신의 정상적 능력을 초월하는 뒹뒹기, 곧 의식적인 생각의 속도를 뛰어넘는 순간적 행동을 했던 것이다.

서양인들은 사고와 이성이야말로 '인간을 동물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배워왔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은 사고는 유체여행에서 인간을 많은 동물들보다도 더 열등하게 만든다. 예를 들자면, 고양이들이 인간이 볼 수 없는 사물을 본다는 사실에는 거의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동물들은 유령을 보거나 인간이 알기 훨씬 전에 어떤 사태를 예견하는 것 같은 모습을 흔히 보인다. 동물들은 '이성'과 '사고와는 다른 시스템을 사용한다.

통제해야 한다.

당신에게 편안한 , 충분히 긴장이 풀리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장소에 앉아보라. 원한다면 불을 꺼도 좋다. 이런 경우 불빛은 방해가 될 수 있다. 잠시 동안 무료하게 앉아 그저 생각을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그것들이 줄곧 어떻게 의식 속으로 기어드는지를 알아보라. 저마다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무실에서의 연쟁 , 밀린 청구서 , 생활비 , 세계정 세, 고용주에게 말하고 싶은 불만 등등 — 이것들을 전부 한편으로 쓸어 내라.

당신이 마천루의 꼭대기에 있는 깜깜한 방 안에 앉아 있다고 상상하라. 당신 앞에는 검은 가리개로 덮은 커다란 전망창이 있는데, 이 가리개는 무런 무늬도 없어 전혀 주의를 흐트리지 않는다. 그 가리개에 집중하라. 무엇보다 어떤 생각도 당신의 의식 (검은 가[^]개) 위에 올라타지 못하게 하라. 잡념이 침입하는 듯하면 그것들을 의식 바깥으로 밀어내라.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건 단순히 연습의 문제이다. 한동안 잡념은 그 검정 가리개의 가장자리에서 깜박일 것이다. 그것들을 단호하게 밀어내라. 그리고 오직 가리개에만 집중하라. 의지로서 잡념들을 밀어냄으로써 그 너머에 있는 당신의 의식 자체를 바라보도록 하라.

또다시 그 상상의 검정 가리개를 응시하면 갖가지 수상한 잡념이 침입해 당신의 주의를 끌려고 몸부림을 칠 것이다. 그것들을 밀어내어 잡념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라. (요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시 반복한다.) 잠깐 동안 완전한 공백의 인상을 견지할 수 있을 때 , 당신은 양피지 한 조각이 찢겨 나가듯이 뭔가 '찰칵' 하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신은 이 평범한 세계를 벗어나 시간과 거리가 전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띠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연습을 통해 , 실천을

명인과 달인들이 하는 것처럼 당신도 생각을 제어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시도해보라. 연습하라. 진보를 원한다면 당신은 잡념을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만 한다.

제 9 과

지난 교과에서 우리는 생각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논했다. 우리는 "생각은 당신이 두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의 체외이탈과 유체여행을 도울 수 있는 공식이니 다시 한 번 복습해보자.

생각은 당신이 그것을 두고자 하는 데에 있다. 물론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 밖에 존재한다. 간단한 연습을 해보자. 다시 한 번 아무도 없는 곳, 정신이 흐트러질 염려가 없는 곳을 찾아가라. 이제 당신은 체외이탈을 하 려고 한다. 당신은 홀로여야 하고 이완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당신이 가능한 한 , 편안히 침대에 눕기를 제안한다. 아무도 당신의 실험을 망치지 않도록 재차 확인하라. 안정이 되면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이 실험에 대해 생각하라. 그리고 당신에게서 2 미터쯤 위쪽 지점 에 집중하라. 눈을 감고 그곳에 집중하라. 당신의 유체가 그곳에서 당신의 육체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강하게 의념하라. 생각하고, 연습하고, 집 중하라. 그러다 보면 연습에 따라 당신은 갑자기 가벼운 전기적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문득 2 미터쯤 아래 눈을 감고 누워 있는 당신의 육체를 보게 될 것이다.

처음에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는 꽤나 힘이 들 것이다. 당신은 마치 커다란 고무풍선 안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른다. 당신은 안쪽에서 풍선을 밀고 또 헤집어본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갑자기 , 당신은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된다.

빠지지 마시라.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다면 그뒤에 무엇이 있든 어떤 곤란도 겪지 않고 당신은 계속 전진해가겠지만, 두려워한다면 육체로 다시 튕겨들어갈 다른 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육체 속으로 다시 튕겨들어갔다면 그날 뭔가를 더 시도해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은 성공률이 극히 희박하다. 당신에게는 그보다 잠과 휴식이 더 필요하리라.

당신이 이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육체를 일단 벗어났다고 상상하자. 당신은 거기에 서서 자신의 육체를 내려다보며 '이젠 무엇을 하지?' 하고 자문한다. 자신의 몸을 보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테니까. 대신 나는 이런 시도를 해보길 권한다. 마치 한가롭게 떠도는 비눗방울처럼 자신의 유체가 방 안을 떠돌도록 하라.

이제 당신은 비눗방울만큼도 무게가 나가질 않는다. 떨어질 염려도, 다칠 염려도 없다. 그저 당신의 육체가 편안하게 쉬고 있지만 살펴두라. 물론 당신은 이 유체를 살덩어리로부터 풀어놓기 전에 육체가 아주 편안한 상태라는 걸 확인해두었을 것이다. 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되돌아왔을 때 팔이 뻗뻗해지거나 목에 쥐가 날 수도 있다. 육체의 신경을 압박하는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라. 예컨대 팔을 매트리스의 가장자리 밖으로 뻗고 있을 경우엔 신경에 압박이 가해져 '손발이 저려 따끔따끔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 체외이탈과 유체여행을 시도하기 전에 육체가 절대적으로 편안한 상태인가를 거듭 확인해야 한다.

이제 유체를 떠돌게 하라. 방 안을 유랑하는 공기를 타고 비눗방울이 된 양 한가롭게 움직여 다니라. 천장처럼 당신이 평소엔 자세히 볼 수 없었던 장소들을 살펴보라. 이 초보적인 유체여행에 익숙해지도록 하라. 방 안에서 충분히 빈둥거릴 수 있기 전까지는 밖으로 나가는 모험을 안전하

게시작할수 없다.

실제로 이런 유체여행은 아주 쉬운 일인데, 당신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 어떤 환경하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두려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두려워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체여행은 자유를 찾아가는 여행이다. 당신이 감옥에 갇히거나, 진흙에 뒤덮이거나, 영적인 주문에 걸려 끔찍한 무언가에 깔린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은 오히려 육체로 되돌아왔을 때뿐이다. 진정으로 유체여행에서는 두려워할 거리가 없다. 두려움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이 과정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보겠다. 당신은 침대 위에 등을 대고 누워 있다. 당신은 육체의 각 부분이 편안하고, 신경을 압박하는 요소도 없고, 양다리도 접혀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다리가 접히면 혈액순환이 더더져 그 부위가저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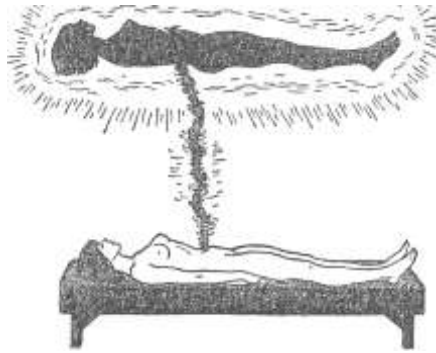
조용히 만족스럽게 휴식을 취하라. 방해거리도 걱정거리도 없다. 그저 육체로부터 유체가 빠져나가는 것만을 생각하라.

늦추고 이완시키고 더 늦추라. 예컨대 당신의 육체에 상응하는 어떤 유령 같은 형체가 있다고 상상하라. 그 형체는 마치 여름의 가벼운 산들바람에 떠오른 민들레 흩씨처럼 육체를 벗어나 위로 떠오른다. 그것이 뜨도록 내버려두라. 두 눈은 꼭 감은 상태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 두세 번은 너무 놀라 움찔거리게 될 것이고, 그것이 유체를 육체 내의 제자리로 강하게 다시 감아당길지 모른다.

흔히 사람들은 잠에 빠질 때 별난 방식으로 몸을 움찔거린다. 그게 너무 심해서 도로 깨어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이런 경련은 유체를 육체로부터 너무 거칠게 분리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미 말했듯이 거의 모든

하시만.

유체로 다시 돌아가자. 당신의 유체가 점진적으로, 순탄하게 육체에 서 분리되어 위로 1 미터 가량 뜬다고 생각하라. 유체는 부드럽게 흔들리면서 당신의 육체 위에 있다. 당신도 막 잠에 들려고 할 때 뭔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리라. 그것이 바로 유체의 흔들림이었다. 우리가 말했듯이 유체는 당신 위에 다소 흔들리며 떠 있고, 당신과 은빛 줄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 8>육체의 배꼽과 유체의 배꼽 간의 연결

그것을 너무 가까이 보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미 경고했듯이, 당신이 놀라 경련을 일으키면 당신은 육체로 되돌아가 모든 걸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고에 유의하라. 경련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당신의 유체는 한동안 위에 떠돌 것이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저 알게 호흡하라. 이것은 의식적인 첫 외출이므로 당신은 조심을 해야 한다.

당신이 두려움이 없고 경련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유체는 천천히 더욱 떠올랐다가 침대 끝이나 옆으로 흐를 것이고, 그곳에서 부드럽게 아무 충격도 없이 발이 마루에 거의 닿을 만큼 점차 가라앉을 것이다. 이렇게 '연착륙'의 과정이 끝나면, 당신의 유체는 침대 옆에 서서 당신의 육체를 보고 그 정보를 역으로 중계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육체를 보는 것은 꽤 불편한 느낌일 수 있다. 심지어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한다. 보통 우리는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전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처음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던 때를 기억하는가? 녹음기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는가? 처음엔 그게 당신의 목소리란 사실을 솔직히 의심했을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장난을 치고 있거나 녹음기가 잘못됐다고 여겼으리라.

자신의 목소리를 처음 들은 사람은 대부분 의심하고 놀라고 실망한다. 그런데 자신의 육체를 처음 보는 경험은 어떠하겠는가? 완전한 의식을 가진 유체로서 침대에 누워 있는 육체를 내려다보면 소름이 돋을 것이다. 당신은 자기 육체의 형태와 피부색이 마음에 들지 않고 얼굴의 주름 살이나 생김새에 충격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좀더 나아가 마음을 들여다 본다면 각종 자질구레한 기벽과 병적 혐오 등을 발견하게 될 터인데, 그 것에 놀라 당신은 육체로 돌아가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이 당혹스런 자신과의 첫 만남을 극복했다면, 그다음은 무엇일까? 당신은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보고 싶은지를 결정해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당신이 잘 아는 누군가, 아마도 근처 도시에 사는 가까운 친척을 방문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상대는 평소 당신이 빈번하게 방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를 아주 자세하게 (마음속에) 그려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또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를, 그리고 그곳에 이르는 길을 정확히 그려내야 한다. 이 같은 일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당신에게 무척이나 새로운 경험임을 명심하라. 이제 당신은 평소 육체로서 지나다녔을 그 길을 유체로서 가보고 싶어한다.

방 밖으로 나오라. 거리로 나와서 당신이 평소에 이용하는 길로 접어들라. (유체 상태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사람들은 당신을 보지 못한다) 당신이 방문 할 사람의 모습과 그곳까지 이르는 방법을 확실히 그려두라. 그러면 O)주 아주 신속하게,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보다도 훨씬 더 배*르게 당신은 친구 또는 친척의 집에 다다를 것이다.

이 연습에 따라 당신은 어디든 갈 수 있다. 바다든 대양이든 산맥이든, 당신이 지나는 길엔 아무런 방해도 장애도 없을 것이다. 전 세계의 모든 도시가 당신의 목적지가 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아, 내가 간다고 치자. 그런데 돌아올 수가 없다면 그때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생각한다. 대답은 이렇다. 길을 잃을 염려는 없다. 길을 잃는다는 건 전혀 불가능하다. 누군가에게 해를 입거나 육체를 점유당하는 일도 불가능하다. 만일 당신이 유체여행을 하고 있는 동안 누군가가 육체 가까이 접근한다면, 육체는 곧장 경고신호를 보내고 당신은 생각의 속도로 '되감겨' 들어간다. 어떠한 위해도 당신에게 미칠 수 없다. 유일한 위해는 당신의 두려움뿐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실천적 실험, 오직 실험만이 유체여행에 있어 당신의 모든희망, 당신의 모든 야망을 실현시켜줄 것이다.

의식적으로 유체 상태에 있을 때는 육안으로 볼 때보다 훨씬 현란한 색채들을 보게 된다. 모든 것이 살아서 넘실거린다. 당신은 주변에 반점 같은 '생명'의 분자들을 볼지도 모른다. 그것이 바로 지구의 활력이

다. 당신은 그 속을 통과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유체여행에는 하나의 난점이 있다. 당신은 아무것도 소지할 수 없다. 당신은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올 수가 없다. 물론 특수한 조건하에서는 가능하다. 그것은 영안■이 열린 사람 앞에서 당신의 유체를 물 질화하는 방법인데, 이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가서 그의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일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진정한 필요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점에 가서 진열된 상품을 훑어보고 다음날 무엇을 살 것인지 결정하는 정도는 간단히 할 수 있다. 그런 일은 아무래도 괜찮다. 당신은 유체 상태로 상점을 방문함으로써 어떤 상품이 비싸면서도 흡투성인지 혹은 모조품인지를 알 수 있다.

다시 육체로 돌아가고 싶다면, 평정을 유지한 채로 육체를 생각하고 돌아감(back)을 생각하고 들어감(back)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 대단히 빠른 시간 내에, 또는 아예 즉각적으로 육체 위의 1미터 지점까지 옮겨갈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의 유체가 처음 육체를 떠났을 때처럼 거기서 가볍게 표류하면서 파동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자신을 아주 천천히 가라앉히라. 아주 천천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유체와 육체의 형태가 완전하게 일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하기만 하면, 즉 당신이 이 뼈격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육체가 차고 무거운 덩어리라는 느낌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불편함도 없이 육체 속으로 가라앉게 된다.

만일 당신이 서툴러서 두 형체가 정확히 합쳐지지 않거나 누군가 당신을 방해해서 갑작스레 육체로 끌려 돌아갔다면 두통 따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경우엔 다시 잠에 들거나 유체 상태로 자신을 이끌어야

문이다. 물론 걱정할 일은 아닌 것이, 이는 잠깐 동안 잠을 자거나 의식적으로 다시 유체 상태가 됨으로써 쉽게 완전한 치유가 가능하다.

육체로 돌아가면 뻗뻗함을 느끼게 된다. 마치 전날에 젖은 옷을 아직도 그대로 입고 있는 느낌과 비슷하다. 익숙지 않은 사람에게는 육체로 돌아오는 것이 아무래도 그리 유쾌한 느낌은 아니다. 당신은 유체 상태에서 보았던 찬연한 색채가 흐려졌음을 알 것이다. 그 색채의 대부분을 당신은 육체 속에선 전혀 볼 수가 없다. 당신이 유체 상태에서 들었던 그 많은 소리들도 육체 속에선 전혀 듣지 못한다.

그러나 개의치 마시라. 당신은 지상에 무엇인가 배우러 왔고 그것을 배우고 나면 — 그것이 지구에 온 목적이기도 한데 — 지상의 속박, 지상의 구속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될 테니까. 은줄을 끊고 육체를 영구히 떠나게 될 때 당신은 유체의 영역마저도 훨씬 넘어선 다른 세계로 가게 된다.

이 유체여행을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 모든 두려움을 떨쳐 버리라. 왜냐하면 당신에게 두려움이 없을 때라야 진정한 두려워할 일도 없고 어떤 위해도 닥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기쁨만이 있을 뿐.

제 10과

우리는 '두려움 이외에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고 했다. 다시 강조하건대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은 유체여행에서 어떤 위험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아무리 멀리, 아무리 빠른 속도로 여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당신은 반문하리라. 도대체 두려움이 뭐냐고? 그래서 이 교과는 두려움의 주제로 쓸 참인데, 그요지는 두려움을 가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두려움은 주 부정적인 태도로서 우리의 섬세한 인지력을 즈먹는 마음가짐이다. 무엇을 두려워하든, 모든 두려움은 결국 해가 된다.

사람들은 유체 상태로 들어갈 때 육체로 되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곤 한다. 실제로는 지상에 배정된 시한이 다하여 육체가 죽지 않는 한, 당신은 언제든 육체로 돌아올 수 있다. 즉 혹시나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유체여행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육체가 마비될 수는 있다. (그 가능성은 인정해야 한다.) 그런 경우는 당사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공포에 질린 사람은 자신의 유체조차도 움직일 수 없게 된다. 그렇다 해도, 공포의 강도가 누그러질 때까지 육체로의 귀환이 얼마간 지체될 뿐이다. 공포감은 곧 누그러진다. 당신도 알다시피, 어떤 기분은 단지 일정 시간 동안만 지속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저 육체로의 백 퍼 센트 안전귀환을 다소 지체하게 될 따름이다.

인간이 지구에서 유일한 생명체가 아니듯이 우리는 유체 상태에서

일한 생명체가 아니다. 우리의 세계 속에도,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고양이와 개와 말과 새들과 같은 유쾌한 생물들이 있는가 하면 물어뜯는 거미와 독을 뱉는 뱀 같은 불쾌한 생물들도 있다. 세균, 미생물, 그 외에 해롭고 독성 있는 불유쾌한 것들도 많다. 고성능의 현미경을 통해 세균을 본 적이 있다면, 그 모습이 너무나 환상적이어서 마치 동화에 나오는 용의 시대를 보고 있는 듯한 상상을 떠올렸으리라. 그런데 유체계에는 당신이 물질계에서 맞부닥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괴상한 존재들이 많다.

유체 상태에서 우리는 놀라운 피조물, 생물 혹은 존재들을 만난다. 우리는 자연의 영들을 보는데, 이들은 거의 한결같이 선하고 쾌활하다. 그러나 신화와 전설의 작가들이 틀림없이 보았을 법한 끔찍한 피조물들도 있다. 이들은 악마, 반인반수, 기타 갖가지 신화 속의 마귀상을 닮았다. 이 피조물들 중 일부는 저급령으로서, 후에 인간이 되거나 동물왕국으로 스며들 수 있다. 그들이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도, 현재의 진화단계에서는, }주 불쾌한 존재들이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주정뱅이들, 즉 술에 취해 '분홍빛 코끼리'와 여러 가지 이상스런 도깨비들을 봤다는 사람들은 참으로 정확하게 본 대로 말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주정뱅이들은 유체를 육체에서 몰아내어 유체계의 아주 저급한 세계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정말 무서운 피조물들을 만난다. 후에 그들은 제정신을 찾고서 자신이 본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낸다.

이처럼 술에 만취하는 것도 유체계로 들어가서 그 기억을 가지고 돌아오는 한 방법이지만, 추천할 만한 방법은 못 된다. 왜냐하면 술은 가장 품격이 떨어지는, 아주 낮은 수준의 유체계로 데려가기 때문이다. 주로 정신병원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약물도 비슷한 효과를 낸다. 예를 들어

메스칼린(홍분제)은 환자의 진동수를 바덕놓아서, 그는 문자 그대로 유체로부터 방출되어 유체계로 내던져진다. 이것 역시 추천할 만한 방법이 못된다. 약이나 기타 다른 수단을 통한 유체여행은 정말로 해롭다. 그것들은 초자아에 해를 끼친다.

이쯤하고 '저급령(ementals)'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 저급령이란 대체 무엇인가? 말하자면 초보적 형태의 영적 생명이다. 그들은 사념체(thoughtforms)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다. 사념체란 인간의 의식적인 또는 무 의식적인 마음(생각)의 투영물일 뿐이며, 거의 실체가 없다고 보아도 좋다. 사념체는 고대 이집트 사제들이 고안해낸 것인데, 지체 높은 파라오 와 명예로운 여왕의 미라를 무도한 도굴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즉 도굴꾼의 의식에 침투하여 극도의 공포를 일으킴으로써 제풀에 도 망치게 만들겠다는 착상이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이 사념체들과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제들이 '무덤 수 호'라는 특정 과업을 위해 만들어냈던 허수아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저급령들은 진화단계 초기의 영적 피조물들이다. 그들은 영계 또는 유체계에서 인간세계로 치자면 원숭이 정도의 존재일 것이다. 원숭이들은 무책임하고, 장난이 심하고, 심술궂고, 버릇이 나쁘다. 그들에게는 스스로 판단하는 이성의 힘(추리력)이 부족하다. 그들은 그저 살아 있는 원형 질의 덩어리라 할 만하다. 유체계에서 인간계의 원숭이와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저급령들은 이처럼 목적 없이 배회하는 형체들이다. 그들은 어 술렁거리면서 괴상하고 흉측한 표정을 짓고, 유체여행 중인 인간을 위협 하는 몸짓도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혀 위해가 되지 않는다 반드시 명심하라. 그들은 당신에게 아무런 해도 입힐 수 없다.

자를 보게 된다면, 저급령들이 그 환자에게 해대는 위협적인 또는 무의미한 짓거리에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침을 질질 흘리며 덤벼든다. 그러나 당사자가 단호하게 대처하면, 아주 열등한 정신력밖에 없는 그들은 꼼짝 못하고 물러난다.

낮은 수준의 유체계를 통과할 때는 이처럼 기이하고 이상스러운 피조 물들을 만나게 된다. 때때로 소심한 여행자에게는 더욱 몰려들어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건 아무런 위해도 되질 않는다. 두려워하 지만 않으면 그들은 실제로 전혀 해롭지 않다.

유체여행을 처음 시도할 때면 이런 열등한 존재들이 서넛씩 근처에 모여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곤 한다. 그건 마치 초보운전자가 처음으로 차를 몰 때 그것을 짓궂은 마음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의 심리와 같다. 구경꾼들은 자극적이고 흥분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고대한다. 만일 초보운전자가 당황해서 가로등 기둥 같은 데에 부딪힌다면 구경꾼들은 무척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나 구경꾼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를 입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저 값싼 흥분거리를 찾아다니는 것일 뿐이다.

저급령들도 그와 같이 지켜보길 즐긴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보인다면 이 저급령들은 더 흥분하여 맹렬히, 위협적으로 지근거릴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에게 실제로 어떤 짓도 할 수가 없다. 그들은 짓기만 하는 개 와도 같다. 짓기만 하는 개는 해를 입히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이 두려움 으로 빈틈을 보일 때만 성가시게 굴 수 있다.

두려움을 갖지 말라. 당신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육체를 떠나 유체계로 솟아오를 때, 100 번 중 90 번에서 99 번은 어떤 열등한 존재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두려워할

때만 나타날 뿐이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당신은 높이 솟아올라 그들의 영역을 그대로 넘어선다. 그들은 유체계의 밑바닥에 운집해 있다. 강이나 바다의 밑바닥에 벌레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는 것과 같다.

당신은 유체계로 들어가서 놀랄 만한 사건들을 많이 조우할 것이다. 멀리서 크고 찬란한 빛이 번쩍거리는 것이 보일지도 모른다. 이 빛은 아직 당신이 미치지 못하는 존재 차원에서 오는 것이다. 전에 말했던 건반의 비유를 기억하는가? 인간은 육체는 오직 셋 또는 네 '음(진동수)'만을 인식한다. 그러나 육체를 이탈해서 유체계로 들어가면 '음'의 범위를 얼마간 위로 넓혀서 당신 앞에 좀더 위대한 무엇이 있음을 알게 될 만큼 시야가 확장된다.

이 '무엇'들은 밝은 빛으로 보이는데, 너무나 밝아서 당신은 그게 무엇인지를 실제로 알 수 없으니, 당분간은 어중간한 유체계에 만족하기로 하자. 여기서 당신은 친구나 친척을 찾아갈 수도 있고, 세계의 도시들을 방문하여 커다란 공공건물들도 볼 수 있다. 당신은 낯선 언어로 된 책들도 읽을 수 있다. 기억하라. 이 유체계에서 당신은 모든 언어를 해독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유체여행은 연습할 필요가 있다.

연습을 통해 곧 당신 자신의 경험이 될 그 유체여행의 광경을 한 번 묘사해보자. 날이 저서 밤의 땅거미가 드리우고, 자줏빛 여명이 점차 어두워져 마침내 하늘은 완전한 어둠으로 바뀌었다. 조그만 불빛들이 사방에서 일렁대고, 백색의 푸른 불이 거리를 비추고, 집안의 노란 불빛들도 가리개나 커튼 너머로 흘러나온다.

한 육체가 침대에서 아주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다 점차로 삐걱대는 듯한 희미한 느낌이 오는데, 뭔가가 떠돌듯이 움직이는 느낌이다. 몸 전체로 아주 미미한 근질거림이 느껴지면서 서서히 분리가

다. 착 가라앉은 육체 위로 연결된 은줄 끝에서 구름이 형성된다. 공중에 떠도는 그 구름은 처음엔 커다란 잉크 얼룩처럼 불분명한 덩어리이다. 그것은 천천히 육체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형태가 잡히면서 1 미터쯤 떠올라 흔들흔들하며 꿈틀거린다. 몇 초가 지나 자유체는 더 높이 떠오르면서 양발이 아래로 향한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침대 발치에서 자신이 방금 빠져나온, 그리고 아직 연결되어 있는 육체를 바라보며 서 있는 형태가 된다.

방 안에는 가물거리는 어스름이 궁지에 몰린 낯선 짐승처럼 구석으로 기어든다. 은줄은 흔들리면서 흐릿한 푸른 빛을 띠고, 유체는 바로 그 푸른 빛에 끈끈하게 걸려 있다. 유체의 형상은 주변을 둘러보고 다음엔 침대에 편안히 쉬고 있는 육체를 내려다본다. 육체의 양 눈은 감겨 있고, 호흡은 조용하고 낮으며, 아무런 움직임도 꿈틀거림도 없다. 육체는 편히 쉬고 있는 듯하다. 이제 은줄은 떨리지 않고 어떤 불편과 불안의 징후도 없다.

안도감을 느낀 유체는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공중으로 떠올라 방 천장과 그 위 지붕을 뚫고 밤하늘로 솟아오른다. 은줄은 길어지기만 할 뿐, 그 두께는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마치 유체의 형상이 가스를 채운 풍선이 되어 육체인 집에 붙잡혀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유체의 형상은 지붕꼭대기 위로 15, 30, 60 미터에 이를 때까지 솟아오른다. 그러고는 정지하여 시나브로 떠돌며 주변을 둘러본다.

거리의 인접한 집들로부터, 그리고 그 너머의 거리들로부터 푸른 빛을 띤 다른 이들의 은줄이 올라온다. 그것들은 위로 위로 늘어나면서 한 정 없는 거리로 사라져간다. 사람들은 늘 스스로 알든 모르든 밤마다 여행을 한다. 그렇지만 오직 혜택을 받은 자, 연습을 하는 자만이 자신의

힘에 대한 완전한 기억을 지니고 돌아온다.

이 유체는 지붕꼭대기 위를 떠돌면서 주변을 둘러보며 어디로 갈까 궁리 중이다. 그는 마침내 아주아주 먼 나라를 찾아가기로 한다. 그런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유체는 엄청난 속도로 출발하는데, 거의 생각의 속도로 소용돌이치며 땅을 건너고 바다를 건넌다. 바다를 건널 때 아래에선 엄청난 파도가 꼭대기에 흰 왕관을 그리며 튀어오른다. 여행의 어느 지점에선가는, 커다란 여객선 하나가 모든 불을 환하게 켜고 갑판에서는 음악을 울리면서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는 모습이 내려다보인다. 유체는 시간을 따라잡으려고 더욱 속도를 낸다. 밤은 그 이전의 저녁에 길을 내주고, 유체는 시간을 따라잡아 밤은 저녁으로 저녁은 다시 늦은 오후로 역행한다. 이내 늦은 오후도 앞지름을 당해 정오가 된다.

드디어 밝은 햇빛 속에서 유체의 형상은 머나먼 나라, 꿈쩍이도 사랑 하는 사람들이 있는 소중한 나라를 보게 된다. 유체의 형상은 사뭇히 땅에 내려앉아 육체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게 어울려다.

마침내 돌아가자고 치근대는 끌어당김, 즉 은줄의 몸부림이 온다. 머나먼 다른 나라에서 뒤에 남겨진 육체가 날이 밝아오는 것을 감지하고 유체를 부르고 있다. 유체는 한동안 머무적거리지만, 그 경고를 더 이상 외면할 처지가 아니게 된다. 이 희미한 형체는 공중으로 솟아올라 집으로 돌아가는 비둘기처럼 한동안 정지자세를 취했다가, 쏜살같이 하늘을 가로질러 땅과 물을 번개처럼 지나 지붕꼭대기 위의 지점으로 되돌아온다. 다른 은줄들도 똑같이 떨리고 있다. 다른 유체들도 각자 자신의 육체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유체는 지붕꼭대기 아래로 가라앉아 천장을 통과하여

있는 육체 위에 자신을 드러낸다. 가볍게 천천히, 유체는 가라앉으면서 육체 위에 정확히 자신을 맞추고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하강하여 육체와 합체한다. 한동안 써늘하고 무지근한, 납덩이가 누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 빛과 자유의 유체 상태에서 경험했던 현란한 색채는 스러지고 차가운 느낌만 남는다. 꼭 젖은 옷을 입은 느낌이다.

육체가 꿈틀거리고 두 눈이 떠진다. 창문 밖으로 희미한 새벽의 여명이 수평선 위로 움트고 있다. 육체가 움직이면서 말한다. "난 간밤에 겪었던 일들을 다 기억하지;

당신도 이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 당신도 유체여행이 가능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들과의 유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당신에게겐 더 쉬운 여행이 된다. 연습그리고 또 연습이 필요하다. 동양의 전설에 의하면 이주 오랜 옛적에는 모든 인류가 유체여행을 할 수 있었는데 너무나 많은 이들이 그 특권을 남용한 결과 그런 능력을 빼앗겼다고 한다. 사교가 순수한 이들이라면, 마음이 깨끗한 이들이라면, 연습으로써 납덩이나 진흙과 같은 육체의 구속을 벗어나 원하는 곳은 그 어디든 갈 수 있다.

이런 일을 5분이나 닷새 만에 해내지는 못한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상상'을 해야 한다. 자신을 무어라 생각하던 당신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된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당신은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게 된다. 당신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성실하게 믿는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할 수 있다. 믿음, 믿음, 그리고 연습으로써 당신은 유체여행을 할 수 있다.

또다시 말하건대, 두려움을 갖지 말라. 왜냐하면 유체 상태에선 아무도 당신을 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만날지도 모르는 (그럴

도 말이다. 그것들은 당신이 두려워하지 않는 한 아무런 짓도 할 수가 없다. 두려움만 없다면 당신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보증한다.

그러니 오늘 밤에 유체로써 가고 싶은 곳을 한 번 궁리해보지 않겠는가? 침대에 누워서, (물론 혼자서) 당신 자신에게 오늘 밤은 이리이러한 곳에 이리이러한 것을 보러 가겠다고 선언하라. 그러면 당신은 아침에 깨어 날 때 당신이 한 모든 일을 기억할 것이다. 이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연습뿐이다.

제 11 과

유체여행이라는 주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 때문에 이번 교과에서는 이 매혹적인 유희에 대해 좀더 부연해서 이야기를 하는 편이 좋을듯싶다.

우리는 당신이 이 교과를 주의 깊게 읽기를 권한다. 적어도 다른 교과들을 거쳤을 때처럼 세심하게 읽고, 며칠 뒤의 저녁을 실험 시간으로 잡기를 바란다. 선택한 저녁에는 스스로 완전한 의식을 지닌 채 육체를 이탈하여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인식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

알다시피 무엇을 하겠다고 준비하고 사전에 결정하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다. 고대의 선인들은 '주문'을 사용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은 일종의 기도인 만트라(진언)를 반복해서 읽으로써 잠재의식을 예속시 키고자 했다. 우리의 10 분의 1 에 불과한 현재의식도 진언을 반복하면 잠재의식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물론 아래와 같은 진언도 가능하다.

"모월 모일, 나는 유체여행을 하려 한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자각하고 다시 육체로 돌아올 때 이 모든 일을 빠짐 없이 기억할 것이다. 나는 틀림없이 이 일을 해낼 것이다,

당신은 이 진언을 세 번에 걸쳐 반복해야 한다. 즉 입으로 말해야 하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말을 하지만, 분명히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이 아주 수다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진언을 한 번 외는 것만 으로는 잠재의식이 전혀 들은 체를 해주지 않는다. 두 번째로 정확히 동일한 말이 반복되어야만 잠재의식은 주의를 돌리기 시작한다. 세 번째 확인 단계에서야 잠재의식은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가웃거리면서 진언에 귀를 열게 된다. 그러면 진언이 받아들여지고 저장된다.

아침에 세 번 진언을 했다면 정오에 (물론 혼자서) 다시 하고, 오후에 또 한 번 하고, 물러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못을 박는 방법과도 같다. 당신은 나무의 한 점에 못을 갖다 댄다. 그러나 한 번의 망치질로 못이 박히지는 않는다. 당신은 못이 나무에 깊숙이 박힐 때까지 망치질을 되풀이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암시를 해야만 소망의 선언이 잠재의식에 깊이 박히게 하는 망치질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방법이 아니다. 이것은 인류의 존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왜냐하면 아주 오랜 옛날 사람들도 진언과 긍정의 힘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을 잃고 오히려 냉소적인 입장이 된 것은 현시대의 우리뿐인 것이다. 그런고로 강력히 권고하건대, 스스로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긍정적 확언을 해야 하며, 어느 누구도 그것에 관해 알게 해서 안 된다. 만일 다른 회의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당신을 조롱할 것이고, 그 결과 당신의 마음에 의심이 일어날 것이다. 어른들이 자연의 영을 보지 못하고 동물들과 텔레파시로 대화를 못하는 것은 그것을 비웃고 의심하는 사람들 탓이다. 그 점을 기억하라.

적당한 날의 저녁 시간을 잡았다면, 문제의 그날이 왔을 때 스스로 평

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당신 내부에 흥분의 원인이 될 만한 어떤 갈등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당신이 그날 누군가와 열띤 논쟁을 했다면, 당신은 '시간이 충분했다면 이리이러하게 응수했을 텐데' 하고 후회하거나 상대방에게서 들은 말을 되새김질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주의가 유체여행에 집중되지 않는다. 만일 예정된 날에 뭔가 방해가 받거나 성가심을 당한다면 유체여행을 좀더 평화로운 다른 날로 연기하라.

모든 게 평온하고 종일 즐거운 마음으로 유체여행을 기대했다면 — 아주 먼 곳에 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지 않은가 — 침실로 가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옷을 갈아입으라. 침대에 들어갈 준비가 되면 잠옷이 편안한가를 확인하라. 즉, 목둘레나 허리둘레를 조이거나 하는 요소가 없나 살핀다. 왜냐하면 목을 조이는 밴드나 허리띠 같은 거추장스런 것들은 신경을 자극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침실이 아주 편안한 온도인가를 확인하라.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도록 하라. 옷을 거의 입지 않아도 되는 쾌적한 조건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면 괜히 무게가 나가는 침구류에 눌릴 필요가 없다.

침실등을 끄고 커튼도 빈틈없이 치라. 어떤 외부의 빛도 불필요한 순간에 당신의 눈으로 비쳐들지 않도록 확인하라. 이 모든 게 만족스럽게 갖추어졌다면 편안히 자리에 들라.

자신을 안정시키라. 자신을흐물흐물하게 만들어 남김없이, 전적으로 이완하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잠에 빠지지 말라. 당신이 진언을 성공적으로 반복했다면 잠에 빠져도 유체여행을 기억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는 당신이 깨어 있기를 권한다.

체외이탈은 그야말로 흥미만점의 경험이 될 것이다.

편안히 누워서 — 이왕이면 등을 대고 — 자신에게서 다른 몸을 밀어낸다고 상상하라. 유령 같은 유체가 밀려 나온다고 상상하라. 코르크마개 같은 것이 수면으로 떠오르듯이, 그것이 동실 솟아나움을 느낄 수 있다. 당신은 유체가 육체의 분자들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아주 가볍게 따끔거리는 느낌이 오고, 곧 그런 느낌조차 거의 사라지는 때가 온다. 여기서 조심해야 한다.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음 순간엔 경련이 올 테니까. 당신이 격하게 경련을 하는 순간 유체는 쿵 하고 육체 속으로 되돌아가버릴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상 모든 사람이라고 해야겠지만, 막 잠이 들 무렵에 어딘가로 떨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한다. 박식한 현자들은 이것을 인간이 원숭이였던 시절의 유산이라고 설명한다. 이 떨어지는 기분은, 사실 경련으로 인해서 갓 떠오르던 유체가 육체 속으로 곤두박질하기 때문이다. 그때 당사자는 덜컥 잠에서 깨어나곤 한다. 어쨌든 심한 경련이나 급격한 움직임이 있으면 유체는 육체를 얼마 벗어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된다.

경련이 일어나서 이 실험을 망칠 수도 있음을 미리 알고 주의한다면 당신은 이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가벼운 따끔거림이 멈춘 뒤에는 전혀 무런 동요도 없다가 갑작스럽게 냉기가 느껴질 텐데, 그것은 뭔가가 당신을 떠나는 듯한 느낌이다. 당신은 자신의 바로 위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당신의 위에서 배개를 떨어뜨리려 하는 것처럼.

불안해하지 말라. 불안해하^ㅏ 않는다면, 그다음에 문득 당신은 아마도 자신의 육체를 침대 끝에서 또는 천장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이 첫 번째 경험에서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침착하게 자신을 살펴보라. 이 첫 번째 나들이에서는 자기 자신을 결코 태연하게 바라볼 수가 없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에게서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을 발견하고 틀림없이 경악하게 되리라. 물론 당신은 평소에도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본다. 그러나 최고의 거울조차도 당신을 있는 그대로 되비춰주지 못한다. 예컨대 좌측과 우측이 뒤바뀌어 있고, 다른 왜곡들도 많이 존재한다. 거울은 자기 자신을 직접 대면하는 것과는 한참 다르다.

자신의 육체를 살펴본 후에는 방 주변을 돌아다니는 연습을 해야 한다. 벽장이나 서랍장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얼마나 쉽게, 어디든지 갈 수 있는지를 시험해보라. 천장을 비롯하여 정상적으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장소들을 탐사해보라. 틀림없이 당신은 접근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엄청난 먼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유용한 실험을 해볼 수 있다. 먼지에 지문을 남기려고 애써보라. 물론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 육체의 손가락, 손, 그리고 팔은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저 벽 속으로 스며들어 가리라.

이제 당신이 의지대로 흡족하게 움직일 수 있다면, 육체와 육체 사이를 주시하라. 은빛 줄이 번쩍이는 게 보이는가? 오래된 대장간을 방문해 봤다면 빨갭게 달군 뜨거운 금속을 대장장이가 망치로 내려칠 때 튀는 불 꽃이 떠오를 것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엔 그런 빛꽃 같은 붉음이 아니라 푸른 또는 노란 색조의 불꽃이다. 육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보라. 그러면 은줄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또한 가늘어지는 일도 없이 뻗어지는 것을 알게 되리라.

한 번 더 육체를 돌아본 후, 사전에 계획했던 그곳으로 가보라.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 그저 예정했던 사람이나 장소를 생각하기만

^1*면 된다.

당신은 곧 천장을 뚫고 솟아올라 집과 거리를 내려다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의식적인' 첫 번째 여행이라면, 당신은 아주 천천히 목적지로 나아가게 된다. 당신은 아래의 지형을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천천히 나아갈 것이다. 의식적인 유체여행에 익숙해질수록 당신은 생각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어떤 곳이든 제한 없이 가볼 ^가있다.

유체여행에 숙달되면 어디든 갈 수 있다. 그것은 비단 지상의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체는 공기로 호흡하지 않으므로 우주공간에 들어서서 또 다른 세계로도 갈 수가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불행히도 자신들이 어디를 방문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당신은 연습을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방문코자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기가 어렵다면 그 사람의 사진을 지니고 있기를 권한다. 침대에서 뒹굴다가 우리가 깨지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액자에 든 사진은 제외하고, 평범하게 인화된 사진을 구해 양손에 든다. 그리고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본 후에 불을 끄고, 사진에 보이는 그 사람의 인상을 간직하도록 노력하라. 이 방법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편안한 상태로는, 즉 배가 부르고 자리가 따뜻하면 유체여행을 하질 못한다. 그들은 불편해야만, 즉 춥고 배고픈 상태라야만 의식적인 유체여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긴 하지만 맞지 않는 음식을 고의적으로 먹어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유체여행에 성공한다. 우리가 추정하건대, 그 이유는 우리의 유체가 육체의 불편함을 너무나 괴로워하기 때문이

°Ydy} 싫다.(유체로 하여금 육체로부터 더욱 벗어나고 싶어하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 는 뜻, 역주)

티베트와 인도에는 벽을 싸발라서 햇빛을 전혀 보지 않고 살아가는 은둔 수행자들이 있다. 이 은둔자들에게겐 사흘에 한 번 정도 음식이 주어 지는데 , 이는 생명의 가물거리는 불꽃을 겨우 꺼트리지 않을 만큼의 양이다. 이들은 어느 때나 유체여행을 할 수 있고 배울 게 있다면 유체로써 어디든지 간다. 그들은 텔레파시가 가능한 사람들과 교신을 하고 , 아마도 선한 일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당신이 유체여행을 할 때 이 같은 사 람들을 만날 수도 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참으로 축복받은 것 이다. 그들은 멈추어서 당신에게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충고를 건네줄 것 이기 때문이다.

이 교과를 읽고 또 읽어보라. 다시 반복하건대 , 오직 연습과 믿음이 관건이며 당신은 유체여행을 통해 잠시나마 이 세상의 곤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제 12과

적절한 바탕만 미리 마련된다면 유체여행, 투시, 그리고그 외의 형이 상학적 탐구에 몰두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형이상학적 탐구는 연습, 그것 도 상당한 정도의 꾸준한 연습을 필요로 한다. 몇 마디 인쇄된 안내문을 읽고 즉시 아무런 연습도 없이 떠나면 유체여행을 떠날 수는 없다. 당신은 부단히 연습을 해야만 한다.

씨앗을 비옥한 땅에 심지 않고서 정원이 우거지길 바랄수는 없다. 화강암에서 아름다운 장미가 자라나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닫히고 갇힌 상태, 마음이 두서없는 생각들로 늘 소란한 상태에선 투시를 포함한 그 어떤 초자연적인 기에도 제대로 꽃피우기가 어렵다.

여기서 우리는 고요함에 대하여 좀더 광범위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혼란스럽고 부적절한 생각과 라디오, 텔레비전의 끊임없는 주절담으로 인해 형이상학적 기예들이 실로 질식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대의 현인들은 "정숙하라. 그리고 참나가 내면에 있음을 알라"고 훈계했다. 고대의 현인들은 한마디를 종이에 쓰기 전에 거의 평생을 형이상학적 탐구에 바쳤다. 그러고도 그들은 다시 황야로, 이른바 문명의 소음이 없는 곳으로,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것이 없는 곳으로, 아무도 병이나 접시를 떨어트릴 수 없는 곳으로 물러나 은둔했다.

당신은 그런 선인들이 평생을 다해 이룬 경험에서 많은 수혜를 얻을

수 있다. 당신은 연구에 한 평생을 바치지 않고도 그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당신이 진지하다면 - 진지하지 않다면 이 책도 읽지 않았을 테지만 - 영혼의 빠른 개화를 위해 스스로 준비를 갖추고 싶을 것이다. 그에 이르는 최상의 길은, 먼저 긴장을 풀어 이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완'이란 말이 뭘 뜻하는지를 모른다. 그들은 의자에 푹 주저?소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완되려면 몸 전체가 나긋나긋해져야 하고, 모든 근육에 긴장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고양이를 잘 살펴서 그가 어떻게 모든 것을 남김없이 '내려놓는'지를 보는 것이 첩경이다. 집에 돌아온 고양이는, 두세 번 주위를 돌고는 별로 불품없는 보금자리 위로 털썩 주저앉는다. 고양이는 자기 다리가 어떤 자세인지, 그게 보기가흉한지 어떤지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고양이는 쉬고 이완하려고 돌아왔고, 그래서 그 마음엔 이 완이란 생각밖에 없다. 고양이는 푹 주저앉은 즉시 잠들기도 한다.

인간이 폐 못하는 것들을 고양이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것은 고양이의 인지 범위가 우리의 범위보다 넓기 때문인데, 그래서 유체계를 항상 볼 수 있는 고양이에게 유체여행은 우리가 방을 건너가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 고양이를 한 번 본받아보자. 왜냐하면 그림으로써 우리는 견고한 지반을 찾아서 형이상학적 지식체계를 그 탄탄한 기초 위에서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긴장을 푸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당신은 더 이상의 지시나 안내 없이도 유연해져서 막연한 인상들을 포착할 수 있는가? 아래는 우리가 하는 방법이다.

어떤 자세로든 편하게 누우라. 엉다리를 펴고 싶다면 원하는 대로 하

것이다. 이왕이면 당신만의 사적인 공간에서 긴장을 풀어놓는 게 좋겠다.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흥하게 보일까봐 다른 사람의 시선을 꺼린다. 그러나 이완하려면 인습적인 우아함 따위는 깡그리 잊어버려야 한다.

당신의 몸을 당신의 명령에 늘 복종하는 아주 조그만 소인들이 사는 섬이라고 상상하라.<걸리버여행기>를 떠올려보라. 역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 는 것도 좋다. — 당신의 육체는 어떤 광대한 공업지구인데, 고도로 훈련 되었고 더할 나위 없이 충직한 기술자들이 당신 몸속의 갖가지 통제소와 '신경중추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 당신이 쉬고 싶다면, 그저 이들에게 게 공장을 닫을 테니 지금 공장을 떠나라고 말하라. 그들은 기계와 '신경 중추'를 폐쇄하고 당분간 어디론가 휴가를 떠날 것이다.

편안히 누운 채로 , 이런 일단의 작은 변화를 발가락, 발, 무릎, 그리고 온몸 곳곳에서 상상하라. 스스로 자신의 몸을 살펴보면서 이 작은 소인들이 어떻게 당신의 근육을 끌어당기고 신경이 뒤틀리게 하는지를 느끼라. 하늘 높은 곳에 있는 위대한 존재인 양 그들을 내려다보며 마음으로 전하라. 그들에게 당신의 발에서, 다리에서, 양손에서, 그리고 양말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라.

그들에게 당신의 배꼽과 흉골의 끝(명치) 사이의 공간에 모이라고 하라. 흉골이란 가슴 앞쪽 한가운데 위치한 뼈이다. 손가락을 양쪽 갈비뼈를 따라 몸가운데로 오게 하면 세로로 길쭉하고 납작한 흉골이 만져진다. 손가락을 그 흉골의 끝부분까지 아래로 내려보라. 바로 그 지점(명치)과 배꼽사이가 앞서 지정한 부위이다.

모든 소인들에게 그곳으로 모이라고 명령하라. 그들이 팔다리를 거슬러 행진한다고 , 일과후에 공장을떠나는노동자들처럼 백택이

기 때문에, 당신의 사지는 긴장은 물론 느낌조차도 없어질 것이다. 이 소인들은 기계적인 일을 맡고 있고 중계소와 신경중추에 영잉을 공급한다. 이제 당신의 팔과 다리는 마비가 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긴장과 피로의 느낌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사지가 거의 '거기에 없는' 느낌과 같다고 표현한다.

이제 당신은 소인들을 미리 정해둔 장소에 전부 집결시켰다. 많은 공장노동자들이 정치적 집회에 참가하듯이 한곳에 모여 있다. 상상의 눈으로 그들을 잠시 응시하라. 그들 모두를 시야에 두라. 그리고는 단호하게, 당당하게, 그들에게 떠나라고 명령하라. 몸에 돌아오라는 당신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떠나 있으라고 말하라. 그들에게 은빛 줄을 따라 당신으로부터 멀어지라고 말하라. 당신이 명상하는 동안, 이완하는 동안 그들은 평화롭게 떠나 있어야 한다.

은줄이 당신의 육체로부터 멀리 뻗쳐 나가 저너머 광대한 세계까지 이어져 있음을 마음속에 그리라. 또한 그 은줄이 터널이나 지하도와 같다고 여기면서, 런던이나 뉴욕 또는 모스크바 같은 혼잡한 도시의 노동자들을 상상하라. 그들 모두가 한꺼번에 도시를 떠나 교외로 나간다고 상상하라. 열차들이 노동자들을 전부 실어 날라 도시가 완전히 고요해진다고 생각하라. 이 소인들이 그렇게 이동하도록 명령하라. 연습해보면 주 쉬운 일이다.

그러면 이제 당신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될 것인바, 신경은 더이상 흔들리지 않고 근육도 팽팽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조용히 누워 마음이 '천 천히 움직이게' 두라. 당신이 무얼 생각하든 상관없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다. 천천히 순조롭게 호흡을 하면서 그 상태를 잠시 유지하라. 그리고는 '노동자들'을 해산시킨 것과 똑같이 그

떠나보내라.

인간들은 보잘것없는 사소한 생각들에 묻혀 사는 탓에 보다 광대한 삶의 더 광대한 일들을 돌볼 겨를이 없다. 사람들은 다음번 할인행사가 언제고, 이번 주엔 얼마나 많은 쿠폰이 무료로 주어지며, 텔레비전에선 무엇이 방영되는가 하는 등에 늘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중요한 문제가 되는 일들을 살피볼 시간이 없다. 이 모든 세속적인 일상사는 그야말로 천 박한 것이다.

원가 이하로 판다는 옷 한 벌이 과연 50년이 지난 후에도 당신에게 중요한 것일까? 그렇지만 당신이 지금 어떻게 성장해가고 있는가는 50년 후에도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간직하라. 어떤 남자 나 여자도, 이생을 떠나면서 단 10원도 가져가질 못했다. 그러나 모든 남 녀는 이생에서 얻은 지식을 다음 생으로 가져간다. 그것이 사람들이 이곳 에 있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저편으로 가지 있는 지식을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무분별한 사고의 잡동사니들을 가져갈 것인지, 이것이야말로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이 교과는 당신에게 유용하고, 그로 인해 당신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을 현재와 같이 열등하기 짝이 없는 위치에 있게 한 것은 사고 곧 이성 때문이다. 인간들은 이성을 논하면서 이성이야말로 인간과 동물을 구분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건 그렇다. 정말 그렇다. 인간을 제외하면 어떤 다른 생물들이 서로에게 원자폭탄을 던지던가? 다른 어떤 생물들이 공공연히 전쟁포로들의 배를 갈라서 그들의 중요한 장기를 꺼낸단 말인가? 인간이 아닌 그 어떤 생물이 남자와 여자의 신체를 절단하여 구경거리로 만들던가? 인간은 그 허풍스런 우월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저 돈에 미쳐 물질만을 추구하는 세속적 삶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생이 지난 뒤에도 의미 있는 일은 비물질적인 것들뿐이다. 우리가 당신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 이완이 되었으니 생각들은 꺼버리고 마음이 무엇이든 받아들이게 하라. 연습하고 또 연습한다면, 끝없이 구시렁대는 공허한 사념들은 사라지고 대신 참된 실체 또는 다른 존재계의 것들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지상의 삶과 전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 실은 우주 기분 좋게 동떨어져 있는데 - 그것을 묘사할 구체적인 용어가 없다. 연습만 한다면 당신은 미래의 일도 볼 수 있게 된다.

어떤 능력자들은 순식간에 잠에 떨어졌다가는 몇 분 만에 원기를 되찾아 영감에 가득 찬 눈빛으로 깨어나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의 사념을 의지로서 끄고 우주의 지식에 파장을 맞추어 이를 끄집어내는 사람들이다. 당신도 연습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그저 그런 무익하고 공허한 사교생 활에 빠져드는 것만큼 해로운 일도 없다. 카테일파티 - 성장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이보다 더 나쁜 소일거리는 없으리라. 술, 독주, 알코올은 마음의 판단력을 흐린다. 그것들은 사람을 낮은 수준의 유체계로 몰아넣어 흐리멍덩한 상태의 인간들을 붙잡고 즐거워하는 존재들의 놀이감으로 전락 시킨다. 그런데 인간들은 오히려 그런 조롱을 무척이나 재밌어한다.

파티처럼 의미 없고 공허한 잡담뿐인 통상의 사교모임은 자신의 마음을 불일 데가 없음을 애써 감추기 위한 가장으로서, 성장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고통스런 일이다. 이처럼 마음이 얇은 사람들과는 가까이하지 않아야 당신은 성장할 수 있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란 어떤

마구잡이로 지껄이느냐 하는 정도일 뿐이다.

우리는 영혼의 교감을 믿는다. 우리는 아무런 말 없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진짜로 '친밀한' 사람들은 서로 텔레파시로 교감하고 있다고 믿는다. 한 사람의 생각은 다른 사람에게 반응을 일으킨다. 오랜 세월 동안 남편과 아내로 함께 살아온 노부부는 서로 상대방의 생각을 예상할 수 있다. 그들은 의미 없는 지껄임이나 잡담에 빠지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함께 앉아 조용히 한쪽 두뇌에서 다른 쪽 두뇌로 흐르는 메시지를 감지한다.

하지만 그들은 고요한 영적 상태에서 누구나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너무 늦게서야 얻는다. 그들은 이미 인생이라는 여행의 종착지에 와 있다. 하지만 당신은 젊은 나이에 바로 그것을 배울 수 있다.

비록 소규모일지라도 건설적인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세상사의 전개를 송두리째 바려놓을 수가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그래서 개인적 사념을고고 세상의 선홍 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동료를 얻는 것은 아주 지난한 일이다. 그럼에도 만일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이 한데 모여서, 각자 아주 편안한 자세로 원형으로 둘러앉아서로 대면한다면, 당신은 그 모두를 위해 아주 커다란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여기에 참여한사람들은 자신의 발끝을 모아 맞대야 한다. 그리고 양손도 모아 쥐어야 한다. 아무도 다른 사람과 맞닿아 있어선 안 된다. 각자는 별개의 물리적인 존재로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아주 오랜 옛날의 유대인들을 기억하라. 그들은 거래를 할 때 양발을 모으고 양손을 맞잡고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육체의 생명 에너지가 보전되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일을 추진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그런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그러지 못한 상대방보다 늘 유리한 거래조건을 이끌어냈다. 그들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듯 굽실거리며 비굴한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보전하고 활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목적을 달성한 후에야 그들은 다시 양손을 떼고 양다리를 벌렸다. 이젠 승리자가 되었고, '공격에 대비해 더 이상 에너지를 비축할 필요가 없으므로 긴장을 푸는 것이다.

이처럼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도 각자 양발과 양손을 모음으로써 저마다 육체의 에너지를 보전하게 된다. 그것은 자석의 양극에 '보자자퇴好' (자력 보존을 위하여 u 자형 자석 끝에 걸치는 연철막대)를 걸치는 것과 같다.보자자 가 없다면 그 자석은 그저 쓸모없는 금속 덩어리가 되어버릴 것이다.

이제 원형으로 둘러 앉아서 모두가 얼마간 원의 중심 공간을 응시해야 한다. 그냥 바닥의 한지점을 응시하면 되는데, 그래야 머리가조금 아래로 기울어지면서 편하고 자연스러운 자세가 된다. 말을 하지 말고 그저 앉아 있으라. 아무도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들은 이미 공통 주제를 정했으므로 더 이상 말은 필요가 없다. 몇 분간 그렇게 앉아 있으라.

점차 당신들은 각자 자신에게 스며드는 커다란 평화를 느낄 것이다. 마치 내면의 빛에 휩싸이는 듯한 느낌이 들 것이다. 진정 영적인 눈이 뜨이고 우주와 '하나가 된' 듯한느낌을 받을 것이다.

교회의 예배는 본래 이와 같은 취지로 고안되었다. 모든 교회의 초대 사제들은 아주 훌륭한 심리학자들이었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들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조직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군중으로 하여금 군말 없이 따르게 하려면 부단한 지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는 전체 군중의 주의를 끈 셈이고 그때 그들의 생각은 모두 특정한 목적을 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좀 급이 떨어지는 방법이지만, 자기 성장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스스로 시간과 정력을 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물론 당신과 당신의 친구 들은 소집단으로 말없이 둘러앉아서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말없이 앉아 각자 긴장을 풀고 순수한 일들을 생각하거나 지정된 학습 과제를 생각한다. 아직 지불하지 못한 지난주의 잡화 청구서를 떠올리거나 다음 계절엔 어떤 상품이 유행할까를 궁리하지 말라. 그 대신 당신의 진동수를 높여 다음 생에 있을 선함과 숭고함을 통찰하게 하라.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우리는 우리의 두뇌가 통제불능의 기계처럼 덜커덕거리도록 그냥 내버려둔다. 만일 우리가 좀더 평온하다면, 홀로 머문다면, 남과 함께할 때 말수를 줄인다면, ^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귀 하고 순수한 사고들이 홍수처럼 밀려와 우리 영혼을 고양시킬 것이다.

거의 종일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나이 든 시골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도시에 사는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순수한 사고를 지닌다.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한 양치기들은 높은 등급의 사제들조차 부끄러워할 정도의 영적 순수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그들이 홀로 있는 시간, 사색하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이고, 그런 사색에 지쳤을 때 문득 마음이 비워지며 '저 너머'로부터 고귀한지식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래도 매일 30 분씩 연습해볼 생각이 안 드는가? 앉아서, 또는 기대서 연습하라. 아주 편안한 상태여야 함을 기억하라.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 '정숙하라, 그리고 나 자신이 신임을 알라는 격언을 기억하라. 또,

은 한 달내에 훨씬 평화롭고 고양된, 아주 탄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교과를 끝내기 전에 , 파티나 한담에 대해 한 번 더 언급하겠다. 몇몇 학교에서는 일종의 교양으로서, 바람직한 주인이나 여주인이 되려면 잡담에 능해야 한다고 학생들을 가르친다. 상대방을 한시라도 홀로 내버려두면 그들은 곧 어둡고 혼란스런 마음상태에 빠져버릴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반대로, 침묵을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 중 하나를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오늘날엔 더 이상 침묵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끊임없는 자동차 소리, 머리 위로는 항공기의 굉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감각한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아우성뿐이다. 이로 인해 인간은 또다시 추락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여기에다 정숙과 평화와 평정의 오아시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신과 동료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

당신 자신이 얼마나 고요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적게 말할 수 있는지를 하루 동안 실험해보라. 필요한 것만 말하고 중요치 않은 일은 모두 피하라. 쓸데없는 험담이나 수다에 불과한 대화를 피하라. 이 연습을 의식적으로 ,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 당신은 우리가 조금도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얼마나 많이 떠들며 사는지 매우 놀라게 될 것이다.

수다나 소음에 대해 우리가 많이 투덜거렸다. 하지만 침묵을 연습해 보면 당신도 우리가 옳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많은 종교의 계율에는 침묵이 포함되어 있다. 수도자들에게는 흔히 묵언이 명해지는데 , 이는 상급자가 처벌로써 부과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오직 침묵 속에서만 저너머의 위대한 목소리가 들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제 13과

누군들 한 번쯤 "지상에서 내 인생의 목적은 뭐지? 그토록 많은 고통과 고난이 정말로 필요한 건가?" 하는 의문을 품어보지 않았으랴. 실제 로 고통과 고난, 전쟁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지상의 모든 것에다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는 지상의 삶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우리는 지상이라는 무대 위의 배우에 불과하다. 우리는 역할에 맞추어 의상을 바꿔입고, 연기가 끝나면 잠시 무대 뒤로 물러났다가 또 다른 역할을 위해 또 다른 복장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만약 전쟁이 없다면 세상은 금세 사람들로 넘쳐날 것이다. 전쟁은 우리에게 자기희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우리를 이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주어진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삶은 실제로는 최소한의 의미만을 지닐 뿐이다.

우리의 영적 본질은 아무도 부술 수 없다. 그것은 고난과 질병을 모른다. 그래서 영은 삶의 경험을 위해 살과 뼈로 된 육체를 만든다. 즉 육체란 교훈을 얻는 수단으로서 생기를 주입받은 원형질의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지상의 육체는 꼭두각시처럼 초자아의 지시에 따라 춤을 추고, 초자아는 은빛 줄을 통해 육체와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잠시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자. 지상에 처음으로 발을 딛는 사람은 아기처럼 무력한 피조물에 불과하여 스스로를 위한 설계 능력이 없다. 그러

덜 된 사람들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당신이 지금 이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은 이미 배워야 할 것들을 많은 적든 스스로 설계해 낼 수 있는 수준의 진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지상에 소풍을 오기 전의 광경은 어떨까? 하나의 존재가 유체계의 초자아에게로 되돌아간다. 지상에서 한 생을 마친 것이다. 그 존재는 이번 삶의 모든 과실을 (혼자 또는 다른 존재들과 함께) 살펴보고는, 제대로 배우질 못했으니 다시 해야겠다고 작정한다. 그렇게 해서 그 존재가 한 번 더 육체를 갖기 위한 설계 작업이 진행된다.

먼저 그에게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줄 부모를 찾는 일이 시작된다. 만약 그가 돈을 잘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면, 그는 부유한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날 것이다. 만약 그가 비천한 처지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면, 그는 참으로 궁핍한 형편의 부모 아래서 태어날 것이다. 어쩌면 절름발이나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달려 있다.

지상의 인간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같다. 학교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어떤 아이는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공부하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해력이 부족하여 수업내용을 제대로 따라가질 못한다. 그래서 학기 말의 시험성적도 몹시 나쁘다. 이에 교사들은 평소 그 아이의 수업 태도와 이해 수준,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그가 아직 상급과정에 적합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제 그 아이는 방학이 끝나고 새 학년이 시작되어도 다시 예전의 그 교실로 돌아가야 하는 불행을 피할 수 없다.

이처럼 유급한 아이들은 개학 후에 이전 학기와 똑같은 수업을 다시 들으며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된다. 반면에 평소 열심히 공부한 이서들은

한 단계 상급반으로 올라가고, 아마도 교사들에게 더 큰 보살핌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력하고 배워서 스스로 진보를 이룬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친구들보다 뒤쳐진 이•이는 교실의 새 친구들 사이에서 자의식이 더욱 강해지기도 한다. 유급한 것은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며 새 친구들 위에 군림하려 들지도 모른다. 만약 이번 학기가 끝나도 그가 아무런 진 보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때 교사들은 회의를 열고 그 아이의 심성이 열 등하니 다른 학교로 보내는 편이 좋겠다고 권고하게 될 수도 있다.

학교의 아이들, 즉 우리 자신이 잘 처신하고 만족스런 성적을 올렸다면 곧 다음 생엔 무엇이 될까를 결정해야 하는 때가 온다. 의사, 변호사, 목수, 아니면 버스 운전사? 그게 무엇이든 우리는 필요한 공부를 해야 한다. 예비 의사는 예비 버스 운전사와는 다른 것들을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사전에 필요한 공부가 정해지는 것이다.

영적 세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 한 인간이 태어나기 수개월 전에, 영적 세계 어디에선가 회의가 벌어진다. 인간의 육체를 택하고자 하는 존재는 자신의 조력자들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특정한 과제를 배울 것인가를 토의한다. 학생들이 저마다 소질을 계발하기 위해 교사들과 공부 방식을 상의하는 것과 같다. 영적 세계의 조력자들은 세상이라는 학교에 들어가려는 학생에게 어느 부부의 자식이 되라고, 또는 결혼하지 않은내연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편이 좋겠다는 식으로 의견을 말한다. 이 회의에서 는 그가 무엇을 배울 것이며 어떤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등의 토의가 이뤄질 것이다.

슬픈 현실은, 좋은 조건보다는 나쁜 조건에서 배움이 훨씬 빠르고 확

은 위치에 있다 해서 그가" 영적 세계에서도 낮은 위치를 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사실이다. 특정한 생에서 특정한 과제를 배우기 위해 일부러 비천한 태생을 자처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는 참으로 고귀한 존재일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을 그가 가진 재산, 또는 그 부모의 지위로써 판단하는 지상의 방식은 대단히 비극적이며 불합리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학교의 아이들을 그들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 부모의 재산에 따라 판단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지만 , 그 누구도 죽음의 장벽 너머로 동전 한 닢조차 가져가는 데 성공하질 못했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의 지식은 고스란히 가져간다. 일생 동안의 모든 경험은 잘 보존되어 저 너머의 삶으로 옮겨진다.

그러니 자신이 백만장자이므로 천국에서도 앞자리를 얻으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슬프게도 한참 착각하고 있는 셈이다. 돈 , 지위, 가문 , 피부색은 전혀 가치가 없다. 오직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도달한 영적 수준, 그것뿐이다.

육신으로 막 들어가려는 영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자. 적당한 부모가 찾아지면, 그 영은 적절한 때에 태아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태아의 몸속에 진입하는 순간, 이전 생의 기억과 의식은 싹지워지게 된다. 만약 아기가 현재의 엄마, 아빠와 얽힌 자기 전생의 인연을 기억한다면 그건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만약 왕이었던 전생의 기억을 가진 사람이 현생엔 밑바닥 중에서도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된다면 , 그만한 비극과 고통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이유로, 사람들로 하여금 보통 자신의 전생을 기억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실로 자비로운 처사이다. 그들은 이생을 지나 영 적 세계로 돌아갈 때 다시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격언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물론 이것은 참으로 명심할 만한 덕목이긴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둘 점은 지상으로부터 다시 영적 세계로 돌아간 이후에는 현생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거의 다시 보지 못하게 되리라는 사실이다. 오랜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부모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진력해야 했다. 젊은 세대가 부족사회를 이탈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부족의 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 부족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른 종족을 정복하기가 수월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이들에게 늘 부모에 대한 복종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그 부모들은 결국 자신들, 즉 제사장들에게 복종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부모를 존경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부모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다. 만일 오만하고 차갑고 횡포를 부리는 부모라면, 그들은 소외되어야 마땅하다. 그들은 존경받을 권리가 없다. 무조건 부모에게 노예처럼 복종해야 한다는 말은 전혀 가당치 않다. 이미 성인이 되어 결혼한 사람들, 심지어 거의 반세기를 제힘으로 살아온 사람들조차 부모의 이름만 언급되면 두려움과 불안으로 바들바들 떨곤 한다. 이런 상태는 신경증으로 악화하여 사랑은커녕 공포와 억압된 증오심만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나이가 넘어가면 이 '아이' 들은 도무지 죄의식을 떨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신념을 무조건 따르도록 배우며 자라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건대, 만일 당신이 부모와 서로 불행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영적 세계에서 그들을 다시 마주칠 일은 없을 것이다. 영적 세계는 조화의 법칙이 지배하므로, 조화되지 않는

만났고 단지 이웃의 뒷공론이 두려워서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 관계라면, 한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둘이 조화를 이루게 되지 않는 한 그들이 영적 세계에서 다시 만날 일은 결코 없으리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시 반복한다. 만일 당신과 부모가 조화롭지 못하다면, 서로 어울리지 못하다면, 함께 행복하지 않다면, 서로 맞지 않는다면, 사후의 다른 세계에서 또 만날 일은 결코 없다. 친척관계나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다. 다시 만나려면 서로 확실하게, 남김없이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영들이 물리적인 육체를 필요로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조화를 못 이루는 존재들끼리는 오직 물리적인 육체를 통해서만 접촉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각자 자신의 빠른 모서리를 갈고닦아 포용력을 키워갈 수 있는 것이다.

이후의 다른 교과에서, 우리는 신과 관련된 문제 또는 다양한 신앙 형태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인간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최고의 존재 형태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는 아주 큰 착각으로, 조직화된 종교들이 떠들어대는 관념에 불과하다. 종교들은 인간이 신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보다 더 높은 피조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단히 높은 형태의 삶들이 펼쳐지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신이란, 한가하게 책을 읽는 틈틈이 우리를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곤 하는 자비로운 노신사 같은 존재가 아니다. 신은 이주 분명한 실체를 가진 살아 있는 영(ᑦ_t)으로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주지만, 그의 방식이 늘 우리의 기대에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이 교과의 마지막 과제로서 당신과 당신의 부모, 배우자, 친지들간의 관계를 한 번 숙고해보기 바란다. 당신은 그들과의 관계가 진실로

가? 아니면 서로 등을 지고 살고 있는가? 당신은 생애의 남은 동안을 그 중 누구와 함께 보내고 싶은가?

당신이 다니는 학교에는 많은 친구들과 많은 교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당신은 교사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하지만, 그들이 당신의 삶 에 영구히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일정 기간 동안 당신의 교육을 맡도록지명되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부모는, 바로 당신이 자신 의 성장을 독려하고 감독하기 위해 스스로 영적 세계의 허락을 구해 선택 한 사람들이다. 만일 당신이 그들을 종교적 계율 때문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써 사랑한다면, 당신은 '저편'에서도 그들을 계속 만나게 되리 라는 확신을 통해 아주 커다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처럼 당신이 지금지상의 일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

제 14과

우리 모두는 외부로부터 덕을 보거나 선물을 받길 원한다. 도와달라 는 기도를 올린 적이 누구든 한 번은 있을 것이다. 물론 살아가면서 남의 도움을 청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인간은 혼자서는 불안하므로 대부 me 또는 대모 f■의 상징을 세움으로써 자신이 대가족의 일원으로서 보호 받는다는 느낌을 얻^려고 한다.

그러나 받으려면 먼저 주어야 한다. 주지 않고 받을 수는 없다. 왜냐 하면 주는 행위, 마음을 여는 태도야말로 당신이 받고 싶은 그것을 기꺼 이 주려는 이들로 하여금 당신을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준다고 할 때, 꼭 그것이 돈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다. 비록 돈이 가장 보편적이고 사람들 대부분이 받길 원하는 것이긴 하지만 현시대에서 돈이란 결국 결핍으로부터의 회복, 공포스런 굶주림으로부터의 구원, 빚쟁이들의 방문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당신은 돈을 나눌 수 있고, 특히 어떤 상황에서는 반드시 나누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준다는 것은 스스로 나누는 것, 기꺼이 다른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필요 하는 이들에게 돈, 재물, 영적 위안 등을 줄 수 있고 또한 주어야만 한 다. 다시 말하지만, 주지 않고서 받기만 할 방법은 세상에 없다.

서구세계에선 '준다', '보시한다', '구걸한다처럼 소위 자선과 관 련된 비슷한 용어들이 잘못 이해되는 일이 흔하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뭔가 수치스럽고 품위가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 한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돈이란 단지 지상에 있는 동안만 우

리에게 주어진 물품에 불과하며, 또한 무익하게 차디찬 금고 속에 쥘여놓는 것보다 다른사람을 돕는데 씀으로써 행복과 성장을 도모할수 있는 물품인 것이다.

불행하게도 현재의 상업주의적 세계에서는 사람은 은행에 넣어둔 돈의 액수와 그 돈으로 꾸민 외양에 의해 평가받는다. 그러나 자기만족을 위해 번쩍이는 옷을 걸치고 거짓된 겉모습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인간도, 관대한 인간도 아니다. 그는 나눈다는 생각 없이, 그저 자신의 에고를 부풀리기 위해 이기적으로 소비하는 자일 뿐이다. 서양에서 남자는 그의 아내가어떤 옷을 입고, 어떤 종류의 차를몰고, 어떤 집에 살며, 어떤 클럽에 가입해 있는가 하는 따위로 평가받는다. 그러자면 자살가가 되어야 한다. 오직 백만장자급에 드는 사람들만이 그런 클럽에 속할 수 있으니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은 가치가 전도되어 있다. 그 어떤 남자와 여자도 죽음의 강 너머로 동전 한 닢, 핀 하나, 심지어 성냥개비 하나 가져가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나는 이 진실이 당신의 잠재의식 속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 반복할 것이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지식에 포함될 것들, 즉 좋음과 나쁨, 관대함과 인색함 사이를 오가는 우리의 총체적 경험이 걸려져 내려간후에 남은 그 요체뿐이다. 지상에서 자신만을 위해 산 사람은 비록 이편에선 백만장자였더라도 저편으로 옮겨갈 땐 영적 파산자가 될지도 모른다.

동양에서 참으로 흔히 보게 되는 광경은, 날이 저물 무렵 어느 가정집 문밖에 승복을 입고 초라한 바리때를 들고 서 있는 탁발승의 모습이다. 이는 동양에선 일상생활과도 같아서, 모든 주부는 —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 무작정 기다리는 탁발승을 위해 남은 음식을 건네는

않는다. 오히려 탁발승이 공양차 어느 집을 방문했다면 그건 그 집안의 영예로까지 받아들여진다. 서양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탁발승들은 거지나 식충이가 아니다. 그는 일하기가 싫어서 다른 사람들의 너그러움에 기대어 사는 무능력자가 아니다. 당신은 동양의 이런 저녘 풍경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있는가?

동양에서도 특히 인도와 같은 나라를 예로 들어보자. 거기선 승려에게 공양하^는 것이 자연스런 풍습인데, 본래는 중국과 티베트도 그러했으나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쥔 후엔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니 지금은 인도의 한 마을을 상상해보는편이 좋겠다.

어느 날 저녁, 땅거미가 지며 어둠이 땅 위에 길게 드리운다. 햇빛은 푸른 자줏빛 색조를 띠고, 밤바람이 히말라야에서 불어오자 바오밥나무의 잎들이 가볍게 흔들린다. 먼지 많은 길을 따라 누더기 승복을 입은 한 승려가 자신의 전 재산을 지니고 조심스레 나타난다. 그는 왼손엔 염주를 들었고 발엔 가죽 짚신을 신었다. 어깨엔 담요를 걸쳐 뒀는데, 그것은 잘 때 침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다른 사소한 소지품은 승복 속에 꾸려져 있다. 오른손은 지팡이를 들었는데 그것은 동물이나 인간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도구가 아니라 가시덤불이나 나뭇가지들을 헤칠 때 쓰는 도구이다. 지팡이는 장애물을 치울 때는 물론 강물을 건너려 할 때도 깊이를 재는 데 유용하다.

그가 어느 집으로 다가간다. 그러면서 승복의 가슴께를 더듬어 나무 바리때를 꺼낸다. 그것은 반들반들할 정도로 잔뜩 낡고 닳아빠졌다. 그가 집에 다가가자 문이 살짝 열리고, 한 여자가 양손에 음식을 들고 공손히 나온다. 그녀는 수줍은 듯이 아래를 내려다본다. 승려를 뻘히 쳐다보는 것은 외람된 일이다. 그녀는 눈길을 내리깔면서 자신이 정숙하고 착실하

며 교양 있는 집안의 출신임을 알린다.

승려는 그녀에게로 다가가 바리때를 양손으로 받든다. 동양에서는 주 발이나 물잔을 두 손으로 받드는데, 이는 한 손으로 다루는 것을 음식에 대한 '불경'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음식은 두 손으로 받들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승려는 바리때를 양손으로 받들고, 여자는 그 안에 음식을 후하게 담아주고 돌아선다.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쳐 다보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승려에게 공양하는 것은 영예이지 결코 부담 스런 짐이 아니며, 오히려 평범한사람들 입장에서는 승려를 먹여 살림으로써 성직자들에게 느끼는 마음의 빛을 다소나마 갚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승려의 방문을 통해서 그녀와 그녀의 집이 존중받았다고 느낀다. 그녀는 자신의 요리가 찬사를 받았다고 느끼고, 어쩌면 다른 승려가 그녀의 음식에 대해 칭찬을 했기 때문에 이 승려가 오늘 자기 집으로 온 게 아닐까 생각해보기도 한다. 다른 집의 여자들이 커튼을 드리운 창문 밖으로 이 광경을 부러운 듯 내다볼지도 모른다. 왜 나는 승려의 방문을 받지 못했을까 의아해하면서 말이다.

음식이 채워지면 승려는 그 바리때를 여전히 양손으로 든 채 천천히 돌아선다. 그리고 길을 건너 나무들이 우거진 은신처로 돌아간다. 거기에서 그는 종일 그랬듯이 바르게 앉아 그날의 유일한 식사인 저녁을 먹을 것이다. 승려들은 과식하지 않는다. 그들은 검소하게 살면서 그저 기력과 건강을 유지하기에 적당한 정도만 먹는다. 과식은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튀기거나 기름진 음식은 건강을 해친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도 승려들처럼 담백한 음식을 적당한 양만 먹고, 성찬을 벌임으로써 마음이 늘어지고 영이 진흙에 묻히는 일은 피해야 한다.

가 없다. 동양에서는 부처의 길이 전해진 이후로 오랫동안 승려가 자연스럽게 공양을 받아왔다. 그는 걸인도, 사회의 짐도, 무능한 사람도, 빌붙는 식충이도 아니다.

저녁식사 전까지 그 승려는 여러 시간 동안 나무 밑에 앉은 채로, 그에게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들을 응대했을 것이다. 영적 위안을 필요로 하는 이들, 가족 중에 병자가 있는 이들, 글을 모르는 데 급히 편지를 써서 보내야 하는 이들이 도움을 구했을 것이다. 또는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으러 오는 이들도 있다. 왜냐하면 승려들은 늘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만행을 다니며 온 나라를 떠돌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람들을 돕고 봉사한다. 그는 높은 교육을 받은 성자이다. 그는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마을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하여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위한 영적 봉사와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를 병행하며 스스로 생계를 꾸릴 여력도 없다. 그러므로 그에게 도움받은 이들이 그가 육체와 정신을 유지하도록 약간의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일종의 의무인 동시에 특전이고 영예이기도 한 것이다.

저녁식사가 끝나면 승려는 한동안 휴식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 일어나 바리때를 고운 모래로 씻고, 다시 지팡이를 집에서 여행을 떠날 것이다. 그는 열대의 하늘 아래 휘영청 밝은 달빛을 받으며 밤길을 걸으리라. 승려들은 거의 잠을 자지 않으며 빠른속도로 먼 거리를 이동한다. 불교국에서 그들은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다.

우리 또한 받기 위해서는 기꺼이 주어야 한다. 오랜 옛날엔 모든사람이 제 소유의 10분의 1을 나누는 것이 신성한 의무이자 율법이었다. '십일조'로 알려진 이 율법은 일상생활의 자연스런 일부분이었다. 예컨대 영

국에서는 교회가 한 개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해 십일조를 요구할 수 있었다. 그렇게 걷힌 돈은 교회를 운영하고 성직자들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쓰였다. 약 10년 전에 영국에서는 너덧 건의 소송사건이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그것은 영국교회의 십일조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주들이 일으킨 소란이었다. 그 지주들은 소득의 10분의 1을 내어주면 자신들이 다 망할 거라고 불평을 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파산한 이유는 기꺼이 내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꺼이 내주지 못하는 것은 차라리 전 혀 주지 않는 것만 못하다.

요즈음은 사고방식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십일조를 내지도, 십일조에 의존하여 살지도 않는다. 유감스런 일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십일조를 내는 것은 자신의 영적 성장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라야 진 보할 수 있고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영적 추구와는 별 관련이 없는 아주 냉정한 몇몇 사업가들이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 더 나아가서는 그들 자신을 위해 — 수입의 10분의 1을 나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이 십일조를 내는 것은 종교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사업의 어려움을 몸소 경험하는 과정에서 '대가 없이 베풀어야만' 그것이 천 배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이다.

특히 돈을 직접 다루는 대부업자들은 — 요즘엔 금융업이라고 불리는 데 — 십일조만 착실히 지켜도 틀림없이 수지맞는 장사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냉정한사업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렇게 십일조를 지키고 있음을 알고 있다.

초자연적인 법칙은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 모두에 똑같이 적용된다.

누가 공부를 많이 했는가, 경전을 많이 읽었는가는 중요치 않다. 누군가는 자신이 읽은 책에 현혹되어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읽은 것은 두 눈을 바로 통과하여 흩어져버리고 두뇌의 기억 세포엔 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위대한 영혼'으로 여기고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고 굳게 믿는다. 실제로는 몹시 독선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인색하면서도 말이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크게 돕는 일이다. 다시 반복하건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올바르고, 타당하고, 유익한 길이다. 그것은 상대방은 물론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앞서 말했듯이 십일조는 10분의 1을 뜻한다. 그것은 또한 삶의 방식을 뜻하는데, 우리는 내어줌으로써 또한 받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로부터 비용과 시간과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도움과 조력을 많이 받았던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낸 적이 있다. 새로 파종한 밭에 찌르레기 떼가 몰려들 듯이, 그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바쁘게 다른 문제들에 계속 둘러싸이는 처지였다. 우리는 그 편지에 "받으려면 먼저 주어야 한다"고 썼다. 그러나 그는 무척 불쾌해하면서 자신은 아주 후한 사람이며,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지역신문이 증언해줄 것이라고 답장했다. 그러나 우리가 지적인 것은, 지역신문에 신기 위한 선행은 전혀 올바른 방식의 내어줌이 아니란 뜻이었다.

나누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다. 수입의 10분의 1을 좋은 일에 기부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거나 그들이 불운한 시기를 맞을 때 위안을 줄 수도 있다. 다른 이들에게 주는 것이 곧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사업이 번창하려면 매출액을 늘려야 하듯이, 많이 받기

받게 될 때를 생각해서도 주어야 한다.

당신이 먼저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내어줌으로써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 한, 뭔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소용없는 짓이다. 주는 것을 연습하라.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언제, 어떻게, 왜 주어야 하는지가 정해졌다면 그것을 석 달간 실천해보라. 당신은 석 달 후에 자신이 영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이득을 보게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법칙을 공부하고 또 공부해보지 않겠는가? 기억하라. “받으려면 주어야 한다. 대가 없이 베풀어야 한다.”

제15과

애지중지하는 보물을 다락방에 보관하는 것은 세계도처에서 오래된 관습이다. 여기서 '보물'이란 당사자가 오래된 물건이란 이유로 소장하고 있는 것들을 뜻한다. 그런 것들은 대개 반쯤은 잊혀진 채로 다락방에 놓여 있다. 주인이 다른 물건을 찾으려고 힘들게 계단을 올라가서 먼지 쌓이고 곰팡내 나고 거미줄이 쳐진 어둠 속에서 헤멜 때까지 말이다.

재봉사의 다락방엔 지나간 세월을 연상케 하는 낡은 마네킹이 있을지 도 모른다. 그는 더 이상 그 마네킹에 맞는 치수의 옷을 만들지 않는다. 어쩌면 옛 편지들이 담긴 상자 또는 상자 이상의 무엇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게 뭐더라? 푸른 리본으로 묶여 있었나? 아니면 분홍 리본이었나?' 당신은 그곳에서 거의 잊고 있었던 물건들을 접하게 되고, 그것들은 정답거나 서글펐던 기억들을 소생시킨다.

당신은 다락방을 자주 뒤지는가? 다락방은 가끔은 1며다볼 만한 곳이다. 뭔가 유용한 물건, 기억을 되살려주는 물건, 지식에 보탬이 되는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다. 물론 그 당시 우리가 처했던 문제들은 지금의 시점에서 - 그동안 쌓인 경험과 새로운 지식에 의해 - 시답잖은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하지만 본 교과와 과제가 각자 '자신의' 다락방에 들어가보라는 것은 아니다. 본교과는 낡은 난간이 달린 꾸불꾸불한 목조계단을—곧부서 질 것만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튼튼한—올라서 '우리의' 다락방을 둘러보는 일에 관한 것이다. 우리를 따라 이 다락방으로 가서 이

것저것 구경을 해보자. 이번 교과와 다음 교과는 바로 우리의 다락방에서 진행될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독립된 교과로는 적합지 않을 잡다한 정보들을 수록해 놓았다. 그렇지만 당신은 틀림없이 그것들에 흥미를 가질 것이다. 계속 읽어가면서 그 정보들 중 무엇이 당신에게 유용하고, 무엇이 한동안 당신 을 괴롭혔거나 마음에 걸렸던 사소한 의문과 의심을 해소해주는지를 살 펴보라.

우리는 이 교과를 준비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꽤나 들쑤셨다. 우리는 외진 구석들로 가서 먼지를 일으키며 몇몇 이론들을 헤집었다. 특히 우리는 너무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관찰해보았다. 당신도 그중 하나일 수 있다. "땀은 배반을 모른다"는 옛 격언도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지나친 노력이 퇴보를 부른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학생들로부터 이런 편지를 빈번히 받는다. "저는 열심히 노력하여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그런데도 얻는 거라곤 두통이 전부입니다. 나는 당신이 언급한 어떤 현상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잠시 멈추어 들춰볼 만한 작은 '보물'이다. 사람은 흔히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곤 한다. 그러나 묘하게도, 우리의 두뇌는 지나친 노력이 진보를 휘방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과한 노력은 곧 '부정적인 피드백'을 설정하는 것과 같다. 당신에게도 평생 끈질기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답답한 친구가 하나쯤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는 결코 좋은 위치에 이르지 못한다. 그는 늘 혼란스럽 고 불확실한 상황에 놓인다. 혹사당한 두뇌는 과잉전류를 발생시킴으로 써 스스로 사고과정을 중단시키기 때문이다!

꼭 전자공학도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두뇌를 이해하는 데에는

현상을 적용하면 일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 인간의 두뇌는 전기적 현상과 공통된 점이 많다. 일반적인 오디오 기기의 진공관(증폭관)을 예로 들어보자. 진공관 안의 필라멘트(음극)는 배터리 또는 전기선에 의해 가열되면서 제멋대로 전자를 방출한다. 필라멘트에서 흘러나온 전자들은 축구장의 흥분한 군중과도 같다. 그 전자들이 아무 통제 없이 돌아다닌다면 전자공학상 아무런 쓸모가 없다. 오디오가 제 기능을 하려면 사방으로 방출된 전자들을 필라멘트 바로 옆의 양극판으로 모아야 한다. 만일 그 상태로 그냥 둔다면 전자를 모으는 과정이 통제불능이 되어 라디오 프로그램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원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전자공학자들은 소위 '그리드(격자)'를 필라멘트와 판 사이에 끼우고 거기에 마이너스의 전압을 걸면 필라멘트와 판 사이에서 전자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때 가해지는 전압을 '그리드 바이어스 grid bias'라고 하는데, 이것을 너무 세게 하면 그리드가 전자를 전부 되튀겨내기 때문에 어떤 전자도 필라멘트에서 양극판으로 흐르지 못한 다. 하지만 적절한 값으로 조정하면 우리는 원하는 만큼 전자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

머리에 쥐가 나기 전에 다시 우리의 두뇌 이야기로 돌아가자. 우리가 너무집중할때즉 어떤문제에다두뇌를혹사시킬때는 '그리드바이어 스가 너무 세져서 오히려 사고가 완전히 억제당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 러므로 우리는 과도한 노력을 경계하는 분별력을 발휘해야 한다."원승 이를 잡을 때는 부드럽게 다가가라"는 중국어 격언을 늘 기억하라. 우리 는 집중하되 두뇌가 지치지 않을 정도로 조절해야 한다. 당신 능력의 한 도 내에서 노력하라. 즉 중도수혈를 취하라.

중도는 동양의 생활방식이다. 그것은 당신이 지나치게 약할 필요도,

지나치게 선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다. 그 중간쯤이면 된다. 너무 약하다면 경찰에게 쫓길 것이고, 너무 선하다면 그 유별남으로 인해 이 지상에 머물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위대한 존재들조차 이 슬픈 세계(지상)로 올 때는 필연적으로 일종의 능력부족 또는 괴팍한 성향을 지니게 되는 법이다. 그들조차도 지상에 있는 동안은 완전하지 않다. 완전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이 불완전한 세계에선 존재할 수가 없다.

반복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애쓰지 말라. 일을 하되 자연스럽게, 이성 적으로, 능력의 한도내에서 추진하라. 남들의 이야기에 노예처럼 얽매여 서 방향할 필요가 없다. 당신 자신의 상식에 맞추어 말하고 행동하라. 우리가 “이것은 붉은 천이다”라고 말하더라도 당신에겐 그것이 달리 보일 수도 있다. 분홍, 오렌지 또는 옅은 자주색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건 당 신이 어떤 상태에서 천을 보았느냐에 좌우된다. 당신의 조명은 우리의 조 명과 다를 수 있고, 당신의 시력은 우리의 시력과 다를 수 있다. 그러니 어떤 것이든 너무 열중하지도, 맹목적으로 집착하지도 말라. 상식을 활용 하고 중도를 지키라. 중도는 아주 유용한 것이다.

중도를 실천하라. 중도란 관용의 길이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 는 길이며, 자신의 권리가 존중받도록 하는 길이다. 동양에선 성직자들조차 유도와 같은 격투기를 배운다. 그것은 그들이 호전적이기 때문이 아니 라, 격투기를 통해 자신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법을 익히고 이기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한발 물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체득하기 위함이다.

유도를 예로 들면,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써 싸움에 이기려 들지 않는다. 그들은 상대방의 힘을 빌려 그가 제풀에 패배하도록 이끈다. 그러므

달려들면 들수록 그를 이기기는 더욱 쉬워진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힘이 스스로를 더욱 심하게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반대의 힘을 이용하여 문제를 극복하라. 자신을 피곤하게 하거나 진을 빼지 말고, 그저 당신을 성가시게 하는 문제를 직시하라. 다른 사람들처럼 당면한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흔히 사람들은 문제를 마주하길 두려워하여 가장자리를 맴돌거나 슬쩍 간만 보다가 허송세월하고 만다. 그것이 얼마나 불쾌하든, 얼마나 당신에게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든 간에, 문제의 뿌리로 곧장 파고들어 당신을 괴롭히고 놀라게 하는 것의 본질이 대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 그리고 문제의 모든 측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후에, 마음을 훌훌 비워버리라.

당신이 마음을 비울 때 그 문제는 당신보다 이해력이 훨씬 뛰어난 초자아에게 전해진다. 초자아는 육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존재이다. 초자아 또는 잠재의식이 그 문제를 고찰하여 해결책을 찾아내고 그 것을 당신의 의식이나 기억 속으로 넣어줄 때, 당신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자 '이젠 해답을 찾았고 모든 게 명쾌해졌다'며 뜻밖의 즐거운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다락방이 맘에 드는가? 한 줌 먼지 속에 내버려져 있는 또 다른 작은 '보물'로 이야기를 옮겨가 보자. 이 보따리를 풀어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고 햇빛을 보게 하자. 이 보따리엔 무엇이 들어 있을까? 어디 한번 열어볼까?

요즈음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한 것은 곧 비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종교적'이라면 엄숙하고 슬픈 얼굴을 지어야 한다는 몹시 그릇된 믿음으로써 좀체 미소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 웃는 모습이 우스꽝

이 갈까봐 안절부절못하는 것이다. 웃음 따윈 잃어버리고 인생에서 최소한의 기쁨조차 누리길 거부하는 엄숙한 노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일순간의 타락으로 지옥 같은 비참함을 겪게 될까봐 늘 두려워한다.

진실한 종교라면 즐거워야 한다. 종교는 우리에게 이 지상 너머의 삶을 약속하고, 우리가 노력한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고, 죽음이란 허상일 뿐이니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음을 약속한다. 대부분의 인간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뿌리깊이 박혀 있다. 그 이유는, 만약 우리가 저세상의 즐거움을 기억해낸다면 지상의 삶을 저버리고 행복을 찾아가고 싶은 유혹을 떨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유혹은 학생이 피를부려 수업을 땡땡이치는 것처럼 영적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만 있다면, 종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해 준다. 우리는 지상의 한계를 넘어선 후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같이 지낼 필요가 없다. 그때 우리의 신경을 끊고 우리의 영혼을 좀 먹는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종교를 기쁨으로 대하라. 진실한 종교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오직 기쁨의 대상일 뿐이다.

너무도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신비사상이나 형이상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최악의 범법자들이었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독특한 종파가 하나 있는데 — 이름을 밝히진 않겠다 — 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된 영혼이며 곧 구원을 받아그들만의 작은 천국에 살게 되리라는 확신에 차 있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죄 많고 불쌍한 인생들인바, 갖가지 구역질나는 불쾌한 방법으로 ^멸당하리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에게 믿음

이 있느냐 아니냐이지, 어떤 종교 또는 어떤 신비사상을 믿느냐 하는 것이 아니다. 무릇사람이라면 믿음이 있어야한다.

신비사상은 구구단이나 역사 공부에 비해 전혀 모호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저 대상이 좀 다른 공부거리일 뿐이다. 신비사상은 물리적인 현상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알려준다. 우리는 신경계가 어떻게 근육에 작용하여 커다란 발가락을 움직이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환호성을 지르진 않는다. 그것은 그저 평범한 물리적 현상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신의 에테르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해서 위대한 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환호하리라고 상상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프라나 p^{ra}' 또는 다른 동양의 단어가 아니라 '에테르 에너지'라는 영어식 단어를 쓰고 있음에 주의하라. 우리는 영어로 강의록을 쓰고 있으므로 무엇보다 이 언어에 충실하고자 한다.

기뻐하라. 신비사상과 종교에 대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당신은 무덤 너머에 놓여 있는 위대한 삶의 진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무덤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저 뒤에 육체를 남길 뿐이다. 이는 낡은 옷을 버려서 청소부가 주워가게끔 하는 것과 같다. 형이상학적 지식 안에서는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제대로 된 종교라면, 당신은 그것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 진실성을 더욱 믿게 될 것이다. 자칫하면 좁고 협소한 길 아래로 떨어져 지옥불과 저 주에 둘러싸이게 된다고 위협하는 종교들은 신도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인류가 다소 야만스러웠던 옛날에는 커다란 지팡이(무력)를 휘두르는 의례로써 신도들을 겁주는 일이 허용되었겠지만, 이제 그런 사고방식은 달라져야 한다.

기가 쉽다는 사실에 동의할 것이다. 특히 경 찰이나 도깨비를 부르겠다고, 또는 너희를 팔아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부모는 스스로 제 집안에 신경 증을 불러들이는 셈이다. 반대로 부드럽지만 단호한 태도로 아이들을 기쁨 속에서 살게 하는 부모는 선량한 시민을 키워낸다. 우리는 친절함과 단호함을 함께 지녀야 한다는 견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단호함이란 결코 거친 행동이나 학대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종교 안에서 기뻐하라. 사랑과 연민과 이해로써 가르치는 '부모(종교)의 아이(신도들)이 되어라. 위협과 처벌과 영원한 저주를 운운하는 모든 허위와 비열한 짓거리를 멀리하라. '영원한 저주'는 없다. 영적 세계에서는 아무도 버려지지 않는다. 누군가가 추방되는 일 따위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나쁜 사람일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다룰 아카샤 레코드*는 이렇게 말한다. 끔찍하게 사악하여 당분간은 뭘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사실은 다만 그의 진화가 지체되고 있는 것일 뿐이며 그는 뒤에 '다음 라운드의 삶'으로 나 아가는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되리라고 말이다. 이는 수업시간에 놀기만 하다가 학기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이 친구들과처럼 상급반으로 올라 가지 못하고 유급하여 그 수업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하는 것과 같다.

서너 번 수업을 빼먹거나 꾀를 부려 놀았다고 해서 그 학생을 향해 화 덕에 구워질 것이라고, 배고픈 악마에게 던져져 잡아먹힐 것이라고 저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교사들은 엄하게 꾸짖겠지만 그렇다고

*《선인들의 지혜》481 쪽 참고.

른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장기결석 학생을 관리하는 조사관의 추궁을 받게 되는 정도가 고작이다.

지상의 인간들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설령 이번 기회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너무 상심하진 말라. 당신은 곧 다른 기회를 얻을 것이다. 신은 가학적이지 않다. 신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돕기 위해 움직인다. 만약 신이 우리를 늘 감시하면서 갈가리 찢어서 굶주린 악마에게 던져줄 기회만 노린다고 믿는다면 이는 신에 대한 커다란 불경이다. 신을 믿는다면 그의 자비로움도 믿으라. 왜냐하면 그런 믿음으로써 우리도 자비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이 다락방을 떠나기 전에 또 하나의 먼지투성이 상자를 열어보자. 이 특별한 보따리 역시 그 누구의 관심도 받아본 적이 없는 듯하다. 그러니 이걸 한 번 뒤집어서 무슨 이야기가 들어 있는지 살펴보자.

아카샤 레코드에 의하면, 유대인은 이전의 존재 단계에서 전혀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민족이다. 그들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고, 해야 하는 일들은 하지 않았다. 그들은 쾌락을 탐한 나머지 주지육림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육체는 물질의 포로가 되었고, 그 결과로 그들의 영은 밤에도 유체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조악한 육체의 덮개 안에 갇혀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유대인'이라 부르는 이 사람들이 절멸하거나 영원한 저주에 떨어진 것은 아니다. 대신 그들은 새로운 순환과정으로 들어섰는데, 이는 마치 수업시간에 탄성을 피우고 제멋대로 행동한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어 같은 수업을 또 듣길 시작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현재의 존재 단계에서 처음으로 지상의 삶을 겪게 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만나면 뭔가 어리둥절하고 당황스러움을 느낀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뭔가 다르다는 점을 감지하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무엇인지

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차원의 지식을 갖고 있는 듯 보이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 박해한다.

아주 오래된 민족인 유대인들은 이런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되었다. 이를테면 유대인들은 같은 수업을 두 번째로 들으면서 자신들의 길을 헤쳐 나가고 있는 셈이다. 한편 유대인들의 지식과 참을성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부러움과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들 또한 공격의 표적으로 지목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지금 유대인이나 이교도(개신교)를 평가하려는 게 아니다. 종교의 기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우리는, 위협에 의해서는 결코 배우려고 하지 않을 일들을 기꺼이 배우게 된다. 다시 반 복하지만 '영원한 고통' 따위는 없다. 당신의 삶을 태우고 끔찍한 고통에 몸부림치게 할 지옥불은 실재하지 않는다.

당신의 생각을, 당신이 배워온 바를 되살펴보라. 신앙에는 기쁨과 사랑이 함께한다는 우리의 말이 얼마나 합리적인 것인가를 따져보라. 당신은 당신을 때리거나 영원한 암흑 속으로 보내려는 가학적인 아버지에게 시달릴 이유가 없다. 그 대신 당신 앞에는 인간이 존재할 기미조차 없었던 태초로부터 이 모든 과정을 먼저 거쳐 갔던 위대한 영들이 있다. 그들은 모든 일을 경험했으므로 모든 해답을 알고 있으며, 그 고초도 알고 있고 연민도 지니고 있다.

우리가 다락방에서 찾은 보물에는 "종교 안에서 기뻐하라"고 쓰여 있다. 당신의 신앙에 미소를 보내고, 당신의 신 — 그를 어떻게 부르든 간에 — 에게 따뜻한 감정을 지니라. 그는 당신이 내면의 뿌리 깊은 공포를 제거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치유의 파장을 보내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 다락방을 떠나서 다시 저 넓고 빼적거리는 계단을 내려갈 때가 되었다. 그러나 곧 다음 교과에서 당신은 한 번 더 이 '다락방'에서 우리와 만나게 될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직도 꽤 많은 보물들이 마루 위에 또는 선반 위에 놓여 있다. 이 다락방을 다시 둘러보는 것은 재미도 있고, 희망컨대 이득도 있을 것이다.

제16과

우리는 다락방에서 다시 만났다. 우리는 이곳을 깨끗하게 치우면서 두세 가지 새로운 물건들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마치 작은 섬광처럼, 당 신이 한동안 품어왔던 의문을 밝혀줄 것이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얼마 전에 받은 편지가 하나 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당신은 두려움에 대해 많이 씁니다. 당신은 두려움 그 자체를 제외하고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내 질 문에 대해서 당신은, 나를 뒤쳐지게 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움을 모릅니다. 나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다. 이것은 정말 흥미로운 문제다. 두려움, 실로 두려움이야말로 사람의 발목을 잡는 유일한 것이다. 잠시 앉아보라. 그리고 이 두려움이 란 문제를 한 번 살펴보자.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어둠 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미나 뱀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 신의 두려움을 잘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려움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경우엔 말이다. 하지만 잠깐! 우리의 의식 전체로 보면, 표면의식은 그중 10분의 1 에 불과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전부 잠재의식이다. 그렇 다면 두려움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경우는 과연 어떨까?

잠재의식 속에 숨겨진 몇몇 충동으로 인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되거나 하지 못하게 억눌린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왜 그 일을 하는지 또는

왜 그 일을 도무지 할 수 없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표면의식 속엔 그 이유를 규명해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불합리한 행동을 하다가 결국 심리학자 앞에 가서 오랜 시간 상담을 받게 된다면, 드디어 잠재의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이 흘러나올 것이다. “우리가 ○○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것은 우리가 아기였을 때 일어났던 어떤 일 때문”이라고.

잠재의식 속의 두려움은 표면의식으로부터 숨겨진 채로 작용하며 우리를 성가시게 한다. 마치 목조건물을 읽까먹는 흰개미 떼와도 같다. 그 건물은 겉만 살펴보면 튼튼하고 흠이 없어 보이지만 흰개미들의 공격을 받으면 단 하루밤 사이에 무너져버릴 수도 있다. 두려움도 같은 일을 일으킨다. 두려움은 활성화되기 위해서 꼭 표면의식으로 떠올라야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두려움은 잠재의식 속에 있을 때 더욱 강력하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므로 그것에 대처할 방법도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특정한 제약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다. 그리스도 교인으로 자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절대 ‘그런 일’을 해선 안 된다고 배웠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란 문제를 고찰하려면 먼저 그의 문화와 종족의 배경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당신은 유령을 보는 게 겁나는가? 왜 그런가? 만일 생전에 마틸다 이모가 친절하고 따뜻해서 당신을 무척 사랑해주었다면, 그녀가 지상을 떠나 더 높은 존재의 세계로 간 후로는 이전보다 당신을 덜 사랑하리라고 지레짐작할 까닭이 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왜 마틸다 이모의 유령을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유령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선 그것이 낯선 존재들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더욱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종교가 유령 따위는 실재하지 않는다거나 성자 급의 사람들에게나 보이는 것이라고 가르쳐왔기 때 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한다. 만일 세상에 여권도 없고 언어의 장벽도 없다면 전쟁은 반드시 줄어들 것이다. 우리가 러시아인이나 터키인, 아프가니스탄인을 두려워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며 그들이 우리 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끔찍한 질병이자 형벌로서 우리의 지성을 좀먹는다. 그러므 로 우리는 뭔가에다 특정한 단서를 덧붙이기 전에 심층으로 들어가서 그 이유부터 알아내야 한다. 예컨대 왜 어떤 종교들은 환생 따위는 없다고 가르치는 걸까? 여기엔 명백한 이유가 있다. 오랜 옛날, 사제들은 절대적 인 권력을 누리면서 '영원한 저주라는 개념으로써 백성들을 위협하고 다스렸다. 그들은 사람에게겐 기회가 한 번뿐이므로 이번 생에서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만일 사람들이 환생의 존재를 알게 되면 그들은 이번 생을 느슨하게 살면서 다음 생에 그것을 보충하려 들지도 모르기 때 문이다.

실제로, 이번 생의 빛을 다음 생에 갚겠다는 계약까지도 가능했던 고 대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환생에 의지한 나머지 현재의 삶은 무시 당하고 황폐화되었다. 그저 그들은 밤마다 카나리아(노랫소리가 아름다운 애완 용새) 새장을 들고 나무 아래 둘러앉아 시시덕거리기만 했다. 이번 생은 휴가로 치고, 다음 생에 이번 생의 게으름을 벌충하겠다는 심보였던 것이 다. 하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았고 그래서 중국의 문화가 퇴락해버렸다.

반복하지만 당신 자신을 살피고, 당신의 지성을 살피고, 당신의 상상 력을 살펴보라. 내면을 '깊이 분석하여' 자신의 잠재의식이 억누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라. 당신으로 하여금 뭔가에 대해 그토록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안절부절못하게 만드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를 찾아내라. 그것을 끄집어내는 순간, 당신은 두려움이 이미 사라져버렸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의식을 갖고 유체여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다. 이미 배웠다시피, 실제로 유체여행은 놀랄 만큼 단순하다. 별다른 노력도 필요 없다. 그저 숨쉬기처럼 간단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한다. 잠은 거의 죽음에 가깝다. 잠은 죽음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가 언젠가는 '깊은 잠'에 들게 되리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마침내 죽음이 우리를 앗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겁을 낸다. 그리고 혹시 잠자는 동안 누군가 우리의 은빛 줄을 절단하여 미아로 만들어버릴까 봐 걱정한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유체여행엔 어떤 위험도 없다. 위험한 것은 바로 당신의 두려움, 특히 당신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두려움뿐이다. 우리는 거듭 제안한다. 당신 자신의 두려움을 살펴보라. 그것은 겁낼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의 정체를 파악하고 이해해보라.

우리는 적지 않은 시간을 이 소소한 이야기에 투자했다. 하지만 아직도 할 이야기가 많다. 이번 교과를 끝내기 전에 당신이 주목해야 하고 다루어야 할 것들이 많다.

우리의 다락방을 다시 둘러보자. 특별히 당신의 이목을 끄는 게 있는가? 저쪽에 있는 장식품이 보이는가? '이 세상 너머에'라고 쓰여 있는 그것 말이다. 이크, 벌써 이야기를 시작해버렸다.

'이 세상 너머에'. 사물을 진실하게 표현하려 할 때 쓰이는 수식어들

이 많이 있다. 예컨대 누군가는 매우 아름다운 어떤 물건을 보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표현한다. 이 얼마나 진실한 말인가. 고통과 시험과 재난투성이인 이 물질적 몸의 한계를 넘어설 때, 우리는 바로 그 표현처럼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소리를 듣고, 색채를 보고,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지라는 동굴 속에 갇혀 있고, 육욕과 그릇된 사고방식에 속박당하고 있다. 즉, 우리는 이웃에게 지지 않으려고 허세를 부리는 데 너무 바빠서 자기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우리는 세속적인 차원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생계를 꾸려야 하고 사회적 인책무를 져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얼마간이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은 광란의 쳃바퀴처럼 좀체 여유가 없이 돌아간다. 그렇지만 잠깐! 이 모든 분주함은 꼭 필요한 것일까? 다만 30분 만이라도 쉼을 내어 날마다 명상을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일까?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즉시 '이 세계'를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약간의 연습만으로도 유체계를 비롯한 여러 세계들을 방문할 수가 있다. 그 경험은 유쾌할뿐더러 동심 떠오르는 기쁨마저 준다. 영적 사고가 고양될 때 우리의 진동수는 증가한다. 그리고 '피아노 건반 위에서 우리의 지각 능력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경험은 훨씬 아름다워진다.

당연히 '이 세상 너머'가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과업을 제대로 마쳐야 한다. 학교의 비유를 다시 떠올려보자. 더운 여름날, 답답한 교실에서 재미없는 소리만 늘어놓는 선생님 때문에 진력이 났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대체 누가 무슨 무슨 제국의 흥망사를 궁금해하던 말인가? 그때 우리는 지루한 목소리만 웅웅대는 후텁지근한 교실을 떠나 탁 트인 바깥으로 나가길 얼마나 열망했는가. 그

러나 그렇게 할 순 없었다. 만일 우리가 수업을 빼먹었다면 선생님께서부터 따끔하게 벌을 받았을 것이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유급을 했을 것이고, 결국 생판 모르는 학생들과 함께 또다시 지겨운 교실에 틀어박혀야 했을 것이다. 다른 학생들은 진급을 못한 우리를 골동품이나 열등아로 대 리라.

그러니 우리는 수업을 끝마칠 때까지 이 세상을 영영 탈출하려 해서 는 안 된다. 그래야 이 세상을 떠나 훨씬 더 영광된 곳으로 갈 때 기쁨과 안락함과 영적 성숙을 당당히 바라고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항상 명심 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처지는 마치 음산한 감옥에 갇힌 죄 수와 같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곳에 있는 동안은 이 지상이 얼마나 끔찍 한 곳인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당장 밖으로 나가서 이곳을 내려다보게 된다면, 그땐 상당한 충격을 받고 다시 되돌아오길 꺼 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유체여행을 하지 못하는 이 유인데,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참으로 불유쾌한 경험이기 때문이다.

모든 기쁨은 저 너머에 있다. 유체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해방의 그날 을 기다리는 동시에, 이 '감옥'에 있는 동안만큼은 또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다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만큼* 더 늦게 석방될 것이다.

그러니 이 지상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이번 생을 떠나게 될 때 더욱 위대한 저 너머의 삶을 맞을 준비가 절로 되어 있을 것이다. 지상의 삶 속에서의 소곤한 노력들에는 분명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

이 다락방에서 품목을 바꿔가면서 먼지를 털어대느라고 꽤 숨이 가쁘 지만, 다른 구석으로 옮겨가서 새로운 보물을 더 살펴보기로 하자.

많은 사람들은 '예언자'들이 늘 오라를 보고 생각을 읽어낸다고 생각

한다. 그건 오)주틀린 생각이다. 텔레파시 능력이나투시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고, 상대방의 오라를 살피는 것은 아니다. 이 보물(진실)의 어떤 측면은 지극히 적나라하여 불쾌할 것이고, 어떤 측면은 껍데기에 불과한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풍선을 터트려버릴 것이다.

우리는 그저 서너 단어만을 내뱉고는 “그렇지만 제가 일일이 말할 필요는 없겠죠? 당신은 나를 보기만 해도 다 알 수 있잖아요” 하고 입을 닫아버리는 방문객들을 만나곤 한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예언자나 영능력자, 천리안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 두려움을 갖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도덕적이어서 당신이 먼저 찾아왔다고 해도 사적인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은 애초에 그런 능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

확실히 말해두건대, 푼돈을 받고 운명을 점지하는 뒷골목의 '예언자'들에게는 예언 능력이 없다. 그 가난한 노파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을 뿐이다. 아마도 예전에는 투시 능력이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런 일을 상업적으로 지속할 수는 없다. 돈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 그들 자신에 관한 일들을 투시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돈을 주고받는 행위만으로도 텔레파시 능력이 이지러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뒷골목 예언자들의 말이 자주 틀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돈을 받았으므로 뭐라도 보 여주어야만 한다. 아마도 그들은 선량하지만 어설픈 심리학자가 되어 당신이 스스로 지껄이도록 유도하리라. 그러고는 그 지껄임에서 단서를 찾아 당신에게 되돌려주고, '예언자'라는 권위에 현혹된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가려운 데를 정확히 짚어냈다며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투시자들이 당신의 일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이

자신의 방에서 바쁘게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누군가 몰래 들어와 어깨너머로 그걸 다 엿보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겠는가? 누군가 당신의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이걸 꺼내고 저걸 읽어대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과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낱알이 안다면 기분이 어떨겠는가? 누군가 당신의 전화통화를 24시간 감청하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겠는가? 생각할 것도 없이 당신은 “불쾌하다”고 말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품성이 좋은 사람은 남의 생각을 아무 때나 읽어대지 않으며 품성이 나쁜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아예 주어지지 않는다. 이것 이 초자연적인 법칙이다. 품성이 나쁜 사람은 투시를 하지 못한다. 당신은 이 이러저러한 것들을 몽땅 들여다본다는 사람들에게 관한 무성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으리라.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99퍼센트를 에누리해서 들으라.

투시가는 당신이 먼저 무엇을 의논하고 싶어하는지를 알려주길 고대한다. 투시가는 당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오라에 간섭하지 않는다. 당신이 그해주기를 바라더라도 말이다. 우리에게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할 초자연적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을 어기면, 지상에서 인간이 법을 어겼을 때 처벌을 받듯이, 우리도 처벌을 받게 된다. 투시가에게 스스럼없이 하고 싶은 말을 하라. 투시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요구하라. 그러나 진 실만을 말해야 한다. 그는 당신이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를 알 것이다. 거짓은 당신 자신만을 현혹시킬 뿐, 투시가에게겐 전혀 통하지 않는다.

기억해두라. 선량한 '예언자'는 당신의 사고를 읽으려 들지 않으며 품성이 나쁜 예언자는 그럴 능력이 없다.

우리가 들여다볼 만한 작은 보물이 하나 더 있다. 당신은 결혼한 배우자와 잘 지내지 못하는 편인가? 그렇다면 그건 당신이 지상에서 극복해

야 할 '장애'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비유해보자. 말들이 경마장에 들어선다. 그리고 만일 특정한 말이 계속 우승을 도맡아서 경주가 재미없어진다면, 그 말에게는 일종의 핸디캡이 주어질 것이다.

당신도 자신을 그런 말에다 비유할 수 있다. 지난 생의 수업에서 당신은 너무나 빨리, 또는 쉽게 질주했는지도 모른다. 그런 경우에 당신은 이 번 생에서 '잘 맞지 않는 배우자' 라는 핸디캡을 안게 될 수 있다. 그렇더 라도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만일 당신의 배우자 가 정말로 당신과 잘 맞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그 또는 그녀를 지상 너 머의 삶에서 다시 만나지 않으리라.

당신이 드라이버나 망치를 집어 들었다면 그것은 그 연장이 당장 해야 할 작업에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잘 맞지 않는 배우자는 당신으로 하여금 특정한 교훈을 배우게끔 하기 위해 선택된 연장과도 같다. 그는 자신의 드라이버나 망치에 집착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그드라이버나 망치 를 '저편'으로 가져갈 만큼 집착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인간의 위대함을 논하는 이론과 설명이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생명의 최고 형태는 아니라고 말한다. 지상의 인간들은 오히려 가학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실은 궤죄죄한 군상들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이 지상에 있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그 런 성품들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려고 지상에 오기 때문이다.

인간은 현재의 삶을 넘어설 때 참으로 위대해진다. 그렇지만 다시금 분명히 해두지만,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맞지 않는 배우자나 부모를 가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서 사전에 정해두었

던 결과이다. 우리가 백신주사를 맞고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일부러 극소량의 균을 주입해줌으로써 훗날 강렬하고 치명적인 균의 공격을 막기 위함이다. 우리의 배우자나 부모는 우리가 그들과 어우러짐으로써 특정 균을 배울 수 있도록 선택된 존재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생을 마친 후에는 다시 그들을 만날 필요가 없다. 잘 어우러지지 못하는 존재들끼리 다시 만나는 일은 불가능하다. 반복하건대 죽음 저편에서 우리는 조화의 법칙 속에서 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에 크게 안도하리라.

벌써 밤의 어스름이 모여들고 있고 날이 저무는 중이다. 당신을 더 이상 잡아두면 안 될 것 같다. 당신에게는 밤이 닥치기 전에 해야 일들이 많을 테니까.

이제 모든 보물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다락방을 나가서 조용히 문을 닫자. 그리고 저 낮고 삐걱대는 계단을 다시 내려가서 각자 평온하게 제 갈길을 향해 가자.

제17과

아침 일찍부터 친구가 당신의 겹옷을 거의 잡아끌다시피 하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내뱉은 적이 없는가? “오, 맙소사. 어젯밤엔 아주 징그러운 경험을 했어. 꿈에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거리를 돌아다녔지 뭐야. 너무나 황당했다구;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로 이런 식의 꿈을 꾸곤 한다. 우리는 갑자기 우아한 풍모의 사람들로 가득한 응접실에 있다가 문득 자신이 옷 입을 일을 깜빡했음을 발견하기도 하고, 어느 거리의 모퉁이에서 자신이 이상스러운 복장을 하거나 벌거벗은 채로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도 한다.

당신도 알다시피, 이런 꿈은 유체여행의 실제 경험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유체여행을 볼 수 있으므로 이처럼 놀랍고 재미있는 광경을 몇 차례 목격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이번 교과는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꿈이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자는 것이다.

이번 교과에서는 꿈을 다룰 것이다. 꿈은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모든 사람에게 온다. 태고로부터 꿈은 미래의 전조이자 조짐, 또는 불길한 징조로서 여겨졌다. 꿈으로 운을 점친다는 사람들도 있지 않은가. 물론 꿈이란 그저 잠자는 동안 마음이 일시적으로 육체와 떨어져 빚어내는 상상의 단편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견 완전히 틀린 설명이다.

이전의 교과들에서 논했듯이 우리는 적어도 두 개의 몸을 가지고 있

다. 여기서 우리는 그 두 가지 몸, 바로 물리적인 육체(Physical body)와 그것에 바로 인접한 유체(astral body)만을 다루고자 한다. 물론 우리에게 더 많은 형태의 몸들이 있다.

잠이 들 때, 우리의 유체는 점차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위로 떠오른다. 그리고 유체가 분리되면서 우리의 마음도 육체로부터 사실상 분리된다. 육체는 마치 방송국과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정작 아나운서(마음)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어떤 메시지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제 유체는 육체 위에서 떠돌면서 어디를 갈까, 무엇을 할까를 한동안 곰곰이 생각한다. 그리고 결정이 내려지면, 유체는 먼저 두 발을 땅 쪽으로 기울여서 보통 침대의 고틀머리에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곤 새가 잔가지를 떠나듯이, 위쪽으로 살짝 도약하여 은빛 줄의 끝에서 솟아오르며 멀리 사라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서양인들은 그들의 유체여행이 실재임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을 겪어도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 역시 돌아온 후에는 뭔가에 친근감을 갖게 되거나 이렇게 말하게 된다. “아, 나 어젯밤에 이리저리한 꿈을 꿔는데 그 사람 꽤 좋아 보였어.” 그렇다면 십중팔구 당사자는 실제로 ‘이리저리한’ 곳을, 또는 그 사람을 방문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유체여행은 주 쉬운 것이며, 쉬운 만큼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유체는 예전에 자주 가던 곳으로 종종 이끌리는 듯하다. 즉, 우리는 전에 방문했던 장소에 또 가보길 좋아하는 것 같다. “범인은언젠가 반드시 범죄현장으로 되돌아온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우리가 친구들을 방문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 모두는 유체여행을 할 때 반드시 목적지를 택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런 선

택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유체계를 마음대로 쏘다니지 못하고 그 저 몇몇 아는 곳에만 집요하게 달라붙는다. 아직 유체여행을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해외의 친구들을 방문하거나, 평소 가보고 싶었던 어떤 특별 한 상점이나 장소로 달려가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육체로 돌아와 깨어날 즈음에 — 만약 의식이 있다면 — '꿈을꿨다'고 생각할 것이다.

당신은 우리가 왜 꿈을 꾸는지 아는가? 우리 모두는 실재 속에서 여행을 다니고 있다. 우리의 '꿈'은 비행기나 배를 타고 영국에서 뉴욕으로, 또는 아덴(예멘 남서부 도시)에서 아크라(가나의 수도)로 여행하는 것만큼이나 실제적인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그저 '꿈'이라고만 부른다.

이 주제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서기 60년 교회의 지도자들이 콘스탄티노플 회합에서 '그리스도교 사상'에서 구현되어야 할 사항을 결정한 이래로 위대한 대가들의 많은 가르침이 왜곡되고 억압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우리는 아카샤 레코드에서 얻은 정보로써 이 모든 왜곡에 대해 아주 통렬한 비판을 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강좌를 준비한 목적은 사람들이 자신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함이지 누군가의 곡식 낱알들을 짓밟자는 게 아니다. 그들의 '낱알들'(믿음)이 아무리 그릇된 것일지라도 [^]이다.

그러나 이 사실만을 꼭 밝혀야겠다. 서양인들이 수세기 동안이나 유체여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은, 유체여행이 조직화된 종교의 어떤 세계관에도 잘 들어맞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서 '조직화된 종교'라고 강조한 점을 잊지 마시라.

다시 말하건대, 서양의 사람들은 대부분 요정이나 자연의 영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별 의심 없이 그런 존재들과 어울리는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꾸지람을 듣거나 웃음거리가 된다. 정작 어른들이 더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일인데도 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이는 어른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깨어 있는 상태이다. 성경조차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표현을 좀 달리 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만일 당신이 아이의 믿음을 갖고 어른의 불신에 오염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느 때고 어디로든 갈 수가 있다.”

비웃음을 산 아이들은 자신이 본 것을 감추는 법을 배운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감춰야 할 필요 때문에 다른 존재들을 보는 능력을 곧 잃어버린다. 꿈의 경우에도사정은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육체가 잠들었을 때도 견문을 넓힌다. 육체는 결코 자는 일이 없다. 그런 데 육체가 육체로 돌아올 때 그 둘 사이에 충돌이 생긴다. 육체는 진실을 알지만 , 육체는 유년에서 성년에 이르기까지 반복주입된 선입견 탓에 오염되고 닫혀 있다. 그래서 어른들은 자동적으로 진실을 외면하고, 그럼으로써 갈등이 생겨난다. 육체는 외출을 나가서 뭔가를 행하고 경험하고 보지만 , 육체는 그 전부를 믿지 못하게 한다.

두 손으로 붙들 수 없고 쪼개서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은 그 무엇이든 믿지 말라는것이 서양의 교육이다. 서양인들은 증거, 더 많은증거 , 오로 지 증거만을 요구하면서 항상 그 증거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려 애쓴다. 그러니 육체와 육체 사이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꿈은 '아주 괴상하기 이를 데 없는 것들에 대한 일종의 상상에 불과한 것으로 합리화된다.

이 주제를 다시 들여다보자. 우리는 육체여행 중에 예사롭지 않은 것까지 경험을 할 수 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이 모든 경험을 분명히 기억하는 채로 깨어나기를 바란다. 그러나 반복하건대 육체는 그것을 허용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두 개의 몸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참으로 놀랄 만큼

왜곡된 어떤 영상들,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기억에 대신 들어오게 된다. 유체계에서 물리적 지구의 물리법칙에 반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갈등이 생기고, 그 즉시 환상이 끼어들면서 우리는 악몽과 같은 아주 괴상한 일들을 겪게 된다. 유체 상태에선 공중에 떠서 머무르고, 아무 데나 여행을 하고, 누구든 만나고, 세계의 어느 도시라도 방문하는 일이 가능하다. 반면에 육체 상태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위치를 이동하거나 지붕꼭대기 위로 떠오르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육체와 유체 사이의 갈등 때문에 유체여행의 경험을 극단적으로 왜곡한 내용물이 끼어들기 마련이고, 그것은 유체가 알려주려는 메시지를 무효화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헛소리로 가득한 꿈을 꾸곤 한다. 그러나 사실 육체 상태에선 얼토당토않은 일들이 유체 상태에선 다반사로 일어난다.

처음 언급했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거리를 걷는 꿈 이야기로 되돌아가자. 꽤 많은 사람들이 꿈속에서 이처럼 아주 당혹스러운 경험을 한다. 물론 이것은 절대로 꿈이 아니다. 이런 일은 당사자가 유체여행을 할 때 옷을 입겠다는 생각을 깜빡 잊어버렸을 때 벌어진다. 스스로 뭔가를 걸쳐 입어>겠다는 '상상'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유체 상태에서 완전한 나체로 여행을 하게 된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유체는 육체로부터 허겁지겁 위로, 그리고 밖으로 솟아오른다. 딱 막힌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진 데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그 오매불망하던 탈출에 심취하여 다른 일들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다.

본래 인간은 옷을 입지 않은 상태가 자연스럽다. 사실 옷이란 인습에 지나지 않으며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다. 잠깐 주제를 벗어나 당신이 흥미로워할 이야기를 하자면, 오랜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유체

를 볼 수 있었다. 그 당시엔 서로의 사념과 동기를 자유롭게 또한 공개적으로 읽을 수 있었다. 보통 오라의 색채는 그당사자가 지금 감추려고 애 쓰는 신체 부위의 근처에서 가장 강렬하게 타오른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엔 그들의 소중한 부위를 퐁퐁 감추는데, 그것은 혹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들의 생각과 동기가 공개되길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 교과의 주제에서 좀 동떨어진 것 같지만, 이런 사실은 당신에게 옷에 대한 색다른 관점을 제시해준다.

유체여행을 할 때 우리는 보통 낮에 입고 다니는 평범한 옷을 '상상' 한다. 만일 이런 상상을 잊어버렸다면, 투시가는 그 유체가 실오라기 하나 나 걸치지 않은 모습임을 알아차릴 것이다. 유체계에서 우리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것도 입지 않기도 하고, 잠옷 상의를 걸치고 있기도 하고, 현실에서는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복장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의복에 대해 유별난 사람들은 평소엔 전혀 입지 않을 취향의 옷을 꿈속에서 상상을 통해 입고 다니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다. 아까 말했듯이 옷이란 인간이 만든 인습에 불과하고, 우리가 하늘로 돌아갈 때에도 지상에서와 같은 옷을 입어야 할 거라는 생각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꿈이란 유체계에서 일어나는 실제 경험이 왜곡된 것이다. 유체계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훨씬 더 다채롭고 훨씬 더 선명하게 우리 눈에 들어 온다. 모든 것이 더 밝고, '실물보다' 크고 세밀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현란한 색채로 보인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유체 상태로 솟아올라 땅을 지나고 바다를 건너 먼 나라로 향했다. 날씨가 좋아 하늘은 더없이 푸르렀고, 저 아래 바다에서는 부드러운 흰 물결이 우리를 향해 솟구쳤다. 우리는 금빛 모래 위

에 내려앉아 그 경이로운 다이아몬드 꼴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모래 알갱이가 햇빛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반짝거렸다. 우리는 물결치는 해초 잎 위를 따라 조용히 이동했는데, 묘한 갈색과 녹색 그리고 금빛과 연분홍으로 변해가는 기포들이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오른쪽으로 녹색을 띤 바위가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완벽한 비취처럼 보였다. 그 표면을 살펴보자 줄무늬가 보였고, 수백만 년 전에 바위에 끼어버린 생물의 자그만 화석 같은 것도 보였다. 그 주위를 돌아다니며 우리는 주변을 아주 신기한 눈으로 둘러봤다. 우리는 허공에 떠도는 투명한 구체 같은 것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실제로 대기가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모든 색채가 경이롭고 강렬하고 다채로웠고, 우리의 시력은 지표면이 허락하는 한 저 멀리 어느 곳이든 세세하게 가닿을 정도로 예리했다.

이 넓고 초라한 지상에서 육체에 갇혀 있는 우리는 상대적으로 눈이 먼 상태다. 우리는 제한된 범위의 색채만을 볼 뿐이며, 그나마도 색조의 지각력이 형편없다. 우리는 근시와 난시, 그 외에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하는 여러 결함들로 인해 몹시 불편하다. 지상의 우리는 감각과 지각력을 거의 빼앗긴 상태나 마찬가지다. 지상의 우리는 참으로 가련한 존재들이며, 진흙 주머니에 싸여 육욕과 탐심에 짓눌리고 잘못된 음식에 중독되어 있다.

그렇지만 유체로서 자유로운 세계를 향해 떠날 때,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명료한 시력으로써 지상에선 본 일이 없었던 색채들을 볼 수 있다. 만일 당신이 너무나 선명한 '꿈'을 꾸었고 그 색채의 현란함에 즐거워했다면, 그건 평소의 왜곡된 꿈이 아니라진솔한 유체여행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유체계에서 누린 기쁨을 깨어난 후에 기억하지 못하는

데는 다른 요인도 있다. 유체 상태에서 우리의 진동수는 육체 상태의 그것보다 대단히 높다. 육체를 떠나는 과정이 쉬운 이유는, '밖으로' 나갈 때는 그런 진동수의 차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가 발 생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 되돌아올 때로서, 그 문제의 본질을 안다면 우리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유체와 육체가 어떤 타협점에 이르도록 유 도할 수 있다.

당신이 유체 상태에 있고 당신의 육체는 아래에 있다고 상상하자. 육체는 일정한 속도로 진동하고 있다. '똑딱, 똑딱' 하는 정도의 속도이다. 반면 유체는 생기와 활력이 넘쳐서 바르르 쾅다. 유체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떤 질병이나 고통에도 짓눌리는 일이 없다.

지상의 용어로 설명해보자. 버스 안에 한 승객이 타고 있다. 버스는 시속 40~50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고, 그 승객은 당장 버스에서 내리길 원하나 불운하게도 도로 중간에서는 정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승객은 버스를 뛰어내리되 어떻게든 다치지 않고 바닥에 안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주의하면 큰 부상을 입겠지만,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버스회사 직원들은 자주 이런 묘기를 부린다. 그들이 움직이는 버스에서 뛰 어내리는 방법을 경험을 통해 배우듯이, 우리도 속도가 빠른 유체를 속도 가 느린 육체 속으로 진입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문제는 유체여행을 마치고 육체로 돌아올 때다. 반복하지만 유체는 육체보다 훨씬 높은 속도로 진동하는데, 그중 한쪽의 속도를 크게 낮추거나 높이는 데는 많은 제약[^] 따르므로, 최선은 그 둘이 화음을 이룰 때까지 느긋이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는 육체의 속도를 조금 올리고 유체의 속도는 조금 내리는 연습을 통해 — 물론 여전히 진동수의 차이는 크겠지만 — 최소한의 조화를 이뤄냄으로써 안전하게 유체를 육체에 진입시킬

수 있다.

결국 연습의 문제이다. 직감적이고 무의식적인 연습이 이뤄져야 한다. 이것에 성공했을 때 우리는 유체여행의 모든 기억을 고스란히 떠올릴 수 있게 된다.

설명이 어려웠다면 다른 비유를 들어보자. 당신의 유체를 축음기의 바늘로 생각해보자. 당신의 육체는 분당 48 회 회전하고 있는 레코드판이다. 당신은 원하는 멜로디나 가사가 바로 나오도록 축음기 바늘(유체)을 회전하는 레코드판(육체) 위의 정확한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겠는가? 실 제로 시도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유체여행의 기억을 왜곡시키지 않고 육체로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직 서투르거나 미숙해서 '동조'를 이뤄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주 언짢은 기분에 휩싸이게 된다. 모든 것이 거슬리고, 머리가 지끈거 리고 불쾌하고 끈 느낌을 받게 된다. 그것은 서로 다른 진동이 충돌하 면서 결합했기 때문에, 자동차의 변속기를 서툴게 조작하면 부조화로 오작동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잘못된 진동수로 돌아오면 유체가 육체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아 한쪽으로 기울기도 하는데, 그 결과는 몹시 불쾌하 다. 운나쁘게 이런 일을 생겼을 때의 유일한 치료법은, 다시 자거나조용 히 쉬는 것이다. 움직이지 말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평온히 유 체를 육체로부터 다시 한 번 떼어놓으라. 그러면 유체는 1 미터쯤 떠올랐 다가 이내 천천히 가라앉고, 정확한 정렬을 이루며 육체로 돌아올 것이 다. 그때는 더 이상 아프거나 불쾌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오직 연습, 그리고 10 분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면 된다. 갑자기 별떡 일어나서는 죽고 싶은 기분에 휩싸이기보다는 10 분만 참고 기분전환을 시도하는 편이 백 배 낫다. 다시 잠이 들어 두 개의 몸이 완전한 정렬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결코 불쾌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아주 특이한 꿈을 기억하면서 잠에서 깨어난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목격하는 경험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이 세상 너머의' 어떤 경험일 수도 있다. 이런 일은 그가 영적 훈련을했거나어떤 특별한 관련이 있어서 아카샤 레코드 — 이후의 교과에서 다룰 것이다 — 에 접속하여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보거나 드물게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 을 내다봤을 때 생겨난다. 실제로 예언 능력이 있는 천리안들은 종종 미 래로 가서 '확률적 현실'을 내다볼 수 있다.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 으니 '실제 현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 은 '미래'이다.

이로써 당신은 유체계의 경험에 대한 기억력을 계발하면 할수록 그만큼 많은 이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아침마다 몇 분 이내에 모 든 기억을 잊고 만다면, 밤새 그토록 노고와 수고를 기울여 뭔가를 배운 다는 일은 별로 의미가 없게 되어버 린다.

아침에 깬 후에 급격히 시무룩해져서 세상을 있는 대로 저주하게 되 는 경우도 많다. 이런 침침하고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는 데는 여러 시 간이 소요된다. 우리가 이런 유별난 태도를 보이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이 유가 있다 그중의 하나는 이렇다. 유체 상태에서 우리는 즐거운 일들을 하고, 흥미로운 곳을 방문하며, 행복한 사람들을 만난다. 보통 유체여행 은 무엇보다 유체를 위한 일종의 기분전환이고, 그동안 육체는 자면서 피 로를 회복한다. 유체 상태에서 경험하게 되는 자유, 즉 육체의 구속과 속 박으로부터의 해방감은 참으로 경이롭다. 그러나 머지않아 육체로부터 다음날을 시작하라는 소환장이 날아온다. '다음날? 그게 뭐지? 또다시 고통? 힘든 노역? 그게 무어든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이렇게 유

체계의 기쁨을 잃어버린 탓에 우리는 깨어나자마자 아주 우울하고 성마른 기분에 빠지는 것이다.

그리 유쾌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지상에 얽매인 우리의 유체는 스스로 미리 선택해둔 수업과목들을 배우기 위해 학교에 다녀야 하는 학생들의 처지와 같다. 우리의 유체는,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후에 학교 하듯이, 하루의 공부를 마치고서야 집(잠)으로 돌아간다.

평소엔 자신감과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조차도 어떤 날 아침에는 몹시 비참한 기분으로 깨어나곤 한다. 이는 그가 지상에서의 자신의 삶이 영망진창이며 그 모든 독선과 자기만족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유체계에서 막 직시하고 돌아온 참이기 때문이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가 잘 살고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특정한 지식을 배우러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진학하듯이, 우리는 특정한 지식을 배우러 이 지상에 온 것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신학을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 무런 이유도 없이 촌구석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긁어모으는 데 허송세월하고 있다면 그건 전혀 쓸데없는 짓이다.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속이고 바가지를 씌우고 부당한 거래로 이득을 취하면서 자신이 남달리 뛰어난 일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계급의식'에 빠져 있거나 단기간에 돈을 긁어모은 졸부들은 오히려 지상에서의 그들의 삶이 더없는 실패작임을 입증하고 있을 뿐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진실을 직면해야 할 때가 온다. 그리고 이 지상에는 진실이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허상의 세계이고, 그들은 수업의 본질을 왜곡하여 돈과 권력과 지위에만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진실로부터 이보다 더 멀어질 수는 없다.

인도를 포함한 동양의 탁발승들은 짓눌리고 고통 받는 빈민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이자로 돈을 놀이를 하는 힘센 금융업자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반면에 금융업자, 대금업자들은 불행히 빛 더미에 앉게 된 빈민들의 가정과 미래를 가차 없이 파괴해버린다.

이처럼 힘센 금융업자들 가운데 누군가의 가족 전체가 깊은 잠에 빠지고 어떤 특별한 이유로 육체를 이탈하여 아주 먼 곳에서 자신들이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지켜본다고 하자. 그때 그들은 몹시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돌아올 것이다. 즉, 자기 존재에 대한 깨달음과 새 출발에 대한 의지를 갖고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은 자신의 저급한 육체로 돌아오고 나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잠자리가 뒤숭숭했다고 말하면서, 다시 부하들에게 고통을 지르고 눈에 띄는 사람들 모두에게 지분낼 것이다.

이것이 소위 '월요병 Monday morning blues'의 실체이다. 슬프게도 이런 일은 월요일 아침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격일로 일어난다. 하지만 특히 월요일이 강조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꽤나 규칙적으로 일을 해야만 한다. 최소한 평일 내내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 바쳐야 한다. 그러다가 주말이 되어야 비로소 긴장이 풀리고 해야 할 일과 모임장소가 바뀐다. 따라서 사람들은 평일보다는 주말에 좀더 편안히 잠을 자고, 그 결과 육체 또한 더 멀리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된다.

그때 육체는 자신의 육체가 지상에서 하고 있는 일의 실체를 볼 수 있을 만큼 높이 떠오르는데, 월요일 아침에 다시 육체로 돌아와서 일주일간의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커다란 우울감에 몰려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다. 거의 잠을 자지 않는 사람들 말이다. 이 사람들은 불행히도 유체 수준의 의식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체가중체 육체를 벗어나 여행을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흔히 주정뱅이들이 것처럼 잠들기를 꺼려하는데, 이는 자신의 유체 주위로 모여드는 아주 흥미로운 존재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분홍 코끼리'와 같은 유형의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그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하므로 육체와 유체 모두 큰 고통을 받는다. 당신 주변에도 아마 한시도 안절부절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신경과민' 상태여서 잠시도 쉬질 못한다. 그들은 속마음과 양심에 걸리는 것이 너무 많아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하는 일로부터 계속 도망다닌다. 그것은 아예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들은 잠도 자지 않고 긴장도 풀지 않고 초차아에게 육체와 접촉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 그들은 재갈을 물고 사납게 길을 달리며 주변을 위태롭게 하는 말과도 같다. 잠을 자지 않으면 지상의 삶에서 얻을 것이 줄어들고, 이번 생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면 더 나은 일을 하러 다음번에 또 이곳으로 돌아와야 한다.

어젯밤의 꿈이 상상의 산물인지 유체여행의 비틀린 기억인지를 어떻게 구별하는지가 궁금한가? 가장 쉬운 방법은 당신 자신에게 묻는 것이다. 그 꿈에서 사물이 훨씬 더 명료하게 보였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유체 여행의 기억이다. 그 색채가 현실에서 볼 때보다 더 뚜렷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유체여행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았거나 그로부터 강한 인상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유체 상태로 그를 방문했던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지니고 잠자리에 들면, 눈이 감기고 이완이 된 후에 당신은 틀림없이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된다.

우리는 동전의 다른 면도 함께 봐야 한다. 당신은 분명히 사이가 나쁜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서 형클어진 채로 — 그러나 화가 나지는 않은 상태로 — 아침에 깨어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마 당신은 그와 관련된 다툼이나 논쟁을 곱씹으면서 잠자리에 들었을 것이다. 당신과 그는 유체 상태에서 서로 만나 문제의 해결을 모색했는지도 모른다. 당신은 문제를 해결 했고, 그 해결책을 기억하여 현실에서도 우호적인 합의에 이르겠다고 결심했을 수 있다. 또는 그와 반대로 논쟁이 훨씬 더 가열되어 전보다 적대감이 더욱 커진 상태로 지상으로 돌아왔을 수도 있다.

당신이 우호적인 결말을 보았든 그렇지 못했든 간에, 육체로 돌아올 때 심한 경련이 일어났거나 유체와 육체가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면 당신의 선한 의도와 선한 해결책은 전부 부서지고 왜곡되어 깨어날 때 남은 기억이란 단지 부조화와 혐오와 심한 좌절감, 분노뿐일 것이다.

꿈이란, 말하자면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창문 같은 것이다. 꿈을 계발하고 꿈을 탐구하라. 밤에 잠들면서 “진실한 꿈을 꾸겠다”고 선언하라. 즉, 아침에 깨어날 때 밤에 일어났던 모든 경험에 대해 분명하고 오염되지 않은 기억을 갖겠다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오직 의심에 빠져 증거만을 외쳐대는 서양인들만이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동양인들은 육체로부터 해방되려는 목적으로 유체여행을 연습하기도 하고, 잠에서 깨어날 때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의 해답을 얻어내려고 연습하기도 한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당신은 선홍을 실천하겠다는 굳은 염원과 연습으로써 '참된 꿈'을 꿀 수 있고, 영광스런 존재의 단계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 수 있다.

제 18과

우리는 이 강좌를 통해 조금씩이나마 서로를 이해해가고 있다. 아마도 이쯤에서 우리는 잠시 숨을 돌려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을 돌아보고, 그동안 무엇을 읽고 무엇을 배웠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 같다. 뭔가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따금씩 모든 걸 멈춰보는 것도 필요하다.

당신은 '기분전환(recreation 이라는 단어가 말뜻 그대로 '재창조'^{re-crea})'를 의미한다고 생각해본 일이 있는가?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건, 피로할 때는 정말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피로해지면 최선을 다할 수 없다. 당신은 피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가? 근육을 혹사하면 왜 뻣뻣하고 쓰리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 장황한 생리학 지식을 섭렵해야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했다고 하자. 예컨대 오른팔로 무거운 물건을 계속 들었다. 그러자 얼마 후 오른팔 근육이 아프기 시작한다. 처음엔 그 근육에서 아주 특이한 감각을 느끼고, 한참 후에는 살짝 쓰린 정도가 아니라 진짜 통증을 겪게 된다.

이 현상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생명이 근원적으로 전기적 특성을 띠고 있음을 강조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마다 두뇌에서는 전기가 발생한다. 우리가 손가락을 움직일 때도, 실은 전류가 신경자극의 형태로 흘러가서 해당 근육을 일깨워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

과로로 학대당한 아까의 오른팔을 생각해보자. 무엇인가를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두뇌의 전류를 운반하는 신경이 심하게 압

박받는다. 보통 가정집의 퓨즈도 과부하가 걸리면 즉각 끊어지지는 않더라도 과부하의 징표로서 점차 변색이 될 것이다. 근육에 연결된 우리의 신경이 바로 그러하다. 전류가 계속 흐르면서 신경을 압박하면, 해당 근육들도 씹없는 팽창과 수축으로 지치게 된다.

근육은 왜 지치는 걸까? 대답하기 쉬운 질문이다. 우리가 사지를 움 직일 때 근육은 두뇌에 의해 자극받는다. 전류는 근육조직 내에 분비작용을 일으켜 근육섬유가 뒤틀리게끔 한다. 근육섬유가 한 가닥 또는 여러 가닥이 뒤틀리면 결과적으로 전체 길이가 줄어들고, 그럼으로써 사지를 굽히는 동작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괜찮는데 — 생리학을 논 하자는 게 아니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 그 과정에서 근육섬유를 뒤틀리게 하는 데 필요한 화학물질이 응고하여 조직 속에 박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비물을 흡수할 화학물질을 근육 속으로 빠르게 보내지 못하면 그것들은 근육 속에 결정으로 남는다.

이 결정체는 아주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고 있어 우리가 계속 근육을 움직이고자 할 때마다 상당한 고통을 불러온다. 그럴 때 우리는 하루나 이틀을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야만 결정체가 전부 흡수되고 근육섬유도 회복되어 매끄럽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지로 덧붙이자면, 류머티즘 환자들은 신체의 여러 민감한 부위에 응결된 결정체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병든 부위를 움직이려면 그 조직에 박힌 결정체 때문에 극심한 통증을 견뎌야 한다. 이 결정체를 녹이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류머티즘은 완치가 가능하리라. 그러나 아직은 그런 방법이 발 견되지 않았다.

지난 교과들을 복습해보자는 취지가 좀 무색해진 듯하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만일 너무 힘들게 애를 쓴다면 두뇌에 과부하가 걸려 당

신은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중도를 걷지 못하는데, 그들은 죽어라 일해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며 자라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분투하며 노예처럼 일한다. 그러나너 무 과한 나머지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한다.

때때로 열정이 지나친 사람들은 일에 치여서 끔찍한 말들을 내뱉기도 한다. 그들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다. 우리가 지칠 때는 두뇌에서 생성되는 전류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그러면 부정적인 충동이 긍정적인 충동을 압하여 성미를 까탈스럽게 만든다. 과로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성미가 나빠졌다면, 그것은 우리의 두뇌에서 전류를 생성하는 세포들이 녹슬고 있다는 뜻이다.

당신은 차를 운전하는가? 그렇다면 차의 배터리를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배터리 단자에 들러붙은 주지저분한 녹색 덩어리들을 보았을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들은 배터리와 차체를 연결한 철선을 부식시킨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방치하면, 스스로 능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성마른 마음씨를 갖게 되는 것이다.

결혼생활을 희망차게 시작했으나 남편에 대한 사소한 의심 탓에 스스로 성가신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아내가 바로 그런 예이다. 그녀는 의심한 바를 남편에게 캐묻는 일을 반복하다가 아예 그런 습관이 들고, 마침내는 아무 잘못 없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퍼붓고 바가지를 굶는 드센 여인네로 변신하는 것이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쾌한 피조물 중 하나이다.

성격을 밝게 유지하라. 그러면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부디 살빼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찾아다니지 말라. 살집이 있는 사람이 빼만 앙상하게 남은 수척한 신경쇠약자보단 긍정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법이다.

이 '중도'라는 문제를 다시 살펴보자. 누구나 어떤 환경에서든 최선

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또한 최선을 능가할 수는 없다. '최선'을 넘어서려는 노력은 실로 부질없는 짓으로 당사자를 지치게 만 한다. 우리는 이것을 발전기에 비유할 수 있다. 발전기가 만들어낸 전 기가 일정한 수의 램프를 밝히고 있다고 하자. 만일 발전기가 램프들을 밝히는 데 충분한 속도로 돌며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면, 그 발전기는 자 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발 전기의 속도가 높아져 램프가 소모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전기를 만들게 되면, 우리는 그 과잉출력분을 쓸데없는 곳으로 흘려보낼 수밖에 없고 과 속으로 인해 발전기의 수명도 덩달아 줄어들 것이다.

또 다른 비유도 있다. 당신은 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시속 50 킬로미터 로 달리고자 한다. (대부분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밟지만 우리의 예시는 이 속도로 충 분하다) 당신이 숙련된 운전자라면 고속 기어를 넣고 엔진을 아주 천천히 회전시키면서 그 속도를 유지할 것이다. 그럴 때는 부속의 마모도 거의 없고 엔진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그러나 운전이 서툴러서 최저속 기어를 넣고 시속 50 킬로미터의 속도를 내려 한다면, 계기판의 **RPM** 수 치는 대여섯 배나 치솟고 엔진에는 최고속 기어로 시속 150 킬로미터쯤 달릴 때만큼이나 큰 무리가 갈 것이다. 소음이 커지고 엄청나게 기름을 먹으며, 부속들도 안정적일 때보다 대여섯 배 빨리 마모될 것이다.

그러니 중도를 지킨다는 것은 '분별 있는 길'을 택한다는 뜻이다. 즉 어떤 일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만큼 열심히 일하되, 그 이상으로 생명과 정력을 낭비하지는 않음을 일컫는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록 그 공이 많아진다고 생각한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생각도 없다. 몇 번이고 반복하지만, 과업을 이루기에 족할 만큼만 열심히 일해야 한다.

다시 기분전환^작 ^책의 주제로 되돌아가자. 기분전환이란, 앞서 말

했듯이 재 창조 를 뜻한다 우리가 피곤을 느끼는 것은 특정 부위의 근육이 피로해졌음을 나타낸다. 예컨대 벽돌을 나르거나 책을 나르느라고 팔을 너무 오래 움직였으면 팔은 곧 통증으로써 피로를 호소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다리와귀와 눈은 아직 건재한 상태다. 그러니 이럴 때는 산보를 하거나 좋은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재창 조' 하도록 하자. 우리는 의도적으로 다른 신경과 근육을 사용함으로써 휴 식이 필요한 근육에 몰린 과잉전기를 해소할 수 있다. 즉, 재창조란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되찾는 일이다.

당신은 자신의 오라를 보려고 너무 애를 쓰진 않았는가? 에테르는 어 댔는가? 아마도 꽤나 노력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 했다고 해서 낙담하지는 말라. 이것은 시간과 인내 , 그리고 상당한 믿음 을 요구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당신은 지금 처음으로 뭔가를 시도해보는 입장이다. 하룻밤에 의사나 법률가나 탁월한 예술가가 되길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가가 되려면 초등 학교 ,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고 최소한 대학 과정까지 마쳐야 한다. 그 러려면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 이처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 켜이 시간을내서 공부를 해야 한다. 당신의 목표가 의사든, 법조인이든 , 주식중개인이든, 하룻밤 새에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인도의 현자들은 어떤 경우라도 수행 경력이 10 년이 채 못 된 사람이 투시를 시도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 견해에 전혀 동조하지 않는다. 우리는 투시할 준비가 된 사람은 금방 투시를 해낼 수 있다고 믿는 다. 그렇지만 하룻밤에 투시능력을 얻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얻고자 하는 게 있다면 일해야 하고 , 연습해야 하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의사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다면 담당교수에 대한 , 그리고 자기 자

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열심히 수업을 듣고 과제물을 제출하며 적어도 수년간의 실습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강좌를 통해 오라를 보려고 하는 당신은 지금 얼마나 이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일주일에 두 시간? 일주일에 네 시간? 당신이 적어도 날마다 여덟 시간쯤 공부하거나 연습에 전념하는 게 아니라면, 부디 인내심을 가 지라. 인내심과 믿음을 가진다면 당신은 반드시 오라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세계 각지의 사람들로 부터, 심지어 '철의 장막' 뒤 에 있는 사람들로 부터도 엄청난 양의 편지를 받아왔다. 그중엔 천리안을 가진 한 호주 소녀가 있는데,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살아야만 한 다. 왜냐하면 남의 생각을 읽거나 건강상태를 알려줄 수 있다고 솔직히 말한다면 그녀는 '별종' 취급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캐나다 토론토 에 사는 한 여성은 단 몇 주 만에 손가락 끝에서 흐르는 에테르를 보았고 '연꽃'이 머리꼭대기에서 물결치는 모습도 보았다고 한다. 그녀는 매우 빨리 성장하여 지금은 에테르를 거의 완벽하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녀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라를 보기 시작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벌써 자연의 영과 꽃의 오라를 볼 수 있으니 운이 좋은 편이다. 그녀는 예 술가로서 꽃을 그 주변의 오라와 함께 그려낼 수 있다.

투시력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현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유고슬라비아의 아주 재기 발랄한 여성이 보내온 편지를 인용하려 한다. 우리는 그녀에게 이 경험담을 교과에 넣고 싶다고 전했고, 그녀는 허락한다는 답장을 보내주었다. 다음은 그녀의 편지 내용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녀의 말을, }주 가볍게 다듬기만 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살고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우리는 날마다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양이처럼 난로 뒤에 편히 앉아서 있던 시절은 지나갔지요. 삶은 우리를 늘 갈림길 앞에다 데려다놓습니다. 어떤 갈림길이나가요? 한쪽은 영혼을 굶기고 신체를 병들게 하는 길이고, 다른 쪽은 영혼을 부양하고 신체 또한 건강하고 아름답고 조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영혼은 볼 수 없는 것, 즉 외과의사들이 꺼내어 접시 위에 올려놓을 수 없는 허깨비가 아니냐구요?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여러분이 영혼의 존재를 믿든 믿지 않든 영혼은 실재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세요. 극장이나 축구경기장으로 달려가지 말고, 쇼핑과 운전도 잠시 멈추고 제 말을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참으로 중차대한 문제니까요.

서양에는 소위 불가시제■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즉 오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오라가 밝은지 어두운지, 머리둘레에 후광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세속적인 생각뿐인지 등을 영 파악하지 못하고 산다는 뜻이지요. 영혼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고귀한 본질입니다. 영혼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재능을 타고나서 유년시절부터 오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누구나 다 저처럼 그것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보질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무를 잘랐을 때 그 단면에서 나이테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이테는 나무가 살아온 세월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통해 언제가 흉년 또

는 풍년이었던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것처럼, 세상에 흔적 없이 소멸하는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 저는 오래된 교회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건축물 주위엔 경이로운 빛이 있었는데, 마치 나이트처럼 선명한 빛의 선들이 건축물 형태를 따라 둘레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들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정확히 백 년 단위로 선들이 겹쳐져 있다고요. 그곳은 크로아티아의 수도인 자그레브 인근의 리베트 교회였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 건축물 둘레의 선들을 보고 그것의 나이를 맞힐 수 있었습니다.

한번은 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 교회당은 얼마나 오래된 것 같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아직 둘레에 선이 하나도 없어. 그저 빛이 있을 뿐이야.” 친구가 말했습니다. “네 말이 맞아. 이 교회당은 아직 백 년이 채 못 되었다 ;

여러분도 이젠 아시겠죠. 만일 이처럼 건축물에도 ‘영혼’이 있다면 살아 있는 존재들은 얼마나 더 큰 것을 지니고 있을까요? 저는 나무와 숲과 초원과 꽃의 오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몰 후에는 더 잘 보입니다. 온화하지만 강렬한 빛이 모든 살아 있는 피조물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와 고양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저쪽 편에서 저녁 노래를 지저귀고 있는 작은 새가 보이십니까? 그 새를 둘러싸고 있는 보랏빛은 새의 영혼이 행복에 겨워 나풀대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어떤 소년이 다가와서 그 작은 새를 총으로 쏘아 떨어뜨렸습니다. 그 작은 새의 오라는 한동안 깜박이다가 이내 사라졌고요. 그건 꼭 자연을 떠나는 울음소리 같아요. 저는 본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저를 바보라고 놀

렸죠.

열여덟 살이 되던 해의 어느 날, 저는 거울 앞에서 있었습니다. 해 질녘이어서 잘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둑어둑한 방 안에서, 희고 긴 잠옷을 입고 있던 저는 뜻밖에도 거울 속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몸의 둘레에서 푸른 빛과 금색 빛이 도는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오라가 뭔지 몰랐던 저는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부모님께 달려갔습니다. "내가 불타고 있어요!" 물론 그 불꽃은 전혀 절대치게 하진 않았지만요. "뭐가 어떻다고?" 부모님은 별떡 일어나 전등불을 켜셨고, 그러자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불을 끄자 제 둘레에서 활활 타오르는 금빛 불꽃이 확연히 보였습니다. 하인 하나가 이 모습을 보고는 비명을 지르며 줄행랑을 쳤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존재들에게서 불꽃을 봤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게 그런 일이 생기니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전등불을 여러 번 껐다가 켜고, 또 껐다가 켜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등불이 꺼지면 저는 금빛으로 타올랐고, 전등불이 켜지면 그 빛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되더군요. 어쨌든 이것이 전혀 해롭지 않은 현상임을 확신하게 되자 곧 모든 게 흥미로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른 사람의 오라를 보는 일에 주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의 실체를 아십니까? 전쟁 중에 폭격기가 우리 머리위를 지나가면서 폭탄을 떨어뜨릴 때, 저는 남자 동료들의 오라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한때 저는 나치정권에 의해 모두가 죽어나가는 감방에도 갇힌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고문실로 끌려갔고, 고문관들은 제게서 어떤 정보를 얻어내려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고문을 당

하는 사람들의 오라를 직접 보았습니다.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의 오라는 육체에 착 달라붙어 빈약해지더니 점차 빛을 잃고 소멸 되어버렸습니다.

고문으로 죽어가는 이들의 비명을 듣는 순간 저 자신의 오라도 오그라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서 뭔가 성스러운 힘이 솟아났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 할지니, 육체를 죽이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마음을 모아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제 오라가 다시 퍼져 나감을 느꼈고, 다른 사람들의 오라도 좀더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른 한 여성도 저와 뜻을 함께했고, 결국 기운을 되찾은 저희는 한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고문과 지루한 시간과 끔찍한 고통을 별 탈 없이 견뎌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원만을 줄곧 생각했고, 이 악몽 같은 삶 이후의 참된 여정에 온 마음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고문은 제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고, 마침내 그들은 화가나서 저를감옥에서 내 쫓아버렸습니다. 제가 그들의 사기를 꺾는 골칫거리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공포와 위협에 굴복했다면, 저와 저의 동료 열여섯 명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서양인이자 유럽인인 우리는 동양인에게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제어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서양인들의 오라는 꽤나 가물거리는 편입니다. 그들은 결코 고요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일도 드물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 질서한 오라는 다른 이의 오라까지 감염시키고 이는 전염병처럼 전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오라가 병적인 영향력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히틀러는 것처럼 마구잡이식의 연설로 성공을 거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히틀러는 군중들이 스스로 상상력을 제어할 수 없었기에 성공했 던
것입니다.

피곤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읽어주세요. 가장 열악한 사람들, 즉 미
치광이들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자그레브의 한 정신병원으로 가볼까 요?
며칠 전에 저는 거기서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환자들의 오라를 보는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최악의 병증까지는 아닌 환자들 말입니 다. 한
친구가 저를 수석 내과의에게 소개해주었는데 그는 아주 회의 적인
남자였습니다. 저는 다만 환자들의 오라를 관찰하고 싶다고 말 했습니다.
그는 저 역시 가뉘들 만한 미치광이로 여기는 눈빛이었지 만 , 어쨌든
결국은 몇몇 환자를 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경비원들이 병증이 꽤 심각한 여자 환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끔찍했는데, 양 눈을 부라리고 이를 갈아대며 머리털 은
악마의 불꽃처럼 사방으로 뿜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외모 는 제가
불가지주파체의 세계에서 본 모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 니다.
저는 그녀의 영혼이 막 육체를 벗어나서, 그 육체를 차지하려 드는
어두운 그림자와 사납게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주위는
소용돌이와 부조화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경비원들은 그녀를 도로 데
려갔고, 저는 의사에게 그녀는 귀신에게 몸을 헛긴 터라 치료할 방법 이
없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 특별한 교과를 끝내고자 한다.

아주 재기 발랄한 이 유고슬라비아의 여성이 본 것을, 당신 또한 연습 과
인내와 믿음을 견지한다면 능히 볼 수가 있다. 기억하라. 로마제국은

하루에 이뤄지지 않았다. 하룻밤 새에 의사나 변호사가 될 수는 없는 법 이다
그들은 성공하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한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어려 움과 고통
없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세상에 없다.

제 19 과

우리는 수시로 아카샤 레코드를 언급해왔다. 이 교과에서는 바로 그 매혹적인 주제를 논의하기로 하자. 아카샤 레코드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과 관련되어 있다. 아카샤 레코드로 인해 우리는 역사를 거슬러 여행할 수 있고, 일어났던 모든 일을 - 이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까지도 - 직접 볼 수 있다.

오늘날은 과학자들도 영능력자들이 늘 알아왔던 사실을 깨닫기 시작 하고 있다. 우리와는 또 다른 사람들, 즉 인간이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분명 지각력 있는 어떤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 말이다.

아카샤 레코드에 관해 제대로 논의하려면 먼저 에너지 또는 물질의 성질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리는 물질의 기본 입자는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유지된다고 배웠다. 파동과 전파도 마찬가지다. 최근에 과학자들은 동선코일에 유도전류를 발생시키고 나서 온도를 절대온도 0도가 가까이로 최대한 낮추면 그 유도전류가 그대로 지속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보통 실온의 환경에서 유도전류는 여러 가지 저항 때문에 곧바로 줄어들어 소멸된다. 동선의 온도를 충분히 낮춰주면 전류가 외부 에너지원의 도움 없이도 원상태로 계속 흐른다는 사실은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돌 파구가 되어주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언젠가 과학자들은 인간에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능력들을 발견하고야 말 것이다. 그러나 그러려면 시간이 좀

것이다. 과학자들은 대개 진도가 느리고 많은 실패를 거듭하니까 말이다.

우리는 파동이 파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빛의 파동이 어떤 성질인가를 살펴보자. 빛은 우리와 주 멀리 떨어진 우주의 별들로부터 온다. 우주공간을 탐색하는 지구의 거대한 망원경들은 사실 광막하게 먼 곳으로부터 오는 빛을 수집하고 있는 셈이다. 어떤 별들은 이 세계 또는 이 우주조차 존재하지 않던 머나먼 옛날에 그 빛을 우리에게 보냈다.

빛의 속도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만큼 참으로 빠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우리가 지금 육체라는 껍데를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한 물리적 제약에 꼼짝없이 얽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빠르다'고 여기는 것도 다른 존재 차원에서는 의미가 달라진다. 예컨대 우리가 '한 인간'이 존재하는 기간이 72,000 년에 달한다고 본다면 어떨까? 물론 그 기간 동안 여러 개의 몸으로 여러 세계 속에서 태어나는 과정을 반복하겠지만 말이다. 소위 우리의 '학기(공부기간)'가 무려 72,000 년에 달한다면 그래도 빛의 속도가 빠르다고 여겨질까?

우리가 라디오파, 전파, 그 외 다른 파동 대신 '빛'을 언급하는 것은 그것을 아무런 장비 없이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디오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햇빛과 달빛을 볼 수 있고, 만일 성능 좋은 망원경이나 쌍안경이 있다면 멀리 떨어진 별들의 빛까지도 볼 수 있다.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돌기도 이전에 방출되었던 빛들 말이다.

빛은 시간이나 거리의 척도로 사용된다. 천문학자들은 '광년'이라는 단위를 쓴다. 다시 말하건대, 멀리 떨어진 세계에서 오는 빛은 그 세계가 소멸되어버린 후에도 계속 여행을 이어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해 전에 소멸하여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에 관한 영상을 지금 이 시점에 서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이해가 어렵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라. 머나먼 우주공간 어딘가에 별 하나가 있다. 그 별은 수년 동안, 수 세기 동안 지구를 향해 빛을 보내 왔다. 그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는 천 년, 만 년, 또는 백만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만큼 지구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별이 다른 별과 충돌한다. 커다란 섬광이 일며 별이 파괴되었다. 편의를 위해 완전히 흩어져버렸다고 치자. 그러나 그 섬광이 우리에게 오려면 천 년, 만 년, 또는 백만 년이 걸린다. 따라서 그 섬광은 아직도 우리에게 오는 중이다. 빛의 근원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통과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우리는 그 별빛을 보고 있지만, 사실 그 원천은 이미 사라져버린 후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하지만 육체를 벗어났을 때는 아주 쉽게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예컨대 우리는 '생각'보다도 빠른 속도로 여행을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생각'보다 빠르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몇몇 의사들도 알고 있듯이 생각은 아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주어진 상황에 반응할 수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대단히 빠르게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돌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생각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전달되는 속도이다.

만약 우리가 지구로부터 3천 광년의 거리만큼 떨어진 어떤 행성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다고 해보자. 그때 이 머나먼 행성은 지구에서 3천 년 전에 출발한 빛을 받고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교하게 그 빛을 해석해낼 수 있는 망원경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 당시 현존했던 지구의 광경을 보여주리라. 우리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생활을 보고, 대청 앞으로 살짝 몸을 가리고 자연을 쓰다니는

스런 서양인들도 볼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꽤나 수준 높은 문명을 볼 터인데, 그것은 현재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일 것이다.

이처럼 '즉각적인' 여행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영상을 보게 될 것이다. 지구와 천 광년 떨어진 행성으로 간다면, 우리는 천 년 전 지구의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인도의 수준 높은 문명, 서구세계를 휩쓴 그 리스도교의 전파, 그리고 남아메리카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볼 수 있으리라. 또한 지구의 모양도 지금과는 어딘가 다르게 보일 것이다. 땅의 융기와 해변의 침식에 따라 해안선이 항상 변화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생애에서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겠지만, 천 년이라면 그 차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는 제약이 아주 많은 세계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주 제한된 범위의 주파수들만을 지각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유체 상태처럼 '몸을 벗어나는' 능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사물을 아주 다른 빛깔로 볼 것이며 모든 물질이 참으로 불멸의 실재임을 인식할 것이다. 그리고 지상에서 있었던 모든 경험이 파동의 형태로 계속 밖으로 방사되고 있음도 인식할 것이다.

우리는 특별한 능력으로써 이 파동들을 — 광파를 차단하듯이 — 반사시킬 수가 있다. 평범한 슬라이드 영사기를 간단한 예로 들어보자. 당신은 어두운 방에서 슬라이드 영사기를 켜고 스크린을 적당한 거리에 놓는다. 당신이 영사기 렌즈 앞에 둔 스크린 — 이왕이면 흰색이 좋겠다 — 에다 빛의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 영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영사기를 잘못 놓아서 그 빛이 저 너머의 어둠 속을 향하게 된다면 거기엔 선명한 영상이 아니라 그저 희미한 광선들만이 나타날 것이다. 즉, 빛은 일종의 차단물에 가로막혀 반사되어야만 우리에게 제대로

뜻이다. 맑고 구름 없는 밤에는 탐조등을 켜놓아도 그 빛의 희미한 흔적만이 보인다. 하지만 탐조등의 빛이 구름이나 비행기에 부딪칠 때, 당신은 실제로 그 빛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시간여행'을 가능케 하는 도구를 발명하는 것은 인류의 오랜 염원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지상에서 사는 동안은 실현될 수 없다. 우리는 교훈을 얻기 위해 몹시 불완전한 도구인 육체 속에 매여 있고, 의심이 많고 우유부단하며, 확신하기 전에 먼저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질을 산산조각내어 그 안에서 작동원리를 찾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상을 초월하여 유체계로 들어가거나 유체계마저 넘어설 때, '시간여행'은 영화나 연극을 관람하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 된다.

아카샤 레코드는 이렇듯 일종의 진동이다. 하지만 꼭 빛의 진동만은 아니고, '소리'의 진동도포함하고 있다. 지구상의 우리에게 이 진동을 설명할 만한 단어가 없다. 가장 근접한 설명은 그것을 라디오파에 비유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세계 각지에서 송출된 라디오파가 흐르고 있다. 그것들은 각기 다른 프로그램, 다른 언어, 다른 음악, 다른 시간대의 정보를 품고 있다.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내일 방송될 프로그램을 미리 들을 수도 있다.

이런 파동들이 우리에게 부단히 부딪혀오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알아 차리지 못한다. 라디오 수신기라는 기계장치가 없는 한, 우리는 그 파동을 수신하고 변환하여 소리로써 들을 수가 없다. 라디오 수신기는 기계적인 또는 전기적인 회로를 통해 라디오파의 주파수를 가청대역으로 낮춰서 소리로 변환한다.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에게 아카샤 레코드의 파동을 낮출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역사적

된 역사가 오류투성이임을 알게 된 역사가들은 아마 까무러치리라.

아카샤 레코드는 이 세계에서 방출된 인간 지식을 총체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불멸의 진동이다. 그것은 라디오 프로그램의 전파처럼 계속 퍼져 나간다. 이 지구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은 오직도 진동의 형태로 존재한다. 우리가 육체를 벗어날 때는 이 파동을 이해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 따위가 필요치 않다. 우리는 그 주파수를 낮추기 위해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 자신의 '파동수신체'의 속도를 높이는 연습과 훈련을 함으로써 이른바 아카샤 레코드를 직접 수신한다.

아카샤 레코드는 이 세계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 밖의 다른 세계들도 각자 자신만의 아카샤 레코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나라들이 각자 저마다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수신 방법만 안다면 우리는 이 세계뿐 아니라 다른 세계의 아카샤 레코드에도 다이얼을 맞출 수 있다. 그때 우리는 그곳의 역사적 사건들을 볼 수 있고, 그곳의 역사책들은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카샤 레코드는 그저 무익한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자신의 계획 중에 무엇이 어긋났는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지상의 죽음 이후에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는데, 그곳에서 각자 행했던 또는 행하지 않았던 일들과 맞대면을 해야 한다. 그때 우리는 아카샤 레코드를 통해 과거생을 보게 되고, 그것은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를 계획했던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그 지식과 더불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계획을 세워 노력하게 된다. 마치 학생들이 시험지 답안을 보고 자신의 오답을 확인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당연히 O)카샤 레코드를 보려면 아주 오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훈련과 연습과 믿음이 따르면 분명히 가능한 일이며, 그것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잠시 샛길로 빠져서 '신념'^(faith)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신념이란 억지가 아니라 가꿀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가꿔야만 하는 것이다. 신념은 온실에서 키우는 화초와도 같다. 신념은 잡초처럼 억세지 않다. 응석을 받아줘야 하고, 먹여줘야 하고, 돌봐주어야 한다. 신념을 가지려면 긍정적 확언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그 지식이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잠재의식은 우리 존재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절대적인 부분이다.

종종 우리는 잠재의식을 게을러터지고 굵든 노인에 비유하곤 한다. 입에는 파이프를 물고 발엔 편안한 슬리퍼를 신은 채 신문을 읽고 있는 노인 말이다. 그는 끊임없이 주변을 맴도는 소란과 번잡함에 지쳐 있다. 수년의 경험을 통해 그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 O)주 끈질긴 방해와 교란작전 앞에는 장사가 없겠지만 —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웠다. 그는 반쯤 귀머거리가 되어 불러도 잘 듣지를 못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부를 때까지 그는 듣지 못한다. 실은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다. 아마도 평온함을 깨거나 일거리를 던지는 목소리일 테니까. 그러나 세 번째로 부를 때는 성깔이 치밀기 시작한다. 더 이상은 그 목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다. 경마 결과가 궁금한데 자꾸 딴 일을 시켜대니 화가 날 법도 하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일어서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식이 잠재의식 속에 뿌리를 내리면 당신은 자동적인 신념을 갖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신념^(b)이 곧 믿음(belief)은 아니라는 점을 짚어 두고 싶다. 당신은 "나는 내일이 월요일이라고 믿는다"고 말할

이것은 확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나는 내일이 월요일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혀 다른 뜻이 되기 때문이다.

신념은 보통 우리의 내면에서 자라난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불교도, 유대교도가 되는 이유는 대개 우리의 부모가 그리스도교도, 불교도, 유대교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신뢰한다. — 부모가 믿는 것이 옳다고 믿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념’은 부모가 지닌 신념과 같아진다. 이처럼 지상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불가능한 것들은 신념의 대상에 속한다.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은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 하나이다. 신념과 믿음은 이처럼 다르다. 당신은 이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당신은 무엇을 믿고 싶어하는가? 무엇이 당신에게 신념을 요구하는가? 당신의 신념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아서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라. 그것은 종교에 대한 신념인가? 능력에 대한 신념인가? 그것을 가능한 한 여러 각도에서 들여다본 후에, 그것에 대한 긍정적 인 생각과 확언을 반복하라.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저것을 할 것이다”, 또는 “나는 그것을 믿는다”고 선언하라. 당신은 확언을 반복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신념’을 가질 수가 없다.

위대한 종교는 독실한 신도들을 거느리고 있다. 독실한 신도들은 교회, 성당, 유대교 회당, 또는 절에 다니며 ‘집단적으로’ 같은 기도를 반복 함으로써 잠재의식을 깨우고 그 안에 ‘신념’을 구축한다. 동양에는 만트 라(진언)라는 것이 있다. 신도들은 특정한 말, 곧 만트라를 반복한다. 그들은 만트라를 몇 번이고 되뇌는다. 심지어 그 만트라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 면서도 되뇌는다. 실제로 만트라의 뜻은 중요치 않은데,

는 바를 일깨우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지어냈기 때문이다. 비록 만트라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곧 잠재의식의 한 부분을 이루면서 자동화된 신념'을 일으킨다. 당신도 몇 번이고 어떤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그 기도를 사실로서 믿기 시작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잠재의식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함이다. 일단 신념이 생기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귀찮게 할 필요가 없다. 그때는 잠재 의식 속의 그 신념을 통해서 하:자 하는 일들을 능히 해낼 수 있다.

오라를 보겠다, 텔레파시를 하겠다, 그 밖의 이런저런 일들을 하겠다 는 확언을 몇 번이고 자신에게 반복해보라. 때가 되면 당신은 정말로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백만장자든 발명가든, 성공한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신뢰한다. 그들은신념이 있기에 하려고 한 일을 해낼 수 있었다. 먼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신념을 형성했기에 꿈을 실현한 것이다.

만일 당신이 성공하리라고 자신에게 계속 말한다면 당신은 성공할 것 이다. 이때는 단호하게 성공을 확신하고, 의심(부정적 신념)이 끼어들지 않 도록 해야 한다. 한 번 실험해보라. 당신은 그 결과에 깜짝 놀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과거생을 묘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본래 아카샤 레코드로부터 나온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는 동안 유체계로 들어가 아카샤 레코드를 본다. 물론 아침에 깨어날 때는 앞서 말했듯이 왜곡된 기억을 갖고 돌아오기 십상이지만. 그래서 그들의 말은 일부는 진실이지만 일부는 왜곡된 허구이다.

아마도 당신이 들은 이야기의 상당수는 고통과 관련된 것이리라. 그들은 대부분 전생에 온갖 나쁜 일을 행했던 가해자들처럼 보인다.

석을 녹이고 그 표면으로 떠오른 찌꺼기나 불순물을 걷어내어 순도를 높이는 과정과 같다. 우리는 우리를 임계점 가까이로 몰고 가는 스트레스를 감당함으로써 영성을 단련하고 과거의 잘못을 뿌리 뽑아야 한다. 사람들은 뭔가를 배우기 위해 지상에 오고, 그 과정에서 친절보다는 고난에 의해 더욱 빠르고 확실하게 필요한 바를 배우게 된다.

이 세상은 고난의 세계다. 이 세상은 교회소와도 같은 학교이다. 이따금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과 같은 친절함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투쟁으로 점철돼있다. 내 말이 거슬린다면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라. 고대에 벌어졌던 무수한 전쟁들을 보라. 이 세상은 참으로 혼탁한 곳이다.

그러므로 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내려온 고귀한 존재들로서도 이곳에 발을 내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고귀한 존재들이 의도적으로 스스로 타락함으로써 지상에다 닳을 내리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순수하고 완전무결한 형태로서는 이곳에 올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는 지상의 슬픔과 시련을 견뎌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뭔가를 탐한다고 해서 그가 소문만큼 고귀하진 않다고 단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술만 마시지 않으면, 그는 주 고귀한 존재일지 모른다. 술은 고귀한 능력을 전부 없애버리는 요물이지 않은가.

위대한 천리안과 텔레파시 능력자들은 상당수가 신체적인 고통을 지니고 있다. 고통은 흔히 그 사람의 진동수를 높여서 텔레파시나 투시력이 발휘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군가의 겉모습만으로 그의 영성을 판단하지 말라. 그가 병이 들었다고 해서 질 낮은 사람인 것은 아니다. 그는 진동수를 높여 특별한 과업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그 병을 자처했지도 모른다. 그가 소위 대인쇼 A 처럼 행동하지 않고 욕설이나 내뱉는다고 해서 그를 부정적으로 단정짓지 말라. 어쩌면 그 불경한 말이나 악덕은

지상에 닿을 내리기 위한 그나름의 방편일지 모른다. 술만 끊는다면 그는 당신이 애초에 기대했던 바로 그 고귀한 존재일 수도 있다.

지상은 혼탁한 것들로 가득하다. 그리고 혼탁한 모든 것은 결국 썩는다. 오직 순수하고 부패하지 않는 것만이 살아남는다. 그것이 우리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이유이다. 유체계 너머 영적 세계에서는 부패가 불가능하다. 그 높은 존재의 단계에서 당신은 악의를 지니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지상에 오는 것은 고난을 통해 배우기 위함이다.

반복하지만, 특별한 과업을 위해 지상에 오는 위대한 존재들은 의도적으로 악습이나 신체적 결함을 택하는데, 그것은 카르마權²가 아니라 일종의 방편으로서, 육체와 함께 흩어지고 사라질 것들이다.

한가지 더 짚어둘 사항이 있다. 이번 생에서 위대한 개혁가인 사람들은 과거생에선 때때로 바로 그 분야의 대단한 범법자들이었다는 사실이다. 히틀러는 틀림없이 위대한 개혁가로서 되돌아올 것이다. 스페인에서 종교재판을 자행했던 많은 사람들도 위대한 개혁가로 되돌아왔다. 이것은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진실이다.

기억하라. 중도야말로 삶의 철칙이다. 후에 되돌려 받아야 할 만큼의 악행을 짓지 말라.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만들 정도로 성스럽고 순결하게 살지도 말라. 그런 식으로는 이 지상에 머물 수가 없다. 물론 다행히도, 그토록 순결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테지만!

제 20 과

곧 우리는 텔레파시 , 투시 그리고 사이코메트리(물체감응)를 다룰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교과에서는 그에 앞서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주제를 벗어나고 있지 않느냐고 하는 당신의 생각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건 계획적인 것이다. 우리의 의도가 명백한 만큼, 당신의 주의를 하나의 주제로 끌어들었다가 뒤이어 그 밖의 다른 중요한 것들로 향하게 하는 것은 당신이 든든한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미리 분명히 말해두지만 투시 , 텔레파시, 물체감응 능력을 원한다면 반드시 진도를 천천히 나가야 한다. 허용치를 넘어서 성장을 강제할 수는 없다. 자연계를 예로 들면, 외래종 난초들은 대개 온실에 적합한 식물들이다. 그것들을 아무 데나 심는다면 아주 빈약한 꽃밖에 피워내지 못할 것이다. 성장을 인위적으로 강제하면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온실에 적합한 화초들은 아무지나 심기 때문에 갖가지 질병에 시달리기 쉽다.

우리는 당신이 아주 건강한 텔레파시 능력을 갖길 바란다. 우리는 당신이 투시로써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길 바란다. 그리고 당신이 예컨대 해변에서 돌을 주워들면 수년 동안 그 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길 바란다. 진정 뛰어난 물체감응 능력자라면 , 해변에서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은 돌을 집어 들고는 그것이 처음 형성되던 시절의 광경을 직접 볼 수 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방법만 알 면 아주 단순하고 쉬운 기술이다. 그러므로 기초를

우리는 무엇보다 내면의 침착과 평정이 두 개의 주춧돌임을 말하고 싶다. 내면의 평정 없이 텔레파시나 투시에서 큰 성공을 기대할 순 없다. 내면의 평정은 아주 초보적인, 즉 최초의 단계를 넘어 진보해가는 데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어지러운 감정들로 채워져 있다. 주변을 돌아 보면 당신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허둥대거나, 차를 마구 달리거나, 버스를 잡으려고 뿔박질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중에서도 대미는 가게가 문을 닫는 주말 이전에 생필품을 미리 사두려고 설쳐대는 모습이다.

우리는 항상 시끄러운 상태에 있다. 부글대며 끓고 있는 우리의 두뇌는 분노와 좌절의 불꽃을 방출한다. 우리는 자주 화가 치밀고, 그럴 때마다 내부에서 기분 나쁜 압력(긴장)을 경험한다. 꼭 폭발할 것만 같은 심정이다. 당신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건 비술■을 익히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무절제한 뇌파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들을 — 우리는 주변의 온갖 대상들로부터 끊임없이 신호를 받고 있다 — 다 지워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있다면, 그 신호를 포착하여 뜻을 해석해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폭풍우가 치는 날에 라디오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당신 집의 창가 바로 옆에 자동차를 세운 어떤 멍청이 때문에 — 구체적으로는 그 차의 점화장치 때문에 — 텔레비전 화면에서 갈 지(시)자의 섬광을 본 적이 있는가? 거센 폭풍우로 교란된 잡음들 속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찾아 듣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단파 수신에 흥미가 있어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뉴스를 청취하고 먼 대륙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 만일 당신이 그렇게 원거리 방송을 수신해본 적이 있다면 때때로 방송 속의 대화를 알아듣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 것이다. 인위적인 또는

적인 원인으로 끼어든 온갖 간섭파와 잡음들 때문에 말이다. 자동차의 점화장치, 냉장고, 온도조절기의 딸각댐은 물론이고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치기도 한다. 그러니 라디오 소리에 집중하려 할수록 점점 더 화만치밀 뿐이다.

이와 같은 머릿속 잡음들을 제거하기 전에는 텔레파시를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두뇌가 방출하는 소음은 다 낱아빠진 자동차의 굉음 이상으로 해로운 영향을준다. 당신은 이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연습을 해보면, 오히려 우리가 꽤 점잖게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주제를 한층 더 밀고 나가보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려는 일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하고, 성장의 장애물도 알아둬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물을 알지 못하면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는 없다. 대양 아래 튼튼한 전화선 이 설치되어 있다면 대륙들 간에 통화를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영국과 미국의 뉴욕, 또는 호주의 애들레이드를 연결하는 대서양 횡단 전화선이 그 예이다. 물론 해저 전화선을 통하더라도 목소리가 종종 왜곡되거나 끊 어질 여지는 있다. 그러나 웬만큼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지역은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몬트리올과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곳은 전화선이 깔려 있지 않아서 '무선링크(radiolink)'라는 징그러운 장치에 의존해야 한다. 이 끔찍한 장치는 결코 '전화'라는 미명으로 불러선 안 된다. 이걸 사용한다는 것은 인내심을 시험하는 짓이다. 목소리는 왜곡되어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고주파도 끊기고 저주파도 끊긴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목소리 대신 어떤 로봇이 아무런 억양 없이 내뿜은 듯한

지독한 불편함이 존재한다. 즉, '회선을 열어두기 위해' 할 말이 없더라도 줄곧 지껄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통화는 아까 언급한 전자파의 간섭 이외에도 지구 주위의 이질적인 이온층에서 오는 갖가지 굴절과 반사 작용에도 영향받는다. 여기서 이 장치를 언급한 이유는, 지구에서 가장 성능 좋은 기계를 갖고 있더라도 무선통신은 기본적으로 '맞히느냐, 놓치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맞히기보다는 놓치는 경우가 더 많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텔레파시가 무선전화보다 훨씬 더 쉬운 기술이라고 생^한다.

당신은 우리가 왜 자꾸 라디오와 전자와 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의아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두뇌와 신체가 전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두뇌와 모든 근육은 육체의 '라디오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전자적 파동을 방출한다. 그러므로 투시, 텔레파시, 물체감응, 그 외의 수많은 현상들은 라디오와 전자공학을 이용하여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우리는 당신이 주의 깊게 이 사실들을 숙고해보길 바란다. 전자공학을 공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라디오와 전자공학을 공부할수록 당신은 좀더 쉽게 성장하게 될 테니까.

복잡한 기계들은 충격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당신은 비싼 텔레비전 수상기를 험하게 다루거나 비싼 시계를 벽에다 내던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비싼 수상기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두뇌이다.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흥분하거나 좌절하도록 자신을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 내부엔 외부로부터 오는 파동들을 차단하는 장벽 같은 것이 형성된다. 텔레파시를 하려면 최대한 평온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의 생각을 읽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시간낭비일 뿐이다. 텔레파시는 쉽게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스스로 평정을 찾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마다 두뇌에서는 전기가 생성된다. 우리의 생각이 평온할 때 두뇌는 돌출파가 없는 평탄한 파동형태를 보인다. 만약 돌출파가 생긴다면 뭔가가 사고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할 점은, 과잉전기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는 그 어떤 요소도 사고 과정에 끼여: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면의 침착과 평온을 추구해야 한다. 세탁물을 내다 말리려고 후줄근한 옷들을 양손에 쥐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린다면 무척이나 성가실 것이다. 동네 상점의 특별할인 행사를 놓쳤다면 기분이 몹시 언짢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일상사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이다. 우리가 지상의 삶을 종료할 때는 커다란 슈퍼마켓을 애용했는지 시시한 구멍가게를 애용했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평정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규칙적으로 호흡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히도 '급히 들이키고 내쉬고 , 급히 들이키고 내쉬고' 하는 식으로 숨을 쉰다. 그것은 혈떡임에 가까우므로 정작 두뇌엔 늘 산소가 모자란다. 사람들은 정해진 양의 공기만을 집어삼켰다 토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어쩌면 공기가 뜨거운 물이라도 되는 듯 생각하는 지도 모른다. 들이마시기 무섭게 서둘러 내뱉으려 하니 말이다.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깊게 호흡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탁한 공기가 폐에서 완전히 빠져나갔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폐의 윗부분으로만 호흡하면 폐의 아랫부분에 있는 공기는 더욱 탁해진다. 숨을 잘 쉴수록 두뇌의 능력이 향상된다. 우리는 산소 없이 살 수가 없는데, 산소결핍

을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바로 두뇌이다. 두뇌로 공급되는 산소량이 줄어들면 피로가 느껴지고, 졸음이 오고, 동작이 느려지고, 생각하기도 힘들어진다. 때로는심한 두통도 겪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규칙적인 호흡은 험클어진 감정을 진정시킨다. 만일 당신이 의기소침 하고, 언짢고, 누군가를 한 대 때리고 싶을지경이라면 숨을 최대한 깊이 들이쉬 상태로 몇 초간 참았다가 천천히 내쉬어보기 바란다. 그런 호흡을 몇 번 반복해보라. 그러면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평정을 찾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숨을 급히 들이쉬고 급히 내쉬어서는 안 된다. 천천히 그리고 일정하게 들이쉬면서 생명과 활력을 끌어들인다고 생각하라. 실제로 사실이 그러하다. 가슴을 쥐어짜서 공기를 최대한 내뿔으라. 허가 늘어질 정도로 허파를 안으로 조이라. 그리고는 약 10 초간에 걸쳐 숨을 들이마시면서 허파를 꽉 채우고, 다시 가슴을 내밀며 조금 더 들이마신다. 이렇게 최대한 들이쉬었다면 약 5 초간 숨을 참는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약 7 초에 걸쳐서 숨을 내쉰다. 남김없이 숨을 내쉬라. 근육을 안으로 당겨 한껏 공기를 쥐어짜내라. 그리고 같은 과정을 처음부터 반복하라. 여섯 번쯤 하고 나면 좌절감과 언짢은 기분이 사라지고 속도 편해질 것이다. 당신은 내면이 평온해지기 시작했음을 알아챌 것이다.

정말로 중요한 면접이 있다면 면접실로 들어가기 전에 한동안 숨을 깊게 쉬어보라. 당신은 쿵쿵 뛰던 심장이 차분히 가라앉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근심을 잊고 자신감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만 하면 면접관은 당신의 당당한 모습에 강한 인상을 받는다. 한 번 시도해보라.

일상생활을 하노라면 수도 없이 좌절과 짜증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정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문명'은 전혀 좋은 것이 아니다. 문명의 속박에 사로잡힐수록 평화를 얻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대도시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은 시골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초조하고 과민하다.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야 할 일이 잦아지고, 좌절하고 초조할 때마다 위액이 더 많이 분비된다. 산성을 띤 위액이 자꾸 분비되면 결국 위장을 비롯한 다른 장기들의 내벽이 그것에 저항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장기의 내벽들 중 어떤 부위는 특히 얇거나 작은 흠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삼켰던 어떤 음식조각이 그 부위에 상처를 냈을지도 모른다. 위액은 이처럼 내벽 중에서 얇은 곳 또는 염증이 생긴 곳을 공격하여 이내 보호막을 뚫어버린다. 그 결과 위궤양이 생기고 우리는 큰 고통을 겪게 된다. 당신도 들어봤을 테지만, 위궤양은 보통 초조하고 신경과민인 사람들에게 잘 생긴다.

초조함에 대해 생각해보자. 당신은 청구된 가스비를 무슨 수로 마련할지 고심 중이다. 그래서 정신이 없는데 하필 전기계량기 검침원이 문가에서 소란을 떨어댄다. 당신은 왜 그토록 많은 멍청이들이 멧대가리 없는 광고전단을 우편물로 보내오는지도 의아하다. '왜 내가 그것들을 치우는 수고를 해야 하지? 보낸 사람이 와서 치우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그렇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속으로 이렇게 자문해보라. '이 모든 것이 50년 또는 100년 후에도 문제가 될 것들인가? 당신이 좌절할 때마다, 일상의 소란에 휘둘릴 때마다, 어떤 곤경에 빠져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위의 자문을 거듭해보라. '이 걱정거리들 가운데 어떤 것이, 과연 그어떤 것이 50년 또는 100년 후에도 중요하게 여겨질까?

이른바 문명의 시대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무엇이다. 모든 것이 서로 뒤엉켜 우리로 하여금 부자연스런 뇌파를 일으키게 하고, 뇌세포 속에

이상전압을 발생시키게 한다.

의사들이 특수도구를 사용하여 정상적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뇌 파를 도표화하면 꽤 규칙적인 형태가 그려진다. 만약 뇌파가 정상과는 다른 특정한 형태를 보이면 그 환자는 어떤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자들을 처음 검사할 때는 그의 뇌파를 도표화하여 정상인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게 된다. 사람이 비정상적인 뇌 파를 제압하기만 하면 다시 제정신이 돌아온다는 것은 동양인들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의사도 겸하는 동양의 사제_빠들은 뇌파를 정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여자들도 , 특히 갱년기 때는 두뇌에서 독특한 파동을 발생시킨다. 이는 갱년기에는 여러 가지 내분비계가 중단되거나 그 통로를 바꾸기 때문 이다. 하지만 여자들이 평생 들어온 허튼 얘기들 — 갱년기는 최악의 고통이라는 - 이야말로 진짜 문제이다. 여자들은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굳 게 믿음으로써 실제로 그런 경험을 불러들인다. 하지만 준비가 잘 된 사 람이라면 갱년기가 오더라도 하등의 어려움을 겪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보다 더 불운한 경우는 '자궁절제술'을 받은 여자들이다. 자궁절제술을 받게 되면 강제적인 폐경기를 겪어내야 한다. 물론 이 외과술은 특정한 질병의 치료와 같은 뚜렷한 목적 때문에 행해지지만, 어쨌든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다. 자궁절제술을 받으면 종전의 생활방식이 갑자기 중단 되고 호르몬 분비가 급변하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뇌에 심각한 충격이 가 해져서 한동안은 불안정한상태가되기도한다.

적절한치료법과넉넉한배려심이 있어야만 이런 불운한환자들을돌

야만 평온과 안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근심걱정이나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해 전기발생량이 들쭉날쭉하게 되면 우리는 안정을 잃을 수밖에 없다. 물론 언제나 금방 다시 회복할 수는 있지만 말이다.

다시 '50 년 또는 100 년 후'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만일 당신이 누군가에게 선을 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50 년 또는 100 년 후에도 의미 있는 일이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앞날을 밝혀준다는 뜻이다. 반대로 남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은 그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는 뜻이다. 남에게 선을 행할수록 당신이 얻을 것도 늘어난다. 먼저 기꺼이 주지 않으면 받을 것도 없다는 사실은 초자연적인 신비학의 절대 법칙이다. 봉사든 돈이 든 사랑이든, 당신은 먼저 내어준 것을 다음번에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주 고받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한다. 당신이 배려를 받았다면 그 배려를 다시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 교과에서 그것까지 다루지는 않겠다. 후에 카르마(업)를 다룰 때 좀더 상세하게 언급할 작정 이니까.

내면을 고요한 상태로 유지하고 안정감을 갖도록 다스리라. 과도한 생각과 집착이 시작될 때면, 그 모든 사소한 제약들이 — 우직한 방해물들이 — 몇 년 뒤엔 관심사조차 안 될 것임을 자신에게 납득시키라. 그 성가시고 짜증 나는 것들은 그저 소소한 골칫거리 정도로 적당히 취급되어야 옳다.

스스로 받아들일 준비만 되었다면, 내면의 평온과 평화와 안정은 언 제나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깊은 호흡으로써 두뇌에 최대 한의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며, 이 모든 어리석은 성냄이 50 년 후엔 기억조차 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실감하게 되 리라.

지금 우리는 당신에게 , 당신의 걱정거리 대부분은 실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물론 우리를 위협하고 불쾌하게 하는 뭔가가 닥쳐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공포에 휩싸이면 우리는 자신이 거꾸로 섰는지 바로 섰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공포에 빠졌을 때 우리의 몸은 아드레날린을 들끓게 하여 즉각 행동으로 돌입할 준비를 한다. 그리고 공포가 사라지면 그아드레날린도 해소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이 빠지고 몸을 부들부들 떨기조차 한다.

수많은 저명인사들은 말하기를 , 자신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쓸데없는 걱정거리들에 집착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만일 근심에 빠져 있다면 당신은 안정된 상태가 아니다. 동요하는 상태에서는 내면의 평온을 얻을 수 없고 , 그럴 때는 텔레파시로 교신하기는 커녕 무질서하고 음울한 메시지만을 방출하게 된다. 당신은 텔레파시로 전달된 메시지들을 차단할뿐더러 주변의 상당한 범위까지 텔레파시를 휘 방하는 장본인이 된다.

당신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라. 고요한 상태를 찾고 , 열받게 하는 사소한 일들은 그저 일 시적인 것임을 기억하라. 그것들은 당신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이다.

평온한 상태에서 당신의 곤경을 제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 오늘 이 보고 싶은 영화의 마지막 상영일인데 사정이 생겨 극장에 못 가게 되었다면 속이 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구가 흔들릴 만큼 중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배움과 성장이다. 많이 배울수록 당신은 더 많은 지식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고, 그럴수록 이 씩씩한 세계로 돌아올 필요가 적어진다.

편안히 누워 자신을 이완시키라. 몸을 좌우로 약간 흔들어 몸의 어떤 근육도 긴장되지 않도록 하라. 가볍게 양手を 맞잡고 깊게, 규칙적으로 호흡하라. 호흡할 때는 호흡의 리듬에 맞추어 '평화, 평화, 평화'를 되뇌라. 연습하다 보면, 당신은 진실로 성스런 평화와 안정감이 찾아왔음을 느낄 것이다. 반복하건대 혼잡한 생각들은 전부 밀어내고, 오직 평화와 고요함과 편안함에만 초점을 맞추라. 평화를 생각하면 평화를 얻을 것이다. 편안함을 생각하면 편안함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의 말로써 이 교과를 마치려고 한다. — 만일 사람들이 하루 중 10 분이라는 시간만 이 연습에 바친다면 의사들은 곧 파산하고 말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다루어야 할 그 많은 병들이 싹 없어질 테니까.

제 21 과

이 교과에서 드디어 우리는 모두의 관심 주제인 텔레파시와 만나게 된다. 당신은 왜 우리가 인간의 뇌파와 전기적 파동 간의 유사성을 그토록 강조해왔는지 의아했으리라. 하지만 곧 그 주제에 관하여 좀더 진일보한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다.

아래 그림을 살펴보자. 물론 이것은 '차분한 상태'를 전제로 한다. 텔레파시나 투시, 또는 물체감응을 하자면 먼저 '차분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난 교과에서 지겹도록 반복한 주제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 당신은 보일러 공장 근처에서 멋진 교향악단의 연주회를 기대할 수 있는가? 주변에서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며 목이 터지라 소리를 지르는데 고전음악이든 뭐든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즐길 수 있겠는가? 아니다. 당신은 라디오 스위치를 끄고 모두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짹 지를 것이다.



왼쪽 그림에서 당신은 두뇌의 서로 다른 수신 부위들을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대체로 머리 위쪽에 해당하는 부위에서 우리는 텔레파시 파동을 수신한다.

다른 파동들은 뒤로 미루고 먼저 텔레파시부터 설명해보겠다. 우리는 차분한 상태에서 갖가지 정보들을

〈그림 9〉차분한 상태의 머리 수신할 수 있다. 이는 그저 다른 이

들의 전기적 파동을 우리의 두뇌가 수신하는 현상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일종의 '예감'을 느낀다. 우리는 무슨 일이 닥치려 한다거나 당장 어떤 특정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예사롭지 않은' 인상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 실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예감'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에 수신된 텔레파시일 뿐이다. 다시 말해 어떤 '예감'이 들었다면 그것은 타인이 보낸 텔레파시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수신한 것이다.

직관이란 것도 마찬가지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직관력이 뛰어나다는 말은 틀린 얘기가 아니다. 여자들은 말수만 줄일 수 있다면 남자보다 훨씬 빛나는 텔레파시 능력자가 될 수 있다. 여성의 두뇌는 남성의 두뇌보다 작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점은 전혀 중요치 않다. 예전엔 두뇌의 크기가 사람의 지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쓰레기 같은 주장이 있었지만, 그렇다면 코끼리아말로 인간에 비해 천재성을 보여야 맞을 것이다.

여성의 두뇌는 들어오는 메시지들과 잘 '공명'한다. 전기파에 비유하자면, 여성의 두뇌는 남성의 두뇌보다 훨씬 쉽게 방송 주파수에 다이얼을 맞출 수 있는 수신기이다. 당신은 아버지나 할아버지 시대에 사용되었던 낡은 라디오 기기들을 기억하는가? 별의별 손잡이와 다이얼이 잔뜩 붙어 있는 그 기기로 특정 방송 주파수를 잡아내는 것은 거의 곡예에 가까웠다. 필라멘트를 상향으로 조정해서 진공관의 전압이 제대로인지를 확인 해야 했고, 천천히 움직이는 한 쌍의 다이얼로 주파수를 맞춰야 했다. 또 한 코일을 자주 움직여야 했고, 음량도 세밀히 조절해야 했다. 당신의 할 아버지는 그 기기의 복잡함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으리라. 하지만 지금은 포켓용 라디오를 갖고 다니다가 스위치만 켜고 다이얼만 쓱쓱 돌리면 전 세계 방송의 절반 정도는 수신할 수 있다.

남성의 두뇌보다 쉽게 공명한다.

일란성 쌍둥이들이 서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정신적으로 끊임 없이 교감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쌍둥이 중 하나가 북아메리카에 있고 다른 하나가 남아메리카에 있다고 하자. 그들 각자에게서 동 시에 보고를 받는다면, 당신은 그들이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이런 교감은 그들이 하나의 세포로부터 나왔으며 서로의 두뇌가 정교하게 동조된 라디오 수신기 또는 송신기와도 같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제 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전혀 아무런 노력 없이도 '조율된' 상태에 있다.

당신은 이제 실질적인 텔레파시 방법을 알고 싶으리라. 우리는 굳은 믿음과 꾸준한 연습이 있으면 누구든 텔레파시 교신을 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 또한 우리의 오랜 친구인 '내면의 평정'도 놓치지 말라고 강조했다.

텔레파시를 위한 최선의 연습 방법은 이렇다.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느 날 어느 시각에 두뇌의 감수성을 예민하게 해서 일반적 정보들을 수신한 후에 좀더 분명한 텔레파시 메시지까지 수신해보겠다고 확언하라. 그리고 지정한 날보다 하루이틀 전부터, 당신이 이 일에 성공하리라는 긍정적인 말을 반복해서 자신에게 들려주라.

그 당일에는 저녁 시간에 당신만의 은밀한 방으로 들어가라. 채광이 은은하고 온도가 적당한지를 확인하라. 그리고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되는 자세로 기대 앉으라. 손에는 당신이 가장 끌리는 사람의 사진을 들고 있으라. 조명은 그 사진을 비출 수 있도록 등 뒤에 위치하는 게 좋겠다.

몇 분간 깊은 호흡을 하고 마음속에서 잡다한 생각들을 전부 치워내라. 손안에 든 사진 속의 주인공을 생각하고, 그가 당신 앞에서 있다고

까?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라. “내게 말해봐, 내게 말해봐” 하고 되뇌어도 좋다. 그리고는 대답을 기다리라.

당신이 차분하고 믿음이 있다면, 두뇌 속에서 어떤 술렁대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처음엔 그것을 상상의 산물로 하찮게 여길지도 모르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현실이다. 당신이 그것을 쓸데없는 상상으로 치부해 버리면 스스로 텔레파시를 저버리는 셈이 된다.

텔레파시 능력을 획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당신이 주 잘 아는 사람, 즉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는 사람과 협력해서 작업하는 것이다. 당신과 그는 어느 날 어느 시각에 텔레파시로 접촉할 것인지를 미리 합의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시각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야 한다. 둘이 서로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지는 관계가 없다. 서로 다른 대륙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문제없다. 거리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시차는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뉴욕보다 두 시간이 빠르므로, 시차를 계산해두지 않으면 실험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은 또한 누가 발신을 하고 누가 수신을 할지도 합의해두어야 한다. 당신이 먼저 발신키로 했다면, 더도 덜도 아닌 딱 10분 동안 각자의 역할을 지킨 후에 서로 역할을 바꾸도록 하라. 두세 번의 시도로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연습은 완성을 가능케 한다. 갓난아기가 한 번 만에 걸음을 떼진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아기는 계속 넘어지고 기면서 연습한다. 당신도 처음부터 성공하긴 어렵다. 그러나 반복하지만, 연습은 완성을 가능케 한다.

당신이 친구에게 텔레파시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게 되면 타인의 생각을 읽는 과정에 제대로 진입한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은 어떤 사악한 의도도 없어야만 타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여기서 또 한 번 결

길로 썰 텐데, 그래도 꽤 신나는 이야기일 것이다.

당신은 절대로, 절대로 타인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텔레파시, 투시, 물 체감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 반대로 그 누구도 당신을 이런 수단으로 써 해칠 수 없다. 악의에 찬 능력자가 텔레파시나 투시로써 하찮은 잘못 이 있는 사람들을 겁박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한 장 소에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당신은 악한 의도로 텔레파시 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는 불변하는 형이상학적 법칙이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말라. 우리는 당신을 해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각을 읽지 않는다. 물론 그러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텔레파시 능력이자 자신의 모든 비밀스런 걱정과 병적 공포 를 알아낼 거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대단히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당신의 생각을 읽어내고 오라를 통해 당신의 약점을 발견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단 한 순간이라도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며, 불순한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애초에 주어지지 않는다.

친구와 함께 텔레파시를 연습하기를 권한다. 만일 친구의 협조를 구 할 수 없다면, 앞서 말했듯이 이완을 한 상태에서 생각들이 당신에게 흘러들도록 내버려두라. 당신은 자신의 머리가 상충되는 생각들로 웅잉땀 을 발견할 것이다. 그건 북적이는 인파 속으로 들어갈 때와 비슷하다. 재 잘거리는 소리, 끔찍한 소음... 저마다 동시에 목청껏 말을 쏟아내는 듯 하다. 그렇지만 당신은 그중에서 특정한 하나의 목소리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연습하라. 연습하고, 믿음을 가지라. 그 모든 것에 대해 평정을 유지

을 것이다.

앞서 나온 그림에서 당신은 '제 3의 눈' 부위에서 뿔어나오는 투시력의 빛줄기를 보았다. 그것은 텔레파시와는 다른 주파수 대역에 속한다. 그래서 그 결과물도 크게 다르다. 일반적으로 텔레파시 메시지를 받는 것은 라디오를 듣는 것과 같고, 투시 메시지를 받는 것은 컬러텔레비전을 보는 것과 같다.

투시를 하려면 수정구처럼 빛이 나는 도구가 필요하다. 굵은 알이 박힌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다면 수정구보다 휴대하기도 편하고 효과도 괜찮을 것이다. 이때도 당신은 편안히 몸을 기대야 하고, 조명은 아주 은은하게 켜두어야 한다.

일단 당신이 수정구를 구했다고 치자. 당신은 저녁 무렵 자신의 방에서 아주 편안히 쉬고 있다. 커튼 또는 가리개가 드리워져서 어떤 빛줄기도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못한다. 방이 너무 어두워서 당신은 수정체의 윤곽조차 거의 볼 수가 없다. 수정구는 어떤 빛도 반사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 모든 것이 안개처럼 흐릿하고 몽롱하게 보인다.

당신은 수정구를 들고서 그 안에서 '뭔가를' 볼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을 보려고 애쓰지는 말고, 그저 수정구를 응시하기만 한다. 아주 아주 먼 곳을 보는 것처럼 수정체를 응시하라. 수정구는 불과 몇 센티미터 앞에 있지만 당신은 마치 몇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것인 양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면 수정구가 차츰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하며 흰 구름이 쌓이는 모습이 보일 것이다.

수정구는 명백히 투명한데도 마치 우유로 가득 찬 듯이 보이리라. 이제 결정적인 시간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당황하거나 몸을 움찔거리지 말라. 왜냐하면 그 흰 구름은 걷히기 시작할 테니까. 이는 마치 무대를

가렸던 커튼이 올라가는 것과 같다. 수정구의 형체는 사라지고 대신 당신은 거기에서 이 세상을 보게 된다. 마치 올림포스의 신들이 이 세상을 내려다보듯이 당신도 아래를 응시하게 된다.

당신은 아마도 대륙을 뒤덮은 구름을 보면서 자신이 낙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지도 모른다.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라. 경련이 일면 그 영상은 사라지고 우리는 다른 날 밤에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경련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래로 급히 하강하는 느낌을 받고, 이 세상은 더욱 크게 보일 것이다. 당신은 대륙 위를 훑히 지나가다가 어느 특정 지점에서 정지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역사적인 장면이 보일지도 모른다. 혹 전쟁터에 내렸다가 당신을 향해 오는 탱크를 발견하더라도 놀라지 말라. 그것은 당신을 다치게 할 수 없다. 탱크는 당신을 그대로 통과해서 지나가고, 당신은 아무것도 느끼질 못할 것이다.

당신은 지금 다른 누군가의 눈을 빌려 그 광경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겠지만, 그가 보는 모든 광경을 똑같이 본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것이 보여도 놀라지 말라. 경련이 일게 하지 말라. 당신은 그 광경을 주 뚜렷하게 볼 것이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겠지만 그들의 대화를 똑바로 알아들을 것이다. 투시란 바로 이런 것이다.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한편, 영상'을 보는 일 없이도 온갖 정보를 수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로 사업가들이 그렇다. 그들은 투시에 재능이 있지만 직업상 회의적인 태도가 배어 있으므로 영상을 보거나 하진 않는다. 그러나 영상을 보는 일 따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투시 능력 자체를 차단해둔 것은 아

만큼이나 실질적인 것이다.

연습을 통해 당신은 투시를 해낼 수 있다. 당신은 역사상 어느 시대든 방문할 수 있고, 역사의 진실을 목격할 수 있다. 실제 역사가 역사책에 쓰여진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에서 당신은 재미와 당혹감을 함께 느끼리라. 역사책에 쓰여진 역사는 그 시대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히틀러 시대의 독일과 현재 소련의 상황을 떠올려보라.

이번엔 물체감응을 다뤄보기로 하자. 물체감응은 '손가락으로 만져서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이런 경험을 한다. 예컨대 한 줌의 동전들 가운데서 하나를 누군가에게 몇 분간 들고 있도록 해보라. 당신은 그 동전을 다른 동전과 섞은 후에 다시 정확히 집어낼 수 있다. 다른 동전들보다 따뜻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예시는 무대 위에선 통하지 않는 초보적인 감각에 불과하다.

물체감응이란 어떤 물건을 집어 들고, 그 기원과 내력 그리고 누가 그것을 소유했으며 당사자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는지까지 알아내는 능력을 말한다. 당신은 이미 어떤 물건으로부터 그것이 행복한 환경 속에 있었는지 불행한 환경 속에 있었는지를 직감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당신은 뜻이 맞는 친구의 도움을 얻어 물체감응을 연습해볼 수 있다. 다음은 물체감응을 연습하는 방법을 예로 들어본 것이다. 당신의 연습을 돕고자 하는 친구로 하여금 양손을 씻고 돌이나 자갈 하나를 집어들게 하라. 그 돌 또한 비누로 씻어서 말린 것이어야 한다.

이제 당신의 친구는 왼손에 돌을 쥐고는 약 1 분간 강하게 '한 가지 생각을 의념한다. 검은색 또는 흰색을 떠올리거나, 유쾌함 또는 우울함에 집중하게 하라. 생각의 주제는 무엇이든 상관없다. 약 1 분 동안 강하게 의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후에 그 돌을 깨끗한 손수건이나 종이에

싸서 당신에게 건네도록 하라. 당신은 그걸 당장 풀어서는 안 되고, 당신만의 '명상실'에 홀로 들어갈 때까지 잘 보관해야 한다.

우리가 '왼손으로' 쥐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다. 비술■의 지식에 따르면 오른손은 실용적인 손, 즉 세상의 사물과 관련된 손으로 간주된다. 반면 왼손은 영적인 손, 즉 형이상학적인 일과 관련된 손이다. 당신이 흔한 오른손잡이라면 물체감응을 위해서는 왼손을 사용하는 편이 성과가 좋을 것이다. 당신이 왼손잡이라면 반대로 오른손을 형이상학적 실험에 사용하는 편이 좋다. 한쪽 손으로 성과가 없을 때 손을 비꿔서 해보면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두라.

당신은 명상실로 들어가서, 자신의 양손을 아주 조심스레 씻고 행구고 탈탈 털어서 말려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손에 다른 느낌들이 남아 있게 된다. 당신이 이 실험에서 알기를 원하는 것은 친구의 의념뿐이다.

누워서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라. 지금은 조명이 얼마나 밝은지는 중요치 않다. 등이란 등은 다 켜놓아도 되고 아니면 완전한 어둠 속에 있어도 된다.

이제 손수건을 풀고 왼손으로 그 돌을 집어들어 왼쪽 손바닥 중앙에다 놓으라. 그리고 생각을 전부 거두어들여서 그저 마음을 텅 비게 하라. 당신은 왼손에서 아주 가벼운 따끔거림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곧 어떤 느낌이 올 것이다. 아마도 친구가 당신에게 전하려 했던 그 느낌이리라. 당신은 '내 친구가 정신 나간 놀이에 빠져 있어'라고 하는 친구의 솔직한 생각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이것을 연습하다 보면 당신은 차분함을 유지하기만 하면 아주 흥미로운 느낌들이 찾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친구가

면 혼자서도 연습을 해보라. 밖으로 나가서 가능한 한 인간의 손때가 묻지 않은 자갈 하나를 손에 쥐라. 당신이 해변에서 살거나 땅속에서 돌 하나를 파낼 힘만 있다면 간단한 일이다. 당신은 실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을 것이다. 당신은 그 자갈이 언제 어느 산의 일부였는지, 그것이 어떻게 강을 따라서 쓸려 내려왔고 바다로 흘러들었는지를 알 수 있다. 물체 감응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엄청나게 많다. 반복컨대 물체감응은 많은 연습을 요하고, 또한 마음 상태가 평정해야만 한다.

아직 봉투를 뜯지 않은 편지를 집어 들고 그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차리는 일도 가능하다. 외국어로 된 편지를 집어 들고 왼손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표면을 훑어서 그 뜻을 읽어내는 일도 가능하다. 당신이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말이다. 이걸 연습만 하면 아주 간단한 일이다. 그렇다고 어떤 이득을 위해서 또는 과시하기 위해서 함부로 시도해서는 안된다.

당신은 텔레파시나 투시가 가능한 사람들이 왜 그 사실성을 입증하려 들지 않는지 의아할 것이다. 우리의 대답은 이렇다. 텔레파시를 하려면 우호적인 분위기가 확보되어야 한다. 당신이 사기꾼임을 입증하려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당신은 텔레파시에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방출한 파동이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당신 가까이에서 당신이 틀렸음을 입증하려 애쓰며 당신을 사기꾼으로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혐 오와 의심과 불신에 가득 찬 그의 파동으로 인해 먼 곳으로부터 오는 미 약한 파동은 이내 흐려지고 말리라. 누군가가 당신에게 증거를 요구한다면 그저 흥미가 없다고 답하라.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굳이 다른 사람에게 입증해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우리는 뒷골목에서 생계수단으로 투시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게도 한마디 해두고 싶다. 많은 여자들이 간헐적으로 대단한 투시 능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녀들의 능력은 일정하지가 않다. 즉 마음대로 발휘되지 않는다. 투시에 재능 있는 여자들은 가끔씩 번뜩이는 예언으로 친구들을 놀라게 하곤 한다. 친구들은 아마도 그녀더러 이 일을 직업으로 삼아보라고 조언하리라. 불쌍하게도 현혹된 여자는 그 조언을 따를 테고, 이내 봉사의 대가로서 돈을 받게 될 것이다. 그녀는 고객들에게 "오늘은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기력한 날에는 뭔가를 가짜로 지어낼 수밖에 없다. 그녀는 이내 교묘한 화술로 고객들을 구워삶는 습관이 들고, 자신의 투시능력이 퇴보했음을 조만간 스스로 깨닫게 되리라.

당신은 수정구를 보거나 타로카드를 해석해주는 일에 대가를 받아선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투시력을 잃게 되리라. 자신이 이것 혹은 저것을 할 수 있다고 입증하려 나서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당신을 불신하는 이들의 뇌파에 놀아나게 될 테니까.

당신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드러내지 말라. 자연스럽게 보일수록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얻으리라. 우리는 절대로 증거를 내보이지 말기를 권한다. 증거를 보이려 애쓰면 다른 이들의 의심스런 뇌파로 인해 당신 자신이 먼저 함몰될 것이다. 그것은 당신에게 커다란 해가 된다.

연습을 거듭하고 내면의 평정심을 기르라. 그것 없이는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 반대로, 내면의 평정과 믿음만 따르면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제 22 과

계속해서 교과를 진행하기 전에, 막 우리의 눈에 띈 아주 흥미로운 잡지 기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기사가 흥미로운 이유는, 이 강좌내내 우리는 신체에서 전기가 어떻게 신경조직을 따라 흘러 근육을 움직이는지 를 수도 없이 말해왔기 때문이다.

1963년 1월 <전자공학 화보>(T^{ect}—(3) "lustrated)의 (技쪽에<소련의 놀라운 전자 손>이란 제목으로 이 매력적인 기사가 실렸다. 아론 코브린스키 교수는 소련과학학술원의 공학박사이다. 그리고 그는 동료와 함께 인공기 관, 특히 인공 팔다리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지금까지 인공적인 팔을 움직이기 위해 들여야 하는 노력은 착용자에게는 아주 피곤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소련에서 전기로 조작되는 인공 팔이 개발되었다고 한다.

먼저 절개수술을 통해 두 개의 특별한 전극이 두뇌의 특정신경, 즉 팔의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 끝에 부착된다. 그리고 잘리고 남은 부분이 아 물어서 인공 팔이 제작되면, 원래라면 신경조직을 따라내려가서 손가락을 움직여야 했을 전류가 그 인공 팔로 전달된다. 인공 팔은 미세한 체내 전류를 크게 증폭시키고, 그로 인해 착용자는 인공 손가락들을 마치 제 손가락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인공 팔로 편지를 쓰는 일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기사에는 인공 팔을 시술받은 사람이 손가락 사이에 연필을 들고 실제로 글을 쓰고 있는 그림이 덧붙여 있다.

모든 기계장치가 '생화학적 전류'에 의해 조종되는 미래를 더욱 생생히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

여담은 그만두고, 이번 교과에서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 슬픔에 지나치게 빠지면 우리 신체의 세포 일부가부식되어버리기 시작한다. 지나친 슬픔, 지나친 불행은 간장이나 담낭에 병을 일으킨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라. 결혼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부부는 서로 끈끈한 애착을 갖게 된다.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죽고 나서 홀로 남은 아내는 쓸쓸한 상실감에 흠뻑 젖는다. 그녀는 슬픔 탓에 원기를 잃고 창백해지며, 때로는 몹시 쇠진해버릴 수도 있다. 어쩌면 중병에 걸릴지도 모른다. 더 심하면 정신적인 파탄에까지 이른다.

이는 상실이 주는 큰 충격으로 두뇌가 강한 전류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그 전류는 몸속으로 흘러들어 모든 기관과 내분비선에 '역방향'의 압력을 준다. 이는 신체의 정상적인 활동을 크게 저해한다. 심지어는 마비가와서 생각과 움직임이 거의 멈춰버리기도 한다. 혹은 눈물샘이 과도하게 자극받아 눈물이 쏟아질 수도 있는데, 눈물샘이 일종의 안전밸브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35 볼트짜리 전구에 9 볼트의 전류를 흘려보낼 때의 결과와 비슷하다. 전구는 잠시 동안 크게 밝아졌다가 이내 꺼져버린다. 그렇게 우리의 육체 또한 '꺼져버릴' 수 있다. 이른바 혼수상태 또는 정신이상이 되는 것이다.

누구나 몹시 놀란 동물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리라. 아마 그 동물은 덩치가 크고 사나운 동물에게 쫓기고 있을 것이다. 쫓기는 상태에서는 먹이를 섭취할 수 없다. 강제로 먹인다 해도 그 먹이는 소화되지 않는다. 놀

란 상태에서는 위장에서 음식물을 잘게 부술 분비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놀랐을 때 음식을 먹는 것은 동물의 본성에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몹시 흥분했거나 풀죽은 사람들을 억지로 설득하거나 식사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비록 호의적인 행동일지라도 당사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슬픔과 같은 감정은 몸의 화학적 대사 작용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불안과 슬픔은 당사자의 사고방식을 철저하게 가식■해서 그를 '감당할 수 없는', 또는 '더불어 지낼 수 없는' 사람으로 변모시키기도 한다. '사고방식을 가식한다'는 표현은 말뜻 그대로이다. 화학적 분비물은 우리가 보는 색채의 뉘앙스를 완전히 바꿔놓는다. 우리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세상을 '장밋빛 풍경'으로 보고, 실의에 빠진 사람들은 세상을 '갯빛 풍경'으로 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성장하려면 내면의 평정을 수양해야 한다. 우리는 크게 흥분하지도 공연히 우울해하지도 않는 감정의 평형 상태를 찾아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높은 마루와 낮은 골로 차단지 않는 고른 뇌파를 유지해야 한다. 육체는 정해진 방식대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소위 문명이란 이름하에 육체가 겪어야 하는 그 모든 번덕은 명백히 해로운 것이다.

빈번하게 번덕을 부리거나 의기소침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겐 웃고 넘길 만한 일들도 과민하고 번덕스런 사람들에게겐 참으로 견디기 힘든 자극이다. 그들은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키거나 자살을 기도하기도 한다.

당신은 히스테리의 실체를 알고 있는가? 그것은 성적¹해 행동 또는 잠 재력과 관련되어 있다. 히스테리는 여성의 가장 중요한 기관과

있다. 흔히 행해지는 자궁절제술은 몸속의 모든 기능을 해집어놓음으로써 당사자에게 몹시 나쁜 영향을 끼치곤 한다.

수년 전에 사람들은 여자들에게만 히스테리가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왜냐하면 남자에게도 여성성이 있고, 여자에게도 남성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 모두 이성■의 신체기관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 그러므로 히스테리는 여자의 질환인 동시에 남자의 질환이기도 하다.

히스테리는 영적 능력을 계발하는 데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한다. 만일 번덕스러운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여 두뇌의 전류가 크게 요동친다면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이 유체여행, 텔레파시, 투시, 기타 형이상학적인 현상들과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우리는 평정심부터 찾아야 한다. 비술■을 배우기 전에 앞서 평형감을 가져야만 한다.

희한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천리안과 텔레파시 능력자들을 신경증이나 몽상 따위의 이상 증세로 여긴다. 사람들은 천리안과 텔레파시 능력자들을 비이성적인 사람들로 여긴다. 이보다 더 진실과 먼 것은 없다. 물론 영터리로 행세하는 사기꾼들은 비이성적인 정신이상자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어차피 사기꾼이므로 논외로 쳐야 한다.

우리는 아주 단정적으로 말한다. 텔레파시나 투시를 하려면, 마음이 중심을 지켜야 하고 뇌파가 고르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또한 두뇌로부터 나오는 파동이 '유연해야 한다. 다시 말해, 메시지 수신을 방해할 만한 급격한 마루나 골이 있어선 안 된다. 텔레파시를 위해 우리는 메시지를 받아야 하고, 그러려면 먼저 고요히 기다려야 한다. 즉, 음을 열어두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자조하는 데 바빠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아둔하다면,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이 먹통이라면 텔레

파시나 투시는 영영 불가능할 것이다. 반복하지만 신경이 과민한 사람은 투시를 할 수 없다. 반사회적 정신이상자는 텔레파시를 할 수 없다.

마음이 동요하는 일이 없게 하라. 세상의 걱정거리들로 짜증스럽거나, 움츠러졌거나, 어깨가짓눌린 느낌이라면 크게 심호흡을 하라. 한 번 더, 또 한번 더 반복하라. 그리고 생각해보라. 그것이 정말 100년이 지난 후에도 당신의 걱정거리일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라도 걱정거리가 될까? 만약 1w년 후에 걱정거리가 되지 못한다면, 왜 지금 당신이 그 것에 목을 매야 하는가?

마음의 힘

불행히도, 누구나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정한자연의 법칙, 또는더 바람직하게는 신비학의 법칙이 존재하는데, 누구나 간단한 그 규칙을 따르7 1만 하면 성공 또는 돈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진정 '미지의 것들'을 가리키는 초자연적 신비학이 사실은 절대적으로 합리적인 법칙과 규칙을 따르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신비하다'고 표현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같은 취지에서 이번엔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우리가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고 말할 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언제나 확고하게, 다음 생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줄 일을 해야 한다. 백만 또는 2백만 달러의 돈은 물론 대단히 유용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 생을 도외시하고 그 돈을 취한다면 분명 뒷에 걸리고 미망에 빠지는 결과를 리라.

모든 것은 항상 움직이고 있다. 생명은 곧 움직 임이다. 죽음조차도
우

직임이다. 왜냐하면 죽음 또한 세포가 분해되어 다른 화합물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늘 기억하라. 팽팽한 밧줄위에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다. 앞으로 전진하거나 뒤로 후퇴할 뿐이다. 우리는 영성, 친절함,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는 쪽으로 전진해야 한다. 뒤로 후퇴해서, 즉 영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대신 수전노처럼 덧없는 소유물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어쨌든 여기서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다. 마음의 힘을 풀어놓으면 우리는 요청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잠재의식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재의식과 접촉하는 방법을 모른다. 우리는 10분의 1의 의식만을 쓰고 있다. 기껏 자기 능력의 10분의 1 밖에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잠재의식을 우리 편으로 돌려세움으로써 우리는 고대의 예언자들이 행했던 기적을 이룰 수 있다.

요점을 분명히 하지 않고 별 생각 없이 하는 기도는 소용이 없다. 풀어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그럴 때 울리는 것은 공허한 말들뿐이다. 당신의 머리를 쓰고, 마음풀 쓰고, 잠재의식의 탁월한 능력을 활용하라.

여기에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신성불가침의 단계가 있다. 먼저, 당신 이 원하는 바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할 것.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입으로 되뇌는 동시에 머릿속에서 그려내야 한다.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가? 많은 돈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새로운 차 또는 새로운 배우자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기술해야 한다.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영상화하고 그 영상을 단단히 붙잡고

명확하게 그 액수를 기술하라. 분명한 금액이어야 한다. '대략 얼마쯤'은 충분하지 않다.

원하는 바를 결정했다면 기도의 둘째 단계와 만나게 된다. 우리는 이미 '받으려면 먼저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당신은 무엇을 줄 생각인가? 만일 일정한 금액의 돈을 구하는 중이라면 당신은 기꺼이 그중 10분의 1을 좋은 일에, 즉 십일조로 내놓을 것인가? 재산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을 흔쾌히 도울 용의가 있는가?

여기서 "그럼요. 그만한 돈을 받게 되면 당연히 10분의 1을 내지요" 하고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당신은 받기 전에 돕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당신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상대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태도다. 반복하지만 당신의 태도는 명확해야 하고, 절대적으로 정확해야 한다.

셋째 단계는 '언제'를 정하는 것이다. 당신은 '언제' 이러한 돈, 자동차 또는 새로운 배우자를 원하는가? '막연한 미래의 언젠가'라는 대답은 불충분하다. 또한 '지금 당장'이라는 대답도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뜨릴 수 없는 물리적 법칙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짠 하고 신이 나타나서 당신의 양손에 금덩어리를 떨어주는 일은 없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그 대가로 당신의 발가락 몇 개라도 짓뭇갈 것이다.

당신이 정한 시한은 물리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예컨대 당신은 어느 해의 어느 달까지 돈을 벌겠다고 할 수 있지만 당장 5분 이내에 행운을 붙잡겠다고 할 순 없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에 반할뿐더러 당신 자신의 사고력까지 무력화하는 짓이다.

넷째 단계로, 당신은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작정인가? 예컨대 새 자동차를 바라고 있다고 치자. 무엇보다, 당신은 운전

을 할 줄 아는가? 당신이 운전할 줄 모른다면 자동차를 갖겠다는 기도는 별 의미가 없다. 운전교습을 받는 것이 먼저다. 그런 후에야 당신은 어떤 종류의 자동차를 원하는지 결정할 수가 있다.

당신이 결혼상대자를 바라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당신과 적절히 잘 어울리는지를 확인해두라. 주고받음의 법칙에 따라서,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 당신 자신의 몫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두라. 결혼이란 것은 얻기만 하거나 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받아들 이듯이, 당신도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 결혼 후에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젠 두사람의 문제와 걱정거리와 기쁨을 떠맡아야 한다. 그러므로 행복한 결혼을 바라기 전에 당신 자신이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관찮은 배우자감인지를 살펴야 한다.

다섯째 단계로, 우리는 글로 쓰인 문자가 입으로 하는 말보다 훨씬 강 력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말과 글은 상호보완적인 도구지만, 기도 를 할 때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적어두도록 하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명료하게 표현하라. 당신은 원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

영적 성장을 바라는가? 그렇다면 영적 측면에서 당신의 이상은 누구 인가? 그 사람의 모든 장점 - 능력, 기술, 성격 - 을 떠올려 글로 적어 보라. 돈을 얻고자 한다면 정확한 금액을 적고, 언제 그것을 원하는지도 명시하라. 그리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를 "십 일조를 내겠다"는 말로 표현하라. 최대한 단순하고 명료하게 적었으면, "나는 받기 위해서 먼저 주려 한다"는 말로 끝을 맺으라.

이제 당신은 앞서 적어둔 문장에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자신 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를 덧붙여야 한다.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다. 우 리는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마

음에 새겨두라. 당신이 예상치 못하게 백 달러를 얻었다면 그만큼의 봉사를 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당신이 먼저 그들을 도와야 한다.

이제 그 글을 매일 세 번씩, 큰소리로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라. 당신만의 조용하고 은밀한 방에서 크게 읽는다면 힘이 솟구칠 것이다. 침실을 떠나기 전의 아침, 그리고 점심, 또한 잠들기 전의 밤에도 그 글을 읽라.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세 번씩 확언을 읽는 셈이고, 그럼으로써 만트라(진언)와 유사한 힘이 생겨난다.

읽는 동안에는 돈이든 자동차든 원하는 것이 그 무엇이든, 그것이 당신에게 오고 있다고 느끼라. 긍정적인 태도로, 원하는 물건을 갖는다고 그것이 실제로 당신의 수중에 들어온다고 상상하라. 당신의 상상과 의념이 강렬할수록 그 효과도 분명해진다. '그저 그렇게 되길 바랄 뿐이야. 그걸 얻고 싶지만 진짜 가능할까 의심스러워.' 이런 생각으로는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이런 생각은 당신의 만트라를 즉시 무효화시킬 것이다. 당신은 부단히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어야 하며, 어떤 의심도 끼어들게해서는 안된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의념이 잠재의식 속으로 주입된다. 잠재의식은 당신(표면의식)보다 아홉 배는 영리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잠재의식이 활동한다면 당신은 기대 이상의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한번 돈을 모으고 난 이후에는 돈 벌기가 훨씬 쉬워진다. 부자들은 백만 달러를 벌기가 어려운 것이지 그 돈을 3백, 4백, 5백만 달러로 불리는 것은 쉽다고 말한다. 많은 돈을 가질수록 더 많은 돈이 몰려드는데, 그 이유는 비슷한 것들끼리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우리는 당신이 이 교과를 읽고 또 읽기를 제안한다. 아마도 이제껏 강

론해온 중에 가장 중요한 교과가 아닐까 싶다. 지시를 잘 따른다면 당신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갈망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당신이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가? 돈, 아니면 지상에서의 성공? ... 그렇다면 빛은 실추되고 결국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차라리 영성, 순수함, 그리고 타인에 대한 봉사를 겨냥하는 것은 어떨까? 비록 가난한 삶을 살게 된다 해도 말이다. 물질은 허공에 떠도는 한점의 먼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짧고 짧은 삶의 뒤에는 영성과 순수함이 무가치한 지상의 화폐를 대신하는 위대한 세계가 열린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

제 23 과

유감스럽게도 어떤 단어들은 아주 고약한 의미를 담고 있다. 언어를 불문하고 좋은 말 또는 객관적인 말들이 많지만 일부는 수세기의 세월을 거치면서 오용된 나머지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일례로 '여주인^{tré} 페'이란 단어가 있다. 우리의 할아버지 때만 해도 '여주인'이란 단어는 진정한 존경의 표현으로서 한 집안의 여주인, 안주인, 또는 가장(남편)에게 잘 어울리는 배우자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본래 지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됐다. 이처럼 세월이 지남에 따라 왜곡되어온 단어들이 바로 이번 교과의 주제이다.

'상상력(imagination)'도 쓰라린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된 단어이다. 오래

전에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말은 글을 쓸 수 있고 음악을 작곡할 수 있고 시를 지을 수 있는 지성인을 뜻하는 말이었다. 그러므로 신세여_○_라면 무릇 상상력이 풍부해야 했다. 그러나 요즈음엔 '상상력'이 히스테리를 앓거나실의에 빠져 정신적 파탄에 이른사람을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이 세상은 영적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종교적 체험들을 이렇게 깎아 내리면서 무시한다. "아, 그건 모두 네 상상력이 지어낸 거야. 어리석게 굴지 좀 마."

이렇게 상상력은 평판이 별로인 단어가 돼버렸다. 그러나 잘 통제된 상상력은 신비로운 베일에 싸인 종교적 체험들로 나아갈 수 있는 열쇠이다. 상상력은 초자연적 현상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몇 번이고 반복하건대, 상상력과 의지력이 충돌할 때마다 승리하는 것은 늘 상상력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력,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불굴의 용기를 자랑한다. 그들은 지루해하는 청중 앞에서 의지력이면 뭐든 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진실을 말하자면, 상상력이 허용하지 않는 한 의지력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자신의 의지력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어쩌다 보니 — 대개는 우연히 — ‘의지력이야말로 유용하다’는 식의 ‘상상’을 하게 되었을뿐이다. 하지만 상상력과 의지력 가운데 승리자는 예외 없이 상상력이다. 상상력보다 더 큰 힘은 없다.

당신은 아직도 상상력 없이 의지력만으로 뭔가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 앞에 교통이 통제된 거리가 있다. 이곳엔 자동차가 한 대도 없고, 호기심 많은 구경꾼도 없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 거리를 전세 낸 셈이다. 그리고 한쪽 편의 인도와 맞은쪽편의 인도 사이에 약 70 센티미터 너비의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다.

자동차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 없이, 또는 구경꾼들의 시선에 흐트러지는 일 없이, 이쪽 인도에서 맞은편 인도로 차분히 건너가는 데는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호흡이 가빠지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 중에 가장 쉬운 일일 것이다. 여기까지 ^의하는^v?

당신은 횡단보도를 두려움 없이 건널 수 있다. 발아래의 땅이 꺼지지도 않을 것이고, 지진이 일어나거나 주변 건물이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저 단순한 불운으로 발을 헛디딘다 해도 큰 부상을 입는 일 따위는 없을 것이다.

이제 상황을 좀 바꿔보도록 하자. 대략 높이가 20 층쯤 되는 건물 위로 옮겨가보자.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평탄하기 이를 데 없는

올라왔다. 옥상에서 거리를 내려다보니 길 반대편에 또 다른 20 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곳과 높이가 똑같다. 이제 우리는 아까의 횡단보도와 같은 너비의 널빤지를 준비해서 이쪽 건물의 옥상과 저쪽 건물의 옥상 양편에 걸쳐놓는다. 그리고 단단히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그 널빤지는 흔들리지도 않고 발에 걸릴 만한 굴곡도 없다.

자, 이 널빤지는 당신이 아까 건넜던 횡단보도와 동일한 너비이다. 당신은 이 20 층 높이에 고정된 널빤지를 따라 걸어서 반대편 건물의 지붕으로 이동할 수 있겠는가? 만일 당신의 상상력이 잠잠하다면 당신은 별곤란 없이 건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상상력이 그다지 고분고분하지 않다면, 생각만으로도 맥박이 뛰고 마음이 조마조마해질 것이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할지도 모른다.

왜 그런가? 당신은 이미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그와 똑같은 너비에다 더없이 단단히 고정된 이 널빤지는 왜 건너지 못하는가? 물론 상상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상상력은 이렇게 말한다. "이건 위험하다. 만일 미끄러지면, 비틀거리면, 발을 헛디디면 20 층 아래로 추락할 것이다, 옆에서 누가 당신을무리 거둡거둡 확신시켜도 그건 중요치 않다. 당신의 상상력이 허락하지 않는 한의지력은도움이 되지 않는다. 억지로의지력을 일으켜 세우려고 들면 곧 신경쇠약 증세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당신은 몸을 부들부들 떨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은 격심하게 헐떡일 것이다.

우리 내부에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가 갖춰져 있다. 말하자면 일종의 자동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터무니없는 위험 속으로 뛰어들지 못한다. 상상력의 방향을 돌려놓지 않고서 널빤지를 건너는 일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의지로써 설득하려 해

있다. 널빤지 위에 발을 올려 단호하고 자신감 있게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진심으로 '상상할'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은 발을 떼어놓지 못한다.

만일 의지력으로써 부정적 상상을 제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신경쇠약에 걸릴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상상력과 의지력이 충돌할 때마다 이기는 것은 언제나 상상력이다. 우리 내부에서 경보신호가 울리고 있는데도 뭔가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경을 과민하게 만들고 건강을 파괴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밤중에 한적한 공동묘지를 지나가는 일을 끔찍하게 두려워한다. 만약 그래야 할 경우가 생기면 머리가죽이 따끔거리고 머리털이 쭈뼛 서고, 손바닥엔 땀이 배기 시작할 것이다. 온신경이 곤두서고 모든 느낌은 과장된다. 혹시라도 유령이 나타나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마구 내달릴 만반의 준비를 해두는 셈이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도피 기제 (escape mechanism)' 를 끌어들인다. 그것은 우리를 기묘한 상황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어쩌면 축복받아 마땅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 경로로 인해 신경쇠약으로 치닫는지경을 피할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는 한 남자는 높은 책상 옆에 서서 장부에다 숫자를 기록하는 일을 했다. 앉은 자세는 불편했기에 그는 늘 서서 일을 해야만 했다. 그는 유능했고 숫자에도 밝았다. 하지만 편집증이 있어서, 언젠가는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고용주들에게 돈을 횡령했다고 추궁받게 될까봐 무척 두려워했다.

실제로 그는 대단히 정직한 직원이었다. 그는 정직을 신조로 삼는 보기 드문 사람들 중 하나였으며, 호텔에서 성냥 한 갑 또는 버스 좌석에서 버려진 신문 한 부조차 취하지 않을 만큼 고지식했다. 그럼에도 그는 고

용주들이 자신의 정직함을 몰라준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고, 그래서 자기 직업을 점점 더 혐오하게 되었다.

수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그의 마음은 더욱 불편해졌다. 그는 아내에게 직업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상상력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남자가 얻은 것은 위궤양이었다. 식사조절과 사람들의 배려 속에서 그의 궤양은 치료되었고, 그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 책상 옆에 섰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내가 서 있을 능력이 없어지면 이 일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거야.'

수주일 후 한쪽 발에 염증이 생겼다. 며칠간은 고통을 참고 절뚝거리며 일을 했지만, 결국은 악화되어 그는 한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다. 일을 멀리했더니 몸은 곧 회복되었고 그는 다시 일터로 복귀했다. 그러나 그의 잠재의식은 끊임없이 나뭇대고 있었다. '발에 염증이 생기니 지긋지긋한 일에서 해방될 수 있었어. 그런데 너무 빨리 나아버렸으니, 이젠 좀더 만만찮은 병에 걸려야 하지 않을까?'

그는 복귀한지 몇 달만에 또다른 염증을 얻었다. 발목, 즉 복사뼈 부위였다. 이번의 염증은 악성이어서 그는 발목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결국 그는 병원으로 실려 갔고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그는 다시 또 자신의 일터로 돌아갔다.

그에게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혐오감이 갈수록 쑥쑥 자라나고 있었다. 이번에는 발목과 무릎 사이에 염증이 생겨났다. 그것도 예후가 너무도 나빠서, 치료는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그는 결국 무릎 아래쪽을 절단해야만 했다. 다행히도, 정말 기쁘게도 고용주는 이제 그를 다시 부

르지 않았다. 특히면 병들고 자빠지는 절름발이는 필요 없기 때문이었다.

병원의 의사들은 이런 사례에 관해 많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남자에게 다른 일 즉, 병원에 있을 때 상당한 소질을 보였던 일을하도록 주선해주었다. 그것은 일종의 수공예와 관련된 일이었다. 그는 그 일을 좋아했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횡령을 추궁받아 감옥에 가게 되리라는 두려움 따위는 사라졌으므로 건강도 좋아졌다. 현재까지 알려 진 바로는, 그는 그 일을 잘 해내면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조금 극단적인 사례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업가들은 자신의 업무를 두려워하고 주주들을 두려워하고 명예를 잃게 될까 전전긍긍한다. 그들의 업무에는 팽팽한 긴장이 수반되므로, 그들은 위궤양이 : 나름의 탈출구로 삼는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에 게 위궤양이란 사실상 친구와도 같은 것이다.

기억하라. 상상력은 제국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자신의 상상력을 길러서 잘 다룬다면 당신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 상상력에게 이래라저래라 명령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상상력은 우호적일 때조차 노새(황소고집)와 같아서, 당신은 그것을 이끌 수는 있지 만 그 위에 올라탈 수는 없다. 당신은 상상력을 이끌 수는 있되 상상력을 부리지는 못한다. 이끄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지만 말이다.

그러면 상상력은 어떻게 하면 다룰 수 있을까? 역시나 신념과 연습 의 문제이다. 두렵고 불쾌한 상황들을 살펴보고, 신념으로써 그것을 극복하라. 즉 상상력을 잘 달래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라.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자신을 설득해 보는 것도 좋다. 상상력이 당신의 편에 서도록 할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관^

처음의 예시로 돌아가서, 우리는 바닥의 횡단보도를 쉽게 건널 수 있었음을 기억하자. 그리고 상상력을 동원하여, 널빤지가 비록 20층 높이에 걸쳐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존재'인 나는 횡단보도처럼 그것을 쉽게 건널 수 있다는 신념을 갖자. 이렇게 생각해보라. 별 생각 없이 사는 원숭이는 두려움 없이 그 널빤지를 건널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더 현명한가? 당신인가, 그 생각 없는 원숭이인가? 원숭이가 널빤지를 건널 수 있다면 그보다 훨씬 나은 당신 역시 해낼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연습의 문제이며, 또한 신념의 문제이다.

과거에는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여러 번이나 밧줄을 타고 건넜던 블론딘 같은 이름난 곡예사들이 있었다. 블론딘은 그저 평범한 남자였지만 자신의 능력을 신뢰 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건너지 못하는 곳도 자신은 건널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다. 그는 두려워할 유일한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임을 알고 있었고,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기만 하면 외바퀴 손수레를 밀며 밧줄을 타든 눈을 가리고 밧줄을 타든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경험을 한다. 높은 사다리를 올라갈 때 위를 올려다보기만 하면 두렵지 않다. 그러나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한 생각이 일어난다. '사다리에서 떨어진다면 내 몸이 산산조각날 거야.' 우리의 상상력은 자신이 떨어지는 광경, 수십 미터 아래에서 뭉개지는 광경을 그려댄다. 그렇다고 죽기 살기로 사다리만 붙들고 매달리면 오히려 그 자리에서 움푹달싹 못하는 처지가 된다. 뽕죽탑이나 높은 굴뚝을 수리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이런 일을 겪는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쌓고 상상력을 제어하면 당신은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 억지로써 상상력을 압도할 수는 없다. 의지력으로 밀

어붙이는 것은 상상력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경증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는다.

기억하라. 언제나 상상력을 이끌고, 살살 구슬려 제어해야 한다는 것을. 상상력을 맘대로 부리고자 하면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상상력을 이끌어가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불가능' 따위는 없다는 믿음을 가지라.

제 24 과

카르마(Kharm)의 법칙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형이상학적 현상에 관한 많은 용어들은 산스크리트어, 즉 범어, §에서 온 것이다. 과학, 의학, 해부학의 많은 용어가 라틴어에서 온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우리는 꽃 또는 알뿌리의 분류, 특정 근육이나 핏줄의 작용 등을 라틴어으로써 표현한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전통이다. 그 옛날, 의사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려 애를 썼다. 그리고 그들 외엔 그런 지식을 이해할 만큼 교육받은 사람들도 없었다. 당시 의사들에게 라틴어 공부는 필수였고, 그들은 라틴어를 씀으로써 구체적인 지식이 무학자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이런 관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물론 전문적 지식을 하나의 언어로 기술하는 데는 나름의 이점이 있다. 서로 언어가 다른 과학자들끼리도 라틴어를 통해서 그럭저럭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나 비행기에서 일하는 무선통신 기사들은 같은 이유로 모르스부호 또는 큐 부호라는 것을 사용한다. 아마추어 무선가들도 특정한 코드를 통해 언어가 다른 세계 각지의 무선가들과 지적인 대화를 나누곤 한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비술가(occultists)들은 산스크리트어에 익숙하다.

여기서 '카르마'라는 말은 '인과빠의 법칙'이라는 간단한 뜻으로 이해하면 충분하다. 카르마는 전혀 신비롭거나 놀라운 것이 아니다. 본 강좌에서 우리는 줄곧 합리성의 토대 위에서 형이상학을 논하고 있다.

떤 부분도 굳이 모호한 뜻의 용어가 필요할 만큼 난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은 '카르마'의 의미를 형이상학적 함의에서 떼어놓고 생각해보자. 형이상학적 담론들은 무시하고, 그저 그것을 어떤 나라의 법률이라고 상상해보자. 이를테면 — 자니라는 소년이 막 오토바이 하나를 갖게 되었다. 자니는 이 강력한 기계 위에 앉아 엔진을 켜올 때 들리는 그 경이로운 소리에 큰 흥분을 느낀다. 그렇지만 앉아 있는 것만으론 충분지가 않다. 그래서 자니는 클러치를 잡고 기어를 넣어 오토바이를 멀리까지 몰고 나 간다. 아마도 처음에는 차분하게 몰았겠지만, 자니는 이내 달리는 즐거움에 사로잡혀 점점 더 속도를 낸다. 자니가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 자 경찰차는 자니의 바로 옆으로 따라붙어 경적을 크게 울리고 오토바이를 세우라고 손짓한다. 속도를 늦춰 길가에 멈춰 선 자니는 이제 시무룩한 표정으로, 복잡한 길에서 속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딱지를 떼고 있는 경찰관을 지켜볼 뿐이다.

이 평범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일정한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요컨대 그 누구도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려서는 안 된다. 자니는 그걸 무시했고, 그래서 경찰관이 따라와서 딱지를 떼는 벌을 내렸고, 자니는 속도위반의 대가로서 벌금을 물고 어쩌면 법정에 출두해야만 할지도 모른다.

다른 비유는 없을까? 물론 있다. 빌 제임스는 일과는 담을 쌓은 좀 거친 친구다. 하지만 그에겐 아주 사치가 심한 여자친구가 있다. 그가 여자친구의 흥미를 끄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가 원하는 물건을 주는 것뿐이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그 물건을 어떻게 구했느냐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빌은 어느 날 저녁에 상점을 털기로 작심한다. 빌은 여자친구가 원

시계? 원하는 게 무엇이었던, 여자친구는 빌의 강도짓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빌은 살그머니 건물로 다가가서 입구를 기웃거리고, 높이도 적당하니 안성맞춤인 듯한 창문을 찾아낸다. 빌은 능숙하게 창유리에 주머니칼을 끼우고 손잡이 고리를 억지로 돌려 손쉽게 창틀을 올린다. 빌은 잠시 멈추어 귀를 기울인다. 혹시 소리가 나진 않았을까? 주변에 누가 있진 않겠 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빌은 조심스럽게 열린 창문으로 기어 들어간다. 어떤 소음도 삐걱거림도 없다.

조용히 신발을 벗은 빌은 상점을 살살 돌아다니며 원하는 것들을 주워 담는다. 보석을 케이스에서 빼내고, 시계는 주머니에 찔러넣고, 지배 인실의 현금보관함에서도 상당량의 지폐를 꺼낸다. 전리품에 만족한 그는 다시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본다. 아직도 거기엔 아무도 없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 신발을 챙겨 문쪽으로 향한다. 문으로 나가는 편이 훨씬 쉽다고, 창문으로 넘어가는 물건들이 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살며시 자물쇠를 풀고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밤의 어둠 속으로 몇 걸음 내딛는데, 갑작스레 거친 목소리가 들린다. "멈춰! 움직이면 쏜다, 빌은 공포로 얼어붙는다. 그는 무장경찰들이 주저 없이 총을 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조명이 어둠을 뚫고 그의 얼굴에 쏟아진다. 그는 풀이 죽어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린다.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면서, 그는 자신이 경찰에게 포위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경찰들은 재빨리 빌이 무기를 가졌는지 수색하고 상점에서 들고 나온 모든 귀중품을 압수한다. 그는 대기중이던 경찰차에 실려 가서 곧 유치장에 갇힌다.

몇 시간 뒤, 빌 제임스의 여자친구는 남녀 한쌍의 경찰에 의해 잠에

당황하는 기색은 없다. 왜 그녀를 체포하느냐고? 그녀는 이전엔 빌의 범 죄를 방조했을 뿐이지만, 이번엔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주인으로서 빌만큼이나죄가 있기 때문이다.

삶의 법칙도 이와 같다. 물질적 세상의 법칙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활동으로써 쌓아온 선 또는 악의 총합이 곧 카르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 격언이 있다. 그 말은 진실이다. 만일 나쁜 행위를 한다면 당신은 다음 생 또는 그다음 생 또는 그다음의 다음 생에서 나쁜 미래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만일 좋은 행위를 한다면, 즉 필요한 이들에게 선행과 친절과 연민을 보인다면, 당신이 불운을 겪어야 할 차례가 와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타나서 당신에게 친절과 배려 그리고 연민을 베풀 것이다.

이 점에서 오해가 없도록 하라. 누군가가 고난을 겪고 있다 해도, 그 이유는 무조건 그 사람이 악업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시험당하는 중일 수도 있다. 그것은 고통을 통해 다소 불순하고 이기적인 인간성을 떨어내는 정련의 과정일 수 있는 것이다.

왕자든 거지든 간에 모든 사람은 소위 생의 수레바퀴, 즉 끝없는 존재의 쳃바퀴를 따라 돈다. 당신은 이번 생에서는 왕일지 모르지만 다음 생엔 비렁뱅이가 되거나, 일자리를 얻지 못해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거나, 강풍 앞의 낙엽과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카르마의 법칙에서 제외된 사람들도 없진 않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미 없는 짓이다. "아, 저 사람의 삶은 정말 끔찍해. 전생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게 틀림없어." 아바타^h라 불리는 고매한 존재들은 특정한 과업을 이루기 위해 지상에 내려온다.

예컨대 힌두교인들은 비슈누신이 여러 번에 걸쳐 지상에 내려온다고 믿는데, 그 목적은 인류에게 종교의 진실을 재차 일깨우기 위함이다. 인류는 종교의 진실을 외면하기 일쑤이므로.

이런 아바타 또는 고차원적 존재는 흔히 궁핍의 표본과도 같은 삶을 영위할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연민을 통해, 또한 고통의 초월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고통의 초월'이란 표현만큼 진실과 동떨어진 것도 없다. 왜냐하면 아바타는 대단히 순수한 물질적 존재이므로 실은 고통을 우리보다 더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아바타는 꼭 그래야 하기 때문에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카르마를 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는 순수하게 육화된 영혼으로서 지상에 온다. 그의 출생은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고, 혹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출생도 하지 않은 채 타인의 신체를 점유할 수도 있다.

우리는 종교와 신앙의 측면에서 그 누구의 옳은 곳도 찌를 생각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예수라는 남자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났는데, 때가 이르러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황야를 방랑했고 그 와중에 그리스도의 영(신의 영)이 하강해 그의 몸을 채웠다는 것을. 달리 말하면, 그것은 다른 영혼이 내려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의 몸을 당사자의 동의하에 점유한 사례였다.

우리가 굳이 이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불행과 가난은

로써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온 그들이 오히려 그 불행과 가난이란 허울로 비난받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낳는다. 생각조차도 참으로 현실적인 힘을 발휘한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 그러므로 순수한 생각을 하면 순수해지고, 욕망에 탐닉하면 당신은 오염되어 몇 번이고 지상에 다시 와야만 한다. 그 욕망끼 순수하고 선한 생각들에 밀려 내면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말이다.

어떤 사람도 절멸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악행으로 인해 영원히 벌을 받는 저주에 쓰이지 않는다. 소위 '영원한 형벌'이란 고대의 사제들이 그들의 무질서한 집단을 다스리기 위해 고안해낸 술책이었다. 그리스도는 결코 영원한 고통이나 영원한 저주를 설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회개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제 잘못을 '구원'받고 또다시 기회를 얻게 된다고 르쳤다.

카르마는 우리가 빛을 지고 또 그 빛을 갚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당신은 상점에서 어떤 상품을 주문할 때 법정화폐로 그 값을 내야 하는 '일종의 채무' 상태가 된다. 그 값을 치를 때까지 당신은 빛을 진 것이며, 만일 그 빛을 갚지 못하면 법률에 따라서 체포되고 심지어 파산하게 될 수도 있다. 지상의 모든 남녀노소는 무엇으로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오직 아바타들만이 카르마의 법칙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바타가 아닌 보통 사람들은 오직 선한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지상의 교육기간을 단축시키는 편이 바람직하다. 다른 행성, 다른 존재의 국면에는 훨씬 더 나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범한 이들을 용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가 해를 끼친 이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늘 기억하라. 좋은 카르

마를 낚는 확실한 길은, 바로 우리 자신이 대접받기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접하는 것이다.

우리는 카르마의 법칙을 피할 수 없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고, 도움을 받았으면 그러한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 악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선을 주고받는 편이 훨씬 나으므로, 종의 구별 없이 모든 생명에게 선함과 연민과 친절을 보이자는 것이다.

기억하라. 신의 눈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 한 단계 더 높은 신의 눈으로 볼 때, 모든 생명은 그게 말이든 고양이든 전적으로 동등하다.

신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경이로움을 펼쳐낸다. 우리는 신에게 그의 방식을 깨물을 계제가 못 된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할 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만족스런 결론에 이르게 함으로써 그 카르마를 해소할 수 있다.

병든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이렇게 푸념한다. “아, 피곤해. 왜 그는 얼른 죽어서 이 비참한 신세를 벗어나지 않는 거지?” 물론 그 대답은, 우리는 예정된 삶의 형식을 따르면서 예정된 삶의 기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투덜대는 그 사람은 바로 그 병자를 돌보기 위해 지상에 내려온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아프거나 슬퍼하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늘 깊은 배려와 관심과 이해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배려와 이해를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친 사람을 참을성 없는 태도로 내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병자들은 대단히 민감한 편이므로, 자신이 단지 방해물로 여겨지고 있음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자신의 무능력에 더욱 절망한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

행할 수 있고 비전®^ 지식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신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거칠게 내친 , 도움을 호소하던 그 병자가 당신은 일찍이 상상도 못했던 천재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우리는 미식축구와 같은 격렬한 스포츠엔 관심이 없지만,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당신은 투시력이 있는 또는 투시력이란 단어를 제대로 알기라도 하는 근육질의 운동선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던가? 평범한 인간들보다 높은 주파수의 진동을 수신하기 위해서 조악한 신체를 정련하는 과정에서는 어딘가 신체적 문제를 겪게 되는 일이 흔하다. 그러니 병든 이들을 사려 깊게 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병자들을 참을성 있게 대하라. 그는 당신이 잘 모르는 많은 문제를 떠안고 있을 수 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라. 그는 건강한 당신보다 훨씬 더 진화된 사람일지 모른다. 그러니 병자를 돌보는 것이 사실은 당신 자신에게 실로 엄청난게 이로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제 25 과

당신은 갑작스런 당혹감과 충격 속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적이 있는가? 당신은 해가 구름 뒤로 물러나서 다시는 당신을 비추지 않으리라고 느껴본 적이 있는가? 가까운 사람을 잃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지만, 불필요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한 그것은 당신 자신은 물론이고 '앞서 간' 그사람에게도 비극이 된다.

이번 교과에서 우리는 슬픔과 우울함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논하고자 한다. 세상을 진정 제대로 바라보려면 죽음은 애도하거나 슬퍼해야 할 문제가 아님을 인식해야만 한다.

일단 사랑하는사람이 소위 '죽음'이라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겪게 될 일들을 알아보자. 우리는 평소처럼 별다른 걱정거리나 성가심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애지중지하는 누군가가 우리의 곁을 떠나버렸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그 즉시 심장이 쿵쿵쿵 뛰고 두 눈의 눈물샘은 내부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수분을 잔뜩 머금는다. 우리는 더 이상 밝은 장밋빛의 활기찬 색채를 보지 못한다. 모든 것이 우울한 갯빛으로 뒤덮이고, 째깍하던 밝은 여름날이 납덩이처럼 흐린 겨울의 하늘처럼 울적하게만 보인다.

이젠 친구가 되어버린 전자 이야기로 또 한 번 돌아가야겠다. 우리가 갑작스런 슬픔과 비탄으로 고통받게 되면, 우리 두뇌에서 생성되는 전압이 변화되고 때론 전류의 방향까지 뒤집히면서 우리의 찌푸린 눈은 이전의 '장미빛' 세상이 아니라 '갯빛' 세상을 보게 된다. 이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육체의 이런 끔찍한 '끌어내림' 탓에, 우리는 더욱 위대하고 행복한 삶으로 새롭게 진입한 그 영혼(망자)을 유체 수준에 서도 흔쾌히 반겨주지 못하는 처지가 된다.

사랑하는 친구를 먼 곳으로 떠나보내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러나 지상에서는 언제든지 편지를 쓸 수 있고, 전보를 칠 수 있으며, 전화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위안거리가 된다. 반면 '죽음'의 저편과는 어떤 교신의 여지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당신도 망자t 놓들이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기쁘게도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단언하지만 실제로 저명한 과학센터에는 '육체를 떠난 영혼'들과 교신을 가능케 해줄 도구를 연구하는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이 있다. 이것은 몽상도 환상도 아니다. 수년 동안 보도되어온 공식 뉴스의 내용이다. 그리고 최근의 과학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그들의 연구가머지않아 대중적 지식이자 자산이 될 희망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망자들과 교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다.

한 사람이 죽을 때, 그의 생리적인 기능은 점점 속도가 떨어지다가 이내 정지해버린다. 우리는 앞선 교과에서 인간의 두뇌가 산소결핍 상태가 되면 몇 분밖에 생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는 육체 중에서 첫 번째로 '죽는' 부분이다. 두뇌 기능이 정지했다면, 즉 뇌사 상태라면 그의 회생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죽음을 시간이 걸리는 사건으로 묘사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뇌사 후에는 두뇌의 명령과 인도가 끊어진 다른 조직들도 활동을 멈춰간다. 그것들은 마치 운전자가 자리를 뜬 자동차의 처지와 같다. 운전자는 시동모터를 끄고 차를 떠났다. 엔진은 남은 동력으로 한두

차례 움찔대겠지만 이내 식어갈 것이다. 차의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금속 들은 수축하면서 삐걱대거나 킁킁거리는 작은 소리를 낼 것이다.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다. 죽어가는 동안 우리의 근육조직들은 순차 적으로 삐걱대고 킁킁거리고 비틀린다. 보통 사흘에 걸쳐서 유체도 육체 와의 연결을 남김없이, 영구히 끊어버린다. 아기가 탯줄이 끊기면서 엄마 와 분리되듯이, 유체와 육체를 연결하던 은줄도 점차 시들어간다. 유체는 부패하고 있는 육체와의 연결 상태를 고작 사흘간 유지할 뿐이다.

죽은 사람은 대체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고, 슬퍼하는 친척이나 친구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 목구멍에선 몸서리치도록 숨이 헐떡이고, 임종 직전의 가르랑거림을 끝으로 마지막 거친 숨이 입 밖으로 토해진다. 심장박동도 느려지다가 이내 영원히 정지한다. 이제 그의 신체는 경련을 일으키면서 차가워진다.

투시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임종의 순간에 시신으로부터 나온 어떤 어렴풋한 형체가 은빛 안개처럼 한동안 그 위를 떠도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흘 동안 유체와 육체를 연결하던 은줄은 점차 빛을 잃어가고, 특히 시신과 연결된 부분은 더욱 검게 변한다. 그러고는 마침내 시신에 연결된 은줄의 끝에서 검은 먼지 같은 것이 피어오른다.

그렇게 줄이 느슨히 풀리면 유체는 적당히 상승하여 유체계 너머의 삶으로 안내받게 된다. 하지만 그전에 유체는 자신이 거주했던 시신을 내 려다보는 시간을 가진다. 묘지로 향하는 영구차를 따라가서 실제로 자신 의 장례식을 지켜보는 일도 흔하다. 이때 유체는 일종의 쇼크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 특히 우리의 강좌 내용과 같은 것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 이라면 더욱 — 슬픔도 고통도 혼란도 느끼지 못한다.

가는 것, 또는 풍선이 묶여 있는 트레일러를 쫓아가는 것과 흡사하다. 그렇지만 곧 은줄은 분리되고 — 이제는 더 이상 은색도 아니다 — 유체는 자유롭게 위로 솟아올라 자신의 두 번째 죽음을 준비하게 된다. 이 두 번째 죽음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

두 번째 죽음에 앞서, 망자는 '기억의 방'(the Hall of Memories) O g 가서 이번 생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되살펴보아야 한다. 당신은 당신 자신 이외의 그 누구로부터도 심판받지 않는다. 당신 자신의 심판보다 더 엄격한 것은 없다.

지상에서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온갖 시시껄렁한 자만과 거짓된 가치 들이 결국 무의미한 것이었음을 보면서, 당신은 지상에서 누렸던 지위와 재산이 전혀 당신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 오히려 빈천하고 낮고 가난했던 사람들이야말로 스스로 가장 만족스럽고 높은 평가를 내리곤 한다.

기억의 방에서 생을 돌아본 후에, 당신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또 다른 세계'의 해당 구역으로 간다. 당신은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 지옥은 지상에, 즉 우리의 학교 안에 있다고 했던 우리의 말을 믿 어라.

당신은 아마도 동양인들, 위대한 신비가와 위대한 교사들이 절대로 자신의 본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이름에는 큰 힘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울바른진동으로써 그의 영혼을 불러 낸다면 그는 어쩔 수 없이 끌려나와 지상을 응시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신을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존재'로써 대하고 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줄곧 신을 불러낸다면 우리의 지도자인 신으로서도 무척이나 번거로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많은 스승들은 자신의 것이 아닌, 즉 본명의 발음과는 사뭇 다른 이름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이름은 진동과 부호와 화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만일 누군가를 그의 화성적 진동의 조합으로써 불러낸다면 그는 무슨 일을 하고 있던 간에 큰 방해로 받게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타계한' 사람들에게 대한 과도한 애도는 그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준다. 그들로 하여금 지상으로 다시 끌려 내려오는 느낌을 받게 한다. 이는 물에 빠진 사람이 젖은 옷과 젖은 신발의 무게 탓에 점점 더 가라앉는 상황과도 같다.

진동이라는 주제를 다시 검토해보자. 진동은 지상에서의 삶의 핵심이며, 사실상 모든 세계에서의 삶의 핵심이기도 하다. 우리는 진동의 위력에 관한 주 단순한 실례를 알고 있다. 발을 맞추어 행진 중인 병사들은 커다란 다리를 건널 때 오히려 조화를 깨뜨려서 무질서하게 걷는다. 하중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그 다리는 중무장한 차량도, 덜덜거리는 탱크도, 심지어 군용기차도 건너보낼 수 있다. 하지만 병사들이 일제히 발을 맞추어 행진한다면 그 다리는 상하좌우로 흔들리다가 결국엔 무너지게 된다. 또 다른 예로서 바이올린 연주자의 경우엔, 특정한 음정을 수 초간 연주함으로써 포도주잔에 진동을 일으켜 그잔이 놀랄 만큼크게 깨지도록 만들^수가 있다.

병사들의 행진이 진동에 관한 예시의 한쪽 끝이라면 다른 쪽 끝은 무엇일까? "옴 ॐ"이란 만트라를 생각해보라. 만일 누군가 "옴마니반메훴"이라는 단어를 수 분 동안 일정하게 읊조린다면 그 진동은 환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 기억하라. 이름은 강력한 것이므로 우리는 타계한 사람들을 공연히 불러서는 안 된다. 그들의 이름을 슬픔이나 비탄 속에서 불러선

안 된다. 왜 우리의 슬픔 때문에 그들이 궁지에 몰리고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그들은 이미 충분히 고통을 받았는데 말이다.

우리는 우리가 왜 이 지상에서 죽음이라는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지 의아해한다. 그 대답은 이렇다. 죽어가는 과정은 사람을 정화시킨다. 그 고통은, 너무 큰 고통만 아니라면, 당사자를 정화시킨다. 다시 말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를 정화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의 고통이나 슬픔을 짊어져야 하는 소명을 받진 않는다.(물론 특수한 예외 상황은 있을 수 있다) 극도의 슬픔 속에서 혼절해버리는 여자를 떠올려보면 이 말이 잘 이해될 것이 다. 그녀의 혼절은 일종의 안전장치이다. 혼절로 인해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짓눌리지 않고, 그녀를 해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큰 슬픔을 당한 사람은 비탄으로 소위 '넋을 놓은' 상태가 되곤 한다. 그것은 당사자(유족)에게도, 망자에게도 다행한 일이다. 그래서 유족들은 상실을 받아들여 정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망자 또한 유족의 '넋을 잃은' 상태를 통해 보호받는다. 그렇지 않다면 유족들의 울부짖음과 비탄은 막 세상을 떠난 망자에게 커다란 압박이자 장애물이 될 것이다.

전화를 통해 전 세계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듯이, 때가 되면 우리는 아마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도 쉽게 교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강좌를 진지하게 공부함으로써, 그리고 자신의 위대한 힘과 이번 생과 다음 생의 가능성을 굳건히 믿음으로써, 당신은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다. 텔레파시, 투시, 그리고 소위 '자동기술— automatic writing)*

를 통해서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후자의 경우엔 자신의 왜곡된 상상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상상력을 통제함으로써, 그

한다.

힘을 내고 믿음을 가지라. 믿음으로써 당신은 기적을 성취할 수가 있다. 믿음은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들 하지 않는가. 그 말은 진실이다!

제 26 과

이제 우리는 소위〈바른 삶을 위한규칙〉이란 것을 밝혀두려 한다. 이것들은 매우 기본적인 규칙, 즉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다. 여기에 당신은 자신만의 규칙을 덧붙일 수도 있다.

먼저 우리는 그 전부를 나열한 후에 하나씩 세밀히 검토해볼 생각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배경에 대해 나름의 통찰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규칙들은 다음과 같다.

1. 당신이받고싶은대로행하라.
2. 다른사람들을심판하지 말라.
3. 모든일을 정확하게처리하라.
4. 종교에 대해논쟁하거나타인의믿음을조롱하지말라.
5. 자신의 종교를지키되 이교도들에게는 철저히 관대하라.
6. 장난삼아 '마법에 손을 대지 말라.
7. 정신을 취하게하는 음료와약품을 자제하라.

이 규칙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우리는 “당신이 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고 말했다. 당연한 말이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등 뒤에서 찌르거나, 속이거나, 바가지로 씌우고 싶어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능한 한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싶어한다. 당신 자신에게 하듯 이웃을 돌보고있다면당신은이미 '황금률'을 따르며사는 셈이다.

당신이 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 그래야 당신도 도움을 받게 된다. 보통 사람이라면 다른 쪽 뺨까지 내어주는, 즉 부당한 처사까지도 수용해주는 당신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혹 당신의 순수한 생각과 동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당신은 말없이 그저 두세 번의 고초만 넘김으로써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번 생을 넘어서 세계에서 우리는 우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적대적인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 불운하게도 지상에 있는 동안엔 몇몇 끔찍한 이들을 만나야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필요성 때문임을 잊지 말라.

그러니 당신이 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 그러면 당신의 성품이 당신에게 큰 이익을 줄 것이다. 당신은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빛나는 존재로 보일 것이다. 선을 행하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알려진 당신이 사기라도 당하게 된다면, 그사기꾼은사람들로부터 일말의 동정도 얻지 못 하리라. 아무리 희대의 사기꾼이라 해도 동전 한 닢조차 저세상으로 가져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지 말라"고 말한다. 당신은 당신이 심판하거나 비난한 그 사람과 비슷한 위치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일은 잘 알지만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진 못한다.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일지라도 내면의 생각까지 공유하진 못한다. 적어도 지상에서는 어떤 사람도 타인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당신은 배우자와 아주 행복한 결혼생활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때로는 서로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유를 물어 봐도 당사자조차 설명을 못하는 행동들 말이다.

"너희 가운데 결백한 자가 있다면 먼저 돌을 던져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것들은 아주 탁월한 가르침이다. 세상에 빈틈없

이 결백한 사람은 없다. 만일 백 퍼센트 순진무구하고 죄가 없다면, 그는 이 조잡하고 케케묵은 지상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결백한 자만이 돌을 던져야 한다면, 이 세상에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주 둔감한 상태로, 모든 게 뒤죽박죽인 채로 이곳 지상에 내려와 있다. 사람들은 뭔가를 배우려고 이곳으로 온다. 만일 배울 것이 없다면 그들은 이리로 오지 않고 더 나은 곳으로 갔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잘못을 저지른다. 또한 하지도 않은 일로 비난을 받거나, 선한 일을 하고 도신뢰를 얻지 못한다. 그게 문제인가? 훗날 이 지상, 이 학교를 떠날 때 우리는 전적으로 다른 가치 기준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파운드도, 달러도 아니고 페소나 루피도 아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한 기준으로써 평가받게 되리라. 그러니 다른 이들을 심판하지 말라.

우리의 세 번째 규칙은 "모든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라"이다. 좀 의외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합리적인 규칙이다. 사람들은 일을 할 때 계획을 짜고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따라서 우리가 제 몫을 정확히 처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계획과 착상이 뒤집어질지도 모른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사람에게서 분노를 살지도 모른다. 우리 때문에 분노하고 좌절하게 된 그는 애초 계획과는 다른 진로로 나아갈 수도 있다. 우리의 부정확한 일처리로 인해 누군가가 계획에 없던 길로 들어서게 된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정확한 일처리는 일종의 습관이다. 또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절제하는 훈련이기도 하다. 정확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다. 스스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정확성은 타인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정확한 일처리는 지킬 가치가 충분한 덕목

이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적, 영적 위상을 높여준다.

이제 종교에 관해서 말해보자. 다른 사람의 종교를 비웃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다. 당신은 이것을 믿지만 타인은 저것을 믿는다. 당신이 부르는 신의 이름이 중요한가? 신은 어떻게 불리든 오직 신일 뿐이다. 동전의 양면을 두고 논쟁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러나 불행히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선한 생각들로만 채워져야 할 종교 안에서 너무나 많은 악한 생각들이 활개를 쳐왔다.

다섯 번째 규칙도 종교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종교를 지키라고 말한다. 개종하는 것은 별로 현명한 일이 못 된다. 이 지상에서 우리는 흐르는 강의 한가운데에 있다. 생의 한가운데에 있다. 강의 한복판에서 말을 갈아타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대부분 특정한 계획을 마음에 품고 이 지상으로 왔다. 우리는 그 계획을 위해 특정한 종교 또는 교파를 믿게끔 유도되었다. 그러므로 아주 뚜렷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종교를 바꾸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우리는 말을 배우듯이 어렸을 때부터 종교를 받아들인다. 나이를 먹고 말을 배우려면 힘이 들듯이, 각자 미묘한 차이가 있는 다른 종교를 새로 흡수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일이다.

다른 사람이 종교를 바꾸도록 영향을 주려는 시도 또한 잘못된 것이다. 당신에게 적합한 것이 그에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두 번째 규칙을 기억하라. "다른사람들을 심판하지 말라." 그의 피부 속으로, 마음속으로, 영혼 속으로 들어가보지 않는 한 당신은 어떤 종교가 그에게 맞을지를 판단할 수 없다. 그럴 능력이 없음에도 타인의 신앙에 간섭하거나 그것을 조롱하고 공격한다면 그보다 더 분별없는 짓도 없다. 우리는 받고 싶은 대로 행해야 한다. 우리는 누구든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믿

고 예배할 수 있도록 온전한 관용과 자유를 베풀어야 한다. 우리 자신이 간섭받는 걸 싫어하듯이, 그들도 간섭을 싫어할 것이다.

여섯 번째 규칙은 '장난삼아 마법에 손을 대지 말라'이다. 그 이유는, 실로 많은 종류의 '마법'이 해롭기 때문이다. 비술■을 다루는 신비학 분야에는 안내자(스승) 없이 독학으로 공부하다가 큰 화를 입게 될 여러 위험요소들이 있다.

천문학자는 고성능 망원경을 통해 태양을 관찰할 때, 적당한 필터를 렌즈 앞에 끼우는 식의 예방조치를 취한다. 형편없는 천문학자조차도 고성능 망원경으로 태양을 직접 응시하면 눈이 멀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마찬가지로 적당한 훈련과 안내 없이 비술에 손을 대면 신경쇠약에 걸리고 갖가지 불쾌한증세에 시달릴 수 있다.

우리는 불쌍한 서양인들이 제 몸을 혹사하며 동양의 요가 체조를 따라하는 것을 분명하게 반대한다. 요가 체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자세를 교육받는 동양인들의 몸에 맞게 고안된 것이다. 그게 요가든 뭐든, 뼈를 심하게 비틀고 근육을 멍들게 하는 짓은 큰 해가 될 수 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비학은 공부할 만한 것이지만, 안내를 받으며 분별력 있게 실 천도록 하자.

특히 우리는 망자t 놓와 교신하거나 그런 목적의 유별난 의식을 행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물론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 매일같이 행해지 는 일이긴 하지만, 숙련된 사람이 잘 감독하지 않으면 망자와 유족 모두 가 고통과 해를 입는 결과를 낳게 된다.

날마다 일간지를 펼쳐서 그날의 자기 운세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이 예언을 주 진지하게 받아들여 생활의 본보기로 삼는다. 점성학은 유능한 분석가가 정확한 생년월일시를 미리 알고

준비하지 않는 한 대개 무익하고 위험스런 짓이다. 것처럼 제대로 된 분석은 비용도 꽤나 비쌀 것이다. 왜냐하면 요구되는 지식의 양이 상당하고 계산에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해의 징조나 달의 징조, 머리카락 색깔이나 발가락 모양 따위로는 점을 칠 수 없다. 숙련된 기술과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니 당신이 충분한 능력과 인내심과 시간을 가진 분석가를 알고 있고 그의 노력에 합당한 대가를 치를 처지가 아니라면, 우리는 점성학에 장난삼아 손을 대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은 당신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정중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권한다. 본 강좌처럼 순수하고 속임수 없는 것들만을 공부하라. 감히 말하건대, 본 강좌는 호흡과 보행까지도 한 데 우르는 자연의 법칙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우리의 마지막 규칙은 "정신을 취하게 하는 음료나 약물을 자제하라"였다. 우리는 유체를 마구잡이로 육체에서 떼어내서 혼절케 하는 것들의 위험성을 충분히 언급한 바 있다.

정신을 취하게 하는 음료들은 영혼을 해친다. 그것들은 은줄을 통해 전송된 인상을 왜곡하고 두뇌의 물리적 구조를 손상시킨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두뇌는 지상에서의 육체의 경험을 위로 올려보내고 그곳으로부터 더 높은 지식을 내려받는 일종의 송수신 장치라는 사실이다.

술보다 더 나쁜 것은 약물이다. 약물은 중독성이 훨씬 강하므로, 약물 에 한 번 물들면 사실상 이번 생에서 열망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기 쉽다. 정신을 취하게 하는 음료와 약물의 잘못된 부추김에 빠지면 지상에 서의 삶을 몇 번이고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그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습 관이 빚어낸 카르마를 남김없이 청산할 때까지 말이다.

나간다면, 종교는 유용한 영적 단련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요즈음엔 전 세계의 모든 도시에서 10대 폭력배들이 활개를 치고 다닌다.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가정의 유대감은 더없이 약화되었다. 아마 대부분의 아버지는 전쟁터로 갔고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했으리라. 그 결과로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떼거리를 이루면서 그들만의 규칙 즉, 폭력단의 규칙을 만들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 그리고 종교적 믿음이라는 덕목이 되살아나기 전까지는 10대들의 범죄가 계속 늘어나리라고 본다. 우리 모두가 정신적 훈련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으리라. 영적 훈련은 필수적인 것이다. 고도로 훈련된 군대와 무질서한 오합지졸의 차이는 바로 그 절제력에 있다.

제 27 과

이번 교과에서 우리는 오랜 친구인 잠재의식(무의식)을 전면으로 끌어 내려 한다. 인간이 어떻게 최면에 걸리는가를 이해하려면 먼저 의식과 잠 재의식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사실상 하나의 몸속에 있는 두 사람과 같다. 그중 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크기가 9 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소인이지만 온통 간섭하고 빠기고 나대고 통제하길 좋아한다. 반면에 다른 사람은 지성이 없지만 성격은 온화한 거인에 비유된다. 소인인 의식은 이성과 논리가 있지만 기억을 못하고, 거인인 잠재의식은 이성과 논리가 없지만 기억을 잘한다. 당 사자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 심지어 출생 이전에 일어났던 일조차도 잠재 의식은 저장하고 있다. 따라서 적당한 방식의 최면을 통해 우리는 그런 기억을 되살려 분석해볼 수 있다.

우리의 육체를 하나의 커다란 도서관으로 상상해보자. 전면의 사무실 또는 데스크에는 여직원 w 서)이 한 명 있다. 그녀는 많은 것을 알진 못하 지만 ,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마다 즉시 그것을 담은 책들을 찾아내는 특 기가 있다. 그녀는 도서목록을 꿰고 있어서 금방 원하는 책을 찾아낸다. 이처럼 의식은 이성을 갖고 있어서 — 물론 가끔 부정확할 때도 있지만 - 나름의 논리를 구사할 수 있지만 대신 기억력이 없다. 잘 훈련된 의식 의 장점은 , 잠재의식을 헤집으면서 기억세포에 저장된 정보들을 검색하는 능력에 있다.

잠재의식과 의식 사이에는 소위 '스크린(칸막이)과 같은 것이

잠재의식은 그 스크린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즉 의식이 아무 때나 잠재의식을 탐색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의식이 곧 잠재의식을 오염시켜버릴 테니까.

우리는 잠재의식이 기억력은 있으나 이성이 없다고 말했다. 거기에도 이유가 있다. 기억력과 이성이 결합한다면 어떤 정보들은 왜곡될 수밖에 없게 된다. 아마도 이성을 갖게 된 잠재의식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 그 기억은 우스꽝스럽네. 말도 안 되는 기억이잖아. 내가 뭔가를 잘못 받 아들인 게 틀림없어. 그러니 기억은행을 개조해 M 군." 이런 이유로 잠재의식은 이성이 없고, 의식은 기억이 없게 된 것이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잠재의식은 이성이 없다. 그래서 잠재의식은 주어진 제안에 수동적으로 반응할 뿐이다. 잠재의식은 그것이 진실이든 허위든, 주어진 정보를 기억창고에 보관할 뿐이지 그 정보의 진위를 평가할 능력은 없다.

둘째, 의식은 한 번에 하나의 생각에만 집중할 수 있다. 우리는 끊임 없이 사물을 보고 듣고 만지고 해석하고 판단한다. 그런데 만일 잠재의식에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다면 온갖 정보가 쏟아져 들어와서 우리의 기억창고는 쓸모없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금세 어지럽게 돼버릴 것이다. 그래서 잠재의식 앞에 있는 칸막이 (스크린)가 잠재의식으로 들어오려는 정보들 가운데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 것들을 따로 걸러내고, 의식으로 하여금 이 성과 논리를 활용하여 그것들을 살펴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도록 한다. 이런 이유로 의식은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하는 것이다.

니다. 생각은 대단히 빨리 바뀐다. 생각이 번개보다도 빨리 바뀐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비록 당신은 두세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한다고 믿겠지만, 과학자들이 주의 깊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 생각에만 주의를 둘 수 있다.

이미 말했듯이 잠재의식의 기억창고는 당사자에게 일어났던 모든 경험을 간직하고 있다. 소위 스크린, 즉 의식의 문턱 또는 칸막이 자체가 정보의 진입을 막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잠재의식의 기억창고 속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그러나 논리적이며 이성적인 두뇌가 세밀히 따져보아야 하는 정보는 의식의 평가가 끝날 때까지 저장되어 보류된다.

그러면 이제 최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보자. 잠재의식은 분별력도, 지성도, 논리도 없다. 그래서 특정한 정보를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 의 스크린 너머로 강제로 보내버리면, 잠재의식으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단 하나의 생각에 의식적인 주의를 집중할 때는 피암시성이 높아진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곧 최면 상태에 들 거라는 생각을 주입하고 그 자신도 우리의 말을 믿는다면, 그는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자신은 최면에 걸리지 않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런 자랑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자신의 피암시성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은 피암시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왜냐하면 반복하건대, 상상력과 의지력이 충돌하는 경우엔 언제나 상상력이 이기기 때문이다. 그들은 최면에 걸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상력은 더욱 화를 내면서 "너는 틀림없이 최면에 걸릴 거야"라고 단언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을 '잃어버린다'.

히 언급한다고 나뉠 것은 없을 것이다. 최면에서 첫 번째 할 일은, 특정한 방법으로 피험자의 주의를 끄는 일이다. 의식은 한 번에 하나의 생각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험자의 의식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암시를 잠재의식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 된다.

보통 최면술사는 반짝이는 단추나 유리조각처럼 눈을 사로잡는 것들을 보이면서, 피험자에게 그 반짝이는 물체에 주의를 집중하라고 거듭 요구한다. 그가 이런 연출을 하는 목적은 피험자의 의식을 사로잡아서 모종의 공작이 배후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면술사는 그 물체를 눈높이보다 조금 위에 들고 있을 것인데, 왜냐 하면 그래야 피험자의 두 눈이 부자연스런 긴장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몸에서 가장 약한 부위랄 수 있는 눈과 눈꺼풀의 근육이 금방 피로를 느끼게 된다. 몇 초 만에 눈이 피곤해지고 눈물이 나기 시작할 것이다.

바로 그때 최면술사는 눈이 피로하니 자고 싶을 거라고 말한다. 물론 피실험자도 눈을 감고 싶어한다. 최면술사가 그 근육들을 몹시 피곤케 만들었기 때문이다. 눈이 피곤하다는 단조로운 말을 반복해서 듣는 동안 피험자는 따분함을 느끼며 결국 긴장을 놓아버린다. 솔직히 피험자는 이제 모든 것을 지루하게 느끼고, 그저 기분 좋게 잠들어서 뭔가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다.

이런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면 피험자의 피암시성이 높아진다. 즉 최면에 잘 걸리는 습관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최면술사가 피험자더러 "눈이 피곤하다고 말하면 그는 그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이전의 경험에서 이미 눈의 피로가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이 피곤하다”는 최면술사의 말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최면술사의 말도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최면술사들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임산부가 완전한 무통분만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치과 환자가 두려움 없이 이를 뽑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은 약간의 연습이 필요할 뿐, 원리는 더없이 간단하다.

최면의 요체는, 피험자가 최면술사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최면술사는 피험자가 자신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가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명백히 누워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서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미숙한 짓이다. 최면술사들은 피험자에게 뚜렷이 입증된 것들만을 말한다. 예컨대, 최면술사는 피험자에게 팔을 쪽 펴게 시키고는 피험자의 팔이 피로해질 즈음에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팔이 피로해지고 있습니다. 팔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팔이 피로해지고 있습니다.” 피험자는 당연히 그 말에 쉽게 동의한다. 팔이 피로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니 까. 또한 다소 몽롱한 상태이므로 “이 천치야, 팔을 이렇게 뻗치고 있으니까 당연히 피로하지” 하는 식으로 반박하지도 않는다. 대신 그는 최면술사가 뭐라고 하든 그 말에 진실한 힘이나 능력이 담겨 있다고 믿는다.

장래에는 내과의와 외과의들이 점점 더 최면의 방법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무통을 위한 최면은 후유증이 전혀 없다. 어떤 고통과 혼란도 뒤따르지 않는다. 또한 최면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거의 모든 사람이 최면 암시에 감응한다. 자신은 최면에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게 최면을 거는 일은 그만큼 쉬워진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최면을 거는 일엔 관심이 없다. 잘 훈련된 최면술사가 아니라면 그것은 때로 위험하고 사악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대신 우리는 당신이 자기최면을 익히도록 돕는 데 관심이 있다.

자기최면을 활용하게 되면 당신은 나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추운 날씨에 체온을 높이는 등의 여러 가지 유용한 일들 도할 수가 있다.

서양에서는 누구도 즉각 최면에 걸리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그것은 틀린 말이다. 동양의 특정한 방법으로 훈련했다면 그 누구에게라도 즉각 최면을 걸 수 있다. 다행히도 그런 훈련을 받은 서양인은 많지 않다.

최면을 통해서 피험자더러 도덕적이지 못한 일을 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 역시 거짓이다. 전적으로 거짓이다. 물론 정당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최면을 걸고 "이제 나가 서 은행을 터시오"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 피실험자는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최면에서 깨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수완 좋은 최면술사는 교묘한 명령을 통해서, 피험자로 하여금 마치 놀이나 게임에 참가하고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최면의 묘사스런 측면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할 생각이 없다. 부도덕하거나 미숙한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최면은 때로 몹시 위험할 수 있다. 명성 있고 경험이 풍부하며 고도로 훈련된 의사가 직접 보살피는 최면치료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당신이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면술과 어떤 관계도 갖지 말기를 권한다.

물론 우리의 지시를 따라 자기최면을 익히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최면을 통해서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제 28 과

지난 교과에서 우리는 왜 우리가 '한 몸 속의 두 사람'인지를 살펴보았다. 그중 한 사람은 의식이었고, 다른 사람은 잠재의식이었다. 이 둘은 거의 독립적이고 분리된 실체로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

잠재의식은 모든 지식의 저장고로서, 기록보관인 또는 수석사서라고 불릴 만하다. 잠재의식은 결코 그 저장고 밖으로 외출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장하는 일 외엔 일절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잠재의식은 오직 명령 받은 대로만 일을 처리한다.

반면에 의식은 기억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 또는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 비유될 수 있다. 의식은 활동적이고 툭툭 튀는 기질로써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잠재의식을 정보검색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불행히도 또는 다행스럽게도, 잠재의식은 모든 유형의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때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잠재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다. 우리는 적절한 방식의 최면으로써 피험자를 태어나기 이전의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할 수 있다. 우리는 그가 지상으로 내려올 계획을 짜던 시점까지도 추적해볼 수 있다. 그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길게 다루고자 하는 사안은 아니다.

이번 교과의 목적은 자기최면의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다. 타인에 의한 최면은 강력하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식을 추천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의료적 목적일 때조차 충분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

각한다. 예컨대 한 명의 의사가 홀로 환자에게 최면을 걸게 해서는 안 된다. 항상 둘 이상의 의사가 동석해야 한다. 또한 피험자에게 해가 되는 어떤 암시도 줄 수 없도록 하는 강제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최면을 활용하는 의사들은 3 년마다 직업윤리를 위한 일종의 자기최면 과정을 이수하도록 했으면 한다. 그런 안전장치가 없으면 환자들은 의사의 수중에서 놀아나게 된다. 물론 대다수의 의사들은 영예롭고 직업윤리에 투철하지만, 이따금 엉큼한 작자들도 없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제 자기최면 능력을 계발해보자. 이 교과를 제대로 공부하면 당신은 내면에서 생각지도 못한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열쇠를 쥐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저 의미 없는 말의 성찬일 뿐, 당신은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침실로 가서 커튼을 치고 외부의 빛을 차단하라. 그리고 당신의 눈높이보다 약간 위쪽에 야간등처럼 그다지 밝지 않은 조그만 전등 하나만 켜두라. 그 외의 모든 전등은 꺼놓으라.

이제 최대한 편안하게 사지를 뻗고 침대에 누우라. 눈도 감으라.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저 고르게 숨을 쉬면서 생각들이 오가는 대로 내버려두라. 그리고 1~2 분 후에 정신을 다잡으면서, 주 단호하게 긴장을 풀고 이완 상태가 되겠다고 선언하라.

당신 자신에게 신체의 모든 긴장을 풀겠다고 말하라. 발가락을 생각하고 거기에 주의를 집중하라. 오른쪽 발가락에 먼저 주의를 집중하는 편이 수월할 것이다. 당신의 온몸을 커다란 도시라고 상상하라. 그리고 신체의 모든 세포를 주 작은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다고 상상하라. 그 소인들은 당신의 근육과 힘줄을 움직이고 세포를 보살핀다. 그들로 인해 당

하지만 지금 당신은 이완되길 원하고 있다. 당신은 이 소인들이 웅웅 대면서 이곳저곳을 들쭉시면서 혼란을 일으키길 원하지 않는다. 먼저 오른쪽 발가락에 집중하라. 오른쪽 발가락의 소인들에게 행진을 시작하라고 말하라. 발가락에서 발로, 발등으로, 다시 발목으로 행진하라고 말하라. 그들이 장딴지를 거슬러 무릎까지 행진하도록 하라.

뒤에 남겨진 당신의 오른쪽 발가락은 축 늘어지면서 완전히 이완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는 소란을 일으킬 소인들이 남아 있지 않으니깐. 소인들은 전부 당신의 다리를 거슬러 행진하고 있다.

이번엔 당신의 오른쪽 장딴지가 이완되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질 것이다. 당신의 오른쪽 다리 전체가 나른하고 맥빠지고 둔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을 만큼 이완되었다. 소인들은 이제 당신의 오른쪽 눈까지 행진해왔고, 당신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들로 하여금 방벽을 설치하도록 하여 어떤 소인도 몰래 되돌아갈 수 없도록 단속해두었다. 이제 당신의 오른쪽 다리는 발가락부터 허벅지까지 남김없이 이완되었다. 확인한 후에 왼쪽 다리로 주의를 옮겨보라.

육체라는 공장에 업무종료 호각을 불어서 소인들로 하여금 서둘러 일을 끝내고 작업기계를 떠나 집으로 쉬러 가게 한다고 상상해도 좋다. 소인들은 맛있는 저녁 요리를 기대하며 발걸음을 재촉한다. 그들을 당신의 왼쪽 발가락에서 서둘러 쫓아내라. 그들을 발등으로, 발목으로, 장딴지로, 무릎으로 바쁘게 몰아내라. 그러면 뒤에 남겨진 왼쪽 다리는 남김없이 이완되고나른해질 것이다. 거의 당신의 몸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리라.

소인들을 무릎 위로, 허벅지 위로 계속 올려보내라. 그리고 오른쪽 다리의 경우처럼, 왼쪽 눈가에서도 상상속의 경찰들이 방벽을 쌓아 이 무도

당신의 왼쪽 다리가 남김없이 이완되었는가? 확인하라. 만일 그렇지 않다면 소인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비키라고 다시 명령하라. 이제 당신의 두 다리는 텅 빈 공장이 되었다. 정비공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집으로 돌아갔으므로 어떤 소란도 소음도 일어나지 않는다.

같은 일을 당신의 오른쪽 손과 팔, 그리고 왼쪽 손과 팔에서도 반복하라. 그 모든 소인들을 이동시키라. 양치기가 영민한 개를 부리면서 양 떼를 이동시키듯이 소인들을 행진시키라. 당신의 목적은 소인들을 손가락에서, 손바닥에서, 손목에서 몰아내어 팔꿈치 위로 이끄는 것이다. 그들을 남김없이 이동시키라.

당신에게는 이완이 필요하다. 모든 정신적 교란으로부터, 내적 잡음과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잠재의식을 열어볼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은 평범한 사람들에게겐 주어지지 않는 힘과 지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은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당신은 그 소인들을 사지로부터 몰아내고, 최종적으로는 당신의 몸을 아예 떠나게 해야 한다.

팔과 다리를 전부 완전히 이완시키라. 당신의 몸을 마치 모든 주민이 지역경기의 결승전을 보러 간 후의 주택가처럼 만들라. 엉덩이, 등, 배, 가슴에서도 같은 일을 하라. 지금 소인들은 당신에게 성가신 존재다. 그들은 생명유지에 필요하지만, 지금 당신은 그들이 잠시 휴가를 떠나주길 바란다. 그들을 은줄을 따라 행진시키라. 당신의 몸에서 완전히 떨어지게 하라. 그들의 소란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럴 때 당신은 완전히 이완되어 내면에서 일찍이 생각도 못한 평온을 느끼게 된다.

모든 소인을 당신의 은줄로 운집시켜 떠나보냄으로써 온몸을 비운 후에는, 그 은줄 끝에 몇몇 감시인들을 두어 어떤 소인도 몰래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속하라.

숨을 깊게 들이쉬라. 부드럽고 깊고 충분히 숨을 들이쉬라. 그리고 몇 초간 숨을 참았다가, 다시 천천히 그 숨을 내쉬라. 호흡은 아무런 긴장도 없이 편안해야 하고, 안락하고 자연스러워야만 한다.

호흡을 다시 반복하라. 부드럽고 깊고 충분히 숨을 들이쉬라. 그리고 몇 초간 숨을 참으라. 당신의 심장이 “쿵, 쿵, 쿵” 하고 뛰는 소리가 귀 안에서 들릴 것이다. 이젠 다시 숨을내쉬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당신 자신에게 몸이 완전히 이완되어 기분 좋게 늘어지고 편안하다고 말하라. 자신에게 내부의 모든 근육이 이완되어 아무런 긴장 없이 다만 평온과 안락과 휴식뿐이라고 말하라. 한가롭게 당신의 머리, 안면근육, 발가락, 무릎, 엉덩이를 살펴보라. 그 이완된 느낌, 긴장 없는 느낌, 당김이나 비틀림 없는 느낌이 얼마나 유쾌한지를 말해보라. 당신은 아주 편안 하게 휴식 중이고, 당신 몸의 모든 근육과 모든 신경과 모든 조직은 완전 히 이완되어 있다.

자기최면을 통해 뭔가를 하려면 먼저 자신이 완전히 이완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당신이 이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번 한 번 또는 두 번뿐일 것이다. 자기최면을 몇 차례 시도하다 보면, 모든 것이 너무 나 자연스러워서 왜 진작 이걸 해보지 않았는지 의아스러울 정도가 된다. 그러니 이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시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라. 천천히 시도해보라.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다. 당신은 자기최면이란 것을 전혀 모르는 채로 여태껏 살아왔다. 그러니 몇 시간 더 투자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겠는가. 마음을 놓고 긴장을 풀라. 너무 애쓰지도 말라. 애를 쓰면 곧 의심과 주저함, 근육의 피로가끼에서오리라.

만일 몸의 특정 부위가 이완되지 않았다면 그곳에 더욱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라. 그부위에는 아주 성실한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업무

시간이 끝난 후에도 하고 있던 일들을 마저 끝내고 싶어한다. 그들을 설득하여 떠나보내라. 어떤 일도 당신이 지금 시도하는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몸속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무척 긴요한 일이다.

이제 몸의 모든 부분이 이완되었다는 확신이 들면 눈을 떠서 아까 커튼 작은 전등을 주시하라. 눈높이보다 약간 위쪽의 그 전등을 응시하다 보면 눈과 눈꺼풀에 피로가 느껴지기 시작한다. 멋지게 타오르는 그 적색을 보고 있자니 졸음이 찾아든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 열을 센 후에 눈을 감고 싶다고 말하라. 그러고는 수를 세라. "하나~ 둘~ 셋~ 눈이 피곤해지고 있어. 넷~ 그래, 졸립구만 다섯~ 더는 눈을뜨고 있을수가 없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라. "아홉~ 눈이 막 닫히려려고 해. 열~ 이젠 눈을 뜨지 못해. 눈꺼풀이 내려^거든."

요점은 스스로 아주 뚜렷하게, 조건반사적 행동 패턴을 설정해두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다음번에는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고, 즉 이완하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그저 숫자만 세어도 충분하게 된다. 앞으로 당신은 숫자만 세어도 스스로 최면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다.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열을 세어도 눈이 저절로 감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눈이 스스로 감기지 않으면, 짐짓 최면상태에 든 듯이 그냥 눈을 감아버리면 그만이다. 하지만 너무 자의적으로 해버리면 조건반사적 행동 패턴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것만 주의 하도록 하라.

당신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을 수도 있다. 구체적인 말이 어떻든 큰

상관은 없다. 아래의 글은 당신이 자신만의 공식을 만들 수 있도록 힌트를 주기 위함이다.

“내가 열까지 세는 동안 눈꺼풀은 아주아주 무거워지고 피로해질 것이다. 내 눈은 스스로 감길 것이고, 열을 세고 난 후에는 전혀 떠지지 않을 것이다. 눈이 감기는 순간 나는 완전한 자기최면 상태에 빠진다. 그렇지만 나는 절대로 의식을 잃지 않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듣고 인식할 것이다. 나는 잠재의식에게 내가 원하는 바를 주문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아까 했던 것처럼 수를 세면 된다.

“하나~ 둘~ 내 눈꺼풀이 나른해진다. 눈이 피로해진다. 셋~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다. 아홉~ 눈을뜨고 있지 못하겠다. 열~ 눈이 감겼다. 나는 자기최면에 들었다.”

이번 교과는 여기까지다. 이번 교과는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이 정도로 끝내지만, 당신이 더욱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습하길 바란다. 더 앞서 나간다면 당신은 오히려 많은 것을 잃을 뿐 얻을 것은 없을 것 같다.

그러니 이번 교과를 반복하고 반복해서 공부하지 않겠는가? 정말 과학하게 되풀이하고 있지만, 이 기법을 공부하고 습득하고 연습한다면 틀림 없이 당신은 경이로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제 29 과

지난 교과에서 우리는 자신을 최면 상태로 이끄는 방법을 다루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몇 번이건 연습하면 된다. 제대로 연습만 하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쉽게 최면 상태로 진입할 수 있다.

이번에는 자기최면을 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자. 자기최면은 스스로 어떤 단점을 제거하고 어떤 덕목과 능력은 강화시키기 위함이다. 그런데 단점이란 무엇이며 덕목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분명하게 자신의 단점과 덕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진심으로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의지가 약한가? 그렇다면 원하는 모습의 자기 자신을 그려보라. 강한 의지와 통솔력을 갖고 한계를 극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주도하는 모습 말이다.

이 '새로운 당신'을 줄곧 생각해보기 바란다. 이 '당신'의 모습을, 인기배우가 자신이 맡은 역할에 몰입하듯이 눈앞에 항상 떠올려 간직하라. 당신은 자신의 심상화 능력을 한껏 발휘해야 한다. 원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심상화할수록 당신은 목적을 빨리 달성할 수 있다.

스스로 최면 상태로 들어가는 연습을 부단히 하라. 그렇지만 늘 조용하고 어두운 방에서 연습해야 함을 잊지 말라. 자기최면에는 아무런 위험 요소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약간의 방해물, 예컨대 한 줄기 찬바람조차도 당신을 평소의 각성 상태로 급히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복하지만 자기최면에는

위험요소가 없다. 당신이 자기최면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일은 절대
로 없다.

당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흔한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겠다. 이 피험자
는 자기최면을 많이 연습했다. 그는 자신의 어두운 방으로 가서 눈썹 높
이에 작은 네온등을 켜고, 침대 또는 소파에 편안히 자신을 내맡긴다. 한
동안 그는 몸을 이완시켜 온갖 긴장에서 벗어난다.

곧 그는 경이로운 기분에 푹 빠져든다. 마치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지
면서 몸과 관련된 근심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다. 그는 더욱더 깊이 이완
하고 상상 속의 손을 뻗어서 어딘가 긴장하거나 경직된 근육이 없는지,
경련이나 통증은 없는지를 살핀다.

완벽한 이완에 만족한 그는 이제 작은 네온등을 응시한다. 그의 눈은
똑바로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위쪽을 향하고 있다. 곧 그의 눈꺼풀이
나른해지기 시작한다. 눈꺼풀이 조금 썰룩대더니 1~2 초가량 감긴다. 다
시 열린 눈꺼풀 아래로는 약간의 눈물기가 어른댄다. 눈꺼풀은 썰룩거리
며 떨다가 다시 감긴다. 그리고 한 번 더 눈꺼풀이 열리는데, 이번엔 힘이
좀 드는 모습이다. 이제 눈꺼풀은 더없이 피로하고 나른하다. 깊은 최면
상태에 이르기 직전인 것이다. 1 초도 못 가서 눈꺼풀은 다시 굳게 닫힌 다
몸은 한층 더 이완되었고, 숨소리도 찾아들었으며, 그는 완전한 최면
상태에 들었다.

이제 그를 잠시 내버려두자. 그 상태에서 그가 무엇을 하는지는 우리
의 관심사가 아니다. 우리도 각자 최면 상태로 진입하여 자신만의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니 그로 하여금 스스로 계획했던 일을 끝마치도록 하자.

아마도 그는 실험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자신이 얼마나 깊은 최면 상
태에 들 수 있는지, 얼마나 확고부동하게 잠들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듯

하다. 그는 의도적으로 자연의 규칙을 무시하려고까지 했다. 자기 자신에게 '깨어나지않을작정'이라고말했으니까!

몇 분이 흘러간다. 10분? 20 분? 숨결이 바뀌면서 그는 최면 상태를 벗어난다. 이제 그는 지금 숙면 중이다. 30 분쯤 지난 후에 그는 무척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난다. 하룻밤 내내 잤을 때보다도 훨씬 더 활기찬 모습이다.

이처럼 당신이 최면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일은 없다. 자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좀 어수룩한 거인과도 같다. 그 거인에게는 지성이 없으므로, 당신은 그를 설득하여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다. 하지만 그 거인도 머지않아 "내가 놀림을 당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럴 때 그는 최면 상태를 슬쩍 밀어낸다.

그렇다 해도 당신은 그저 잠에 빠지는 것뿐이므로 어떤 위해나 불편도 겪지 않는다. 당신은 전적으로 안전하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 자신에게 최면을 건 것이지 다른사람의 암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우리는 한 줄기 찬바람도 피험자를 깨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사실이다. 아무리 깊은 최면 상태에 들었더라도 온도가 변하거나 신체를 해할 요소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방 정신을 차리게 된다. 만일 당신이 최면 상태에 있는데, 집안의 누군가가 창문을 열어서 방문 틈이나 열쇠구멍으로 한 줄기 찬바람이 당신에게 불어온다고 하자. 그때 당신은 안전하게, 고통 없이 깨어난다. 물론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수고를 피할 수는 없다. 그것이 바로 미리 외풍과 소란을 차단해둬야 하는 이유이다.

항상 당신은 자신이 획득하고자 하는 덕목에 집중해야 한다. 또는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집중해야 한다. 최면에 앞서 며칠

동안은 산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능력을 머릿속에 그려 두어야 한다. 실천 당일에는 온종일 몇 번이고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오늘 밤 이리이러한시각에 자기최면을 할작정인데, 최면 상태에서는 원하는 덕목이 더욱 뚜렷이 그려질 것이다.” 그리고 최면 상태에 들어갈 때도 당신이 원하는 바를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그리라.

조금은 바보 같은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 자세가 꾸부정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너무 게을러서 똑바로 서질 못한다고 하자. 당신은 그로 하여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도록 시킨다. “나는 똑바로 서겠다. 나는 똑바로 서겠다. 나는 똑바로 서겠다.” 요점은 간격을 두지 말고 이 말을 몇 번이고 재빨리 반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격을 두게 되면 오랜 친구인 잠재의식이 끼어들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어허, 당신은 결코 진실을 밝히지 않는구먼. 당신은 몹시 꾸부정한 사람이야.” 만일 간격을 두지 않고 반복한다면 잠재의식은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로 그말의 힘에 압도당해서 스스로똑바로 서리라고 믿게 된다. 당사자가 그렇게 믿으면 정말로 근육이 팽팽해지면서 그는 원하던 대로 똑바로 서게 된다.

당신은 담배를 자주 피우는가? 술을 많이 마시는가? 당신도 과도한 음주와 흡연이 건강에 나쁘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소모적이고 유아적인 습관으로부터 당신의 지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자기최면을 사용하지 않는가? 당신은 자신의 잠재의식에게 ‘난 흡연을 싫어해’라는 믿음을 주입시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어떤 고통도 없이, 단 한 번의 흡연 욕구도 없이 담배를 끊을 수 있다.

사람들은 담배를 끊지 못한다. 흡연은 지극히 깨기 어려운 습관이다. 틀림없이 당신도 “담배 끊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신문지상의 광고들은 다양한 금연 방법을 내세우며 당신의 주의를 끈

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또 다른 형태의 최면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가? 당신은 담배를 끊지 못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또한 광고들이, 담배를 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암시를 계속 주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최면을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 당신은 무지한 군중과는 다르다. 당신은 독특한 존재이다. 당신은 주도적으로 담배, 술, 그 외 무엇이든 끊고자 하는 것을 끊을 수 있다. 세상의 무작위적인 암시가 당신으로 하여금 흡연 습관은 깨뜨릴 수 없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했듯이, 당신은 의도적인 자기최면으로써 반대로 그걸 깨뜨릴 수 있다. 당신은 다시는 담배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있다.

그러지만 경고 또는 우호적인 충고 한마디를 덧붙여야겠다. 당신은 정말 담배를 끊고 싶어하는가? 진심으로 술을 끊거나, 약속에 늘 지각하는 습관을 바꾸려 하는가? 스스로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담배를 끊기를 원한다고, 또는 이런저런 것을 하고 싶다고 확신해야 한다. 나약한 의지로써 이렇게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어. 그러겠다고 나 자신에게 한 번 말해볼게."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정말로 원하는 것만을 잠재의식 속에 가라앉힐 수가 있다. 따라서 스스로 담배를 끊겠다는 마음이 확실치 않으면, 당신은 담배를 끊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이 피워대게 될지도 모른다.

당신 자신을 세밀하게 관찰하라.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어깨너머로 들여다보지 않는다. 아무도 당신의 마음을 엿보고 있지 않다. 당신은 정말 담배를 끊길 원하는가? 아니면 담배를 계속 피우고 싶고, 금연 선언은 단지 입버릇에 지나지 않

일단 스스로 뭔가를 원한다고 전적으로 확신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최면을 탓하지는 말라. 비난의 대상은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실패한 유일한 이유는 당신의 결의가 그다지 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최면으로써 당신은 소위 "나쁜 습관"이라 불리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치유할 수 있다. 불행히도 우리는 나쁜 습관들을 자세히 관찰해볼 기회가 없어서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늘어놓진 못하겠다. 아마도 아내를 괴롭히거나, 남편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애완견을 발로 차거나, 이유 없이 타인에게 욕을 하거나, 술독에 빠지는 것 등등이 거기에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확실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간단히 치료될 수 있다.

자신을 한두 차례 이완시켜보라. 내면의 긴장을 떨쳐냄으로써 당신의 에너지를 쇄신하라. 이번 교과와 앞선 교과를 읽고 연습한다면 당신의 건강은 대단히 증진될 것이다. 가장 위대한 음악가들조차도 음계와 음표를 날마다 쉬지 않고 연습한다. 그것이 그들이 위대한 이유이다. 우리가 말한 대로 한다면 당신도 위대한 자기최면술사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연습라.

제 30 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하는 몹시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문명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을 '머리를 쓰는 사무직'과 '손을 쓰는 노동직'으로 분류하곤 한다. 이것은 꼭 근절되어야 하는 일종의 속물근성이다. 왜냐하면 형제와 형제가, 인종과 인종이 서로 맞서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정신노동이든 육체노동이든 간에, 당사자가 맑은 양심을 갖고 괜한 부끄러움 없이 하는 일이라면 전적으로 신성한 것이다.

어떤 나라에선 명문가의 여주인이 직접 손을 써서 일을 하면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그녀는 앉아서 예쁘게 보여야 하고, 그저 이따금 지시를 내려 여주인임을 나타내기만 해야 한다는 관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대 중국에서 소위 상류계급의 사람들은 손톱을 우스꽝스럽도록 길게 길렀다. 그리고 긴 손톱이 부러지지 않도록 특별한 덮개로써 보호했다. 손톱을 길게 기르는 것은 그가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부유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긴 손톱은 그의 무능력을 드러 내는 증거다. 손톱을 길게 기르면 자신의 몸조차 돌볼 수가 없으므로, 그는 하인들에게 실로 모든 일을 시켜야만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침입이 있기 전에는 티베트에서도 일부 귀족들은 — 이들은 좀더 철이 들었어야 했다 — 소매가 양손을 전부 덮고도 아래로 수십 센티미터는 늘어지는 옷을 입었다. 이는 그들이 유력인사이고 부유하여 일할 필요가 없다는 징표였다. 그 길고 긴 소매를 통해서 그들은 스스로 일할 필요가 없는 지위임을 부단히 되새김질했다. 참으로 일의 진정

한 목적을 망각한 무지의 소치였다.

일이란 일종의 규율이며 훈련이다. 정예부대와 무질서한 오합지졸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나온다. 10대 청소년들을 예의 바른 시민으로 길러 내는 것 또한 가정의 훈육이다. 이러한 훈육이 없다면 가족점퍼를 입고 오직 파괴만을 일삼는 얼간이들로 세상은 가득 찰 것이다.

우리는 티베트의 잘못된 관념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일부 귀족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이었다. 승원에서는 모든 사람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해진 기준만큼 막일을 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다.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이 있기 전에는, 대승원장이 최하층 승려가 마루에 쌓아놓은 쓰레기를 손수 치우는 모습이 결코 이례적인 광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상의 삶은 일시적인 것이며, 오늘의 거지가 내일은 왕자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왕자가 내일은 거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이 었다. 이미 유럽과 그 밖의 여러 지역에서는 더 이상 왕관을 쓴 왕족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역할을 맡지 않는다. 물론 그들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겠지만, 어쨌든 요지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 다사^이다.

다시 말하건대, 일이란 그 성격이 어떻든 간에 - 정신노동이든 육체노동이든 간에 - '순수한 동기'와 '타인을 위한 봉사'라는 관념만 있다면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지 결코 폄훼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도도하게 앉아서 보수도 변변찮은 하인들을 휘두르는 여성들은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는 금붙이로 치장한 숙녀들이 아니라 그녀의 하인들을 존경해야 한다. 하인들은 뭔가 영예로운 일을 하고 있지만 숙녀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우리는 육식에 관한 다소 과열된 토론을 본 적이 있다. 육식에

관한 우리의 견해는 이렇다. 육식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두고, 채식을 위하여 나무에 올라가 열매를 따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렇게 하도록 두자는 것이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는가 하는 문제는, 자신의 잘못된 의견을 타인들에게 억지로 주입하지 않는 한 어떠한 상관없는 일이다.

사람은 동물이다. 아무리 화려한 의복과 아름다운 화장품과 염색약으로 치장하더라도 우리는 동물이다. 그리고 육식동물이다. 실제로 인육은 돼지고기와 맛이 비슷하다고 한다. 돼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영 틀린 말은 아닌 듯싶다. 식인종은 인육의 맛이 어떠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 "흑인의 살은 좀 달면서 구운 돼지고기 같고, 백인의 살은 확실히 좀 고약한 데가 있고 시큼한 것이 한물간 소고기 같다."

우리는 육식을 원하면 육식을 하고, 채소나 곡물을 원하면 그렇게 하라고 제안한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주입하려고 해서 안 된다. 슬프게도 채식주의자들이나 건강식품 애호가들은 종종 극 단적인 견해를 취하면서 격렬한 논쟁으로 자신들을 합리화하곤 한다. 우리가 괴짜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은 도무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확신이 없어 보인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고기를 즐기는 가운데 자신들만 채식주의자가 될 생각이 전혀 없다. 비흡연자들도 마찬가지다. 비흡연자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흡연에 크게 분개한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대단한 덕목인 양 생각하는 듯하다.

사실상 이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흡연은 지나치지만 않으면 그다지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음주는 분명히 해로운데, 그 이유는 유체에 간섭하여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어쨌든 누군가 음주를 즐기

다가 유체를 손상시켰다고 해도 그것은 당사자의 선택이다. 다른 사람의 진로를 바꾸기 위해 강제로 설득하는 것은 주 잘못된 일이다.

육식이라는 주제를 논하다 보니 살생이라는 개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곤충일지라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것이 소든 말이든, 생명이 있는 것을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말라리아를 감염시킬 위험이 있는 모기를 죽이는 게 과연 중 한죄인지, 바이러스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생명에 대한 범죄인지 우리는 의아하기만 하다. 세균과 바이러스도 생명체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핵균 과 암세포를 죽이는 일도 정의롭지 못하니 중단되어야만 하는가? 감기를 치료하겠다는 것도 커다란 죄가 되는가? 병을 치료하고자 할 때 , 분명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살생을 하게 된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대해 합리적 이어야 한다.

채식주의자들은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럼 양배추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가? 채식을 위해 양배추를 땅에서 뽑아내는 것도 생명을 파괴하는짓이다. 감자, 샐러리 한줄기, 그 밖의 무엇을취하든 우리는 결국 생명을 파괴하게 된다. 채식주의자도 육식주의자 만큼이나 생명을 파괴하는데 왜 우리가 몸이 요구하는 대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인^竹

선량한 불교신자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들 말한다. 물론 많은 불교 신자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예컨대 티베트에서 고기는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사치 품목이었다. 보통 사람들은 채소와 참파를 먹었는데 , 실은 채소조차도 꽤 귀한 음식이었다. 사치에 물들지 않은 승려는 참파만을 먹고 살았다. 그러자 종교지도자들은 음식의 맛에 취해 고기를 먹는 것은 잘못이라고 선포했다.

형편상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덕목으로 여기게끔 유도한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상식을 벗어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육식 주의자는 고기를 좋아한다. 그렇다면 그렇게 놔두자. 채식주의자가 샐러 리 한 줄기를 씹고자 한다면, 그가 자신의 견해를 타인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한 그렇게 놔두자. 마찬가지로 누군가 곤충을 죽이길 원치 않는다면 그렇게 놔두자. 환자가 치료를 받는 대신에 암세포와 결핵균을 보호하고 싶어한다면 그렇게 놔두자.

우리는 큰 고민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종종 편지를 받는데, 그들은 도움과 충고가 필요한 이러저러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최면을 걸거나 설득을 시켜야 그를 다른 생활방식으로 이끌 수 있느냐고 묻는다. 우리는 그런 질문에 전혀 답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진로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시도라고 믿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 강좌에서 우리는 지식을 전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말하고 아는 바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당신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당신이 이 강좌를 택했다면, 추측건대 당신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 당신이 듣고 싶지 않으면 그저 책을 덮어버리면 그만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의견을 요청한다면 의견을 주라.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지는 말라. 의견을 준 것으로 충분하다. 상대가 인생행로를 어떻게 정할지 당신은 알 수 없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다가가는 당신마저 그의 카르마에 붙들리게 될지 모른다. 그것은 실로 불쾌한 상황일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동물에 관해 얘기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

을 그저 네 발로 걷는 피조물로만 여긴다. 사람들은 동물들이 영어나 불어 또는 독일어나 스페인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말 못하는 생물로 여기는데, 사실은 동물들도 인간을 병어리로 여기고 있다. 당신에게 텔레파시 능력이 있다면, 당신은 동물들이 말을 할뿐더러 인간들보다 훨씬 지적이기까지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과학적인 미국인〉(The Scientific American) 최신호에 따르면, 벌들의 언어를

발견해낸 과학자들이 있다고 한다. 벌들은 서로주 상세한 지시를 전할 수 있으며 심지어 회의까지 연다고 한다. 돌고래들의 독특한 대화, 또는 대화로 보이는 그들의 독특한 소리에 흥미를 느끼는 과학자들도 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녹음하여 여러 가지 속도로 재생해보았다. 그러자 어떤 속도에서 그 대화는 마치 인간의 대화와 대단히 닮은 것처럼 들렸다.

동물들도 스스로 진화해가는 와중에 가장 적합한 과업을 이루려고 특 별한 모습과특별한 형태로 이 지상에 내려온 존재들이다. 우리는 비상하게 텔레파시 능력이 뛰어난 두 마리의 삼 고양이와 친구가 되는 행운을 누리고 있다. 그들과 대화하는 것은, 경험만 충분하다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삼 고양이가 바라보는 인간상은 참으로 적나라하다. 만일 동물들을 그저 형태만 조금 다른 우리의 동료로서 여긴다면, 우리는 그들과 아주 가까워질 수 있고 그들과 상 상도 못할 일들을 논의할 수 있다.

예컨대 개는 사람들의 호의를 좋아한다. 개는 사람들을 따르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귀여움받는 것을 좋아한다. 반대로 삼 고양이는 내심 인간을 경멸한다. 인간은 삼 고양이에 비해 정신적 장애가 꽤 심각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삼 고양이는 영적으로 엄청난 힘과 텔레파시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왜 고양이, 개, 말과 사이 좋게 지내지 못하는가? 당신이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말을 진솔하게 믿는다면, 연습을 통해 당신도 동물과 텔레파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드디어 우리는 이 강좌의 끝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이 인연의 끝이 아니길 바란다. 이 실용적인 강좌를 통해서, 우리는 소위 '형이상학적인 현상들이 사실은 얼마나 평이하며 단순한 것인지가 잘 설명되었으리라 믿는다.

우리는 지금 고전적인 주제, 즉 산스크리트어(범어)에서 나온 용어들을 다루는 새로운 강좌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당신이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지금까지 우리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으니 당신은 분명히 한 발 더 나아가길 원할 것이다.

우리는 "안녕, 잘 가요"라고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와 좀더 함께 있어주길 희망하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는 스페인식으로 이렇게 인사하고자 한다.

"하스타라비스타!"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있어요)